

2020

2019

2018

김정은 집권 10년

2016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김병로 김학재 송원준 2013 조동준 최은영 이정철*

2012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장

1. 서론	14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16
3. 설문조사 방법 및 데이터 코딩	18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24
5.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40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44
2. 북한주민들의 지난 10년 간 통일의식 변화와 특성	47
3. 북한주민 통일의식의 심화 분석	63
4. 결론 및 함의	81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90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91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95
4.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99
5. 한반도 안보와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101
6. 남한문화 경험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인식	107
7. 소결	109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114
2. 내부체제 인식 추세 분석	116
3. 결정요인 분석	134
4. 체제의식의 상호연관성	148
5. 결론	156

목 차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162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주민의 친밀감	164
3.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주민의 위협감	172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주민의 마음	179
5. 소결	185

제6장 심화분석 - 경제실패 인식

1. 서론	190
2.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	192
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198
4. 잠정적 결론	205

제7장 남한적응실태

1. 서론	210
2. 탈북과 정체성	213
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 사회의 포용성	223
4. 남한생활에 대한 환상과 부적응, 만족과 어려움	229
5. 결론	244

제8장 결장

• 참고문헌	261
--------	-----

부록

집계표	268
설문지	440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20	〈표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94
〈표 1-2〉 통일부의 '탈북민' 통계	22	〈표 3-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96
〈표 1-3〉 북한주민 통일인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22	〈표 3-4〉 북한주민의 남북한 간 이질성 인식	99
〈표 1-4〉 성별, 연령별 분포	24	〈표 3-5〉 남한문화 경험과 북한주민의 남북한 간 이질성 인식	100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6	〈표 3-6〉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	103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7	〈표 3-7〉 남한의 대북지원과 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105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9	〈표 3-8〉 남한문화 접촉 경험과 대남 안보 인식	107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30	〈표 3-9〉 남한문화 접촉 경험과 대북지원 인식	108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31	〈표 3-10〉 종속변수 기술통계	111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32	〈표 4-1〉 주체사상 자부심 관련 변수 분석	118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34	〈표 4-2〉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20)	119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35	〈표 4-3〉 김정은 지지도 관련 변수 분석	121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37	〈표 4-4〉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122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38	〈표 4-5〉 생산규율 유지 관련 변수 분석	126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39	〈표 4-6〉 사회통제 인식 관련 변수 분석	130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40	〈표 4-7〉 타지역 방문경험 관련 변수 분석	132
〈표 2-1〉 북한체제 정당성 분석 범주와 변수들	69	〈표 4-8〉 직업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137
〈표 2-2〉 북한의 체제 정당성과 군사정치경제통일 인식 순위로지스틱 분석 결과	73	〈표 4-9〉 회귀분석 결과	139
〈표 2-3〉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 여론 순위로지스틱 분석	77	〈표 4-10〉 정치의식 간 상관관계	148
〈표 2-4〉 통일 여론에 북한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순위로지스틱 분석	78	〈표 4-11〉 정치, 경제, 사회 의식 간 상관관계	151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표	92	〈표 4-12〉 주체사상 자부심과 통일방식 교차분석	152

표목차

〈표 4-13〉 주체사상 자부심과 북한의 실제 인식 교차분석	153
〈표 4-14〉 주체사상 자부심과 주변국 친밀감 교차분석	155
〈표 5-1〉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 mlogit 분석	168
〈표 5-2〉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친밀감	170
〈표 5-3〉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mlogit 분석	176
〈표 5-4〉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성별 차이	178
〈표 5-5〉 한국 문화에 접촉과 위협감	178
〈표 5-6〉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182
〈표 5-7〉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mlogit 분석	184
〈표 6-1〉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 mlogit 분석	196
〈표 6-2〉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 순위로짓분석	201
〈표 6-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과 성별 차이	202
〈표 6-4〉 ‘총과 버터’ 논쟁에서 핵무기 보유	204
〈표 7-1〉 탈북동기	217
〈표 7-2〉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227
〈표 7-3〉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따른 남한 생활 만족도	231
〈표 7-4〉 지원정책 만족도, 기대와 현실, 탈북 후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231
〈표 7-5〉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234
〈표 7-6〉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236
〈표 7-7〉 탈북 후 남한 입국 후회	238
〈표 7-8〉 탈북을 후회한 적 있는 이들의 남한에서 느끼는 어려움	239
〈표 7-9〉 전체 조사자와 탈북을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의 어려움 비교	239

그림목차

〈그림 1-1〉 조사 연도별 성별 분포	25
〈그림 1-2〉 조사 연도별 탈북 전 최종거주지	28
〈그림 1-3〉 조사 연도별 당원 여부 분포	31
〈그림 1-4〉 조사 연도별 장사활동 경험 유무	35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49
〈그림 2-2〉 통일의 의지	50
〈그림 2-3〉 통일의 이유	52
〈그림 2-4〉 통일의 방식	53
〈그림 2-5〉 통일의 시기	55
〈그림 2-6〉 통일의 집단 이익	57
〈그림 2-7〉 통일의 개인 이익	58
〈그림 2-8〉 통일 후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60
〈그림 2-9〉 남북교류 협력별 북한주민의 선호도 추세	61
〈그림 2-10〉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남북교류 협력 분석 모델	70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91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분포	92
〈그림 3-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95
〈그림 3-4〉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96
〈그림 3-5〉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본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98
〈그림 3-6〉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지 않은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98
〈그림 3-7〉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102
〈그림 3-8〉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위협	102

그림목차

〈그림 3-9〉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식	104	〈그림 7-7〉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242
〈그림 3-10〉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인식	104	〈그림 7-8〉 지원 주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차이(2017-2019)	243
〈그림 3-11〉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인식	105		
〈그림 4-1〉 주체사상 자부심 연도별 추이(2011-2020)	118		
〈그림 4-2〉 김정은 지지도의 연도별 추이(2011-2020)	121		
〈그림 4-3〉 직장 내 생산 규율의 연도별 추이(2011-2020)	125		
〈그림 4-4〉 사회통제 인식의 연도별 추이(2011-2020)	129		
〈그림 4-5〉 지리적 이동 경험의 연도별 추이(2011-2020)	132		
〈그림 5-1〉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	167		
〈그림 5-2〉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175		
〈그림 5-3〉 주변국의 통일 희망	180		
〈그림 5-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81		
〈그림 6-1〉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a(내부 vs. 외부)	193		
〈그림 6-2〉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b(주요 항목별)	195		
〈그림 6-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 입장	200		
〈그림 7-1〉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입국 현황	214		
〈그림 7-2〉 탈북 동기의 변화 추이	218		
〈그림 7-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221		
〈그림 7-4〉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224		
〈그림 7-5〉 남한주민의 포용성	225		
〈그림 7-6〉 남한생활 만족도	230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서장

제1장 서장

1. 서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주민들의 통일외식을 조사해오고 있다. 분단으로 인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평화연구원은 매해 가장 최근에 북한을 넘어온 이탈주민들에게 그들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가졌던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으로 북한의 국경봉쇄가 더 엄격해지면서,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북한이탈주민조사에서는 지난 10년 간 축적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하여 기존의 연도별 조사들과는 달리 10년 데이터의 추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단순히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한 추세 분석을 넘어, 어떤 기본 특성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특정 생각을 지니는지 변수 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그 근원 변수들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간 북한의 대외관계나 남북관계는 매우 큰 변동을 겪어 왔다. 2017년까지 북한 정권이 대체로 대외 강경 노선 일변도의 길을 걸어왔다면 2018-2019년은 연쇄적인 북미-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화해 국면을 열어놓았다. 이 과정에 북한주민들의 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시 남북 간 협력이 전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다른 방향으로 북한주민들의 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이러한 급격한 남북관계 변화와 지정학적 정세의 변동은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주변국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체제 내부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북한이탈주민 외식조사는 북한 현지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탈주민에 대한 간접 조사 방식의 데이터라는 점에 더해, 이탈주민 전수 조사가 아닌 눈덩이 표본모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으로 진행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10년 치 데이터라 하더라도 대표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하였듯 본 조사는 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 연도의 데이터는 사실상 1년 전 북한주민외식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다루는 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탈북민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인 2020년, 2021년 탈북민 데이터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코로나-19 이후의 북한주민의식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 연구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고 추세 및 상관관계 분석 등 심층 분석 시도를 통해 남북한주민 모두의 통일의식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해 온 국내 유일의 민간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서장에서는 10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조사에 대한 배경 및 목적,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설문조사 방법 및 데이터 코딩,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그리고 이번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묘사할 것이다.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국내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고, 관련 조사의 양적 데이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북하나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조사를 전수조사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수많은 조사들과 연구들은 대체로 남한사회 안에서 그들의 삶과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의식을 파악하려거나 통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 조사는 부재하였다.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을 중요한 부분으

로 생각하며,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파악해오고 있다.

남북한주민이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가길 원한다면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은 어떠한 남한주민의 통일의식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원의 『북한주민 통일의식』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우선, 이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 북한실태, 남한사회, 남한의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 남한사회 적응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둔다. 둘째, 이 조사의 결과는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의 의식 부문 통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셋째, 이 조사의 결과는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사회통합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한계점은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과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가라는 지적이 있다. 이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주민만의 통일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의 통일을 논하는 것 또한 ‘절름발이’식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남북한주민 모두의 통일의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기반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3. 설문조사 방법 및 데이터 코딩

이 부분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통일의식을 설문조사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 설문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인식이다. 통일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 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남한 거주 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 적응에 도움을 받은 경로,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¹⁾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에서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제시되었다.

1) 10년 분석의 제일 마지막 조사시점인 2020년도의 설문지는 책 뒤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 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 기간	7월	10월	4/15-6/4	4/6-6/2	6/13-7/16	5/20-7/7	7/1-7/24	6/10-8/8	6/8-8/6	7/20-8/31	8/9-9/6	7/12-8/20
입국 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2004	87	94										
2005-2008	142	-										
2005-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 연도	응답자											
2010	104											
2011	1 127											
2012	- 133											
2013	- - 149											
2014	- - - 146											
2015	-	-	-	-	-	-	-	135	-	-	-	-
2016	-	-	-	-	-	-	-	3	-	-	-	-
2017	-	-	-	-	-	-	-	-	132	85	-	-
2018	-	-	-	-	-	-	-	-	-	2	114	-
2019	-	-	-	-	-	-	-	-	-	-	2	108
2020	-	-	-	-	-	-	-	-	-	-	-	1
총 계	296	370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조사 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 내용												
통일외식	Y	Y	Y	Y	Y	Y	Y	Y	Y	Y	Y	Y
대남외식	Y	Y	Y	Y	Y	Y	Y	Y	Y	Y	Y	Y
북한실태변화	Y	Y	Y	Y	Y	Y	Y	Y	Y	Y	Y	Y
남한적응실태	-	-	Y	Y	Y	Y	Y	Y	Y	Y	Y	Y
주변국인식	-	-	-	Y	Y	Y	Y	Y	Y	Y	Y	Y

〈표 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 차이가 있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가 제각각이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조사가 실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10년 분석』은 동일한 기준의 표본구성을 갖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사 결과 및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한다.

2011년 조사부터 표집방법은 1차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민 단체 및 탈북민 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 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이 이뤄졌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표 1-2〉 통일부의 '탈북민' 통계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여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합계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여성 비율(%)	71	73	76	78	80	79	83	85	81	69	27

주: 연도별 국내입국 탈북민 수치임.

〈표 1-3〉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의 표본 수 및 남녀 성비

단위: 명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명	36	69	56	71	59	74	50	99	57	89	53	85	70	62	38	49	41	75	37	72
(%)	(34.3)	(65.7)	(44.1)	(55.9)	(44.4)	(55.6)	(33.6)	(66.4)	(39.0)	(61.0)	(38.4)	(61.6)	(53.0)	(47.0)	(43.7)	(56.3)	(35.3)	(64.7)	(33.9)	(66.1)

주: 연도 표시는 조사 연도 표시로서 이들의 탈북 연도는 1년 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 동안 이루어진 본 설문조사의 조사 시기는 김정은 정권의 집권 시기와의 일치하기 때문에 편의상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2011년~2014년), 2016년 5월에 있었던 제7차 당 대회 시기 전후(2015년~2017년), 제재가 본격화된 경제제재 시기(2018년~2020년)이다.²⁾

10년 조사 분석을 위해 모든 변수의 데이터는 클리닝 과정을 거쳤으

2) 김병연의 경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한 UN 안보리 제재 2270호를 기점으로 UN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제제재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부터 제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김병연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35-64.

며, 설문 문항의 선택지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답변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순서대로 방향을 수정했다.³⁾ 회귀분석에 사용된 기본 변수의 코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1) 교육수준 (무학, 인민학교, 고등중학교=0/ 전문학교, 대학교=1)
- 2) 성별 (남성=0/ 여성=1)
- 3) 연령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4) 장사 경험 (유=1, 무=0)
- 5) 당원여부 (당원 및 후보당원=1/ 비당원=0)
- 6) 장마당 세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10대를 기준, 출생연도가 1985년 이후인 조사 대상자)
- 7) 남한 친척 여부 (유=1, 무=0)
- 8) 소득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을 각각 로그처리)⁴⁾

이러한 기본 변수 세트를 사용하여 각 파트마다 상관관계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실행하였다. 사용된 회귀분석의 경우 로짓(logistic regression, 답변 문항의 선택지가 두 가지일 경우)이나 순위형 로짓 (ordered logistic regression, 답변 문항의 선택지가 세 가지 이상일 경우) 회귀분석을 주로 이용하여, 단순 연도별 추세를 넘어 기본 변수 중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

3) 예를 들면 1(가장 중요하다), 2(덜 중요하다), 3(중요하지 않다)로 이루어진 문항이 있다면, 0(중요하지 않다), 1(덜 중요하다), 2(가장 중요하다) 순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4) 소득변수는 로그처리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득변수를 실질변수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에서 2011~2012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플레이션은 본 회귀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자 한다. 또한, 연도 고정효과(year fixed effects)를 추가하여 각 연도 별 표본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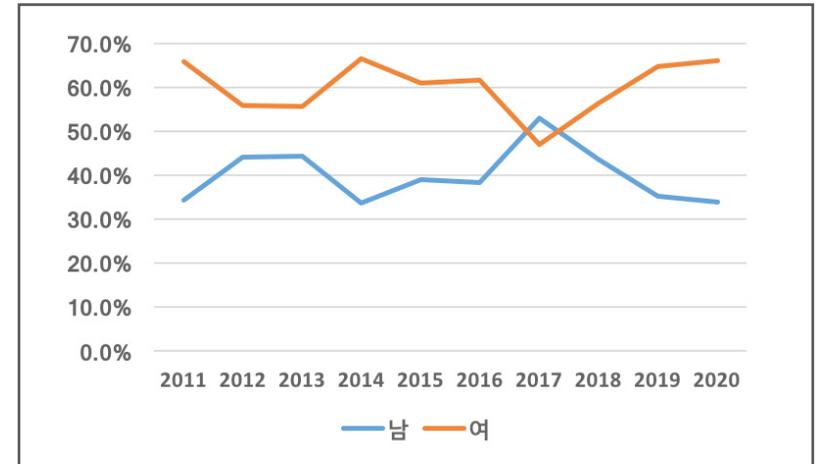
〈표 1-4〉는 10년 조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 응답자보다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다.

〈표 1-4〉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남 (%)	여 (%)																		
10대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2 (66.7)	1 (33.3)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3 (75.0)	1 (25.0)	0 (0.0)	3 (100.0)	2 (50.0)	2 (50.0)
20대	14 (38.9)	22 (61.1)	23 (51.1)	22 (48.9)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42.4)	19 (57.6)	20 (54.1)	17 (45.9)	14 (38.8)	22 (61.2)
30대	11 (40.7)	16 (59.3)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52.4)	10 (47.6)	9 (34.6)	17 (65.4)	6 (33.3)	12 (66.7)
40대	6 (35.3)	11 (64.7)	11 (32.4)	23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50.0)	5 (50.0)	7 (29.2)	17 (70.8)	4 (28.6)	10 (71.4)
50대	1 (7.7)	12 (92.3)	5 (38.5)	8 (61.5)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26.3)	14 (73.7)	5 (25.0)	15 (75.0)	8 (26.7)	22 (73.3)
60대 이상	4 (33.3)	8 (66.7)	6 (50.0)	6 (50.0)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3 (42.9)	4 (57.1)
합계	36 (34.3)	69 (65.7)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37 (33.9)	72 (66.1)

〈그림 1-1〉 조사 연도별 성별 분포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표 1-1〉에서 응답자들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가 일치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조사 연도 직전 해에 탈북한 사람들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였는데, 2020년은 지난 기간 평균과 거의 유사한 3.01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015년의 69.8%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53.2%가 되었다. 이것은 상당수의 탈북민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하여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5〉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조사 연도 소요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개월 미만	0.0	0.0	0.0	3.4	0.0	1.4	1.5	2.3	0.9	2.8
1개월	2.9	1.6	0.0	26.8	30.8	21.0	27.3	27.6	22.4	14.7
2개월	25.7	18.1	29.3	48.3	39.0	22.5	32.6	21.8	31.0	35.8
3개월	38.1	48.8	47.4	8.1	14.4	15.2	12.1	10.3	11.2	12.8
4개월	14.3	14.2	8.3	2.0	6.8	14.5	8.3	20.7	18.1	18.3
5개월	1.0	6.3	5.3	4.7	2.1	15.2	8.3	5.7	8.6	3.7
6개월	2.9	4.7	1.5	2.7	1.4	2.9	2.3	4.6	5.2	6.4
7개월	5.7	0.8	3.8	2.0	0.7	1.4	0.8	1.1	0.9	2.8
8개월	1.9	2.4	1.5	1.3	0.0	0.7	3.8	4.6	0.9	1.8
9개월	0.0	0.8	0.8	0.7	1.4	1.4	2.3	0.0	-	0
10개월	2.9	1.6	2.3	0.0	3.4	0.7	0.0	0.0	-	0
11개월	1.9	0.8	0.0	0.0	0.0	1.4	0.8	0.0	-	0
13개월	-	-	-	-	-	-	-	1.1	-	0
14개월	-	-	-	-	-	-	-	-	0.9	0.9
무응답	2.9	0.0	0.0	0.0	0.0	1.4	0.0	0.0	0.0	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2.49	3.33	2.82	3.06	2.90	3.01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들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6〉에 나타나듯,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의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 2015년 84.9%, 2016년 87.7%, 2017년 88.6%, 2018년 82.8%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두 지역 비중이 더욱 상승하여 90.5%로 최고치를 기록했

으며 2020년은 84.4%로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⁵⁾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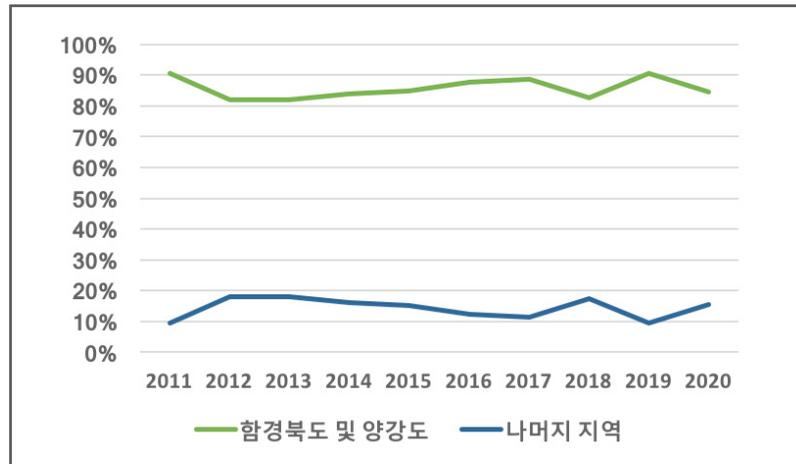
〈표 1-6〉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조사 연도 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양	0 (0.0)	0 (0.0)	1 (0.8)	3 (2.0)	3 (2.1)	5 (3.6)	2 (1.5)	2 (2.3)	0 (0.0)	1 (0.9)
개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1 (1.1)	1 (0.9)	0 (0.0)
남포	0 (0.0)	1 (0.8)	0 (0.0)	2 (1.3)	1 (0.7)	2 (1.4)	1 (0.8)	0 (0.0)	0 (0.0)	0 (0.0)
평안남도	5 (4.8)	0 (0.0)	2 (1.5)	4 (2.7)	3 (2.1)	2 (1.4)	0 (0.0)	2 (2.3)	0 (0.0)	2 (1.8)
평안북도	0 (0.0)	1 (0.8)	6 (4.5)	0 (0.0)	3 (2.1)	1 (0.7)	1 (0.8)	5 (5.7)	0 (0.0)	2 (1.8)
함경남도	4 (3.8)	14 (11.0)	11 (8.3)	9 (6.0)	5 (3.4)	4 (2.9)	6 (4.5)	4 (4.6)	5 (4.3)	5 (4.6)
함경북도	55 (52.4)	65 (51.2)	51 (38.6)	53 (35.6)	64 (43.8)	58 (42.0)	33 (25.0)	20 (23.0)	18 (15.5)	15 (13.8)
자강도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3 (2.8)
양강도	40 (38.1)	39 (30.7)	58 (43.9)	72 (48.3)	60 (41.1)	63 (45.7)	84 (63.6)	52 (59.8)	87 (75.0)	77 (70.6)
황해남도	0 (0.0)	3 (2.4)	0 (0.0)	1 (0.7)	1 (0.7)	0 (0.0)	4 (3.0)	1 (1.1)	0 (0.0)	0 (0.0)
황해북도	1 (1.0)	3 (2.4)	1 (0.8)	2 (1.3)	4 (1.3)	0 (0.0)	0 (0.0)	0 (0.0)	2 (1.7)	3 (2.8)
강원도	0 (0.0)	1 (0.8)	2 (1.5)	2 (1.3)	2 (1.4)	3 (2.2)	0 (0.0)	0 (0.0)	2 (1.7)	1 (0.9)
무응답	0 (0.0)	0 (0.0)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9)	0 (0.0)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5)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58.8%, 17.8%를 차지한다.

〈그림 1-2〉 조사 연도별 탈북 전 최종거주지



(3) 교육수준, 직업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급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이었고, 2016년에는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67%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 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 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였고, 2015년에 36.3%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25.7%로 나타났다. 통일부 자료에서는 고급중학교와 전문대 이상 재학자가 86.8%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조금 더 높은 학력 분포를 갖고 있다.

〈표 1-7〉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교육수준 \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교	11.4	10.2	16.5	13.6	19.9	13.0	7.6	5.7	6.9	10.1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16.4	11.6	17.4	13.8	22.4	15.6
고급중학교	66.7	65.4	71.4	66.7	61.0	74.6	72.0	73.6	70.7	67
소학교	1.0	3.2	0.0	1.6	2.1	0.7	2.3	6.9	0.0	1.8
무학	0.0	1.6	0.8	0.6	0.7	0.0	0.8	0.0	0.0	2.8
무응답	-	1.6	-	-	-	-	-	-	-	1.8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 1-8〉에서 보이듯 2017년보다는 응답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직업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7.6%에서 2017년에는 43.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조금 감소하여 2020년에는 26.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장사나 주부의 비중이 높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9년 역시 주부(21.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장사의 비중은 2014년 4.8%에서 2015년 20.5%로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12.3%), 2017년(9.8%) 다시 하락하여 2018년(0.0%)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8.6%, 2020년에는 18.3%로 크게 상승하였다. 노동자, 장사, 주부가 응답자들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직업 \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노동자	27.6	37.0	31.6	30.6	26.0	22.5	43.9	32.2	26.7	26.6
농민	8.6	8.7	3.8	7.5	4.8	9.4	3.8	11.5	3.4	5.5
사무원	12.4	4.7	9.8	12.2	8.9	10.9	6.1	6.9	8.6	5.5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5.5	7.2	7.6	0.0	1.7	3.7
학생	6.7	6.3	6.0	7.5	4.8	4.3	2.3	13.8	7.8	11.9
군인	5.7	3.9	4.5	4.8	4.8	8.0	5.3	3.4	3.4	4.6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0.0	1.7	2.8
장사	10.5	11.1	13.5	4.8	20.5	12.3	9.8	0.0	8.6	18.3
주부	10.5	11.1	16.5	19.1	11.6	13.0	10.6	21.8	21.6	13.8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8.2	9.4	6.8	10.3	16.4	4.6
무응답	5.7	1.6	-	-	0.7	-	-	-	-	0.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4) 당원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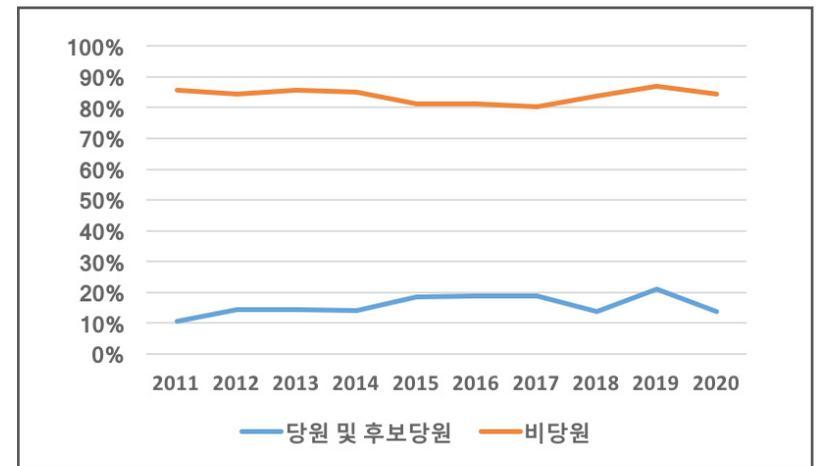
응답자의 당원 여부는 〈표 1-9〉에서 보이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20년 조사에서 12.8%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4.4%를 차지한다. 지난 십여 년간의 조사에서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9〉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 여부 \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당원	9.5	14.4	14.3	13.5	17.8	18.8	18.2	13.8	11.2	12.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0.0	0.9	0.9
비당원	85.7	84.3	85.7	85.8	80.0	81.2	80.3	85.1	87.1	84.4
무응답	3.8	1.6	-	-	0.7	-	0.8	1.1	0.9	1.8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그림 1-3〉 조사 연도별 당원 여부 분포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표 1-10>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응답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35.2%, 2012년 36.2%, 2013년 36.8%, 2014년 26.2%, 2015년 35.6%, 2016년 26.8%, 2017년 40.9%, 2018년 20.7%, 2019년 19.8%, 2020년 17.4%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은 2011년 25.7%, 2012년 25.2%,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0%, 2017년 47.0%, 2018년 51.7%, 2019년에는 66.4%로 점차 늘어났고, 2020년에는 55.0%로 2016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10>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원	27 (25.7)	32 (25.2)	69 (51.9)	91 (61.1)	80 (54.8)	80 (58.0)	62 (47.0)	45 (51.7)	77 (66.4)	60 (55.0)
0원 초과 ~1,000원 이하	7 (6.7)	10 (7.9)	2 (1.5)	13 (8.7)	7 (4.8)	7 (5.1)	8 (6.1)	8 (9.2)	5 (4.3)	7 (6.4)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37 (35.2)	46 (36.2)	49 (36.8)	39 (26.2)	52 (35.6)	37 (26.8)	54 (40.9)	18 (20.7)	23 (19.8)	19 (17.4)
5,000원 초과 ~1만 원 이하	2 (1.9)	4 (3.1)	5 (3.8)	2 (1.3)	1 (0.7)	4 (2.9)	0 (0.0)	0 (0.0)	2 (1.7)	0 (0.0)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6 (5.7)	9 (7.1)	0 (0.0)	3 (2.0)	4 (2.7)	5 (3.6)	2 (1.5)	9 (10.3)	2 (1.7)	5 (4.6)
1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2 (1.9)	5 (3.9)	4 (3.0)	0 (0.0)	0 (0.0)	3 (2.2)	3 (2.3)	5 (5.7)	6 (5.2)	8 (7.3)

공식 월수입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0만 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 (0.7)	0 (0.0)	1 (0.8)	0 (0.0)	0 (0.0)	1 (0.9)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0 (0.0)	0 (0.0)	0 (0.0)	1 (1.1)	0 (0.0)	9 (8.3)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는 점차 고소득 월수입의 응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11>에서 보이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로 2011년 18.1%, 2012년 34.6%, 2013년 39.1%, 2014년 28.9%, 2015년 29.5%, 2016년 26.8%, 2017년 34.1%, 2018년 31.0%, 2019년 32.8%, 2020년 24.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7%에서 2015년(24.7%), 2016년(23.9%)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13.6%), 2018년(13.8%), 2019년(13.8%), 2020년에는 11.2%를 기록하였다. ‘100만 원 초과’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5.7%에서 2015년 23.3%, 2016년 15.2%, 2017년 26.5%, 2018년 14.9%, 2019년 23.3%, 2020년에는 15%를 기록하였다.

한편 ‘10만 원 이하’의 응답의 비중은 2014년 17.4%, 2015년 6.2%, 2016년 8.0%, 2017년 8.3%, 2018년 16.1%, 2019년 6.9%, 2020년에는 7.5%를 기록하였고,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2012년 16.5%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20년에는 29%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비공식 소득은 2015~2017년 사이가 고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만 원 이하’ 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1〉 북한에서의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비공식 월수입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원	18 (17.1)	21 (16.5)	32 (24.1)	33 (22.1)	24 (16.4)	32 (23.2)	18 (13.6)	18 (20.7)	26 (22.4)	31 (29.0)
0원 초과 ~1,000원 이하	6 (5.7)	0 (0.0)	3 (2.3)	4 (2.7)	0 (0.0)	2 (1.4)	1 (0.8)	0 (0.0)	0 (0.0)	4 (3.7)
1,000원 초과 ~5,000원 이하	7 (6.7)	2 (1.6)	0 (0.0)	2 (1.3)	0 (0.0)	1 (0.7)	4 (3.0)	1 (1.1)	1 (0.9)	1 (0.9)
5,000원 초과 ~1만 원 이하	2 (1.9)	2 (1.6)	3 (2.3)	2 (1.3)	0 (0.0)	1 (0.7)	0 (0.0)	1 (1.1)	0 (0.0)	1 (0.9)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8 (17.1)	25 (19.7)	9 (6.8)	26 (17.4)	9 (6.2)	11 (8.0)	11 (8.3)	14 (16.1)	8 (6.9)	8 (7.5)
1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19 (18.1)	44 (34.6)	52 (39.1)	43 (28.9)	43 (29.5)	37 (26.8)	45 (34.1)	27 (31.0)	38 (32.8)	26 (24.3)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6 (5.7)	8 (6.3)	12 (9.0)	17 (11.4)	36 (24.7)	33 (23.9)	18 (13.6)	12 (13.8)	16 (13.8)	12 (11.2)
100만 원 초과	6 (5.7)	7 (5.5)	19 (14.3)	15 (10.1)	34 (23.3)	21 (15.2)	35 (26.5)	13 (14.9)	27 (23.3)	16 (15.0)
무응답	23 (21.9)	18 (14.2)	3 (2.3)	7 (4.7)	0 (0.0)	0 (0.0)	0 (0.0)	0 (0.0)	0 (0.0)	8 (7.5)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7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12〉를 보면 매년 약 60%에서 70%의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 2015년 76.7%, 2016년 68.8%, 2017년 69.7%, 2018년 60.9%, 2019년 64.7%, 2020년 63.3%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10년 간의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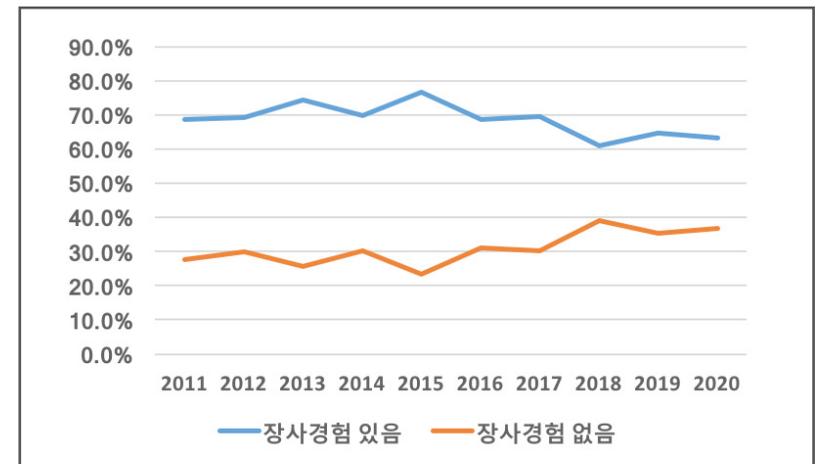
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8.1%, 농민 45.7%, 사무원 69.7%, 전문가 59.7%, 학생 35%, 군인 54.1%, 외화벌이 81.5%, 가정부인 85.1%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과 외화벌이군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의 경우는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회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1-12〉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있다	68.6	69.3	74.4	69.8	76.7	68.8	69.7	60.9	64.7	63.3
없다	27.6	29.9	25.6	30.2	23.3	31.2	30.3	39.1	35.3	36.7
무응답	3.8	0.8	-	-	-	-	-	-	-	-
합계(N)	105	127	132	149	146	138	132	87	116	109

〈그림 1-4〉 조사 연도별 장사활동 경험 유무



(6) 탈북 후 정보 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표 1-13>에서 보이듯 거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 2015년 74.0%, 2016년 76.8%, 2017년 76.6%, 2018년 82.7%, 2019년 77.6%, 2020년은 67.9%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남북한 간 정보교류가 상당히 활발하며 동시에 정보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주요 매개체이다.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수는 2020년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381만대에 이르며, 평양이나 나선 등 대도시 거주 20~50대 장년층의 70%가 휴대전화에 가입하였고, 실제 사용자는 450만 명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⁶⁾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정보통신의 빠른 보급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키고 있다.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혹은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60~80%대를 유지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6년에 26.1%로 가장 높

6)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20), 217; KDB미래전략연구소, 『북한 포커스』 (2020.8.10.).

은 비중을 보이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2020년에는 9.2%가 답했고, 조금씩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8년 6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58.7%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이 여전히 다수이지만,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1-13>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접근성 \ 조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19.2	26.1	20.5	19.5	22.4	9.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54.8	50.7	56.1	63.2	55.2	58.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25.3	23.2	23.5	17.2	21.6	31.2
무응답	2.9	-	-	-	0.7	-	-	-	0.9	0.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유무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및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간 결과를 보면,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에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4>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39.0%, 2012년 37.8%로 50% 미만이었다가 2013년 65.4%, 2014년 69.1%, 2015년 58.2%, 2016년 60.9%, 2017년 51.5%,

2018년 50.6%로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70.7%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20년에는 63.3%로 다소 줄어들었다.

〈표 1-14〉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조사 연도 친척유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없다	58.1	62.2	34.6	30.9	41.8	39.1	48.5	49.4	29.3	36.7
있다	39.0	37.8	65.4	69.1	58.2	60.9	51.5	50.6	70.7	63.3
무응답	2.9	-	-	-	-	-	-	-	-	-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15〉에서 보이듯 결혼 상태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미혼 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42.5%, 2016년에는 47.1%, 2017년 45.5%, 2018년 41.4% 다소 하락하였지만 2019년 52.6%로 상승하고, 2020년에는 45.9% 수준을 유지했다.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9.0%로, 2016년 42.0%, 2017년 40.2%로 증가했고 2018년 50.6%로 10.4%p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는데 2011년 0%, 2012년

9.4%, 2013년 9.0%, 2014년 14.1%로 증가했고 2015년에 17.8%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6년 10.9%, 2017년 13.6%, 2018년 5.7%, 2019년 13.8%, 2020년에는 9.2%로 다소 낮아졌다.

〈표 1-15〉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조사 연도 혼인 상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혼	52.4	45.7	37.6	30.9	39.0	42.0	40.2	50.6	33.6	44.0
결혼(동거포함)	41.9	44.1	53.4	55.0	42.5	47.1	45.5	41.4	52.6	45.9
이혼	0.0	9.4	9.0	14.1	17.8	10.9	13.6	5.7	13.8	9.2
무응답	5.7	0.8	-	-	0.7	-	0.8	2.3	-	0.9
합계(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 1-16〉에서 나타나듯 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22.9%이던 무자녀 응답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46.8%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2012년에는 47.3% 2017년에는 55.3%였다가 2020년은 다소 하락하여 46.7%가 한두 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2013년 12가구이며, 2014년 19가구, 2015년 43가구, 2016년 40가구, 2017년 28가구, 2018년 14가구, 2019년 47가구, 2020년에는 26가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에 처해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6〉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조사 연도 자녀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명	22.9	24.4	37.9	34.2	39.7	43.5	43.2	52.9	43.1	46.8
1명	27.6	27.6	32.6	27.5	35.6	33.3	36.4	24.1	39.7	28.4
2명	17.1	19.7	24.2	29.5	21.2	18.8	18.9	19.5	12.1	18.3
3명	5.7	7.1	4.5	6.7	2.1	4.3	0.8	3.4	0.9	2.8
4명	3.8	1.6	0.8	1.3	1.4	0.0	0.8	0.0	2.6	0.9
5명	-	-	-	0.7	-	0.0	-	0.0	0.0	0.0
무응답	22.9	19.7	-	-	-	-	-	-	1.7	2.8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5.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주민 통일외식』 조사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남한 사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주변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비록 직접 북한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사 방식과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구체적인 쟁점과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계열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로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매일 다양한 사건과 변화가 발생하지만, 지난 10년 간 조사를 지속한 결과 상대적으로 긴 흐름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여론이 서로 다른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지만, 서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의식조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 상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같은 긍정적 태도와 서로에 대한 무지나 편견, 불신이나 위협인식 같은 부정적 태도들이 확인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긍정적 인식의 지지를 받고, 부정적 태도와 인식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지난 10년 간의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큰 변화가 발생해온 남북관계가 북한주민들의 통일과 남북관계, 주변국과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더 나은 연구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통일인식

제2장 통일인식

|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1. 서론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미소군정에 의해 분할 점령되면서 시작된 남북한의 분단이 지난 75년 간 지속되었다. 그동안 통일이라는 과제는 늘 민족의 지상 과제이자 남북 정치체제의 중요한 공식 정책 목표였다. 남북 정부는 냉전시기에 서로 적대적 경쟁 상태에 있었지만, 탈냉전 이후부터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과 단계,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회담과 협상, 합의와 교류 협력을 통해 이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이 늘 같은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 전후인 1988년의 서울올림픽부터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유엔 동시 가입까지의 기간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높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는 90%를 넘었다. 2000년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의 제 2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난 2018-19년의 평화프로세스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단절되는 추세인 연장선에서 최근 통일에 대한 여론의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다양한

의견 차이가 형성되었다.

통일에 대해 남북한 정부가 서로 갈등과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한주민들의 생각이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 역시 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나름의 의견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대해 모든 의견이 같을 순 없겠지만, 서로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려는 다층적인 속의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남한주민들의 통일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남한주민들의 통일 여론을 분석했고, 2008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하여 북한의 통일 여론을 간접적으로 분석했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 설문조사 항목에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시기,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여러 대북 정책들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통일이 사회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북한주민들의 통일 여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지난 10년 간 북한의 통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북한주민들은 얼마나 통일을 선호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을까? 어떤 이유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고, 다양한 남북교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일 문제를 언급할 때 ‘조국 통일 위협’이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오랫동안 남북 간 통일 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탈냉전과 고난의 행군을 지나 선군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과, 지난 10년 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며 병진 노선을 추진하던 시기, 특히 2016년 4차 핵실험에 이은 강력한 경제 제재가 도입된 시기, 그리고 2018~2019년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 이뤄진 시기에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점차 변화했다. 이 글은 북한의 통일 여론이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 10년 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특성과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통일문제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체제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문제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까?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서 군사정치적 차원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경제 차원의 중요성과 비교할 때, 통일과 남북 협력 차원은 어떤 비중을 갖고 있을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다. 이를 위해 10년 간의 여론 조사 자료의 북한체제 정당성 관련 응답들에 대한 통계적 심화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과 남북협력을 지지하는 북한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이는 북한에서는 왜, 누가 통일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동안 기존연구들⁷⁾에 의해 추세가 확인되었지만, 10년 간의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주민들의 핵과 주체사상, 시장 경험과 소득, 남한에 대한 인식이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들이 북한주민들의 통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7) 정근식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묻다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이정철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1 (경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넷째,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의견 차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가? 이는 북핵 실험 이후 강화된 제재와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장마당의 확산, 세대 변화 등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 요인이 통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통일 여론에 대한 사회경제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심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질문을 통해 남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북 공식 대화와 협상의 실마리가 되는 관계 설정의 접점들을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교류와 소통에서 고려해야할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식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지정학과 사회변화 등 다양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정치, 외교 차원의 다층적인 속의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프로세스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근거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북한주민들의 지난 10년 간 통일외식 변화와 특성

지난 10년 간 북한의 통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지난 10년 간의 남북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2011년에는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2012년에는 북한에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다. 선군정치를 내걸었던 김정일 체제 후반부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김정은 체제는 2013년부터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걸면서 경제 발전의 경로를 동시에 모색했다. 하지만

2015년 DMZ에서의 목함지뢰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2016년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적인 경제 제제가 강화되었고, 이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며 남북관계가 단절되었다. 2016년에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2017년 북미관계는 상호 위협과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같은 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20년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과정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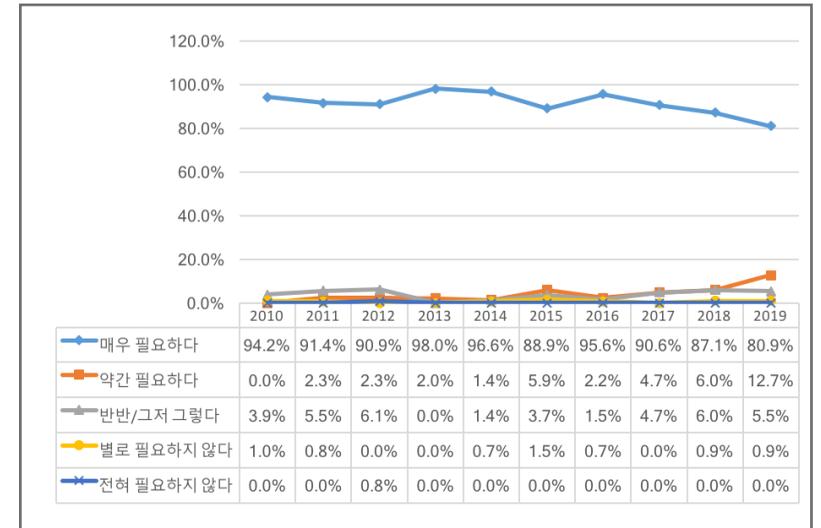
아래에서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가진 의견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의지

먼저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지지는 남한주민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0-2019년 평균 91.4%로 같은 기간 남한주민들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2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한주민들의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을 포함한 긍정응답이 55.1%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에겐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일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2010년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4.2%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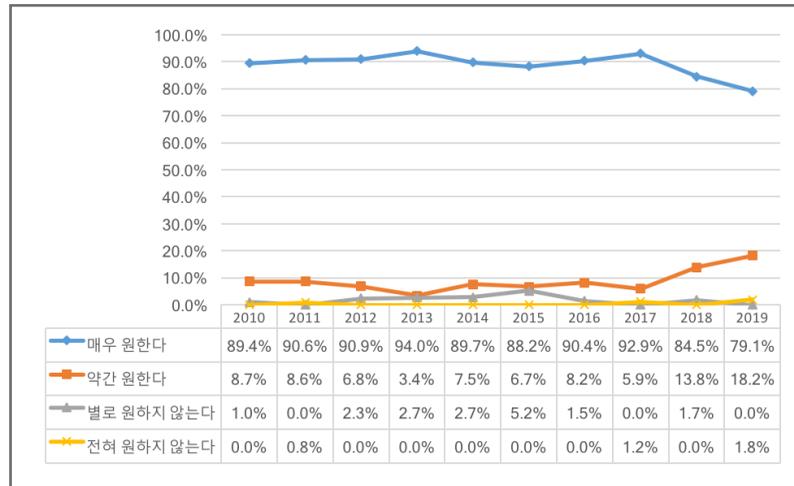
2013년에는 98%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 급격히 하락(88.9%)하고 2016년에는 다시 상승(95.6%)하였으나 그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80.9%가 됨으로써 최고치 대비 17.1%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거의 응답율이 없던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1년 2.3% 수준이었으나 2017년 4.7%, 2018년 6%, 2019년에는 12.7%로 최근 3년 간 점차 증가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2-1〉 통일의 필요성



통일 필요성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20대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85.9%) 이는 소위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세대로 김정은 정권기 교육을 받고 핵 개발에 따른 제제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장마당을 경험한 세대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통일의 의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망에 대해 별도로 질문하였는데, 통일 필요성과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즉,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원한다”는 응답은 2013년에 94%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지만,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에 84.5%로, 2019년에 79.1%로 하락하였다. 이는 “약간 원한다”는 응답이 2017년의 5.9% 수준에서 2018년의 13.8%, 2019년의 18.2%로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확인되는 추세이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당 대회를 중심으로 한 2015-2017 시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핵실험에 이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시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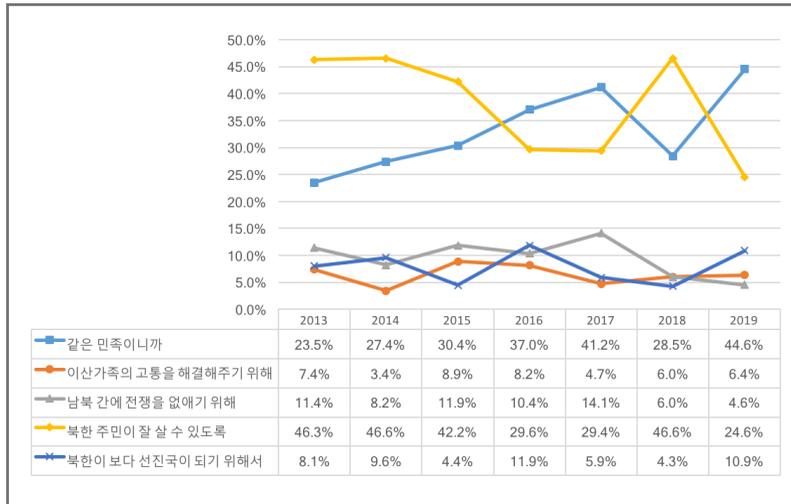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민족주의적 응답과 실용주의적 응답이 구분된다. 즉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과 “북한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2015년까지는 “북한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편(46%)이었으나 점차 하락하다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 다시 급증했다가 2019년에는 다시 하락(25%)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응답이 2013년에는 24%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41%가 되었고, 2018년에 응답이 감소했다가 2019년에 다시 4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의견이 다수였으나 이런 의견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의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2011~2019 평균 32%이지만,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이 높고(46%), 반면 “북한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은 평균 38%인데 20-40대의 답변이 (38.5%~41.2%) 높은 편이다.

〈그림 2-3〉 통일의 이유



북한의 경우 20-40 세대의 실용주의적 응답이 통일 이유의 다수를 차지하다가 최근의 체제 국면 속에서 그 기대가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세대가 민족주의적 이유의 통일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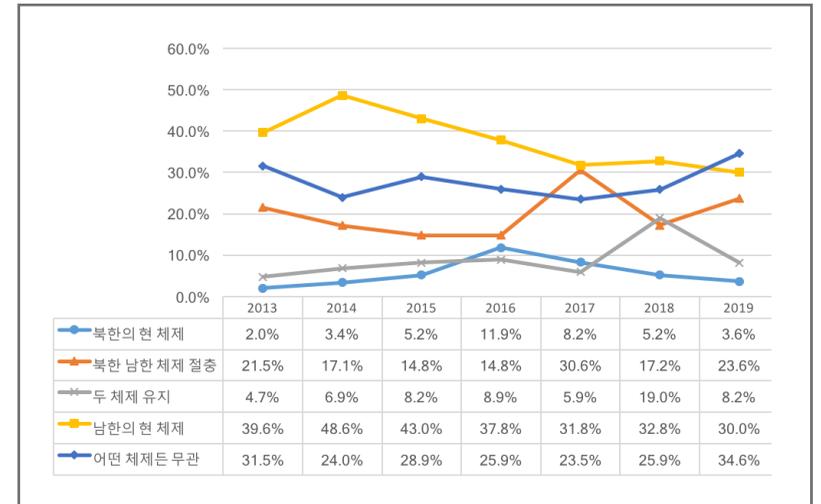
남한주민들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응답이 2007년에는 50.6%에서 2020년까지 36.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07년에 19.2%에서 2020년에 38.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주민들은 절반 정도가 민족주의적 의견을, 북한의 경우 나머지 절반 정도가 실용주의적 의견을, 그리고 남한의 경

우 전쟁 위협이 없는 비핵-평화에 대한 기대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통일의 방식

〈그림 2-4〉 통일의 방식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체제로 통일”, “북한체제로 통일”, “두 체제의 유지”, “체제의 절충”과 같은 답안을 선택지로 제시한 결과 2010년대 초반에는 남한의 체제로 통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 48.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30%만이 남한체제로 통일하자고 응답했다.

반면 북한체제로 통일한다는 의견은 가장 낮았으나 2013년 현재 2%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6년에는 11.9%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 하락하여 2019년 현재 3.6%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자신감이 증가하던 시기엔 이 응답이 증가하다가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두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견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2013년 4.7%에서 2018년에 19%로 상승했고, 2019년에 다시 8.2%로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남북한 두 체제를 절충한다는 의견은 2016년에 14.8%로 가장 낮았다가 다시 상승하여 2019년에는 23.6%에 달하고 있다. 어떤 체제도 무관하다는 응답은 두 번째로 높으며 2019년에는 가장 다수의 응답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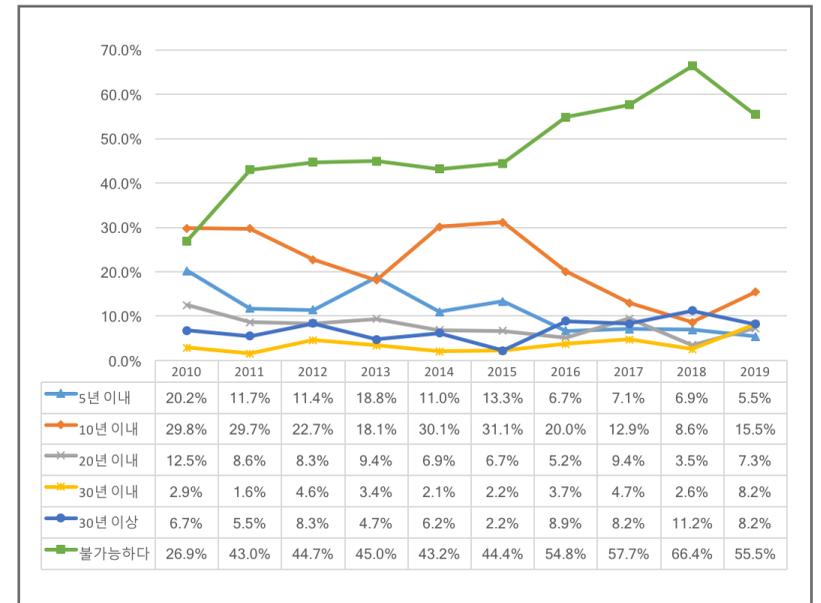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던 남한체제로의 통일 의견이 다소 줄어들고 있고, 북한체제로의 통일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절충이나 두 체제 유지의견,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체제와 무관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통일에 대한 예상과 기대

이와 관련해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초기인 2010년에는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불가능 하다”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1년에

43%이던 응답이 2018년에는 66.4%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통일의 시기



이와 관련해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초기인 2010년에는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불가능 하다”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였고 2011년에 43%이던 응답이 2018년에는 66.4%로 증가하였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필요하고 민족주의적 이유이건 실용적 이유이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일 방식에는 의견이 다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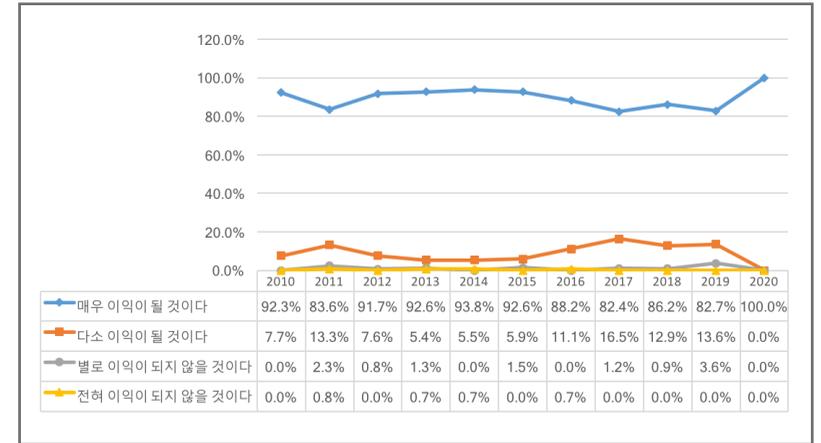
갈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불가능 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일 자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북한이 생각해온 방식의 통일, 혹은 남한체제로의 일방적인 통일 등 체제수준의 통일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라는 답변(2007~2021년 평균 25.2%)이 가장 많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을 반영해 30년 이내(15.8%), 30년 이상(18.9%)이라는 답변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통일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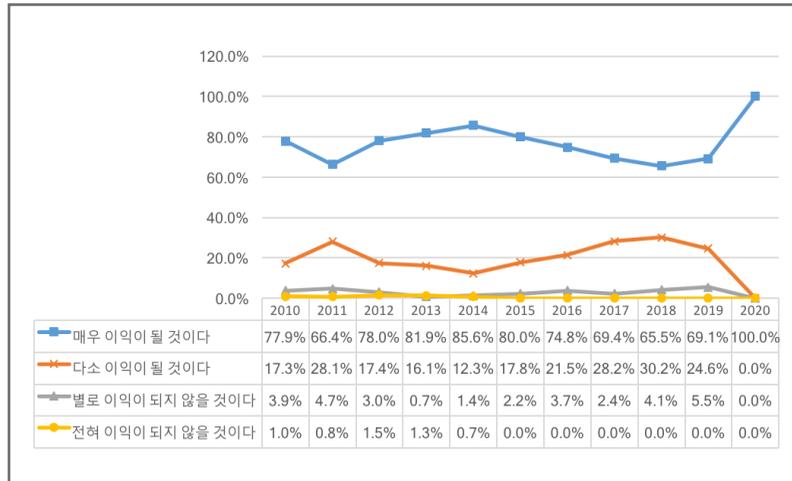
앞서 통일의 이유에서 “북한주민이 잘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북한주민들은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 혹은 개인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전반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010년대에는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90% 이상, 2017년 이후 80%대로 하락하여 2019년 현재 82.7%가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그림 2-6〉 통일의 집단 이익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높은 편인데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2014년 85.6%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65.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2014년 12.4%에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30.2%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중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가 아닌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30대 일수록, 공식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율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7〉 통일의 개인 이익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경우 북한 전체와 개인에게 통일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매우 이익”과 “다소 이익”을 합산)이 95% 수준이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합한 긍정 답변이 2007~2021년 평균 54%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긍정 답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정 답변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통일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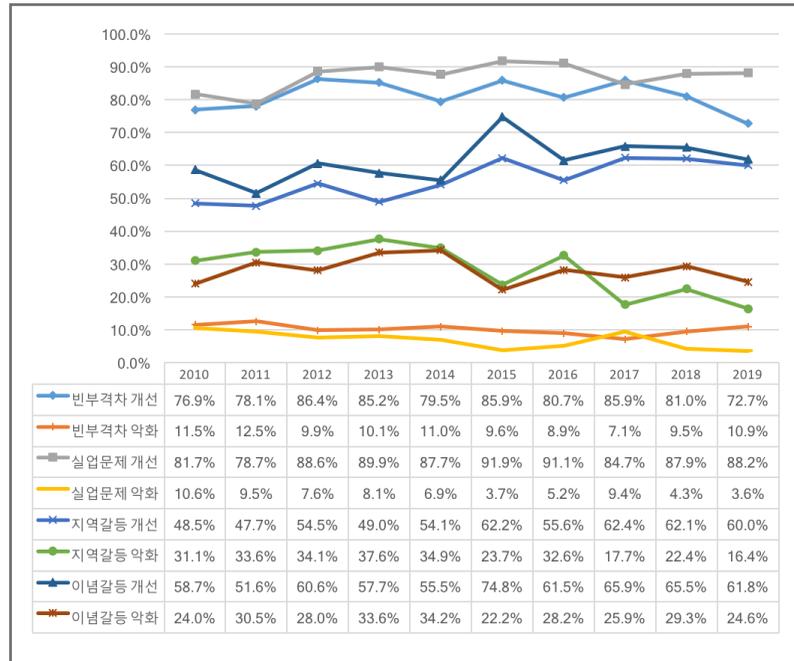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통일이 많은 사회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

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빈부 격차, 실업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였다.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가장 높은 기대감은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과 “약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 답변이 2010년에 81.7%, 2015년에 91.9%였고 2019년에도 88.2%의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빈부 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2012년에는 긍정 답변이 86.4%로 최고치를 보였고, 2019년에 다소 감소하여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72.7% 수준의 긍정 답변율을 보였다. 그런데 실업문제에 대한 개선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은 반면, 최근 3년 간 경제상황 악화를 반영하여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 다음으로 이념 갈등 개선 기대감은 낮은 편(2010년 58.7%)이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7~2018년에는 62.1~4%가 이념 갈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가장 기대가 낮은 것은 지역 갈등 개선인데 2010년에 긍정 답변이 48.5%에 불과했다. 다만 점차 기대감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7~2019년 평균 61.4%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경우 이념갈등이나 지역갈등에 있어서도 통일이 사회문제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방향의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8> 통일 후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7)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의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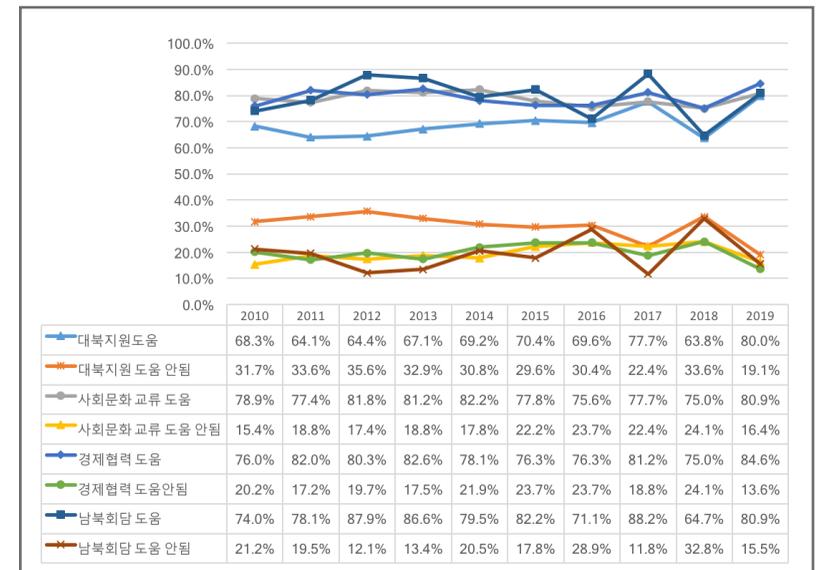
다음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북한주민들의 경우 다수가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

기적인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책별 선호와 효용성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이 높은 것은 남북 정기 회담(79.3%), 경제 협력(79.2%), 사회문화 교류(78.8%), 대북지원(69.4%) 순이었다. 대부분의 남북교류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런데 긍정 응답 중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은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다. 대북지원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최저 45.2%(2014년), 최고 60.9%(2019년)였고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합치면 평균 69.4%가 긍정 응답을 했다. 다만 소위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30-40대의 긍정 응답 비중은 다소 낮았다.

<그림 2-9> 남북교류 협력별 북한주민의 선호도 추세



다음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합치면 78%대의 긍정 응답 비중을 보였고, 특히 50-60대일 수록 높은 비율로 긍정 응답을 했다.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79%였고,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79%에 달했다.

10년 간의 추세를 보면 2010년대에는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응답이 낮았는데,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효용성의 긍정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초기 체제 자부심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 보다는 정기 회담, 남북 협력,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크다가, 2013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개최한 2017년에는 다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트럼프 정부와 긴장이 조성되며 강력한 대북제제가 시행되는 2018년에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치러진 이후인 2019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상당한 변동을 보였다. 즉,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국제 정세 변화에 반응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10년 간의 통일외식의 추세를 정리하면, 북한주민들의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이 가져올 이익,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남북교류 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는 국제 정세의 변화나 회담과 협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의 핵실험에 이은 강력한 대북제재, 북미 간 협상의 결렬과 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 이 기대감과 의지가 최근에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북한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에 있어 한국사회의 여론 같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차이(나이, 지역, 소득, 직업, 당원 등)는 크지 않지만, 최근 장마당 세대의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 청장년 세대의 실용적 인식과 고령세대의 인식이 조금씩 다양한 결을 갖고 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주민 통일외식의 심화 분석

이러한 10년 간의 통일 여론 추세를 심화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세 가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북한의 통일 여론을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중심에 두고 통일 문제의 위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서 군사, 정치적 차원과 경제의 차원, 그리고 통일과 남북 협력 차원은 어떤 비중을 갖고 있을까? 두 번째는 통일과 남북협력에 대한 의견에 북한체제, 남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만일 북한주민들이 통일과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 특히 어떤 인식과 기대가 중요할까? 마지막은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의견 차이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사회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 북한체제 정당성과 남북관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의 위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남북 간의 통일이나 협상, 교류가 체제 간의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비공식적 민간 교류도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정당성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또한 특히 남북이 냉전 대립으로 인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 있고, 북한은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체제와 다른 사회주의 체제의 운영방식과 정당성의 자원은 정치 체제의 유지와 행동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차원이 될 필요가 있다.

고전적인 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 이론들은 베버의 설명, 즉, 근대적 민족국가가 세 가지 차원의 정당성, 즉 전통적인 정당성, 카리스마적 리더의 정당성, 이성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에 기반해 있다는 설명에서 시작된다.⁸⁾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은 이데올로기, 제도와 규범, 효율성, 지도자 카리스마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이데올로기, 정책강령, 조직체계, 정책적 효율성, 공공이미지를 활용하여 지배 및 지위를 수용하게 하는 과정⁹⁾으로 해석된다.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라는 거시적 사회변동을 분석한 로칸(Rokkan)의 경우 국가 형성에는 군사(외부 위협 대응), 법(내부 갈등 대응), 도시(경제-기술분화), 종교-문화 차원의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설

8) 막스 베버, *경제와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9) 이성춘, 박동훈,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77), 81.

명했는데¹⁰⁾ 이를 근대 국가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정당성으로 나누어 네 가지 차원의 정당성 자원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며 정당성의 자원으로 국가와 자본 사이에 있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역할,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중시하는¹¹⁾ 하버마스(Habermas)의 논의를 통해 통치할 권리나 자격(right to rule, license to govern)으로 이해되는 규범적인 정당성 논의로부터 시민들이 얼마나 이를 수용하는지(social acceptance)를 더 중시하는 경험적인 정당성 이해가 발전했다.

예컨대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재난 상황,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까지 좀 더 섬세한 영역의 위기관리가 정부의 정당성의 한 차원이 되면서¹²⁾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차원과 구체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세차원으로 구분되고 첫 번째로 민주적 정당성은 더 평등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정당성으로 평등과 정의, 분배문제에 책임성을 갖는 것, 세 번째로 사회정치적 수용성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정체성을 고려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10) Rokkan, Stein, *State Formation, Nation-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97-107.

11) Habermas, J.,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1).

12) 기후변화 적응,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 수해 위험 거버넌스 등 위험 관리와 적응, 지역에서의 조율에 있어 정당성있는 거버넌스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출처: Meghan Alexander, Neelke Doorn, and Sally Priest. "Bridging the legitimacy gap - Translating Theory into Practical Signposts for Legitimate Flood Risk Governance,"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8 no.2 (2018): 397-408).

이러한 국가 형성이론, 민주주의 이론에 기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연구들은 정치 체제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대의제적 절차와 과정,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위로부터의 정당성)와 시민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정치적 참여, 신뢰를 측정하는 논의(아래로부터의 정당성)를 발전시키고 정치효능감, 정치에 대한 신뢰, 선거와 정당에 대한 지지, 부패인식, 정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치적 정당성 측정의 변인들로 제시하고 있다.¹³⁾

하지만 모든 국가가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동등한 역량과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어서 최근에는 국가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정당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 취약한 국가에서는 중심적인 국가의 역할 외에 비국가 행위자, 외부 행위자도 한 국가의 통치에 영향을 주며, 한 지역에서는 정당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여겨지는 정당성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당성의 다양한 자원들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¹⁴⁾

특히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차원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성, 특히 아시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다. 중국 사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과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ZhaoDingxin의 경우 중국 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 즉 이념적 정당성, 성과적 정당성, 법

적-선거적 정당성을 나누어 생각할 것을 제안했다.¹⁵⁾ 이념적 정당성은 중국 공산당의 내외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들이고, 성과적 정당성은 주로 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통한 정당성이고, 마지막은 절차적 정당성으로 관료, 당원, 엘리트 충원과정, 민의 반영과 수렴에 대한 차원이다.¹⁶⁾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 연구는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군사정치적 차원, 경제적 차원, 그리고 남북관계 차원으로 구분해 보려고 한다.

먼저 북한은 한국전쟁과 냉전 대립 그리고 핵개발을 통해 외부위협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군사적 정당성의 차원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협, 중국과의 우방관계, 그리고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의 개발을 중요한 정당성의 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에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중요한 정치적 정당성의 자원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특히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 병진노선이나 경제발전, 인민경제 향상과 자력갱생 등을 강조하며 시장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13) Weatherford SM. "Measuring political legitimacy". Am. Political Sci. Rev. 86 (1992):149-66. 이를 더 세분화하여 정치적 정당성의 측정을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Von Haldenwang C. 2016. "Measuring legitimacy: new trends, old shortcomings?". Discussion Paper. Ger. Dev. Inst., Bonn, Ger., 18/2016:1-44.

14) Thomas Risse and Eric Stollenwerk, Legitimacy in Areas of Limited Statehoo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2018): 403-418.

15) Zhao, D.,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Discourses and Activities of the 1989 Beijing Student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no.6 (2000): 1592-1632.; Zhao, D., *The Power of Tiananmen: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1989 Beijing Student Move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Zhao, D.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Legitimation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 no.3 (2009): 416-433.

16) Jinghan Zeng (2016),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_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Jinghan Ze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내부의 경제사정에 대한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차원의 정당성 자원의 영역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례의 경우에서도 여러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와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북한 역시 향후 이 부분이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다.¹⁷⁾

마지막은 통일과 남북관계, 남북교류 협력의 차원이다. 남북이 모두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통일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비핵-평화 협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작게는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크게는 경제 협력과 민족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키우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이 글에서는 북한의 체제 정당성을 군사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남북관계 차원으로 구분하고, 어느 차원이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북한의 체제 정당성으로 하고, 의식조사 항목 중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를 대리 변수로 설정했다.

군사정치적 정당성은 핵보유에 대한 찬성도, 미국의 평화 위협인식, 중국에 대한 선호도¹⁸⁾,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당원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했다.

17) 이밖에도 권위주의 체제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적 지지에는 공공 안전도 중요하며, 매체와 소통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면 지지도에 긍정적이지만, 시민들이 국가의 검열에 대해 알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 (출처: Sergei Guriev, Daniel Treisman, "The Popularity of Authoritarian Leaders: A Cross-National Investigation", *World Politics* 72, no. 4 (2020): 601-638.

18) 원래 설문 항목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묻고 선택지로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를 두어 응답을 받고 있다. 분석을 위해 평화 위협국가로 미국을 선택한 응답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응답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했다.

경제정당성은 다양한 경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수들로 구성하였는데, 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없어 대신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 장사경험, 비공식 소득, 생산 규율 인식과 장마당 세대, 경제실패에 대한 인식 중 국가 정책, 지도자 요인 인식을 대리변수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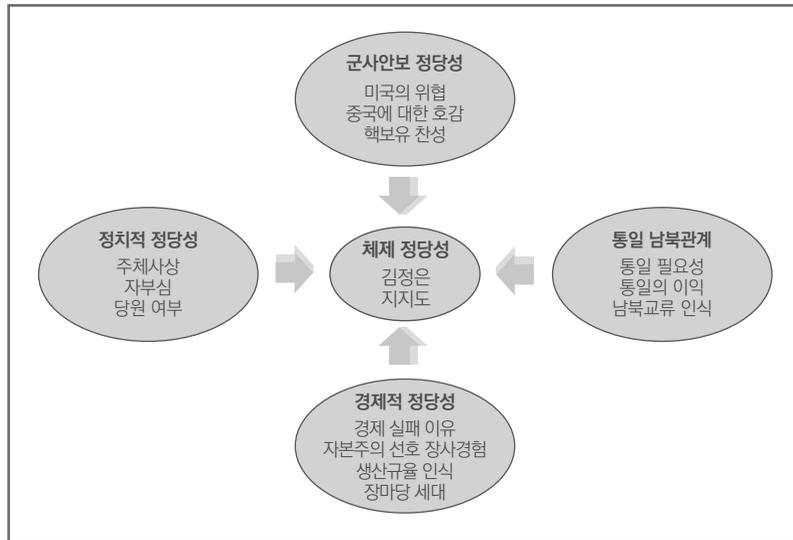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북한에의 이익, 민족주의적 통일인식과 실용주의적 통일인식,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남북교류 협력 중 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기 회담의 통일 효용성 인식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2-1〉 북한체제 정당성 분석 범주와 변수들

범주	설문항목	변수값
군사정치 정당성	핵보유 찬성도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반반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미국의 위협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0, 미국=1
	중국 호감도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껴셨습니까? 미국, 일본, 남한, 러시아=0, 중국=1
	주체사상 자부심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2. 별로 3. 약간 1.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당원	비당원, 후보당원 = 0, 당원 = 1
경제적 정당성	장사경험	장사경험 없다 = 0, 있다 = 1
	국가정책 잘못으로 경제 실패	북한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이유 = 0,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1
	지도자가 경제 실패 원인	기타 이유 = 0, 지도자 때문에 = 1
	비공식 소득	0. 0 1. 천원 이하 2. 오천원 이하 3. 만원 이하 4. 10만원 이하 5. 50만원 이하 6. 100만원 이하 7. 100만원 초과
	생산 규율 유지	직장에서 생산 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1. 거의 대부분 변칙적 2. 대체로 변칙적 3. 대체로 지켜짐 4. 거의 대부분 지켜짐
	자본주의 경제 지지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두 가지 모두 = 0,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약간 더 지지 = 1
	장마당 세대	출생연도 85년 이후 출생자 = 1, 이외의 연령대 = 0

범주	설문항목	변수값
통일 및 남북 교류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2. 별로 3. 반반 4. 약간 5. 매우
	통일의 북한 이익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2. 별로 3. 다소 4. 매우
	통일 이유 (같은 민족)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이유 = 0, 같은 민족이니까 = 1
	통일 이유 (북한주민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이유 = 0,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 1
	남한 인식 (협력 대상)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지원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0, 협력해야 할 대상 = 1
	통일 도움 (인도 지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전혀 2. 별로 3. 다소 4. 매우
	통일 도움 (사회 문화)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전혀 2. 별로 3. 다소 4. 매우
	통일 도움 (경제 협력)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 1. 전혀 2. 별로 3. 다소 4. 매우
통일 도움 (정기 회담)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1. 전혀 2. 별로 3. 다소 4. 매우	

〈그림 2-10〉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남북교류 협력 분석 모델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통해 각각 종속변수인 북한의 김정은 체제 지지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각각의 모델로 삼아 순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먼저 군사정치적 정당성, 즉 대내외적 체제 안정성이 북한체제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핵보유에 찬성할수록, 주변국 중 미국의 위협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중국을 가깝게 느낄수록 그리고 주체사상 자부심이 클수록, 당원일수록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성과 모델의 경우 북한의 경제 실패가 다른 이유(개혁개방의 부재, 과도한 군비지출)가 아니라 국가경제정책 때문이거나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보다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할수록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정은 집권 시기 시장화를 경험한 장마당 세대일 경우 긍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북한의 생산규율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역시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컸다. 예상과 달리 비공식 소득이나 장사 경험 자체는 통계적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군사정치 변인이나 경제 변인을 제외한 통일과 남북교류 모델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 등 통일에 대한 인식은 지지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기적 남북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남한을 적대나 경쟁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 남한과의 사회문화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세 모형을 모두 종합한 모델을 통해 전반적인 정당성의 차원에 따른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는데, 군사정치적 정당성은 지지도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어, 핵보유에 찬성할수록, 중국을 선호할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컸고, 경제정당성 부분도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경제 실패가 국가 경제 정책과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할수록 지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 차원의 변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남북교류 변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졌다. 즉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일과 남북교류가 북한의 체제 정당성과 아무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 현재 북한체제의 정당성에서 핵보유, 미국의 위협과 중국의 호감, 주체사상 인식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실패에 대한 인식,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는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핵보유와 주체사상 등 내외부적 위협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하는 군사정치적 정당성이 북한 체제정당성의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고,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실패인식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과 장마당 세대의 경우 체제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¹⁹⁾

19) 지난 10년의 여론 추세를 볼 때 북한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과도한 군비지출(25.9%),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20.7%), 지도자 때문에(20.7%),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9.19%) 순이다. 최근에는 과도한 군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각 응답을 더미 변수로 만들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도자', '국가 정책' 요인만이 지지도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이 확인되어 분석모형에 설명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군비지출이나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핵개발과 제재로 인한 다소 구조적 조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체제 정당성이나 지도자와는 큰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인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과 남북교류는 핵과 주체사상 등 체제안정성과 이념 요인을 제외했을 경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경우엔 인도지원, 경제협력, 정기회담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북한의 체제 정당성과 군사정치경제통일 인식 순위로지스틱 분석 결과

		군사정치 정당성 모델	경제적 정당성 모델	통일과 남북교류 모델	종합모델
군사 정치 정당성	핵보유 찬성도	0.326*** (0.051)			0.281*** (0.057)
	미국의 위협	0.263* (0.155)			0.176 (0.169)
	중국 호감도	0.411** (0.141)			0.438** (0.155)
	주체사상 자부심	0.765*** (0.070)			0.656*** (0.077)
	당원	0.138* (0.075)			0.157* (0.083)
경제적 정당성	장사경험		-0.148 (0.135)		-0.149 (0.162)
	국가정책 잘못으로 경제 실패		-0.645*** (0.184)		-0.621*** (0.229)
	지도자가 경제 실패 원인		-0.752*** (0.137)		-0.464** (0.180)
	비공식 소득		-0.001 (0.011)		-0.009 (0.013)
	생산규율 유지		0.129** (0.058)		0.028 (0.071)
	자본주의 경제 지지		-0.460*** (0.048)		-0.261*** (0.063)
	장마당 세대		0.203* (0.115)		0.227 (0.145)

		군사정치 정당성 모델	경제적 정당성 모델	통일과 남북교류 모델	종합모델
통일 및 남북 교류	통일의 필요성			-0.048 (0.145)	0.037 (0.160)
	통일의 북한 이익			-0.134 (0.168)	0.064 (0.181)
	통일 이유 (같은 민족)			0.267 (0.164)	0.159 (0.177)
	통일 이유 (북한주민 잘 살 수 있도록)			0.109 (0.159)	0.103 (0.175)
	남한 인식 (협력 대상)			-0.264* (0.135)	-0.038 (0.146)
	통일 도움 (인도 지원)			0.139* (0.076)	0.055 (0.082)
	통일 도움 (사회 문화)			-0.224** (0.088)	-0.067 (0.095)
	통일 도움 (경제 협력)			0.162 (0.099)	0.054 (0.105)
	통일 도움 (정기 회담)			0.137* (0.077)	0.038 (0.085)
cut 1	0.1701	-4.0407	-2.4469	-0.9438	
cut 2	0.9086	-3.3386	-1.7920	-0.1675	
cut 3	1.7413	-2.5813	-1.0735	0.6965	
n	851	1,083	820	750	
비고	*Year effect를 추가한 분석결과임				

*** p<0.01, ** p<0.05, * p<0.1 ()안은 표준 편차.

(2) 통일 필요성과 남북관계

이렇듯 지난 10년 간의 북한의 여론을 검토하면, 북한체제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군사정치적 정당성이 중심이 되고, 경제적 정당성은 경제 실패에 대한 인식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을 지지하고 남북관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는 어떤 경우에 그 의미와 위상이 더 커지며, 주로 어떤 의견과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 여론 자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것이 다른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남북관계 요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통일 필요성 여론에 대해 핵보유, 주체사상 자부심, 자본주의 경제 지지나 비공식 소득, 통일 편익에 대한 인식 및 남북교류 협력 변인의 영향을 순위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세 가지 모델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모델은 핵보유 찬성도나 주체사상 자부심을 제외하고 경제인식과 남북관계 인식만을 포함했을 때, 무엇이 통일에 대한 지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모델은 주체사상 자부심은 포함하고 핵보유 찬성도를 제외하여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했다. 세 번째는 핵보유에 대한 찬성도 변인도 포함해 통일에 대한 여론에 무엇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먼저 핵보유와 주체사상 자부심 요인을 제외한 모델에서는 북

한주민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며, 다음으로 '남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볼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주의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할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컸다.

두 번째로, 핵보유 여부를 제외한 모델의 경우, 여전히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요인이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장마당 세대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핵보유 찬성도를 포함한 세 번째 모델에서도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볼수록,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핵보유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주의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를 선호할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주체사상 자부심의 경우 통일 필요성 여론과 통계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통일 여론은 결국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장 큰 관련이 있으며,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여기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 필요성 인식이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

〈표 2-3〉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 여론 순위로지스틱 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핵보유 찬성도	-	-	0.227* (0.118)
주체사상 자부심	-	-0.059 (0.126)	-0.108 (0.160)
장사경험	0.013 (0.279)	0.008 (0.280)	-0.062 (0.319)
자본주의 경제 지지	0.140 (0.096)	0.126 (0.100)	0.262** (0.122)
장마당 세대	-0.752*** (0.257)	-0.750*** (0.257)	-0.855*** (0.313)
비공식 소득(로그)	0.024 (0.022)	0.025 (0.022)	0.050** (0.044)
통일의 북한 이익	1.334*** (0.206)	1.335*** (0.205)	1.229*** (0.236)
남한 인식(협력 대상)	0.492** (0.241)	0.487** (0.241)	0.606** (0.286)
통일 도움(인도 지원)	0.321** (0.138)	0.315** (0.139)	0.439** (0.163)
통일 도움(사회 문화)	0.145 (0.150)	0.143 (0.150)	0.281 (0.179)
통일 도움(경제 협력)	0.037 (0.168)	0.045 (0.169)	-0.131 (0.203)
통일 도움(정치 회담)	0.171 (0.151)	0.179 (0.152)	0.139 (0.180)
cut 1	-2.2939	-2.4385	-0.5660
cut 2	-0.1417	-0.2846	1.4768
cut 3	1.8863	1.7450	2.4898
n	1,147	1,146	837

*** p<0.01, ** p<0.05, * p<0.1

(3) 통일의 필요성과 시장화

통일에 대한 지지에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 남한과의 협력과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 인도주의적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북한의 현재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요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표 2-4〉 통일 여론에 북한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 순위로지스틱 분석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의지	통일 집단이익	통일 개인이익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 문화교류	경제 협력	정기 남북회담
교육 수준	0.056 (0.244)	0.0392 (0.168)	-0.389 (0.218)	-0.269 (0.210)	-0.324* (0.150)	-0.166 (0.159)	-0.353* (0.157)	-0.296 (0.154)
성별	0.253 (0.272)	0.642* (0.289)	-0.095 (0.223)	-0.0602 (0.145)	0.658*** (0.180)	0.224 (0.136)	0.905*** (0.124)	0.723*** (0.139)
연령대	0.251 (0.156)	0.241 (0.133)	-0.117 (0.240)	0.345** (0.112)	0.270** (0.0934)	0.264*** (0.0547)	0.117 (0.109)	0.147* (0.068)
장사 경험	0.143 (0.141)	-0.131 (0.169)	-0.0241 (0.303)	0.211 (0.204)	0.103 (0.136)	-0.0152 (0.0918)	-0.129 (0.149)	0.064 (0.183)
당원	0.043 (0.290)	0.403 (0.322)	-0.337 (0.347)	0.111 (0.247)	0.014 (0.160)	-0.130 (0.216)	0.056 (0.204)	-0.0378 (0.111)
장마당 세대	-0.366 (0.357)	-0.167 (0.278)	-1.190* (0.505)	-0.121 (0.264)	0.719** (0.225)	0.417* (0.170)	0.577 (0.300)	0.346* (0.136)
남한 친척	0.530* (0.260)	0.0936 (0.234)	0.0320 (0.0878)	0.118 (0.163)	0.246 (0.133)	-0.217 (0.132)	-0.123 (0.188)	-0.250 (0.141)
공식 소득	0.069* (0.0354)	0.0383 (0.0329)	0.0147 (0.0302)	-0.012 (0.0166)	-0.018 (0.0203)	0.008 (0.018)	-0.007 (0.022)	0.0136 (0.0156)
비공식 소득	-0.101 (0.0342)	0.0506* (0.0231)	-0.0268 (0.0167)	0.001 (0.012)	-0.001 (0.012)	0.012 (0.011)	0.012 (0.012)	-0.0004 (0.010)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의지	통일 집단이익	통일 개인이익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 문화교류	경제 협력	정기 남북회담
cut1	-5.190*** (0.516)	-4.984*** (0.582)	-6.893*** (0.522)	-4.824*** (0.627)	-1.096*** (0.182)	-2.768*** (0.300)	-2.011*** (0.284)	-2.009*** (0.225)
cut2	-3.234*** (0.428)	-3.255*** (0.273)	-5.626*** (0.475)	-3.145*** (0.364)	0.0244 (0.204)	-1.219*** (0.223)	-0.767* (0.233)	-0.754*** (0.180)
cut3	-2.498*** (0.400)	-1.574*** (0.298)	-3.484*** (0.541)	-0.892** (0.304)	0.826*** (0.234)	0.435* (0.190)	0.562 (0.203)	0.539*** (0.161)
cut4								7.745*** (1.086)
N	1070	1070	1070	1069	1065	1058	1065	1060

*** p<0.01, ** p<0.05, * p<0.1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과 통일이 이익이 된다고 느끼는 여론,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여론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나이, 교육수준, 장사경험, 당원여부, 세대, 남한친척 여부, 비공식소득 등을 변인으로 순위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했다.²⁰⁾

그 결과 먼저 남한에 친척이 있고, 공식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으로 여성들의 통일 의지가 남성에 비해 높으며, 남북교류 협력중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이는 여론조사의 응답자중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샘플 자체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20) 2018년 연구에서는 통일 여론에 대한 성별, 연령, 비공식소득 변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정동준, 2018 : 55-56).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고,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졌다.

장마당 세대의 경우는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과 달리) 통일이 집단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도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 교류, 정기적 남북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여 전반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에는 호의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았다.

북한주민들의 전반적 의견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비공식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통일 의지가 높을 확률이 컸고, 당원 여부는 통일 필요성, 통일 편익 등의 여론과 통계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북한주민들은 통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핵실험과 대북제재의 영향하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고, 장마당 세대는 통일이 북한 전체에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지만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는 핵개발과 군비지출, 북미 간 협상의 교착상태와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화 경험의 한편으론 경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다른 한편으론 체제 간 통일보다는 보다 실용적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및 함의

이 글은 지난 10년 간 북한의 통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차원에서 통일문제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 통일 여론에는 어떤 특성과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와 시장화의 경향 속에서 북한 사회내부의 통일 여론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북한의 통일여론의 10년 간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통일여론은 남한사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통일 인식은 민족주의적 당위와 북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용적 기대의 결합이었다. 북한 내에서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세대차가 약간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식, 북한식 일방 통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체로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점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다양한 차원들을 분석하여 군사정치, 경제, 남북관계 정당성의 영향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검토하려 했던 것은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선택하고 개혁개방을 선택할 이해관계가 충분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 핵보유와 주체사상이 큰 기반이 되고 있어, 이를 경제 성장으로 보완하고 대체할만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군사정치적 정당성이 가장 크고(주체사상)중국>핵>미국) 다음으로는 경제적 정당성 차원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상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경제 정당성 차원에서 지도자나 국가 정책에

의한 경제 실패 인식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마당 세대와 생산 규율에 대한 인식은 체제 정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상충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군사정치, 경제요인을 제외할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통일 여론과 여러 남북교류 협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군사정치, 경제, 남북통일 요인이 모두 포함된 종합모델에서는 통일과 남북관계가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이 교착된 현재 상황에서는 통일과 남북관계가 북한의 체제정당성과 무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통일 여론이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는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대북 인도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핵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남북교류 기대감은 통일여론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²¹⁾은 현 상태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과 상호 호감과 체제 정당성의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와 시장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통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통일에 대한 지지에 시간의 경과와 시장화에 따른 사회변화 영향이 감지되는데, 장마당 세대와 비공식 소득이 높은 경우 통일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남북교류 협력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의 시장화 경험은 한편으론 경제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 다른 한편으론 체제의 통일보다는 보

21) 이 글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단지 설문지 상에 포함된 문구로서 실제 남북교류에 있어서는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실용적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으로 분화되어 상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여론뿐 아니라 남한의 통일에 대한 여론의 큰 흐름을 고려한다면, 통일에 대해 남한과 북한주민들은 절반 정도가 민족주의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나머지 절반 정도가 실용주의적 의견을, 남한의 경우 전쟁 위협이 없는 비핵-평화에 대한 기대가 통일에 대한 지지를 구성하고 있다. 즉, 남북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합쳐 생각해보면 민족주의 50%(3천만), 북한 실용주의 25%(젊은 세대 900만), 남한 평화주의 25%(1,2천만)의 세 가지 큰 의견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 정치 체제의 관점에서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상당한 차이와 대립이 있지만, 통일 여론에서는 민족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평화주의적 지향 세 가지 의견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비록 이 연구가 분석한 자료가 2011~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로서 대부분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의 여론조사이지만, 체제 정당성 요인과 남북관계 요인에 대한 확인, 통일 여론의 다양한 흐름,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분화양상을 이해함으로써, 북한 내부 여론 차이, 한국 내부 여론차이를 고려해 남북 간의 상호 합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점점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지난 10년 간의 북한이탈주민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 북한체제의 군사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적 정당성의 비중을 바꿔가고 교환, 대체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존과 비핵-평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

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우선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군사정치적 정당성의 하위 요인들인 미국 위협과 핵보유 차원의 의존을 줄여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 정당성 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늘려가면서, 그 과정에서 남북 간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를 통해 정당성의 자원을 교체해가는 것이다. 그 이후 중기적으로는 남북 간 상호 체제 이질성 해소와 동아시아 다자관계의 제도화, 장기적으로는 자유왕래와 체제 전환이나 지역 통합과 통일의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물론 기존의 성공적인 핵 비확산 협상 사례들과 비교할 때 북한의 경우는 이미 핵개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생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비핵화 협상 이론과 사례 연구들은 몇 가지 고려할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존의 협상들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²³⁾. 1994년 제네바 합의 방식과 2006년 6자 합의 방식이다. 전자는 양자 간 갈등이 고조되다가 극적인 타협과 협상의 진행으로 성공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다자 대화가 이루어지며, 포괄적인 합의와 선언 이후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나아간 경우이다. 보다 가까운 시기의 사례로 전자는 2017년 북미 간 긴장 고조와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22) 북한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우선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층적인 단계의 합의와 이행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변화의 결과 혹은 분명한 대외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몽골처럼 세대 교체와 체제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김학재(2021) "몽골의 체제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 『몽골의 체제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3) Muhammet A Bas, Andrew J Coe. Give Peace a Second Chance: A Theory of nonproliferation deal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no.3 (2018): 606-617 2018): 606-617.; Bas, Muhammet A., and Andrew J. Coe. "A dynamic theory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preventive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4 (2016): 655-685.

포함 합의의 사례와 가깝고, 후자의 경우 2014~15년 오바마 정부 시기 이란 핵 위기에 이은 다자간 협상의 사례와 가깝다.

협상의 시점이 아니라 더 긴 역사적 시선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중 하나로 협상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합의 이행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이 더 문제이다. 1994년 합의도, 2006년 합의도, 2018년 합의도, 2015년 합의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거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풀기 어려운 지역적 안보딜레마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는 중동의 지정학적 안보딜레마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어 풀지 못한 갈등으로서²⁴⁾ 단기적인 협상의 시작과 성패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지역적인 해법이 필요하고, 성공적 모델들의 조합들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단계와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즉, 위협과 보상의 병행을 통한 갈등과 긴장 이후의 협상 성공의 방식이건, 신뢰 구축 계기를 통해 낮은 보상과 명분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이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합의 이행과 상호 교환과 신뢰구축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외교와 정치의 1차적 과제는 현재 상황에서 상충하는 것들을 앞으로 단계별로 긍정적 조합으로 만들어내고 대화와 협력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24) Nik Hynek, *Global Nuclear Disarmament* Global Nuclear Disarmament (Oxford: Taylor and Francis, 2016), 263; Kamil Christoph Klosek (2021), 2020년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교체된 이후 최근 이란 핵 협상은 다시 재개되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반응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통일과 평화 프로세스를 다층적인 정치, 외교 차원의 숙의, 합의 이행, 공동의 이해관계 창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차원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국외,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제로섬적 관계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포지티브 섬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²⁵⁾

25) 협상과 합의 이행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한국 내부, 남북간, 남북과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 남북과 국제사회의 합의와 보증(4각 합의와 보증)이 모두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안보딜레마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대남인식

제3장 대남인식

| 송원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 서론

본디 <북한이탈주민조사>는 매해 이탈주민들을 상대로 그 추세를 보아왔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경이 막혀 이번에는 10년 치 이탈주민의 대남인식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남인식 파트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 10여 년 이상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비록 눈덩이 표본모집(snowballing sample) 과정을 거쳐 전체 이탈주민 모집단(population)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으나 매 탈북연도마다 100여명 이상이 표본으로 들어오니 문제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사는 로짓(logistic regression, 문항의 선택지가 두 가지일 경우)이나 순위형 로짓(ordered logistic regression, 문항의 선택지가 세 가지 이상일 경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단순 연도별 추세를 넘어 어떠한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남인식에 관한 질문 문항이 종속변수가 되며²⁶⁾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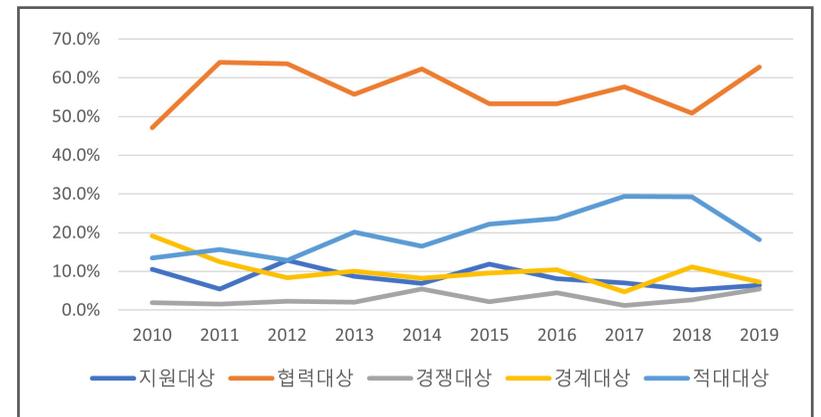
26) 사용된 종속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맨 아래 <표 3-10>에 표시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교육 수준, 여성, 연령그룹, 장사 경험 유무, 당원 여부, 장마당 세대 여부, 남한 친척 유무, 공식소득, 비공식소득.²⁷⁾

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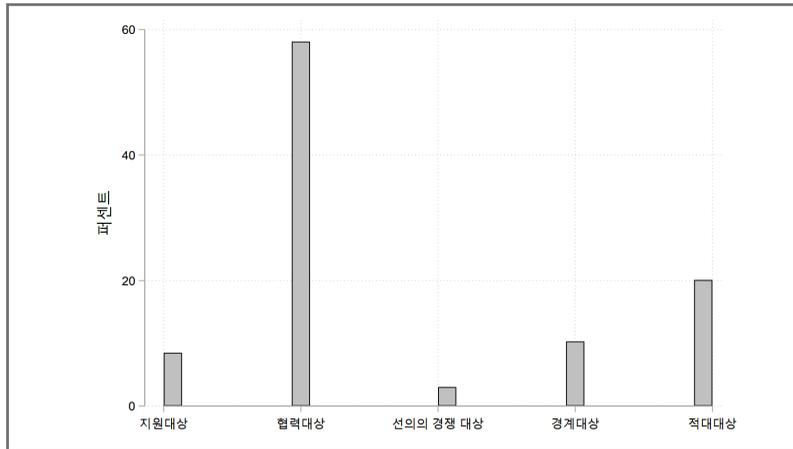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추세선을 관찰해보면 대다수 주민은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적대대상이라는 응답과 반비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7) 소득의 경우 로그값(log)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분포



〈그림 3-2〉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문항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며 절대다수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봄을 알 수 있다.

〈표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표

	협력대상(sk01의 2)	적대대상(sk01의 5)
교육수준	0.154 (0.164)	-0.415** (0.150)
여성	0.135 (0.113)	-0.195 (0.152)
연령그룹	-0.0923 (0.0656)	-0.0414 (0.151)
장사경험	-0.0573 (0.157)	0.476* (0.206)
당원	-0.374 (0.207)	0.587* (0.290)
장마당 세대	-0.470** (0.182)	0.199 (0.249)

	협력대상(sk01의 2)	적대대상(sk01의 5)
남한친척	-0.134 (0.0836)	0.229 (0.178)
공식소득	0.00771 (0.0142)	0.0430* (0.0211)
비공식소득	0.00661 (0.0129)	-0.0185 (0.0147)
상수	0.222 (0.149)	-2.095*** (0.215)
관측치	1069	1069
=* p<0.05	** p<0.01	*** p<0.001"

위 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특성을 지닌 북한주민이 남한을 협력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누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가? 분석에 의하면 장마당 세대가 아닐수록, 즉 85년생 이전 출생일수록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더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누가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가? 회귀분석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²⁸⁾ 조선로동당 당원일수록, 그리고 북한에서의 공식소득이 높았을수록 그렇게 바라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 반대시위’, ‘세월호’, ‘개성공단 운영’ 등 남한의 중요 정치사회적 이벤트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28) 장사경험 변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탈주민 중 정치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남한을 적대, 경계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장사경험은 정치의식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나 장사경험으로 창출된 부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가짐으로써 정치의식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4.19혁명 (sk02a)	5.18 광주항쟁 (sk02b)	88 서울올림픽 (sk02c)	2002 월드컵 (sk02d)	최고기 반대시위 (sk02e)	세월호 (sk02f)	개성공단 운영(sk02g)
교육 수준	0.907*** (0.183)	0.773*** (0.188)	0.420* (0.166)	0.355 (0.187)	0.749** (0.242)	0.663*** (0.115)	0.576*** (0.152)
여성	-0.690*** (0.120)	-0.799*** (0.123)	-0.821*** (0.0477)	-0.812*** (0.0956)	-0.926*** (0.194)	-0.459* (0.186)	-0.320 (0.254)
연령 그룹	0.281*** (0.0390)	0.160* (0.0714)	0.237** (0.0898)	-0.172 (0.139)	0.0311 (0.115)	-0.110 (0.114)	0.189* (0.0742)
장사 경험	0.0629 (0.203)	0.186 (0.185)	0.311 (0.184)	0.255 (0.136)	-0.104 (0.300)	0.220 (0.153)	0.396 (0.214)
당원	0.0594 (0.172)	-0.200 (0.187)	0.155 (0.172)	0.346** (0.133)	-0.228 (0.405)	0.182 (0.121)	0.0304 (0.246)
장마당 세대	-0.298* (0.116)	-1.079*** (0.240)	-0.171 (0.148)	-0.295 (0.191)	-0.572** (0.219)	-0.158 (0.343)	0.0569 (0.255)
남한 친척	0.198* (0.0884)	0.0822 (0.115)	-0.184* (0.0921)	-0.119 (0.109)	-0.239 (0.179)	0.0429 (0.146)	-0.104 (0.0666)
공식 소득	-0.00836 (0.00930)	0.00997 (0.0183)	-0.0174 (0.0105)	-0.0163 (0.00836)	0.0205 (0.0270)	0.00287 (0.0188)	-0.00307 (0.0278)
비m	0.00857 (0.0101)	-0.00808 (0.00625)	-0.00361 (0.0117)	0.00505 (0.0150)	-0.0233 (0.0126)	0.00158 (0.0198)	0.00762 (0.0120)
상수							
관측치	1053	1058	1037	1037	404	643	65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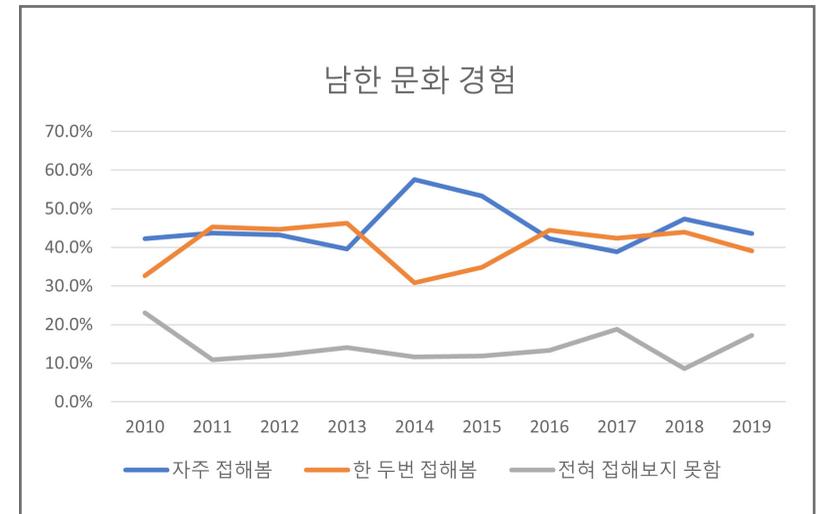
〈표 3-2〉에 따르면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주요 사건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거에 일어난 남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더 잘 알고 있다. ‘개성공단 운영’만이 유일하게 성별이 아무런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가

져다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마 다른 정치 사회적 이벤트에 비해 남한의 개성공단 운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92.54%가, 여성의 경우 90.44%가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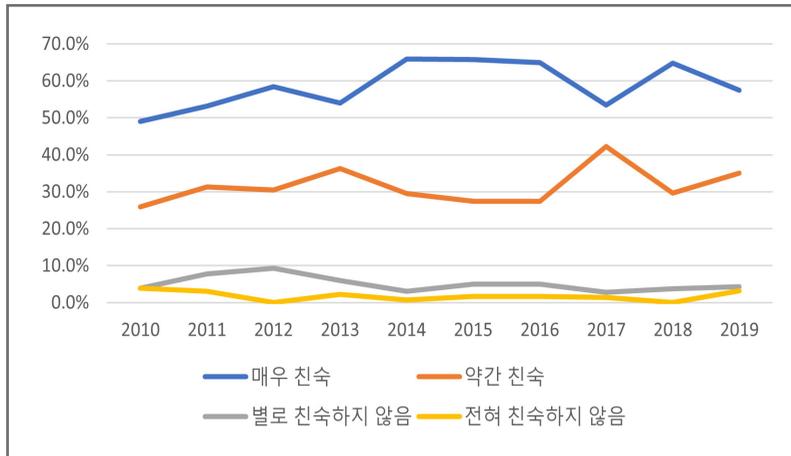
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다음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본다. 북한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남한문화의 접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루트이다.

〈그림 3-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그림 3-4〉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그림 3-3〉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도를, 〈그림 3-4〉는 남한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았다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물어본 남한문화 친숙도의 추세를 나타낸다. 북한주민의 대다수가(평균적으로 80% 이상) 남한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왔으며 친숙도 또한 높게 나온다.

〈표 3-3〉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남한문화경험(sk03)	남한문화호감도변화(sk03c)
교육수준	0.673*** (0.186)	-0.263 (0.231)
여성	-0.789*** (0.108)	0.0828 (0.239)
연령그룹	-0.364*** (0.0799)	-0.234 (0.148)
장사경험	0.840*** (0.185)	0.851*** (0.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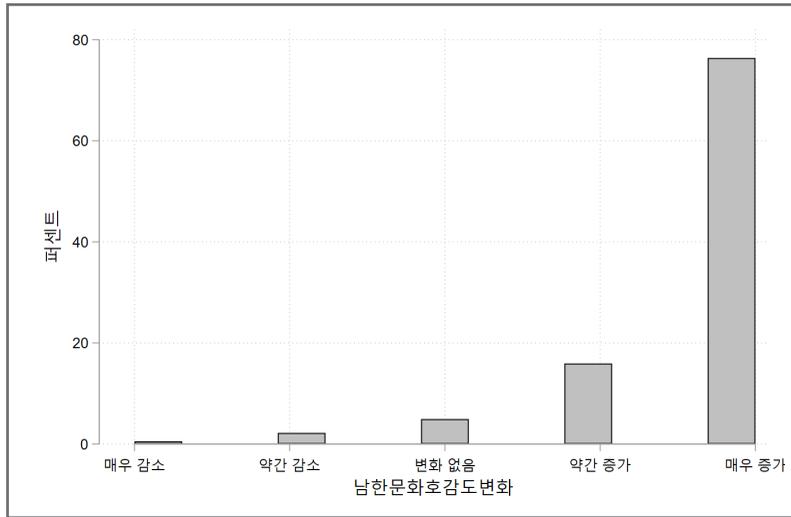
	남한문화경험(sk03)	남한문화호감도변화(sk03c)
당원	-0.335** (0.111)	-0.653* (0.280)
장마당 세대	0.0905 (0.210)	-0.473 (0.315)
남한친척	-0.0790 (0.172)	0.331 (0.238)
공식소득	0.00378 (0.0193)	0.0491 (0.0265)
비공식소득	0.0161 (0.0172)	-0.0352** (0.0135)
상수		
관측치	1070	337
=* p<0.05	** p<0.01	

〈표 3-3〉의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당원이 아닐수록 남한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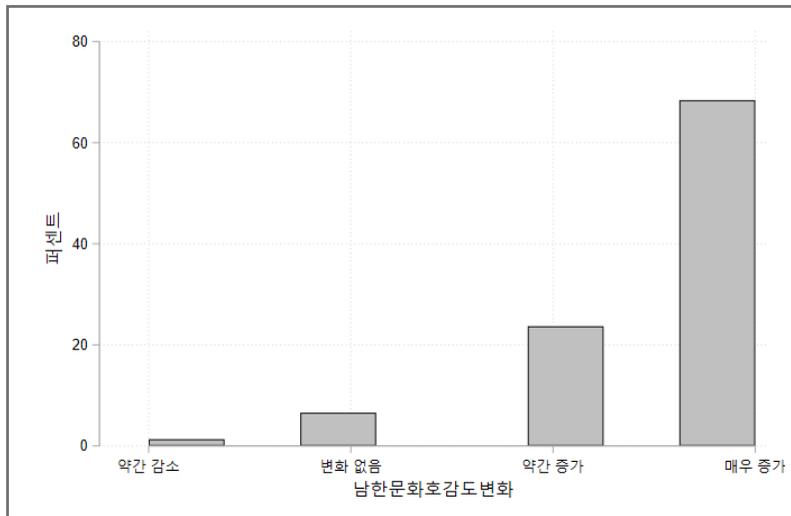
북한주민이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부터 연구진은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당원의 경우와 북한에서의 비공식소득이 높았을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장사 경험의 경우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변수 중 하나이다(〈표 3-1〉 참조). 그리하여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장사 경험이 있는 그룹과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남한문화의 호감도 변화를 관찰해보았다.

〈그림 3-5〉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본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그림 3-6〉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지 않은 장사 유경험자들의 호감도 변화



〈그림 3-5〉에 따르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본 장사 유경험자의 많은 수가 남한문화 경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으며 〈그림 3-6〉이 보여주듯 남한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은 장사 유경험자들 또한 대부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다.

4.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제한된 남북 간 사회교류로 인해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남북 간 이질성이 높다고 느낀다. 연구진은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의 선거제도, 생활수준, 역사인식, 언어사용, 생활풍습, 가치관, 가족중시, 사회복지, 돈에 대한 중시 등 다양한 질문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 추세나 빈도를 넘어 어떠한 변수들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북 간 이질성이 높다고(혹은 낮다고) 느껴지는지 분석해보았다.

〈표 3-4〉 북한주민의 남북한 간 이질성 인식

	선거방식 (sk04a)	생활수준 (sk04b)	역사인식 (sk04c)	언어사용 (sk04d)	생활풍습 (sk04e)	가치관 (sk04f)	가족중시 (sk04g)	사회복지 (sk04h)	돈에 대한 중시 (sk04i)
교육수준	0.315 (0.240)	0.294 (0.272)	0.171 (0.176)	-0.0175 (0.180)	-0.159 (0.126)	0.448 (0.313)	-0.272* (0.137)	0.359 (0.349)	-0.543** (0.200)
여성	0.0324 (0.247)	-0.154 (0.342)	0.435*** (0.101)	0.378** (0.124)	0.113 (0.0893)	0.178 (0.106)	-0.540* (0.227)	-0.150 (0.308)	-0.0813 (0.245)
연령그룹	0.104 (0.0934)	0.124 (0.101)	0.0591 (0.0538)	-0.0887* (0.0392)	0.0397 (0.0682)	0.0406 (0.0766)	-0.0674 (0.119)	0.0134 (0.0580)	0.0412 (0.166)
장사경험	0.642** (0.238)	0.803 (0.414)	-0.116 (0.237)	-0.0670 (0.222)	-0.135 (0.187)	0.291 (0.152)	0.209 (0.161)	0.504 (0.371)	-0.00365 (0.204)

	선거방식 (sk04a)	생활수준 (sk04b)	역사인식 (sk04c)	언어사용 (sk04d)	생활풍습 (sk04e)	가치관 (sk04f)	가족중시 (sk04g)	사회복지 (sk04h)	돈에 대한 중시 (sk04i)
당원	0.583 (0.355)	0.115 (0.311)	0.0239 (0.183)	0.108 (0.121)	-0.0718 (0.109)	0.281* (0.124)	0.0120 (0.156)	0.0373 (0.231)	0.407 (0.350)
장마당 세대	-0.0373 (0.193)	-0.0559 (0.365)	-0.266* (0.131)	0.235 (0.135)	0.0524 (0.158)	0.0119 (0.159)	-0.116 (0.466)	0.0307 (0.269)	0.00716 (0.467)
남한친척	0.459* (0.225)	0.302 (0.259)	-0.128 (0.0701)	0.0399 (0.163)	0.0492 (0.121)	-0.0593 (0.141)	-0.0410 (0.173)	0.0267 (0.143)	0.250 (0.146)
공식소득	0.00923 (0.0318)	-0.000278 (0.0222)	-0.00442 (0.0166)	0.00461 (0.0243)	-0.0125 (0.0185)	-0.0201 (0.0158)	-0.0567** (0.0213)	-0.0340 (0.0479)	-0.0533 (0.0312)
비공식소득	0.0102 (0.0112)	0.00705 (0.0311)	-0.00517 (0.0206)	-0.00383 (0.0109)	-0.00158 (0.00952)	-0.0177 (0.0275)	-0.00162 (0.00697)	-0.0122 (0.0239)	0.0232*** (0.00304)
상수									
관측치	1064	685	679	1060	1057	679	378	379	378
=* p<0.05 ** p<0.01 *** p<0.001"									

〈표 3-4〉는 위의 분석에서 사용된 기본 변수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수들이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문항에서 특정한 변수들의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5〉 남한문화 경험과 북한주민의 남북한 간 이질성 인식

	선거방식 (sk04a)	생활수준 (sk04b)	역사인식 (sk04c)	언어사용 (sk04d)	생활풍습 (sk04e)	가치관 (sk04f)	가족중시 (sk04g)	사회복지 (sk04h)	돈에 대한 중시 (sk04i)
남한 문화경험	0.0909 (0.209)	0.109 (0.265)	-0.0849 (0.204)	0.00695 (0.119)	-0.135 (0.164)	0.121 (0.138)	0.134 (0.172)	-0.0956 (0.0539)	-0.0685 (0.173)
교육 수준	0.292 (0.220)	0.260 (0.317)	0.196 (0.190)	-0.0189 (0.178)	-0.130 (0.143)	0.413 (0.331)	-0.289 (0.151)	0.368 (0.354)	-0.533** (0.199)
여성	0.0560 (0.251)	-0.118 (0.341)	0.412*** (0.0881)	0.380** (0.121)	0.0810 (0.106)	0.211 (0.116)	-0.517* (0.211)	-0.170 (0.310)	-0.0915 (0.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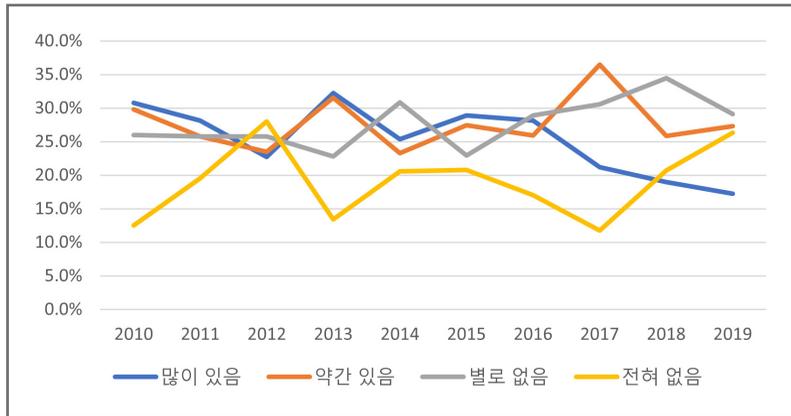
	선거방식 (sk04a)	생활수준 (sk04b)	역사인식 (sk04c)	언어사용 (sk04d)	생활풍습 (sk04e)	가치관 (sk04f)	가족중시 (sk04g)	사회복지 (sk04h)	돈에 대한 중시 (sk04i)
연령 그룹	0.118 (0.0921)	0.137 (0.102)	0.0490 (0.0523)	-0.0879 (0.0478)	0.0235 (0.0772)	0.0548 (0.0754)	-0.0426 (0.138)	0.000753 (0.0502)	0.0276 (0.185)
장사 경험	0.621* (0.257)	0.788 (0.424)	-0.102 (0.263)	-0.0690 (0.221)	-0.0944 (0.206)	0.272 (0.157)	0.157 (0.141)	0.546 (0.382)	0.0249 (0.170)
당원	0.593 (0.348)	0.138 (0.290)	0.0178 (0.179)	0.109 (0.119)	-0.0809 (0.109)	0.291* (0.118)	0.0194 (0.168)	0.0305 (0.226)	0.403 (0.354)
장마당 세대	-0.0344 (0.194)	-0.0611 (0.364)	-0.262 (0.136)	0.235 (0.134)	0.0568 (0.151)	0.00431 (0.166)	-0.0981 (0.476)	0.0257 (0.268)	-0.00418 (0.483)
남한 친척	0.462* (0.224)	0.312 (0.262)	-0.135 (0.0731)	0.0401 (0.161)	0.0465 (0.118)	-0.0484 (0.139)	-0.0530 (0.186)	0.0336 (0.141)	0.255 (0.150)
공식 소득	0.00912 (0.0322)	0.000403 (0.0224)	-0.00514 (0.0153)	0.00459 (0.0243)	-0.0121 (0.0183)	-0.0192 (0.0161)	-0.0593* (0.0246)	-0.0320 (0.0468)	-0.0521 (0.0299)
비공식 소득	0.00941 (0.0116)	0.00510 (0.0299)	-0.00371 (0.0189)	-0.00388 (0.0109)	-0.000978 (0.00923)	-0.0202 (0.0290)	-0.00109 (0.00641)	-0.0128 (0.0240)	0.0227*** (0.00256)
상수									
관측치	1064	685	679	1060	1057	679	378	379	378
=* p<0.05 ** p<0.01 *** p<0.001"									

〈표 3-5〉에서는 남한문화 경험 변수를 추가해보았다. 결과를 보자면 남한문화 경험을 한다고 해서 딱히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좁혀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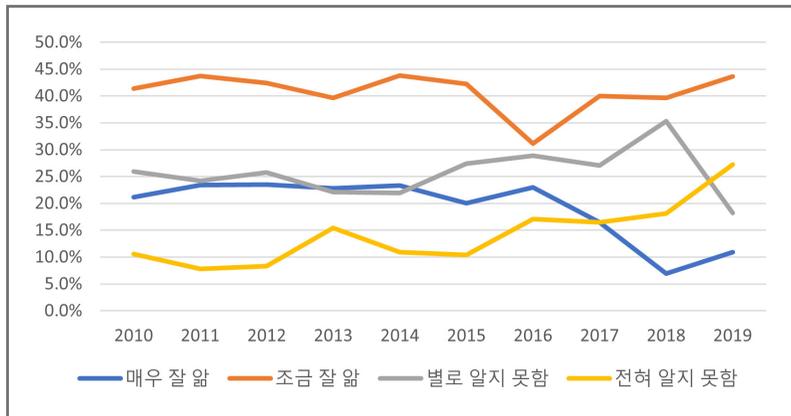
5. 한반도 안보와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남한에게 위협이 되는지 질문한 문항을 분석해보았다.

〈그림 3-7〉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그림 3-8〉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위협



〈그림 3-7〉에 의하면 2017년 이후 나아진 남북한 관계를 반영하듯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8〉의 북한 핵무기의 남한에 대한 위협 정도는 2013년 이후부터 “많이 있

음” 응답은 줄고 “약간 있음” 응답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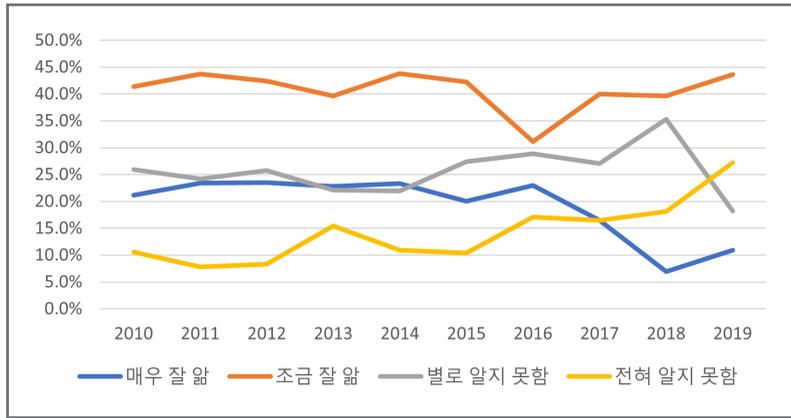
〈표 3-6〉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

	무력도발가능성(sk05)	핵무기 위협(sk06)
교육수준	-0.424** (0.156)	-0.312 (0.213)
여성	0.229* (0.115)	-0.111 (0.171)
연령그룹	0.0973 (0.0739)	0.130 (0.0825)
장사경험	0.00828 (0.202)	0.0652 (0.268)
당원	0.326* (0.149)	0.115 (0.304)
장마당 세대	0.134 (0.226)	-0.0108 (0.168)
남한친척	0.0576 (0.0967)	0.432* (0.168)
공식소득	-0.000350 (0.0156)	0.0189* (0.00931)
비공식소득	-0.0107 (0.0141)	0.0285* (0.0124)
상수		
관측치	1069	1068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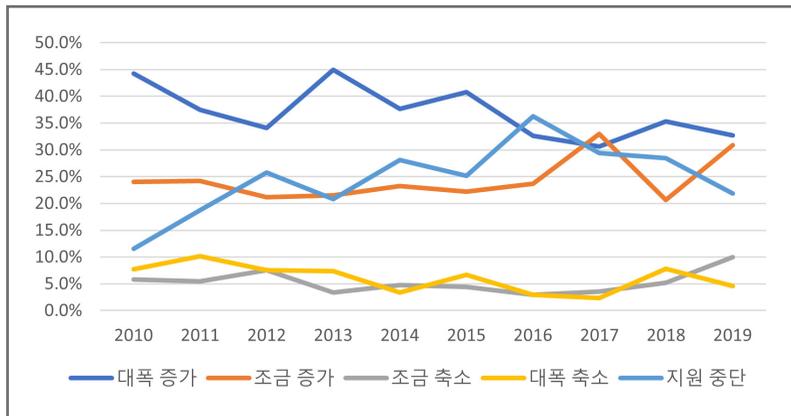
〈표 3-6〉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당원일수록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남한에 친척이 사는 경우 북한의 핵이 남한에게 위협이 된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핵역량의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의 대북한주민 여론

설득 작업은 민족주의적 수사를 동원해야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북한에서의 공식소득이나 비공식소득이 높았을수록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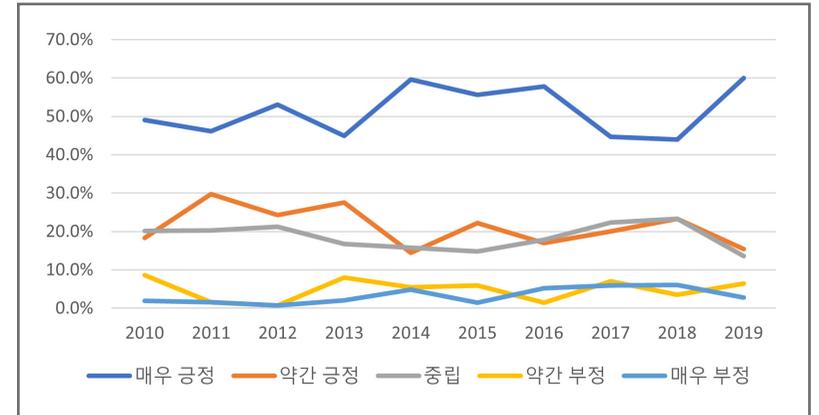
〈그림 3-9〉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식



〈그림 3-10〉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인식



〈그림 3-11〉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꾸준히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대북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답이 다수이지만 대북지원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답도 상당수 차지하나 2016년 이후부터 하강 추세이다.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3-7〉 남한의 대북지원과 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대북지원 인식(sk07)	대북지원 효용성(sk08)	대북지원 규모(sk09)	대북경제투자 효용성(sk10)	남한의 대북지원(sk11a)	남한의 대북경제투자(sk11b)	개성공업지구(sk11c)
교육수준	0.0303 (0.108)	-0.371*** (0.103)	0.0979 (0.124)	0.212** (0.0768)	0.127 (0.225)	0.312 (0.175)	-0.107 (0.145)
여성	-0.535*** (0.114)	0.580* (0.246)	0.312*** (0.0644)	-0.254 (0.183)	0.384** (0.121)	0.373*** (0.104)	0.748*** (0.118)
연령그룹	-0.0279 (0.0770)	0.228* (0.115)	-0.124* (0.0572)	0.143 (0.188)	0.107 (0.118)	0.0927 (0.0991)	-0.0540 (0.144)

	대북지원 인식(sk07)	대북지원 효용성 (sk08)	대북지원 규모(sk09)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 (sk10)	남한의 대북지원 (sk11a)	남한의 대북경제투자(sk11b)	개성공업지구(sk11c)
장사경험	-0.0585 (0.105)	-0.249 (0.265)	-0.142 (0.177)	-0.201 (0.275)	0.201 (0.233)	0.209 (0.203)	0.411 (0.272)
당원	0.231 (0.210)	-0.288 (0.260)	0.143 (0.147)	-0.265 (0.356)	-0.0678 (0.233)	-0.151 (0.183)	0.357** (0.120)
장마당 세대	-0.778*** (0.138)	-0.0866 (0.0898)	0.313 (0.161)	-0.290 (0.255)	0.478* (0.231)	0.572*** (0.165)	0.331 (0.337)
남한친척	-0.00671 (0.135)	-0.152 (0.223)	0.174 (0.171)	-0.295 (0.227)	0.350* (0.160)	0.356** (0.116)	0.255* (0.106)
공식소득	0.0108 (0.0185)	0.0135 (0.0274)	-0.0216 (0.0146)	0.0411 (0.0309)	0.00561 (0.0118)	0.0350*** (0.00927)	0.00795 (0.0216)
비공식소득	0.0212* (0.0105)	0.0137 (0.0125)	-0.0169 (0.0141)	0.0106 (0.0209)	-0.0358 (0.0198)	-0.0351* (0.0140)	-0.0231 (0.0153)
상수							
관측치	1069	411	1049	413	653	653	654
=** p<0.05 ** p<0.01 *** p<0.001"							

〈표 3-7〉은 어떠한 변수들이 남한의 대북지원과 대북한 경제투자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성별이다. 비록 남성일수록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나 여성일수록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보며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한의 대북한 경제투자과 개성공단 운영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한편으로 남한에 친척이 있을수록 남한의 각종 대북지원이나 경제투자,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6. 남한문화 경험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인식

접촉이론(contact theory)에 따르면 남북한처럼 적대적인 집단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지위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²⁹⁾ 하지만 현재 남북한 간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은 강한 통제사회이다. 그러므로 남한문화 경험은 어찌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북한주민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유일한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면 남한문화 경험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표 3-8〉 남한문화 접촉 경험과 대남 안보 인식

	협력대상	적대대상	무력도발가능성 (sk05)	핵무기 위협 (sk06)
남한문화경험	0.383*** (0.110)	-0.526*** (0.136)	-0.393*** (0.0830)	0.136* (0.0656)
교육수준	0.0690 (0.184)	-0.304 (0.185)	-0.341* (0.159)	-0.345 (0.216)
여성	0.232 (0.131)	-0.327* (0.139)	0.144 (0.124)	-0.0775 (0.180)
연령그룹	-0.0440 (0.0689)	-0.108 (0.158)	0.0501 (0.0790)	0.147 (0.0821)
장사경험	-0.165 (0.162)	0.642** (0.208)	0.131 (0.211)	0.0216 (0.266)
당원	-0.350 (0.211)	0.557 (0.299)	0.299* (0.148)	0.123 (0.307)
장마당 세대	-0.483* (0.191)	0.206 (0.249)	0.134 (0.217)	-0.0152 (0.165)
남한친척	-0.128 (0.0902)	0.230 (0.186)	0.0567 (0.0994)	0.435* (0.169)

29) Allport, G. W., *The Nature Prejudice* (Boston: Addison-Wesley, 1979).

	협력대상	적대대상	무력도발가능성 (sk05)	핵무기 위협 (sk06)
공식소득	0.00738 (0.0135)	0.0448* (0.0194)	0.00106 (0.0145)	0.0185* (0.00946)
비공식소득	0.00434 (0.0115)	-0.0166 (0.0139)	-0.00861 (0.0127)	0.0283* (0.0126)
상수	-0.266 (0.235)	-1.496*** (0.336)		
관측치	1069	1069	1069	1068
=* p<0.05	** p<0.01	*** p<0.001		

〈표 3-8〉을 보면 남한문화 경험은 남한을 더 협력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덜 적대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또한 남한문화 경험은 남한의 대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게 하며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더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만든다.

〈표 3-9〉 남한문화 접촉 경험과 대북지원 인식

	대북지원 인식 (sk07)	대북지원 효용성 (sk08)	대북지원 규모 (sk09)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 (sk10)	남한의 대북지원 (sk11a)	남한의 대북경제투자 (sk11b)	개성공업 지구 (sk11c)
남한문화 경험	0.539*** (0.113)	0.226 (0.144)	-0.104 (0.0691)	0.232 (0.181)	0.167 (0.136)	0.251* (0.127)	0.270* (0.120)
교육 수준	-0.0989 (0.0944)	-0.434*** (0.0861)	0.120 (0.121)	0.132 (0.0794)	0.0943 (0.211)	0.269 (0.177)	-0.148 (0.150)
여성	-0.418*** (0.0999)	0.645** (0.202)	0.287*** (0.0697)	-0.192 (0.129)	0.421*** (0.102)	0.437*** (0.0833)	0.816*** (0.114)
연령 그룹	0.0450 (0.0694)	0.253* (0.121)	-0.135* (0.0554)	0.171 (0.173)	0.130 (0.124)	0.129 (0.101)	-0.0168 (0.138)
장사 경험	-0.210 (0.109)	-0.280 (0.253)	-0.116 (0.174)	-0.239 (0.269)	0.142 (0.222)	0.128 (0.187)	0.327 (0.276)

	대북지원 인식 (sk07)	대북지원 효용성 (sk08)	대북지원 규모 (sk09)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 (sk10)	남한의 대북지원 (sk11a)	남한의 대북경제투자 (sk11b)	개성공업 지구 (sk11c)
당원	0.263 (0.204)	-0.258 (0.261)	0.137 (0.150)	-0.242 (0.369)	-0.0630 (0.233)	-0.142 (0.183)	0.374** (0.123)
장마당 세대	-0.798*** (0.124)	-0.0969 (0.0721)	0.321* (0.163)	-0.304 (0.278)	0.484* (0.224)	0.584*** (0.150)	0.336 (0.314)
남한 친척	0.00766 (0.134)	-0.157 (0.230)	0.172 (0.170)	-0.305 (0.228)	0.357* (0.159)	0.368** (0.126)	0.257* (0.106)
공식 소득	0.00918 (0.0175)	0.0155 (0.0281)	-0.0214 (0.0147)	0.0436 (0.0312)	0.00378 (0.0110)	0.0331*** (0.00866)	0.00507 (0.0206)
비공식 소득	0.0180 (0.0113)	0.00803 (0.0126)	-0.0162 (0.0138)	0.00507 (0.0217)	-0.0360 (0.0200)	-0.0356* (0.0145)	-0.0235 (0.0147)
상수							
관측치	1069	411	1049	413	653	653	654
=* p<0.05	** p<0.01	*** p<0.001					

〈표 3-9〉는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대북지원 인식에만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 나머지 문항들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7. 소결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내릴 수 있는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은 압도적으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조선로동당 당원일수록 남한을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남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거에 일어난 큰 사건들을 알 확률이 높다. 셋째, 북한주민의 대다

수가 남한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았으며 친숙도 또한 높게 나온다.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보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당원이 아닐수록 남한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문화를 접한 뒤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으나 당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남북 간 이질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모든 관련 문항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섯째, 2017년 이후 나아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며 북한 핵무기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많이 있음” 응답은 줄고 “약간 있음” 응답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그리고 당원일수록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 친척이 사는 경우 북한의 핵이 남한에게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일곱째,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수가 대북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이 대북지원에 대해 알 가능성은 높으나 일관적으로 여성이 대북지원의 증가나 효용성, 남한의 대북 투자,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으로 남한 친척 유무도 중요한 변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문화 경험은 남한을 더 협력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덜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더 큰 위협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대북지원 인식에만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 나머지 경제 관련 문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표 3-10〉 종속변수 기술통계

종속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sk01_2	1,241	0.572925	0.494853	0	1
sk01_5	1,241	0.198227	0.398825	0	1
sk02a	1,218	1.338259	1.063566	0	3
sk02b	1,224	1.813725	1.017239	0	3
sk02c	1,199	1.194329	1.031928	0	3
sk02d	1,200	1.07	0.991255	0	3
sk02e	499	1.252505	1.151378	0	3
sk02f	714	1.460784	1.128119	0	3
sk02g	724	1.899171	0.909181	0	3
sk03	1,239	1.318805	0.702564	0	3
sk03c	388	3.572165	0.713436	0	4
sk04a	1,233	2.875912	0.481824	0	3
sk04b	790	2.911392	0.386393	0	3
sk04c	784	2.610969	0.625497	0	3
sk04d	1,230	2.582927	0.679253	0	3
sk04e	1,223	2.404742	0.726319	0	3
sk04f	782	2.546036	0.691861	0	3
sk04g	441	2.036281	0.893689	0	3
sk04h	442	2.552036	0.795827	0	3
sk04i	441	2.274376	0.969771	0	3
sk05	1,239	1.596449	1.068806	0	3
sk06	1,238	2.488691	0.784522	0	3
sk07	1,239	1.661824	0.94745	0	3
sk08	509	3.147348	0.996005	0	4
sk09	1,210	2.442975	1.632123	0	4
sk10	512	3.488281	0.88467	0	4
sk11a	725	3.144828	1.132026	0	4
sk11b	725	3.102069	1.161328	0	4
sk11c	726	3.320937	0.991148	0	4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실태인식

제4장 북한실태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1. 서론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으로 여러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자마자 인민생활향상을 구호로 내걸며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선군정치를 당-국가체제로 환원하고 경제개발구 설치와 기업소법, 농장법 등을 제정하며 시장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 모란봉악단을 창설하여 예술공연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여 현지도도를 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과시함으로써 문화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문화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 간 북한의 사회질서와 가치는 많이 변화였다. 전국 각 지역에 종합시장 490여 개가 들어섰고 주민들의 80~90%가 시장을 통해 경제적 삶을 유지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변화된 경제사회 제도와 시장거래,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주민들이 최근 10년 동안 달라진 북한 내부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2020년 동안 연례적으로

축적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체제의식, 즉 정치·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주민의 인식 추이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부체제(domestic system)는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체제는 일정한 정치원리에 바탕을 둔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을 의미한다.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는 북한(조선)이라는 국가 혹은 나라보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현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낮다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북한이라는 국가사회의 존립이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조선)은 조국이며 ‘내 나라’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정치나 경제체제, 사회에 대한 비판 혹은 부정적 인식이 국가나 나라로서의 북한(조선)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는 북한연구의 특성상 대상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북한의 최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지 1년 3개월 이내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접 조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실시한 조사의 10년 자료를 분석하여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수를 분석한다. 북한주민의 내부체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의 세 범주에 총 15문항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와 사회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태도를 평가하고 10년 추세를 살펴보며,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요인과 변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세계 유일의 자료라는 독보적 가치를 갖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세계에서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이 조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그 독보적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표본 수와 표집방법, 지역편중 등 조사방법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편중에서는 양강도와 함경북도 표본이 다수를 차지하여 조사에 나타난 결과가 북한전체를 대변하기보다 조중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인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서울대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2014년 한 기관이 중국 단둥에 나와 있던 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몇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조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전체 주민의식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2. 내부체제 인식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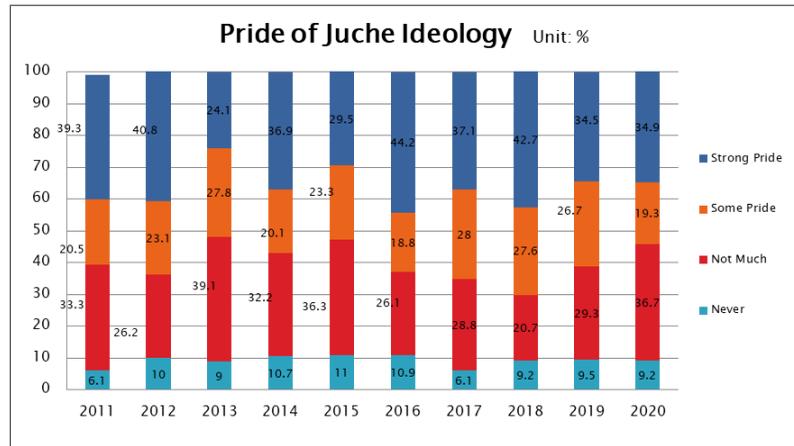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정치외식

북한주민의 정치외식을 측정하기 위해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도도, 정부비판행위, 김정은 직무평가, 정권유지 예상 기간, 핵무기 보유 등 6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체사상을 보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6.0%,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3.4%,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31.0%,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9.3%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59.4% 대 40.3%로 6:4로 나뉘었다. 즉 60%의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고 40%는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그림 4-1>에서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2013년 이후 상승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 전반적으로 정치외식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정치외식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경제가 과거보다는 좋아졌으나 집권초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한 실망 때문일 수 있다. 둘째로는 집권 10년 차에서 오는 정치적 피로감 때문일 수 있다. 셋째는 미국과 각을 세우던 북한이 협상모드로 전환하면서 주체사상 자부심의 핵심을 이루는 자주외 정당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4-1〉 주체사상 자부심 연도별 추이(2011~2020)



주체사상 자부심은 아래의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문화접촉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의 〈표 4-9〉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면 주체사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한문화접촉 정도였다. 즉 한류 접촉이 많을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약화되었다. 한류의 확산과 접촉이 주민들의 사상의식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주체사상 자부심 관련 변수 분석

성별	연령	장사경험	당원	교육	남한친척	남한문화접촉	비공식소득
0.0668	-0.0831	-0.180	0.299	-0.0515	-0.149	-0.191*	0.0115

회귀분석에서 주체사상 의식이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으나 상관분석과 교차분석에서는 $\chi^2=34.208$, $p=0.025$ 로 세대 간 의식 차이가 드러났다. 아래의 〈표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이 적을수록 주체사

상 자부심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부심이 낮았다. 주체사상 자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61.9%로 가장 높고, 30대(60.5%)>40대(58.8%)>50대(56.2%)>60대 이상(53.0%)의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낮았다. 2010년대 전반기에 보였던 ‘고난의 행군 세대’ 특징이 2010년대 후반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50~60대의 장년세대가 지난 10년 동안 체제의식이 급격히 약화됨으로써 ‘고난의 행군 세대’ 특성이 사라진 것이다.

〈표 4-2〉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1~2020)

주체사상 자부심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있다	61.9%	60.5%	58.8%	56.2%	53.0%	59.6%
없다	38.1%	39.5%	41.2%	43.8%	47.0%	4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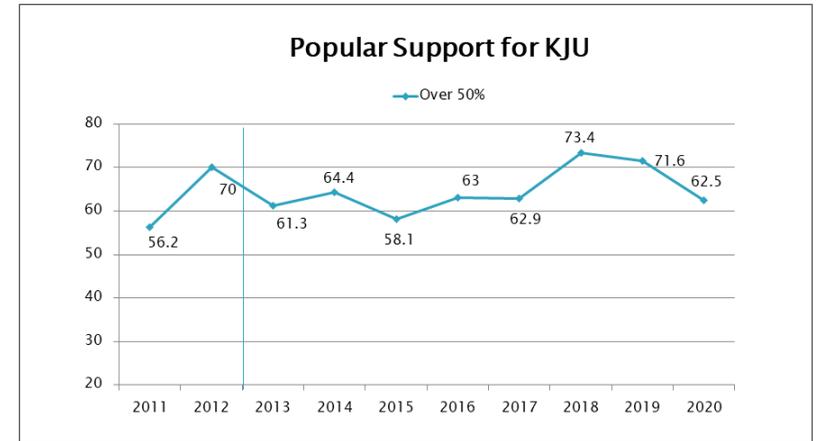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0년대 전반기에는 40대 연령층의 체제의식이 매우 특이하였는데,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독특한 현상이 약화되었다. 2011~2015년 조사를 통합하여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주체사상 자부심은 물론 김정은 지지도나 대남외식 등 체제의식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40대 연령층에서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낮고 30대, 20대로 내려갈수록 높고,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U자형’ 혹은 ‘포물선’ 모양의 의식이 형성되었다.³⁰⁾ 40대 연령층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집단으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던 1990년대

30)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110~114.

후반기에 학생·청년기를 보냈던 세대이다. 이들은 1970년대 출생자로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 가장 민감한 학생·청년 시기에 100만명 이상의 집단아사를 목격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사회해체를 집단적 경험으로 공유한 세대이다. 이들은 주체사상이나 김정은 지지 등 북한의 정치사회 의식에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남한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는 세대로 북한판 ‘386세대’라 할 수 있다.³¹⁾ 2010년대 후반에 60대 이상 연령층의 체제외식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고난의 행군 세대’의 도드라진 특성도 줄어들었다.

김정은 지지도는 ‘50%’라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고, ‘90% 이상’이 17.1%, ‘10%’가 11.4%로 많은 반면, ‘30%’가 12.1%, ‘10% 미만’이 10.2% 등으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김정은 지지도를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합하여 ‘지지도’로 계산하였으며, 아래의 <그림 4-2>는 그 지지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산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0년 간 평균 지지도는 63.7%였다. 지지율의 추세를 보면 집권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2018년 73.4%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2년 동안 하락하는 양상이다.

<그림 4-2> 김정은 지지도의 연도별 추이(2011~2020)



김정은 지지도는 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남한문화접촉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연령이 높아질수록 김정은 지지도는 낮아지며,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김정은 지지도가 낮아졌다. 김정은 지지도는 젊은 층일수록 높고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적을수록 높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북한주민들의 사회경험과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치적 비판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많아질수록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외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3> 김정은 지지도 관련 변수 분석

성별	연령	장사경험	당원	교육	남한친척	남한문화접촉	비공식소득
0.0508	-0.225**	-0.252	0.0346	-0.183	-0.243	-0.200*	-0.00976

31)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105-109.

아래의 <표 4-4>는 연령대별로 김정은 지지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 김정은 지지도는 20대(71.1%) > 30대(68.9%) > 50대(57.2%) > 40대(55.6%) > 60대 이상(50.7%)으로 20대의 지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높고, 60대 기성세대는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다만, 40대가 50대보다 김정은 지지도에서 낮은 현상은 관심을 기울여볼만하다.

<표 4-4>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김정은 지지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0% 이상 지지	71.1%	68.9%	55.6%	57.2%	50.7%

앞에서 설명한대로 40대 연령층이 50대보다 지지도가 낮게 나온 것은 김정은 정권 초기에 형성된 ‘고난의 행군 세대’의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 후반에 이르러 고난의 행군 세대의 정치의식이 약화되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판의식이 커지면서 세대 간 정치의식 지형이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세대 차이에 따른 정치의식이 ‘고난의 행군 세대’의 특성이 발휘되어 다시 ‘U자형’ 혹은 ‘포물선’ 형태를 띠게 될지, 아니면 현재처럼 연령에 따른 반비례의 추세가 지속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직무에 대한 평가는 성별, 장사경험, 당원, 남한문화접촉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즉 여성이 남성보다 김정은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은 장사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김정은의 직무수행을 더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당원일수록, 그리고 남한문화접촉이 많을수록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김정은 직무 수행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생활세계에서 의식주를 직접 챙기고 있는 여성들이 북한당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심각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원이 김정은 직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원이 사회적 지위에 비해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의 확산과 그로 인한 장사경험이 정치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류 등 외부문화 접촉도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많다’ 8.6%, ‘약간 있다’ 49.6%, ‘대체로 없다’ 25.0%, ‘전혀 없다’ 16.3%로 ‘있다’와 ‘없다’가 58.2% 대 41.3%, 약 6:4로 나뉘었다. 10년의 추이를 보면 정치적 비판행위가 ‘있다’는 의견이 2012년 72.4%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여 2014년 47.7%까지 내려온 후 2015년에 62.3%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정치적 비판행위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전반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하락 추세에 있다. 정치적 비판행위도 김정은 직무평가와 비슷하게 장사경험 및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변수로 파악되었다(<표 4-10>). 즉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정치적 비판행위가 많다고 평가하며,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북한 내 정치적 비판행위가 많다고 평가했다. 장사경험과 문화접촉이 북한 지도부와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준다.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가 28.0%로 가장

많고, '30년 이상' 18.8%, '5-10년' 20.5%, '5년 미만' 9.3% 등으로 북한 정권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예상했다. 북한 붕괴를 예단하는 일부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를 단기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보지 않고 붕괴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거나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10년 추이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의 단기붕괴 응답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장기유지 전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 예상유지 견해는 성별, 교육, 비공식 소득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표 4-10〉). 남성이 여성보다 정권의 예상 유지기간을 길게 보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공식 소득이 높을수록 정권유지 기간을 길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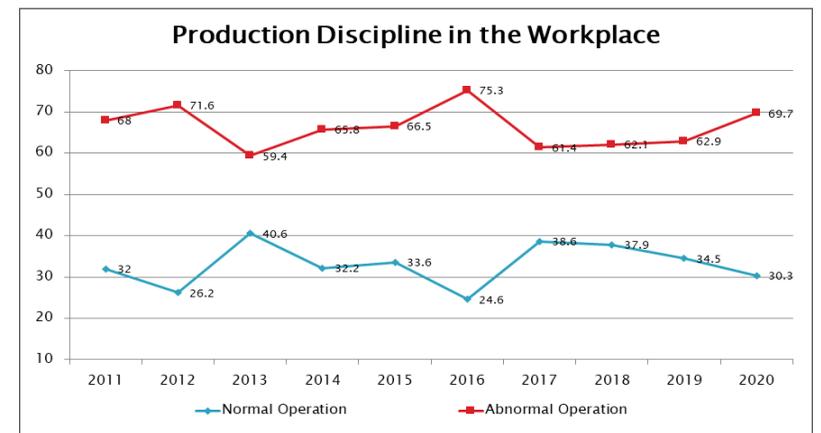
핵무기 보유에서는 '찬성' 50.2%, '반대' 22.6%, '반반' 27.3%로 찬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이를 보면 조사를 시작한 2014년에 '찬성' 46.3%에서 2018년 56.3%까지 상승한 이후 2019년 50.0%, 2020년 43.1%로 하락하고 있다. 2020년에 '반반/그저 그렇다'는 중간입장이 25.9% → 40.4%로 급증한 것이 이례적인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으로 핵보유 정당성 논리가 다소 약화됨으로써 핵보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중간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북한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미국 및 남한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경색국면에서 향후 찬성 의견이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무기 보유 견해에는 성별과 당원여부,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표 4-10〉). 즉 남성이 여성보다, 당원이 비당원보다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고, 남한문화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핵무기 보유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기에서도 외부 문화접촉 경험이 핵무기 보유와 같은 정치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북한주민의 경제의식

경제의식은 직장 내 생산규율, 경제악화 원인, 경제체제 선호도 등 3개 문항을 살펴보았다. 직장 내 생산규율은 북한 노동자들이 기업이나 공장에서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과 직장 바깥에 나가 각종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실제 기업과 공장 가동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가 8.5%,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4.3%,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32.7%,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3.8% 등으로 '정상운영'보다 '변칙운영'이 32.8% 대 66.5%로 2배 가량 많았다.

〈그림 4-3〉 직장 내 생산 규율의 연도별 추이(2011-2020)



생산규율이 66.5%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직장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직장 바깥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환율도 1달러 당 8,100원 선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³²⁾ 생산규율의 변칙운용이 많은 이유는 소득증대를 위해 직장 바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으로 노동의 유연성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생산규율이 지켜지는 비율을 직장 과 공장의 생산 및 노동 가동률이라고 보면, 지난 10년 평균 생산·노동 가동률을 32.8%로 보아도 무방하다. 10년의 추이를 보면 30%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미세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규율 유지 인식은 아래의 회귀분석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장사경험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생산규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식의 흐름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5> 생산규율 유지 관련 변수 분석

성별	연령	장사경험	당원	교육	남한친척	남한문화접촉	비공식소득
0.0321	0.141	-0.302	-0.182	-0.216	0.00789	-0.0546	0.00673

경제악화 원인에 대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으나,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도 20.7%로 많았고 ‘지도자

때문’도 20.7%로 많았다. 10년 추이를 보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의견이 2018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고 ‘지도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라는 의견과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상승하는 추세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의 경제제재’ 항목인데 두 가지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하나는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이유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음에도 그 응답이 지난 10년 간 평균 6.8%에 머물렀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재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을 만큼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8%라는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의외의 결과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끄떡없이 경제를 유지해 왔고 또 자력갱생으로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선전에 북한주민들이 오랫동안 학습되어 미국의 대북제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북한주민들은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북한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이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2011년 4.8%에서 2020년 12.3%로 꾸준히 상승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은 2016년부터 미국의 대북제재가 행정명령에서 법으로 시행되었고 강도 높게 이루어지면서 정권차

32) 김규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일인가 지속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2019): 22.

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그 위력을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서구세계의 대북제재 영향력을 점점 중요하게 인식해 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제체제 선호도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은 24.1%로 적고,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를 더 지지했다’는 응답이 70.7%로 3배가량 많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월등히 선호한다는 이러한 결과가 북한 내부주민 의식을 어느 정도로 정확히 반영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시장경제와 개인소유 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체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한 문화접촉 경험과 비공식 소득이다. 즉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와 개인소유경제)를 더 선호하며, 비공식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본주의 경제를 더 선호하였다(〈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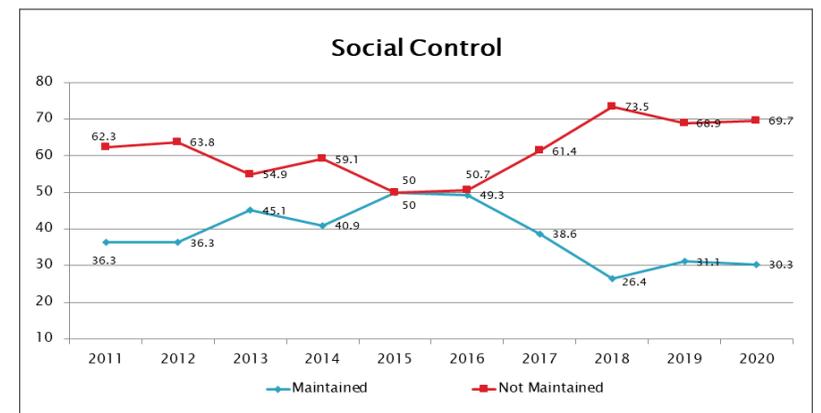
(3) 북한주민의 사회의식

사회의식은 사회통제, 생활총화, 지리적 이동, 외부소식 접촉 경로, 언론 신뢰도, 집단주의 등 6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먼저,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10.6%,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29.0%,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49.2%,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11.1% 등으로 나

타났다.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39.6%,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0.3%로 4:6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과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 응답이 10.6%, 11.1%로 팽팽히 맞서는 현상도 흥미롭다.

10년 추이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가 제7차 당대회가 있던 2016년 이후 대폭 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4-4〉). 시장화 및 경제발전에 따라 주민들이 시장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통제가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그러한 시장 활동이 일상화되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서 기존의 사회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에 사회통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당창건 75주년(2020년)을 계기로 성과를 내기 위해 ‘80일 전투’ 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추진하면서 통제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림 4-4〉 사회통제 인식의 연도별 추이(2011-2020)



아래의 <표 4-6>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통제 인식은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높았다. 시장과 장사에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는 여성들이 생활세계에서 사회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4-6> 사회통제 인식 관련 변수 분석

성별	연령	장사경험	당원	교육	남한친척	남한문화접촉	비공식소득
-0.295*	0.0939	-0.192	-0.248	-0.0107	0.0401	0.0246	-0.00358

생활총화는 일주일 단위로 주민들을 동원하여 학습과 강연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민결속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동원기제다. 생활총화 참석률은 ‘70-90%’라는 응답이 28.2%, ‘50-70%’가 27.2%로 많았고,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17.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30% 미만’ 응답이 12.2%, ‘30-50%’ 응답도 14.3%로 생활총화 출석률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총화 출석률이 매우 높았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장사 등 여러 필요한 활동으로 총화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10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 1~2년 사이에 출석률이 높아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국영부문의 회생 기회로 삼기 위해 조직 생활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³³⁾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여성들에 대한 동원이 늘

어나는데, 이전에는 돈을 주고 동원에 빠질 수 있었던 여성들이 돈이 없어 직접 동원에 나서야 하고, 그 결과 생활총화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 총화참석률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생활총화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당원여부다(<표 4-9>). 즉 당원일수록 생활총화 출석률이 높았다. 당원은 조직생활에 더 철저히 묶여 있기 때문에 후보당원이나 비당원보다 높을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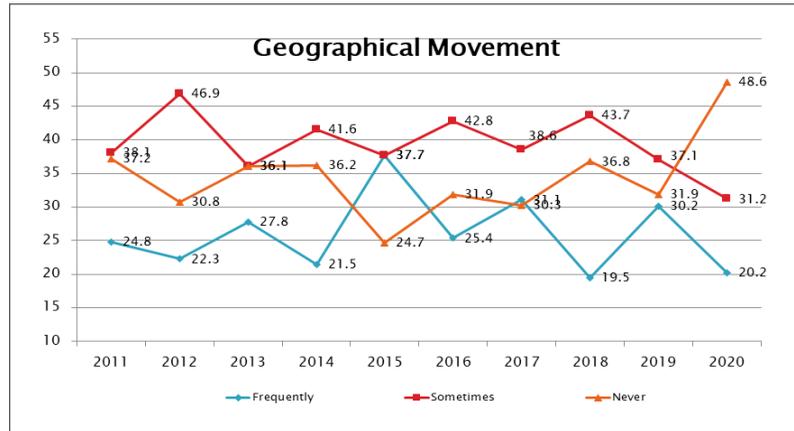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생활총화 출석률 추이는 주민의 지리적 이동 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주민들의 지리적 유동성은 북한사회 변화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이 조사에서는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자주 가보았다’(26.3%), ‘가끔 가보았다’(39.6%), ‘거의 가보지 못했다’(33.9%)로 나타났다. 10년 추이를 보면 다른 지역으로 거의 가보지 못한 사람이 2011년 37.2%에서 2015년 24.7%로 줄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48.6%까지 많아졌다.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장사 등 시장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다른 지역을 전혀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가보았다는 응답이 줄어든 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가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최근 1~2년 사이에 많아진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침체와 동원조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즉 국가가 경제침체의 기회를 국영부문 확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 주민들을 적극 동원하는 상황에서 지리적 이동이 대폭 감소한

33) “북한서 코로나로 시장 붕괴하면서 여성 위상도 추락 가능성,” 연합뉴스, 2022년 8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164300504?input=1179m>.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사회통제가 최근 1~2년 사이에 강화된 것도 그러한 사회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림 4-5〉 지리적 이동 경험의 연도별 추이(2011-2020)



아래의 〈표 4-7〉에서 볼 수 있듯이 타지역 방문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장사경험, 교육, 남한문화접촉 경험, 공식소득 등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타지역 방문경험이 월등히 높았으며,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타지역 방문경험이 85.3% 높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타지역 방문경험이 많았다. 또한 남한문화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공식소득이 높을수록 타 지역 방문경험이 많았다.

〈표 4-7〉 타지역 방문경험 관련 변수 분석

성별	연령	장사경험	당원	교육	남한친척	남한문화접촉	공식소득
-0.786***	-0.0636	0.853***	0.281	0.372*	-0.0106	0.636***	0.0029**

한편, 외부소식 접촉 통로는 신문(9.5%)이나 방송(7.0%) 등 공식매체보다는 친척이나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51.2%)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연·학습 10.3%,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매체(방송, 통신, 뼈라 등) 20.2% 등이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이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반면, 신문·방송 등을 통한 접촉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대부분 사실’ 29.2%, ‘일부만 사실’ 35.4%,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28.7%, ‘생각해본 적 없다’ 6.5% 등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당원여부와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다(〈표 4-9〉). 즉 당원이 비당원보다 언론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았고, 남한문화 접촉이 많을수록 언론을 불신하는 경향이 높았다.

국가적으로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집단우선’과 ‘개인우선’의 태도는 15.0% 대 84.8%로 개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난 10년의 추이를 보면 8 대 2 혹은 9 대 1 정도로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보다 우세한 추세 속에서 최근에 이를수록 개인주의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태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성별과 장사경험, 남한문화접촉 경험이었다(〈표 4-9〉). 즉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주의 태도가 강했고,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선호가 높았으며,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다.

3. 결정요인 분석

앞에서 각 항목별로 추세를 설명하는 가운데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변수를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변수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체제의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는 각 의식을 구성하는 15개의 문항을 지칭하는 대의적 개념이다.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계층, 세대, 성별과 지역, 시장경험, 문화접촉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계층: 당원, 교육, 직업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유력한 변수로는 계층을 꼽는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성분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의 3계층으로 구분하며 계층이 정치의식과 경제사회의식을 결정하는 유력한 요인으로 분석한다. 북한에서 성분으로 구성된 계층질서는 사회주의 체제의식의 분화를 낳는 가장 유력한 변수로 꼽힌다.³⁴⁾ 특히 한국전쟁의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화 된 계층구조는 전후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신념과 태도를 공고하게 형성하였다.³⁵⁾ 한국전쟁 이후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정책과 교육을 통

34)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245.

35)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9권 no.1 (2000): 219-242.

한 사회화, 가정을 통한 내면화를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사자·피살자 성분이 주를 이루는 상류층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계층으로 대체로 체제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사상의식이 투철한 반면, 월남자 등 '반동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민들은 체제의식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조사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계층분류에 사용하고 있는 전사자·피살자 가족이나 혹은 항일혁명가 가족, 월남자 가족 등의 성분을 직접적인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계층을 결정하는 유력 변수인 당원, 교육,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4-9>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당원 여부는 김정은 직무평가와 핵무기 보유, 생활총화 출석률, 언론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원일수록 당원이 아닌 사람보다 김정은 직무평가를 부정적으로 본 반면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였으며, 생활총화 출석률이 높고 언론신뢰도도 높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당원(63.0%)이 비당원(47.5%)보다 더 높은 찬성의견을 피력하였고, 타지역 이동경험에서도 당원(41.2%)이 비당원(23.7%)보다 타지역 이동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이 김정은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사결과는 북한에서 상류 핵심계층이 체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통설과는 달랐다. 물론 당원 여부가 주체사상의 자부심이나 전반적인 김정은 지지도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직무평가만으로 정치의식이나 체제의식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체제의 핵심 구성원인 당원이 김정은 직무

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상인과 돈주들의 경제력이 상승한 반면 당원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박탈감이 커진 결과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당원이기 때문에 김정은 근황이나 정치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정도는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과 다른 지역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이 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타 지역을 더 자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정권의 예상 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평가하며 타지역 방문이 적었다. 타지역 방문 경험에서는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이 대학(41.9%)>전문대(26.7%)>고등중(23.9%)>인민학교(21.7%)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타지역 이동경험이 많았다. 경제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인민학교>전문대>고등중>대학 순으로 인민학교 졸업자에서 높고 대학졸업자 집단에서 낮은 반면,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학>고등중>전문대>인민학교 순으로, 개혁개방 부재 때문이라는 응답은 대학>전문대>고등중>인민학교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도자 때문이라거나 개혁개방 부재 때문이라는 정치적 비판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육변수는 체제의식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약화시키는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어 양면성을 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정권이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현실적 인식 및 체제우호 의식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회이동 경

험을 바탕으로 경제개혁과 개방 의식이 형성되어 체제 비판의식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직업 변수는 회귀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교차분석을 통해 체제의식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8>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사상에 대한 군인의 자부심은 80.3%로 가장 높고, 사무원(54.2%)과 전문가(52.8%), 외화벌이일군(48.1%)에서는 낮으며, 노동자(57.6%)와 농민(59.2%)은 중간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뒤에서 시장경험을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60.9%)은 외화벌이 일군과는 달리 체제의식이 비교적 높다. 김정은 지지도도 군인은 73.8%로 높은 반면, 외화벌이 일군(48.1%)과 교원·의사·기술자 등 전문가(56.6%)와 사무원(58.7%) 직업군에서는 낮다. 군인의 경우 ‘90% 이상’ 지지도가 32.8%나 될 정도로 매우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66.3%)과 노동자(68.7%) 직업군은 중간 정도의 지지도를 보이며 상인(61.0%)은 노동자 농민보다는 낮지만 외화벌이 일군(48.1%)보다는 높다.

<표 4-8> 직업별 김정은 지지도(2011~2020)

체제의식	직업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일군	장사	가정부인
주체사상 자부심 '있다'	57.6%	59.2%	54.2%	52.8%	66.3%	80.3%	48.1%	60.9%	63.0%
김정은 지지도 (50% 이상)	68.7%	66.3%	58.7%	56.8%	62.6%	73.8%	48.1%	61.0%	64.7%

*교원, 의사, 기술자 등.

경제악화 원인과 같은 경제문제에 대한 의식은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악화의 원인이 개혁개방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면 사무원과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고,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라는 의식은 군인과 학생, 사무원, 전문가 직군에서 높다.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은 농민에서 높고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은 군인과 외화벌이 일꾼의 직군에서 높다.

‘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북한에서는 공식소득이나 비공식소득에서도 정치의식과는 유력한 관련성은 없었다. 비공식소득이 많을수록 북한정권의 예상유지 기간을 길게 보는 경향은 상류층이 긍정적 체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반대로 비공식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주의 경제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더 지지하게 함으로써 체제의식에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또한 외화벌이 종사자는 소득이 많은 반면 정치의식에서는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는 계층은 북한의 체제의식과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당원여부와 교육수준, 직업 등의 변수로 살펴볼 때, 북한주민의 체제의식은 계층과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존 계층가설과는 반대의 결과도 나타났다. 대체로 상류층을 구성하는 당원여부만으로 보면 핵무기 보유와 생활총화 참여, 언론신포 등에 긍정적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체제의식을 강화하나, 김정은 직무평가와 같은 항목에서는 오히려 비판적 태도를 보여 일관되지는 않는다.

교육 변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상류층일 가능성이 높는데, 교육 정도가 체제의식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약

화시키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정권 유지 기간을 길게 보는 것은 체제의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나, 사회이동 경험이 많아져 체제비판의식을 형성하는 역효과도 존재한다. 직업에서도 상류층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군인은 정치의식이 높지만 전문가 집단은 반대로 정치의식이 매우 낮다. 이러한 현실은 계층이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유력한 변수이기는 하나 각 요소별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상류층의 체제의식이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시장화에 따른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의식을 포함한 체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심층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표 4-9〉 회귀분석 결과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김정은 직무평가	비판행위 정도	북한정권 예상유지기간	핵무기보유 견해
성별	0.0668	0.0508	0.351***	0.0523	-0.278*	-0.264*
연령	-0.0831	-0.225**	-0.180	0.115	-0.0546	-0.122
장마당세대	0.00395	0.0916	0.5395	-0.0584	-0.173	0.259
장사경험	-0.180	-0.252	-0.511***	0.408*	-0.0849	0.121
당원	0.299	0.0346	0.320***	0.0512	-0.200	0.530*
교육수준	-0.0515	-0.183	-0.487	-0.0101	0.208*	0.00973
남한친척	-0.149	-0.243	-0.131	-0.0161	0.0864	-0.0709
남한문화접촉	-0.191*	-0.200*	-0.275**	0.236**	0.0608	-0.304*
소득(공식)	0.00346	0.00312	-0.0230	0.0264	0.00652	0.0157
소득(비공식)	0.0115	-0.00976	0.00893	-0.00488	0.0321*	0.00644
N	1,241	1,241	444	1,241	1,241	877
SD	4.183	7.113	4.928	7.084	6.271	1.364

	생산규율 유지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통제 유지도	생활총화 출석률	다른지역 방문	언론 신뢰	집단 / 개인 우선도
성별	0.0321	-0.0615	-0.295*	-0.0561	-0.786***	0.0886	0.256*
연령	0.141	0.0609	0.0939	0.0353	-0.0630	0.0840	0.0152
장마당세대	0.0421	-0.177	-0.208	0.194	-0.224	0.156	-0.184
장사경험	-0.302	0.233	-0.192	-0.0627	0.853***	-0.121	0.403*
당원	-0.182	-0.159	-0.248	0.542*	0.281	0.557**	-0.0462
교육수준	-0.216	0.187	-0.0107	0.0768	0.372*	-0.151	-0.179
남한친척	0.00789	0.115	0.0401	-0.124	-0.0106	-0.140	0.156
남한문화접촉	-0.0546	0.722***	0.0246	-0.0542	0.636***	-0.441***	0.375*
소득(공식)	0.0186	-0.00232	-0.00692	-0.00261	0.0029**	0.0111	0.00777
소득(비공식)	0.00673	0.0201*	-0.00358	0.000842	0.00982	-0.00629	0.0211
N	1,241	1,241	1,241	1,241	1,241	582	1,241
SD	8.705	5.185	2.999	7.751	5.025	4.249	4.136

*p<0.05, **p<0.01, ***p<0.001

(2) 세대

연령 혹은 세대는 2011~2020년 조사에서 북한의 체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변수로 관심을 끌어들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은 김정은 지지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9〉). 젊은 세대일수록 김정은 지지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다.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연령대로 올라갈수록 지지도는 22.5%의 비율로 떨어진다. 40대(55.6%)가 50대(57.2%) 보다 지지도가 조금 더 낮아 ‘고난의 행군 세대’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김정은 지지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회귀분석에서는 세대 변수가 주체사상 자부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차분석에서는 세대가 정치의식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교차분석에서는 연령에 따른 견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p=0.016). 20~40대는 ‘매우 찬성’ 의견이 각각 32.0%, 31.2%, 33.2%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매우 반대’가 28.7%로 가장 많았다. 50대는 ‘반반/그저 그렇다’는 중간 입장이 31.4%로 가장 많았다. 20~40대 젊은 층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는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핵무기 보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김정은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각 세대마다 역사적 환경과 사회화 경험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만 해도 ‘고난의 행군’의 경험과 기억이 생생하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 세대’(1970년 대생)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즉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후반기에 학생 청년기를 보낸 ‘고난의 행군 세대’는 대규모 집단 아사를 목격하고 사회해체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면서 주체사상이나 체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형성하였다. 이 세대는 남한에 대해서도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고난의 행군 세대’에 해당하는 40대 연령층이 주체사상과 김정은 지지 등 정치의식이 가장 낮았다.³⁶⁾ 그러나 김정은 정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40대 연령층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60대 연령층의 정치의식이 급격히 약화됨으로써 고난의 행군 세대 특성도 사라졌다.

36) 김병로 외, 앞의 책, 110-114.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고 안정되면서 세대 간 체제의식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키즈로 불리는 20대 연령층은 정치외식이 가장 높은 세대로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전반적으로 강하다. ‘장마당 세대’(1980년 대생)로 불리는 30대도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제의 자부심이 높은 편이며, ‘고난의 행군 세대’인 40대의 정치외식도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질서가 회복되면서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전쟁직후 세대인 60대 이상 연령층은 사상과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낮아졌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정치외식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고난의 행군 세대와 장마당 세대가 장사경험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낮지 않고 특히 장사경험이 적은 60대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 것은 시장경험보다 연령변수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경험보다 생애주기(life course)가 정치외식 변화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북한의 20대와 30대는 청년기로 제도권 교육에 주로 포함되어 있거나 사회 초년병으로 높은 사상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결혼생활과 자녀교육, 직장생활에 가장 분주한 40대와 50대 중년기에 이르면 사상의식이 점차 약해진다. 60대 노년기에 이르면 사회생활이나 조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치와 사상에 대한 회의적 의식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생애주기의 흐름이 정치외식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3) 성별과 지역

성별은 회귀분석 결과 김정은 직무평가, 북한정권예상유지기간, 핵무기보유, 사회통제 유지도, 다른 지역 방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권유지도 ‘단기’유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핵무기 보유를 더 반대하고, 타지역 방문 경험이 더 많으며, 사회통제도 잘 안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차별적 구조가 체제의식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시장과 생활세계에서 의식주를 직접 부담하는 위치에서 사회의 무질서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심각하게 갖기 때문에 정치외식이 남성보다 비판적 정치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차이는 이 조사에 사용된 표본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자로 집중되어 있어서 분석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는 평안도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 자강도의 순으로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높고 양강도, 강원도, 자강도 등의 지역에서는 낮게 나왔으며,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조사의 표본이 평안도와 황해도 등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되면 지역 변수의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4) 시장경험 (장사경험, 비공식소득, 경제외식과의 관계)

장사경험은 북한 내부 체제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표 4-9>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직무평가,

비판행위 정도, 다른 지역 방문, 집단주의/개인주의 등 체제인식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김정은이 직무를 잘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정치적 비판행위가 더 있다고 보고, 타지역 방문도 더 빈번하게 하며,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화가 북한의 정치의식과 경제의식, 사회의식의 변화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타 지역 방문이 많고 정보도 많이 접할 것이므로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낮고 사회주의나 집단주의보다 자본주의나 개인주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북한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현실에서 시장의 경험은 정치와 경제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주체사상 자부심 및 김정은 지지도에서 각각 60.9%, 61.9%로 사무원(52.8%)이나 외화벌이일꾼(48.1%)보다 높게 나타나, 정치의식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은 시장화 가설에 역행한다.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들은 타지역 이동경험과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선호하고 정치적 비판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다른 집단에 비해 장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 삶의 기반을 갖추으로써 상류 기득권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층이다. 상인들의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여 상류층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수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³⁷⁾ 물론 북한당국의 단속과 규제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37)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no.1 (2013): 172-214.

고 하나 시장개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상인들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사경험이 정치사회외식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공식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정권 예상유지 기간을 길게 보는 평가와도 연결된다. 비공식 소득이 집단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제유지에 긍정적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즉 비공식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시장에서 소득을 확보하므로 그러한 체제가 장기간 존속할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의 경험이 전반적으로 비판적 정치사회외식을 형성하지만 시장경험을 통해 북한체제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긍정적 체제인식을 형성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장사경험은 분명히 정치외식 약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치외식이 높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 강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개혁과 함께 성장한 젊은 층이 시장경험이 많아 시장체제에 익숙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장마당 세대'로 분류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장마당 세대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장경험이 많을수록 정치적 비판외식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장마당 세대를 별도의 변수로 구분해 보았으나 체제외식과의 관련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시장경험 자체는 분명히 정치외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젊은 층의 경우 시장경험을 보편화하고 있는 세대임에도 정치외식 약화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장 확대와 장사 경험이 정치외식을 약화시키는 요인과 강화하는 요인을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다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장화

가 지리적 이동을 증대하고 정보접촉 면을 확대하여 비판적 정치의식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시장화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의식을 강화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시장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당원과 고학력자와 같이 기득권층이 상대적으로 시장혜택에 소외되어 경제적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함으로써 사상의 자부심이나 김정은 지지도 같은 정치의식을 낮추는 효과도 존재한다. 시장 경험의 최전선에 있는 상인집단의 정치의식이 결코 낮지 않고 장마당 세대나 고난의 행군 세대의 정치의식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나 생애주기 등 다른 변수가 정치의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 문화접촉 (한류, 친척유무)

문화접촉으로 인한 체제의식 변화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체제의식의 약화는 문화접변으로 인한 의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상의식의 변화가 외부문물과 문화의 접촉으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0년 12월 한류 확산 차단을 위한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대한 호감을 피력하였으나 한류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여 ‘악성암’, ‘변태적’ 등으로 표현하며 한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만큼 한류가 사상의식과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접촉의 정치적 파급력은 경험적 분석에서도 정확히 드러났다. <표 4-9>에 적시된 바와 같이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김정은 직무평가, 비판행위 정도, 핵무기 보유, 경

제체제 선호도, 타지역 방문, 집단주의/개인주의 등 체제의식의 많은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드러났다. 한류 등 남한문화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낮고 김정은 지지가 낮으며 김정은 직무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가 더 많다고 평가하는 부정적 인식이 커진다. 문화접촉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지역 방문이 빈번하며 핵무기 보유나 경제체제, 집단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한다. 남한문화 접촉 가설, 즉 남한문화를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북한체제를 부정적 비판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통념은 뚜렷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남한 내 친척 유무는 체제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한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소식과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체제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실제로 북한은 남한에 가족과 친척을 두고 있는 월남자 가족을 소위 반동분자로 취급하며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가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남한에 친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더 비판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회귀분석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요컨대 북한 내 정치사회의식을 약화시키고 경제의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한류문화 접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북한이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배격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한류 등 남한의 문화접촉이 체제의식과 정치의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 내 친척을 두고 있는 월남자 가족을 단속하고 억압하는 성분정책은 정치의식이나 체제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남한 내 친척을 두고 있는 월남자 가족이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최

근에는 월남자 가족이 더 이상 체제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 그보다 남한의 문화를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체제의식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4. 체제의식의 상호연관성

(1) 체제의식 간 상호연관성

주체사상과 김정은 지지도, 정권에 대한 평가, 핵무기 보유 등 정치의식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높았다.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겠지만 주체사상 자부심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은 김정은 지지도도 높게 평가했고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도 많지 않다고 보았으며 정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표 4-10〉 정치의식 간 상관관계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비판행위 정도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핵무기 보유 견해
주체사상 자부심	Pearson 상관 (유의확율)	1	.216** (.000)	.269** (.000)	.301** (.000)	.394** (.000)
김정은 지지도	Pearson 상관 (유의확율)	.216** (.000)	1	.334** (.000)	.239** (.000)	-.203** (.000)
비판행위 정도	Pearson 상관 (유의확율)	.269** (.000)	.334** (.000)	1	.196** (.000)	-.041 (.220)
북한정권 유지기간	Pearson 상관 (유의확율)	.301** (.000)	.239** (.000)	.196** (.000)	1	-.115** (.001)
핵무기 보유 견해	Pearson 상관 (유의확율)	.394** (.000)	-.203** (.000)	-.041 (.220)	-.115** (.001)	1

**상관관계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상관관계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정치의식이 경제의식 및 사회의식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정치의식과 경제의식, 사회의식을 연관지어 보면 그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주체사상 자부심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생산규율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데 더 높은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부심이 약한 사람일수록 생산규율이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생활총화 출석률에 대해서도 주체사상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집단이 총화출석률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자부심이 적은 집단은 출석률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주체사상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진 집단은 자연재해, 과도한 군사비, 미국의 경제제재에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자부심이 없는 집단은 김정은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피력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이 북한매체의 선전보다는 6.8%라는 매우 낮은 응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80.9%가 주체사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9.1%만이 자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 주체사상 정치의식에 따라 미국의 대북제재 평가가 확연하게 갈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도 주체사상 자부심이 있는 집단은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지지하였고, 자부심이 없는 집단은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했다. 사회통제도 마찬가지로 주체사상 자부심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사회통제가 더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리적 유동성은 주체사상 자부심과 관련성이 없었다.

남한문화를 자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비판행위가 없다고 답하고, 자주 접해본 사람일수록 비판행위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앞에

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접촉과 관련하여 주체사상 자부심을 비롯한 정치 의식 전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한문화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주체사상 자부심이 약하고, 접촉빈도가 낮을수록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갖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외부소식 접촉 경로에서도 자부심이 큰 집단은 로동신문과 조선방송, 강연, 학습 등 공식적인 매체와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친척, 이웃, 친구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 신뢰도에서도 자부심이 큰 집단은 언론 내용을 사실로 생각한 반면, 자부심이 없는 집단은 사실이 아니라는 불신 경향이 높았다. 집단주의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높은 집단은 집단주의를, 자부심이 낮은 집단은 개인주의를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지지도도 주체사상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생산규율, 총화출석률,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자연재해, 과도한 군사비, 미국의 대북제재는 높은 지지율, 김정은 지도자 잘못 지적은 낮은 지지율), 사회주의-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지지도, 사회통제 유지도, 지리적 유동성은 김정은 지지도와 관련성 있었다. 높은 지지도를 보인 집단은 다른 지역을 방문 해본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았다. 외부소식 접촉 경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 집단주의 선호도 등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4-11〉 정치, 경제, 사회 의식 간 상관관계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경제난 이유	생산규율 유지	생활총화 출석률	경제시스템 지지도	다른 지역 방문	집단과 개인 우선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주체사상 자부심	Pearson 상관 (유의확률) 1	.216** (.000)	.080** (.005)	-.017 (.542)	-.001 (.966)	.034 (.232)	-.006 (.844)	.010 (.714)	.121** (.003)
김정은 지지도	Pearson 상관 (유의확률) .216** (.000)	1	.081** (.004)	.126** (.000)	-.007 (.809)	-.042 (.142)	.240** (.000)	-.028 (.318)	-.074 (.075)
경제난 이유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80** (.005)	.081** (.004)	1	.010 (.735)	.020 (.491)	.001 (.984)	-.013 (.648)	.067* (.018)	-.008 (.850)
생산규율 유지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17 (.542)	.126** (.000)	.010 (.735)	1	.241** (.000)	.185** (.000)	.367** (.000)	.230** (.000)	.007 (.875)
생활총화 출석률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01 (.966)	-.007 (.809)	.020 (.491)	.241** (.000)	1	.202** (.000)	.207** (.000)	.254** (.000)	-.005 (.901)
경제체제 지지도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34 (.232)	-.042 (.142)	.001 (.984)	.185** (.000)	.202** (.000)	1	.305** (.000)	.411** (.000)	.015 (.719)
타지역 방문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06 (.844)	.240** (.000)	-.013 (.648)	.367** (.000)	.207** (.000)	.305** (.000)	1	.392** (.000)	.007 (.862)
집단개인 우선도	Pearson 상관 (유의확률) .010 (.714)	-.028 (.318)	.067* (.018)	.230** (.000)	.254** (.000)	.411** (.000)	.392** (.000)	1	.054 (.196)
언론 신뢰도	Pearson 상관 (유의확률) .121** (.003)	-.074 (.075)	-.008 (.850)	.007 (.875)	-.005 (.901)	.015 (.719)	.007 (.862)	.054 (.196)	1

**상관관계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상관관계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2) 통일·대남·주변국 인식과의 관계

북한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북한주민의 인식지형 가운데 내부 체제의식을 통일인식과 대남인식, 주변국인식으로 확장하여 연결해 보았다. 내부 체제의식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주체사상 자부심을 중심으로 체제의식이 투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들여다봄으로써 체제의식이 통일과 대남, 주변국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통일과 관련하여 사상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많은 반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주체사상 자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았다. 아래의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부심이 있는 집단에서 9.6%, 3.9%로 높고, 자부심이 없는 집단에서 2.2%, 3.6%로 낮았다. 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부심이 전혀 없다(63.1%) > 자부심이 별로 없다(49.1%) > 자부심 약간 있다(37.9%) > 자부심 매우 크다(23.5%) 등으로 자부심이 없을수록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12> 주체사상 자부심과 통일방식 교차분석

			통일방식: 어떤 체제로 통일해야 하나					
			북한체제	절충	독립체제	남한체제	상관없다	전체
주체사상 자부심	매우 큰 자부심	%	9.6	23.2	11.8	23.5	31.3	100.0
	약간의 자부심	%	3.9	18.7	9.9	37.9	29.6	100.0
	자부심 별로 없다	%	2.2	17.2	5.6	49.1	25.8	100.0
	자부심 전혀 없다	%	3.6	11.9	3.6	63.1	17.9	100.0
	전체	%	5.5	19.3	8.7	38.4	27.9	100.0

김정은 지지도가 높을수록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고, 지지도가 낮을수록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북한 내 정치의식이 통일의 체제선택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01)

비관행위가 전혀 없다는 사람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약간 있다는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이내 등에 많이 응답한 반면, 30년 이상이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낮았다.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을 길게 보는 사람일수록 통일시기도 멀리 잡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정권 기간을 5-10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통일시기도 10년 이내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p=0.000)

대남의식과 관련하여서는 주체사상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남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반대로 주체사상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주체사상 자부심을 높게 가진 사람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자부심이 낮은 사람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표 4-13> 주체사상 자부심과 북한의 실제 인식 교차분석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주체사상 자부심	매우 큰 자부심	%	7.4	50.8	2.7
	약간의 자부심	%	7.9	61.2	2.1	10.3	17.5	100.0
	자부심 별로 없다	%	8.3	61.0	4.2	9.4	16.6	100.0
	자부심 전혀 없다	%	13.8	60.3	2.6	7.8	12.9	100.0
	전체	%	8.4	57.3	3.0	10.2	19.9	100.0

김정은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남한을 경계나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0.000). 정치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한을 적이나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 김정은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비판행위가 대체로 없다고 보는 사람은 남한을 경계나 적으로 인식, 약간 있다는 사람은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권에 상유지기간을 길게 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한을 경계나 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짧게 보는 사람은 협력대상이나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편, 주변국 선호도도 체제의식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국(72.9%)을 가장 친밀한 국가로 꼽고 그 다음으로 남한(18.9%)로 지목했으나, 특이한 것은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있는 집단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체사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한 경향이 있는 반면, 주체사상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남한을 선택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아래의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80.8%)과 러시아(6.1%)를 선택한 경향이 있는 반

면, 남한(11.1%)을 선택한 비율은 낮다. 반대로 주체사상 자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남한을 선택한 비율이 34.9%로 높은 반면, 중국(56.0%)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4> 주체사상 자부심과 주변국 친밀감 교차분석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주체사상 자부심	매우 큰 자부심	%	1.0	0.2	11.1	80.8	6.1
	약간의 자부심	%	0.4	1.1	20.7	71.9	4.8
	자부심 별로 없다	%	2.0	0.6	21.7	69.7	4.6
	자부심 전혀 없다	%	1.8	2.8	34.9	56.0	4.6
전체		%	1.2	0.8	18.9	72.9	5.2

중국을 제1 선호국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살펴보다도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매우 큰 자부심(80.8%)>약간의 자부심(71.9%)>별로 없다(69.7%)>전혀 없다(56.0%)로 사상적 자부심이 강할수록 중국 선호도가 높음이 발견된다. 이와는 정반대로 남한을 선호국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주체사상 자부심이 전혀 없다(34.9%)>별로 없다(21.7%)>약간 있다(20.7%)>매우 크다(11.1%)로 사상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남한을 선택하는 선호도는 낮았다.

러시아를 제1 선호국으로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평가(27.1%)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중국을 제1 선호국으로 선택한 사람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90% 이상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고 평가한 사람은 19.1%였다. 즉 일반주민의 중국 선호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김정은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

국보다 러시아 선호가 높다. 또 김정은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집단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남한을 제1 선호국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p=0.00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내의 정치의식은 통일의식과 대남의식, 주변국 선호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 내 정치의식은 경제 및 사회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통일체제에 대한 선호와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적이나 경쟁인가 아니면 협력과 지원 대상인가), 남한의 무력도발 평가, 주변국의 선호도에 유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주민들은 정치체제에 대해 약 6:4의 비율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체제는 3:7의 비율로 사회주의 정상경제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사회체제는 4:6의 비율로 사회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기 동안 김정은 지지도는 평균 63.7%로 기록되고 평균 59.4%의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대체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민의 58.2%는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낙서나 뼈라 등을 통해 비판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치적 불안과 불안정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30% 정도

만 지켜지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 지지가 24.1% 정도여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은 더 심각하며 개혁개방과 정책전환에 대한 여론이 높다. 생활총화 참석률은 70~90% 정도였고 사회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평균 39.6%였다.

시기별로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다가 2018년을 정점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경제사회 의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집권 이후 경제청사진을 제시하고 병진노선을 추진하여 2017년 전략 무기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체제의 자긍심이 한껏 고취되었으나, 2018년 이후 대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김정은 집권 초기와 7차 당대회가 있었던 2016년에 바짝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 추세를 유지하였다. 사회적으로도 김정은 집권 이후 통제와 질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다 2016년 이후 대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1~2년 사이에는 통제가 다시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내부의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계층과 세대, 성별과 지역, 시장경험과 문화접촉 등 기존에 논의된 여러 변수들이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변수가 일사분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불일치하는 현상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상류층을 구성하는 당원이나 높은 교육도 핵무기 보유나 체제 존속, 언론신뢰 등 정치사회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에 대한 비판적 평가나 자본주의 경제를 더 지지하는 등 부정적 체제의식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대 변수

도 김정은 지지 등 정치외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경제사회 외식에 서는 뚜렷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경험은 전반적으로 정치외식과 경제사회의식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인집단의 정치외식은 결코 낮지 않으며 비공식 소득도 북한정권의 존속기간에 긍정적 외식을 형성하는 등 상반된 외식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북한의 체제외식을 비판적으로 형성하는 데 가장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현실에서 한류의 접촉과 경험은 정치와 경제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일관된 효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체제외식, 특히 정치외식은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통일외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외식이 높은 사람은 통일방식에서도 북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경계나 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정치외식이 낮은 사람들은 남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 또 체제외식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국 선호도에서도 남한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체제외식이 더 강한 사람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체제외식이 낮은 사람들은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북한 내 정치외식과 경제사회의식은 북한주민의 통일외식과 대남외식 및 주변국 인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³⁸⁾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 서론

북한은 폐쇄적 국가다. 북한은 7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며, 39개국 국민에게 도착 후 입국사증을 발부한다. 북한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의 해외이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이다.³⁹⁾ 외부세계와 북한 간 단절은 인적 교류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인 26.5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0.74%에 불과하다. 이 적은 숫자 가운데 중국인이 94.7%, 러시아인이 4.7%를 차지한다.⁴⁰⁾ 코로나-19 발생 후 북한은 사실상 국경을 닫고 있

38) 이 글은 줄고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외교 2020* 중 “제5장 주변국 관계 인식” (경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39) 북한은 키르기스스탄, 가이아나, 감비아, 아이티,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팔레스타인 국민에게는 입국 사증을 면제하고, 팔라우와 몰디브 국민에게는 도착 후 자동적으로 입국 사증을 발부한다 (Passport Index 2022).

40) 2019년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횟수가 3575.3만 회, 한국인이 외국을 방문한 횟수가 5779.5만 회였다 (법무부 2021).

다. 집단차원에서 북한의 “자폐적 적대성”은 외국과의 단절로 이어진다.⁴¹⁾

북한주민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하여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직행”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⁴²⁾ “직행”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작아, 북한에서 가졌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도가 크다고 추정된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식과 경험을 회고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불가피하지만, 북한주민의 인식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직행”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북한주민의 의식에 가장 근접하다고 추정된다.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크게 네 층위로 구성된다고 추정된다. 첫째, 분단 이전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북한식 해석이다. 19세기 이전 중국과 일본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과의 갈등, 19세기 말 이후 식민지화 과정에서 열강의 개입에 대한 반작용, 20세기 반제국주의 투쟁 등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 북한 정권에 의하여 해석되고, 북한주민에게 전달된다. 둘째, 1945년 이후 북한이 경험한 대외관계에 대한 북한식 해석이다. 분단, 6.25 전쟁, 주변국과의 애증관계 등이 북한 정권에 의하여 해석되고, 북한주민에게 전달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집단으로 경험하는 대외관계이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기복은 한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

41)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0-19.

42) 북한을 떠나 후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를 통상 “직행”으로 표현한다. “직행 탈북”은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연구자와 언론계에서도 정착된 개념이다 (e.g. 강동완 2019; 김화순 2017).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의 미시적 속성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의 유무, 외국 문화를 접촉한 경험, 인구학적 속성 등이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구성하는 네 층위 중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해석은 사실상 상수와 같다고 추정된다. 반면, 북한주민이 집단으로 경험하는 대외관계와 북한주민의 미시적 속성은 변수에 해당된다고 추정된다.

이 글은 2011년부터 2020년 통일평화연구원이 “직행”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다. 탈북 이후 노출된 정치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라는 문항에 북한이탈주민이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주변국 인식을 추적하려 한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조사는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과 위협감,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도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성된다. 2011년 이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추세를 드러내고, 주변국 인식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2.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되는 북한주민의 친밀감

북한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에게 친밀감을 느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친밀감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꼈습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친밀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북한주민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중국, 북한의 과거 동맹국인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대하여 전통적 친밀감이 유지되는지 여부, 북한의 개방과 한류 유입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친밀감의 추이

〈그림 5-1〉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졌던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을 보여준다. 〈그림 5-1〉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을 이탈한 주민은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 중 중국에 대하여 가장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6.25 전쟁 중 중국의 지원, 전후 중국의 대북한 지원, 냉전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 등의 오랜 역사가 북한주민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고 추정된다. 2013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85% 이상이 중국을 우호국으로 응답했다. 2020년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최저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북한주민의 65% 이상이 중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았다.

둘째, 한국이 2번째로 친밀감을 가진 주변국이다. 북한이탈주민의 19%가량이 한국을 친밀한 국가로 꼽았는데, 공유하는 민족정체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친밀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산성을 보이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7년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참여한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최악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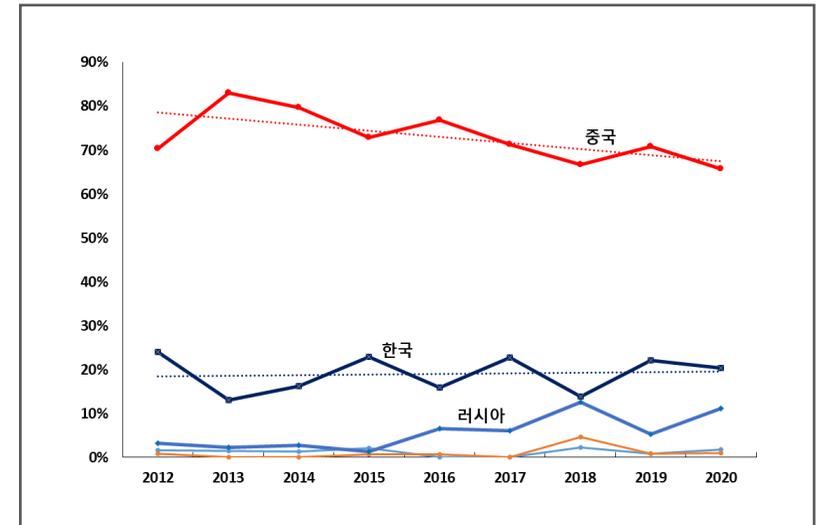
셋째, 북한이탈주민 중 약 21%가 자유진영국가에 친밀감을 가지는 반면, 나머지 79%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에 친밀감을 가진다. 자유진영 국가군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군 간 분화 양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 진영 안에서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국가 사이로 움직인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친밀감은 높은 음의 상관관계(Person 상관계수 = -0.6982)를 가진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각각의 친밀감은 중간 정도의 음의 상관관계(Person 상관계수 = -0.3213)를 가진다. 이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일단 자유진영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군으로 나뉘고, 그다음 북한과 특정 국가의 관계에 따라 친밀감이 진영 안에서 변동한다고 추정된다.

넷째,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13년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초래했고, 중국도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에 참여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악화되면, 중국에 대한 친밀감도 같이 떨어진다. 중국으로부터 떨어진 마음은 자유 진영으로 향하지 않고, 러시아로 기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러시아가 “구명”인 현실이 북한주민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43]}

다섯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비호감 국가이다. 일제의 침탈 경험과 자유진영에 속한 일본의 행동에 대한 반감은 북한주민에게 거의 상수와 같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추정된다. 분단 이후 미국과의 오랜 갈등과 반복도 북한주민에게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누적 응답자 1,501명 중 9명만이 일본에 대하여, 14명만이 미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43] Brunnstrom and Ahmann, “U.S. targets Russians in new North Korea sanctions after missile launches,” (2022.3.12); David, 2020; Wertz 2020, 24-27.

〈그림 5-1〉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



(2) 친밀감 차이의 원인

지난 10년 간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은 연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국에 대한 압도적 친밀감, 19% 남짓한 한국에 대한 친밀감, 미국과 일본을 향한 비호감은 상수처럼 보인다. 이런 연속성은 북한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해석을 북한주민이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비하여, 중국에 대한 친밀감 감소,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선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의 변동성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매년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속성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직전 경험한 국제관계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5-1〉은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을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선택이 5개국 중 하나이고 1개국만 선택할 수 있기에, 다항로짓이 이 설문조사에 적절하다. 다항로짓은 준거(baseline)를 설정하고 준거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이기때문에, 준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압도적으로 중국을 우호국으로 꼽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을 준거로 설정했다. 따라서 〈표 5-1〉의 결과는 독립변수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표 5-1〉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친밀감 mlogit 분석

미국 선택				일본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1536	0.6158		성별	-1.0945	0.9653	
노동당 당원	1.0986	0.7358		노동당 당원	0.0669	0.6861	
학력	-0.3730	0.5322		학력	-0.0857	0.4046	
세대	-0.3240	0.3563		세대	-0.1549	0.6091	
장사 경험	-0.4752	0.5146		장사 경험	-0.4244	1.0308	
한국 내 친척	0.6081	0.6044		한국 내 친척	0.1389	0.7756	
한국문화접촉	0.1340	0.4227		한국문화접촉	-0.1527	0.7800	
경제성장률 ⁴⁴⁾	-0.1370	0.1207		경제성장률	-0.3119	0.1902	
북중관계 ⁴⁵⁾	0.1039	0.0742		북중관계	-0.0542	0.1902	
상수	-2.4353	2.0068		상수	-3.0594	1.6111	

44) 북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다(한국은행, “북한 GDP관련통계,” 2021).
 45) 북중관계는 GDELT Project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GDELT는 세계 언론매체에 등장한 모든 사건에 기반하여 빅데이터를 만든다. 모든 사건은 Glodstein 지수로 변환하여 양국 간 우호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GDELT Project, Querying, Analyzing and Downloading, 2021;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1992).

한국 선택				러시아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0461	0.2143		성별	-0.3452	0.2953	
노동당 당원	-0.2677	0.3339		노동당 당원	-0.3379	0.5712	
학력	-0.0597	0.1488		학력	-0.1726	0.2708	
세대	-0.3213	0.1267	**	세대	0.5689	0.3810	
장사 경험	0.3980	0.2264	*	장사 경험	-0.1604	0.3131	
한국 내 친척	-0.5241	0.2019	***	한국 내 친척	-0.4576	0.2998	
한국문화접촉	0.4371	0.1649	***	한국문화접촉	-0.1918	0.2217	
경제성장률	0.0783	0.0468	*	경제성장률	-0.0235	0.0526	
북중관계	-0.0232	0.0336		북중관계	-0.1190	0.0626	*
상수	-1.2987	0.7365		상수	-3.1361	1.6592	*
Log Likelihood				-602.048			
Number of observations				776			
Wald chi2				174.00			
Prob > chi2				0.000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표 5-1〉은 우선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친밀감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또는 일본에게 친밀감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워낙 작아 응답자의 특이한 선택 또는 실수를 상쇄할 수 있는 규칙성을 잡아내기 어렵다. 앞으로 관측 수가 축적되면, 희소 사례 선정에 따른 통계학적 어려움이 해소되어 미국 또는 일본을 향한 친밀감과 관련된 속성이 확인될 수도 있다.

〈표 5-1〉은 몇 가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세대, 장사경험, 한국 내 친척이 한국을 선택하는 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통상적 시장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자본주의와의 접촉으로 간주하여 친자유진영 성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 5-1〉도 통념

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장사 경험이 있으면 1, 장사 경험이 없으면 0으로 표기했기에, 장사경험이 보여주는 양의 계수는 장사 경험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내 친척의 존재도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연결된다. 한국 내 친척으로부터 유입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 또한 한국 내 친척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진다고 추정된다.⁴⁶⁾ 세대는 음의 계수를 가지는데, 김갑식의 세대 구분에 따라 노령층이 1세대, 가장 젊은 층이 4세대로 구분된다.⁴⁷⁾ 즉, 나이가 젊어질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표 5-2〉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친밀감

세대 구분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1953년 이전 출생	65.79%	23.68	2.63%	5.26%	2.63%
1954-1973년 출생	66.67%	26.67%	0.00%	0.00%	6.67%
1974-1984년 출생	75.51%	20.41%	0.00%	2.05%	2.05%
1985년 이후 출생	73.31%	14.62%	1.06%	1.27%	9.75%

둘째, 성별, 교육과 노동당 당원 여부는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이 가진 양면적 상쇄효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교육이 강한 정치사회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국 중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

46) 한국 내 친척의 유무가 한국문화와의 접촉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두 변수 간 교차분석 Pearson chi2(2) = 2.4719; p-value = 0.291). 즉, 한국 내 친척의 유무는 한국문화와의 접촉을 매개로 삼지 않고, 자유 진영발 위협감 감소/자유 진영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진다고 추정된다.

47) 1953년 이전 출생자를 1세대, 1954년부터 1973년 사이 출생자를 2세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3세대, 1985년 이후 출생자를 4세대로 구분한다(김갑식 2009, 108-110).

한 친밀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북한에서 교육 수준이 북한 이탈주민의 지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북한에서 받는 교육이 외부 세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자유진영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노동당 가입도 비슷하게 양면적 상쇄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노동당 가입이 정치적 의견과 활동을 반영한다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은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북한에게 우호적인 국가에는 친밀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선노동당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충원한다면 당원 경력이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전통적 우방국에 대한 친밀감의 저하, 자유진영에 대한 친밀감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다. 어쩌면 두 변수가 충돌할 수 있는 상쇄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탈북 당시 연도의 북중관계는 주변국을 향한 친밀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가지지 못한다. 즉, 탈북 당시 북중관계는 중국 대비 타국에 대한 친밀감과 무관하다. 이는 북한주민의 마음이 진영을 쉽게 가로지르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중관계가 나빠도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만약 북중관계 악화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화되고 러시아를 선택하는 수준에서 움직인다.

넷째, 경제성장률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연결되는 듯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두 변수 간 관계는 어쩌면 유사관계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연히 남북관계가 좋았을 수도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 대남 인식도 좋고 한국의 대북경제 지원으로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루었을 수도 있다.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3.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주민의 위협감

북한주민은 주변국 중 어떤 국가로부터 위협감을 느낄까?⁴⁸⁾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주체 노선을 설파하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의식’을 북한주민들의 마음에 투영하였다.⁴⁹⁾ 한반도에 자리를 잡은 국가와 주변국가 간 오랜 갈등의 역사 또한 북한주민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위협 인식의 원인을 현 상태에서 추적하기 어렵지만,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했을 때 주변국에 대하여 가졌던 위협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였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였다. 응답자가 북한 주변에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과 병립할 수 없는 문항이었다.

48)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서 친밀감은 위협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對중국 친밀감과 위협감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1682 (p-value = 0.000), 對미국 친밀감과 위협감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0752(p-value=0.0125)로 매우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對한국 친밀감과 위협감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0396(p-value=0.1894), 對일본 친밀감과 위협감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0224(p-value=0.45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심지어 對러시아 간 친밀감과 위협감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1222(p-value= 0.0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친밀감과 위협감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마음 속에서는 두 측면이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듯하다.

49) 이무철, 최완규,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로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9.1 (2008), 89-112; 현명호, “북한의 피포위의식 (Siege Mentality)과 역사적 단절-한국전쟁기 원산을 중심으로,” *사이판 SAI* 31 (2021), 43-74.

(1) 위협감의 추이

〈그림 5-2〉는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주목할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미국발 위협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북미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1년과 2014년 상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미미했었던 현상을 반영하여 2012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대미 위협감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2013년 위기, 2015년 ‘북한지뢰 사건,’ 2017년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된 위기를 북한에서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은 미국발 위협을 높게 평가했다. 이 조사 결과는 북한 정권이 미국을 위협국으로 지목하지만, 북한주민의 마음에서 미국발 위협감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 당시 가졌던 중국발 위협감은 미국발 위협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Pearson 상관계수=-0.7406; p-value=0.000). 2016년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중국발 위협감이 역대 최저점을 찍을 때, 미국발 위협감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2020년 조사에서 중국발 위협감이 역대 최고점을 찍을 때, 미국발 위협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위협 인식은 북미관계의 변화에서 유래한다고 추정된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기 북중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중국발 위협감은 상승하지 않았다. 이 시기 오히려 對중 위협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미국발 위협감은 북미관계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이 중국에 대하여 잠재적 위협감을 가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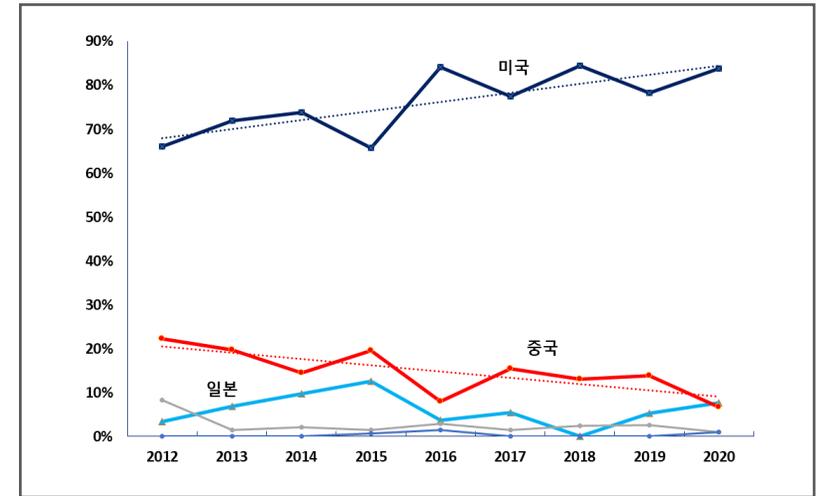
상태에서 미국발 위협의 변화에 따라 반응한다고 추정된다.

셋째, 일본발 위협감도 미국발 위협감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Pearson 상관계수=-0.4601; p-value=0.000). 예를 들어, 2017년 조사에서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약화되었는데, 일본발 위협감이 소폭 상승하였다. 반면, 2016년 조사에 미국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급격히 올라갔는데, 일본발 위협감이 전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 이 현상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측된다. 이 조사 결과는 북한주민의 마음에 일본발 위협이 잠재적으로 약하게 존재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 미국발 위협감에 문힌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탈북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위협감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통상 전력에서 압도하고, 남북 간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실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남북이 교전할 위험이 매우 크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 조사결과는 북한 사람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주체적 행위자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게 한다.⁵⁰⁾

〈그림 5-2〉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50) 이 결과는 한국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응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 응답자 1239명 중 319명(25.7%)이 “많이 있다”를 택했고, 340명(27.4%)이 “약간 있다”를 택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의 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했지만 다른 국가의 도발 가능성이 워낙 높아, 한국이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고 추정된다.



(2) 위협감 차이의 원인

지난 10년 간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또한 연속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높은 미국발 위협감, 한국과 러시아에 대한 낮은 위협감, 상당한 중국발 위협감 등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북한식 해석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이런 요인은 북한주민의 마음 속에서 상수와 같다. 이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과 일본발 위협감의 변화, 일본발 위협감과 미국발 위협감 간 교차 등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직전 경험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년 유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속성 변화가 연도 간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한다.

〈표 5-3〉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mlogit 분석

미국 선택				일본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6747	0.2358	***	성별	0.3697	0.3803	
노동당 당원	0.0311	0.3345		노동당 당원	0.0905	0.5706	
학력	-0.2024	0.1509		학력	0.3089	0.2102	
세대	0.2221	0.1394		세대	0.1695	0.2420	
장사 경험	-0.1665	0.2408		장사 경험	0.2185	0.3999	
한국 내 친척	-0.3953	0.2164	*	한국 내 친척	-0.3302	0.3578	
한국문화접촉	-0.4601	0.2031	**	한국문화접촉	-0.5907	0.3052	*
경제성장률	-0.0064	0.0597		경제성장률	0.1136	0.0843	
복중관계	-0.1063	0.0393	***	복중관계	-0.0788	0.0525	
상수	2.5848	0.7999	***	상수	-0.9012	1.1750	
한국 선택				러시아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7792	0.5785		성별	0.1822	1.2151	
노동당 당원	-14.5001	0.5770	***	노동당 당원	-14.3692	1.2362	***
학력	-0.0035	0.3633		학력	-0.9448	2.3552	
세대	0.2540	0.3071		세대	0.4992	0.5972	
장사 경험	-0.2651	0.5305		장사 경험	-0.5381	0.7817	
한국 내 친척	0.1630	0.4957		한국 내 친척	0.0645	0.9259	
한국문화접촉	-1.2034	0.3663	***	한국문화접촉	-0.7101	0.7250	
경제성장률	-0.1041	0.1601		경제성장률	-0.0039	0.0748	
복중관계	0.0801	0.1021		복중관계	-0.2043	0.1200	*
상수	-0.0869	1.7112		상수	-0.8729	5.0052	
Log Likelihood				-556.75041			
Number of observations				766			
Wald chi2				3622.81			
Prob > chi2				0.000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표 5-3〉은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한 결과가

다. 북한이탈주민의 선택이 5개국 중 하나이고 1개국만 선택할 수 있기에, 다항로짓이 이 설문조사에 적절하다. 다항로짓은 준거(baseline)를 설정하고 준거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는 기법 이기에, 준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⁵¹⁾ 앞서 친밀감 분석에서 중국을 준 거로 설정하였기에 일관성을 위하여 중국을 준거로 설정했다. 따라서 〈표 5-3〉의 결과는 독립변수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표 5-3〉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여성이 남성 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고 있다. 2016년 조사를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중국에게 더 위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중국발 위협감 간 교차분석의 결과 Pearson chi2(1)가 13.2214 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00). 남성이 중국에 대하여 더 위협감을 가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미국발 위협감을 더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발 위협감과 성별 차이 간 교차분석 결과 Pearson chi2(1) 계수가 8.1675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p-value = 0.004).⁵²⁾ 일본, 러시아, 한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과 성별 교차 분석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 성을 가지지 못한다.

〈표 5-4〉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성별 차이

51) 총 응답자 1,134명 중 미국을 위협국가로 꼽은 사람이 841명(75.64%), 일본을 위협국가로 꼽은 사람이 71명(6.38%), 한국을 위협국가로 꼽은 사람이 29명(2.61%), 중국을 위협국가로 꼽은 사람이 167명(15.02%), 러시아를 위협국가로 꼽은 사람이 4명(0.36%), 결측사례가 3개이다.

52) 미군 성범죄를 부각하는 북한의 정치 선전이 여성으로 하여금 미국발 위협감이 더 가지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일부 탈북 여성은 필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성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남성	64.72%	6.05%	1.81%	17.94%	0.40%
여성	69.80%	5.50%	2.68%	10.47%	0.27%

둘째, 한국문화를 접촉한 경험은 자유진영국가에 대한 위협감 감소에 기여한다. 한국문화와의 접촉은, 미국발 위협감, 한국발 위협감, 일본발 위협감의 감소와 연관된다. 반면, 중국발 위협감과 한국문화 접촉은 반대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국문화에 자주 접촉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발 위협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다.

〈표 5-5〉 한국문화에 접촉과 위협감

성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자주 접촉	71.09%	7.13%	1.39%	20.00%	0.40%
1-2 접촉	79.90%	6.07%	3.47%	11.28%	0.22%
접촉 없음	80.82%	4.80%	4.11%	9.59%	0.68%

셋째, 북중관계가 미국발 위협감과 연관된다. 북중관계가 나빠지면 중국발 위협감이 커지고, 이는 타국에 대한 상대적 위협감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추정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은 진영을 가로지른다고 보여진다. 반면, 한국발 위협감이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한국발 위협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발 위협감과 러시아발 위협감을 가지는 경향이 약하게 보인다.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 단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관측 수가 더 축적되어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수준과 노동당 가입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과 무관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과 노동당 가입이 상쇄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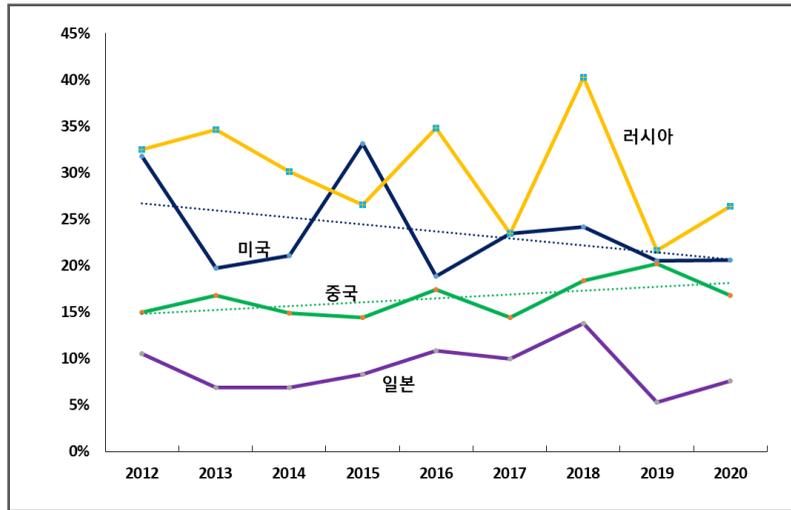
4.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한 북한주민의 마음

한민족의 통일은 한민족 내부의 과제인 동시에 주변국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민족의 통일에 필요한 내적 동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협조가 통일 과정에서부터 최종 지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에 관해 갖는 감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주변국이 통일 과정에서 취할 행동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 역할에 대한 기대 추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거주 당시 모든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우호적이라고 인식했지만, 고작 26.5%의 응답자만이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둘째,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했었고, 중국을 2순위, 미국을 3순위로 꼽았다. 조사 이래 이 순위는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5-3〉 주변국의 통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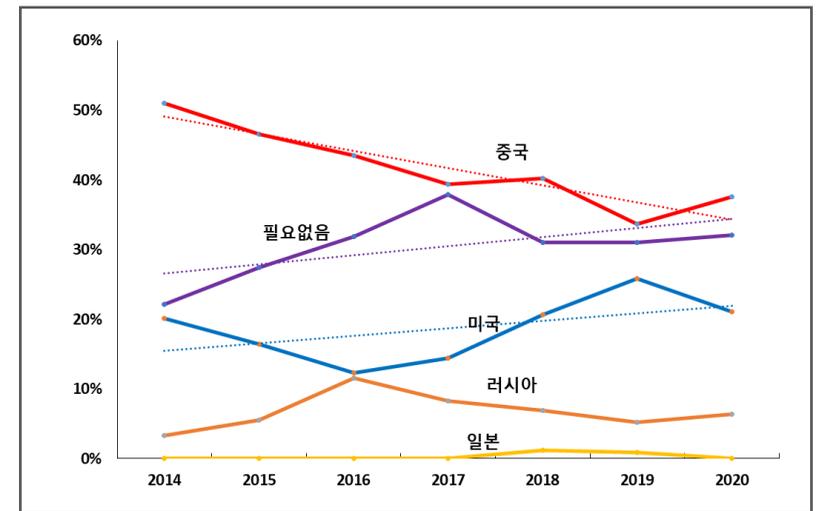


〈그림 5-3〉은 두 가지 주목할 사항을 보여준다. 첫째,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희망에 관해서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미국의 희망을 점차 낮게 보는 반면, 통일에 대한 중국의 희망을 높게 보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 결과는 미국발 위협감이 점차 증가하지만, 중국발 위협감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과 연관된다고 추정된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위협감이 다른 쟁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쟁점 영역 간 연계를 확인할 만큼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

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 5개 선택지(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5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 설문은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보여준다.

〈그림 5-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그림 5-4〉는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답변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북한 내부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했거나, 자력갱생을 설파하는 북한 정권의 정치선전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의 역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이런 결과로 이어

졌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 일본이 통일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여지와 필요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평가를 내린다.

(2)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주변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번영에 어떤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2016년 조사부터 추가하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하나를 답으로 선택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는 중국이 1위(47.1%)였지만 2017년 조사 이후 한국이 1위가 되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2019년 조사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2018년 한반도 유화국면을 지나면서 북한주민 중 일부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고, 2018년 유화국면의 영향이 유지되는 듯 보인다.

〈표 5-6〉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우호 관계가 필요한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									
미국	6	4.3	8	6.1	4	4.6	16	13.8	15	13.8
일본	1	0.7	2	1.5	0	0.0	1	0.9	0	0.0
한국	60	43.5	74	56.1	44	50.6	50	43.1	54	49.5
중국	65	47.1	45	34.1	38	43.7	45	38.8	35	32.1
러시아	6	4.3	3	2.3	1	1.1	3	2.6	3	2.8
합계(명)	138	100	132	100	87	100	116	100	109	100

〈표 5-7〉은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에 대한 인식을 다항로짓으로 분석한 결과다. 북한의 발전에 중국이 필요하다는 선택지를 준거로 삼고, 준거와 비교하여 다른 선택으로 이끄는 경향성에 미치는 효과를 포착하려 한다. 우선 일본을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로 꼽은 응답자의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표 5-7〉 중 일본 관련 결과가 통계학적 우연(statistical artifact)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³⁾

〈표 5-7〉은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문화접촉이 한국을 포함한 자유국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한국 문화를 접촉한 사람은 미국, 일본, 한국을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노동당 당원 여부가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도 약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위협감 인식에서와 같이 노동당에 가입했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과 러시아에 비하여 중국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경제성장률이 북한의 발전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과 연관되는 듯 보이지만, 통계적 우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경협을 반영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는 확언할 수 없다. 넷째, 그 외 개인 차원의 변수, 북중관계 등은 북한의 발전에 있어 주변국의 기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3] 총 응답자 582명 중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국가로 미국을 꼽은 사람이 49명(8.46%) 일본을 꼽은 사람이 4명(0.69%), 한국을 꼽은 사람이 282명(48.70%), 중국을 꼽은 사람이 228명(39.38%), 러시아를 꼽은 사람이 16명(2.76%), 결측사례의 숫자가 3개이다.

〈표 5-7〉 북한의 발전에 필요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mlogit 분석

미국 선택				일본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4637	0.4048		성별	-13.9731	0.8082	***
노동당 당원	0.3189	0.5634		노동당 당원	0.2462	1.0415	
학력	-0.1067	0.3130		학력	-1.3025	0.4197	***
세대	0.0691	0.2674		세대	-1.2728	1.2394	
장사 경험	-0.3279	0.3699		장사 경험	-0.9372	2.0414	
한국 내 친척	-0.1833	0.3674		한국 내 친척	1.1691	0.6136	*
한국문화접촉	0.5398	0.3147	*	한국문화접촉	14.0262	1.1323	***
경제성장률	-0.0430	0.0741		경제성장률	0.1634	0.2318	
북중관계	0.1808	0.3125		북중관계	-0.6900	0.6048	
상수	-2.4690	1.7005		상수	-39.2250	2.6355	***
한국 선택				러시아 선택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3711	0.2287		성별	-0.0593	0.6124	
노동당 당원	-0.4059	0.3368		노동당 당원	-14.9697	0.5567	***
학력	0.18171	0.1688		학력	0.0410	0.4369	
세대	-0.1108	0.1667		세대	0.4121	0.7821	
장사 경험	0.0147	0.2310		장사 경험	-0.9762	0.6087	
한국 내 친척	0.0374	0.2185		한국 내 친척	-0.4997	0.7213	
한국문화접촉	0.3306	0.1610	**	한국문화접촉	-0.2432	0.4139	
경제성장률	0.0769	0.0387	**	경제성장률	0.2660	0.1816	
북중관계	-0.2110	0.2043		북중관계	0.7770	1.0056	
상수	-1.1656	0.9953		상수	-1.1911	3.9084	
Log Likelihood				-427.82			
Number of observations				424			
Wald chi2				2344.93			
Prob > chi2				0.000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5. 소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확인되었다. 첫째, 주변국 발 위협감이 북한주민의 인식 체계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위협감이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인다. 이 결과는 향후 시계열자료가 더 확보되면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접촉이론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문화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은 물론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에 대한 위협감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발 위협감이 올라간다. 한국문화에 담긴 자유진영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자유진영 발 위협감이 약화되고 친밀감이 증가하는 듯 보인다.⁵⁴⁾ 한국 내 친척의 존재는 문화 접촉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유진영 발 위협감 감소/친밀감 증가로 이어지는 듯하다.

셋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협감이 높다. 관측 수가 충분히 축적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감에서 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반면, 주변국 중 다른 국가에 대해 가지는 위협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다. 왜 미국에게만 성별 차이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에 관한 북한 내 사회화가 주

54) 한국문화를 접촉한 후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에 관한 질문에서 2017년 이후 총 응답자 388명 중 264명(68.0%)이 “호감도가 매우 증가했다”를 택했고, 90명(23.2%)이 “호감도가 약간 증가했다”를 택했고, 34명(8.8%)이 호감도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문화와의 접촉이 일차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이후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감 감소/친밀감 증가로 이어진다고 추정하게 한다.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⁵⁵⁾

넷째, 교육 수준과 북한에서 노동당 가입이 주변국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개별 변수와 주변국에 대한 인식만 비교하면,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과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는 듯 보였지만, 다항로지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과 연관된 또 미지의 속성이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정치사회화의 기제로서 교육과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서 교육이 어찌면 자체적으로 상쇄적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우려스럽게도 민족동질성이 점차 약화되는 듯하다.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강화된다. “장마당 세대”가 자유진영에 우호적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앞선 세대에 비하여 민족동질성의 약화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진다. 한국을 제외한 자유진영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찌면 남북한에서 통일의 창이 점차 닫히고 있는 듯 보인다.

55) 2015년 이후 북한은 신천박물관 5호실을 통하여 미군에 의한 성폭력을 전시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신천박물관 확보는 이전보다 전시 성폭력을 강조한다(김재인, 2020, 41-45).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6장 심화분석 -
경제실패 인식

제6장 심화분석 - 경제실패 인식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 서론

남북한 경제 격차는 이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경우 31,880.6 달러인 반면, 북한은 겨우 1,168 달러로 추산된다.⁵⁶⁾ 물론 실질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남북한 격차가 줄어들겠지만, 명목 1인당 국민소득 간 격차가 무려 27.3배에 달한다. 한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포기하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 간 반면⁵⁷⁾ 북한은 세계 최빈국에 근접한다. 사하라 이남 일부 아프리카 국가군과 아프가니스탄 등을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000 달러를 넘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북한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는 격차가 너무 커 보인다.

남북한 경제를 역사적 자료로 보면, 현재 남북한 격차는 매우 생경하다. 북한 경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고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규모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인당 화

석연료 사용을 비교하면, 6.25 전쟁 전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한국의 5.2배에 달했고, 1960년대 최대 5.6배에 달했다.⁵⁸⁾ 분단 전 일체의 산업시설이 북쪽에 집중 배치되었고, 6.25 전쟁의 후폭풍을 북한이 먼저 극복하였기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한국보다 좋았다. 수치로만 보면,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989년까지 한국보다 우위였다. 북한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썼다고 가정해도, 1970년대 후반까지는 북한 경제 상황이 한국보다 좋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사람은 이런 심각한 북한의 경제침체가 어떤 이유로 초래되었다고 생각할까? 북한 사람은 핵무기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질까?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을 떠나 제3국에서 짧은 체류 기간을 거친 “직행”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⁵⁹⁾ “직행”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정도가 작아, 북한에서 가졌던 기억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도가 크다고 추정된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식과 경험을 회고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불가피하지만, 북한주민의 인식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직행”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은 북한주민의 의식에 가장 근접하다고 추정된다.

56) 한국은행, “북한 GDP관련통계”, 2022.

57) 외교부,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21-475(보도자료, 2021.7.4).

58)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이태리체) (v6.0), 2021, <http://correlatesofwar.org/>.

59) 북한을 떠난 후 제3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거친 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를 통상 “직행”으로 표현한다. “직행 탈북”은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연구자와 언론계에서도 정착된 개념이다(e.g. 강동완,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2(1):1-26;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경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235-264).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회고적 응답에 기반하여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핵무기에 대한 인식을 추적한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북한 내부의 구조적 원인과 경제정책 실패, 북한 외부에서 발생한 외생적 충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두 범주 안에 각각 세부 원인이 있지만, 북한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 성장과 핵추진 간 연관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추적한다. ‘총과 버터’ 논쟁에 기대,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과도한 군사비 책정으로 답한 비율의 변화를 검토한다.⁶⁰⁾ 또한,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총과 버터’ 논쟁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와 교차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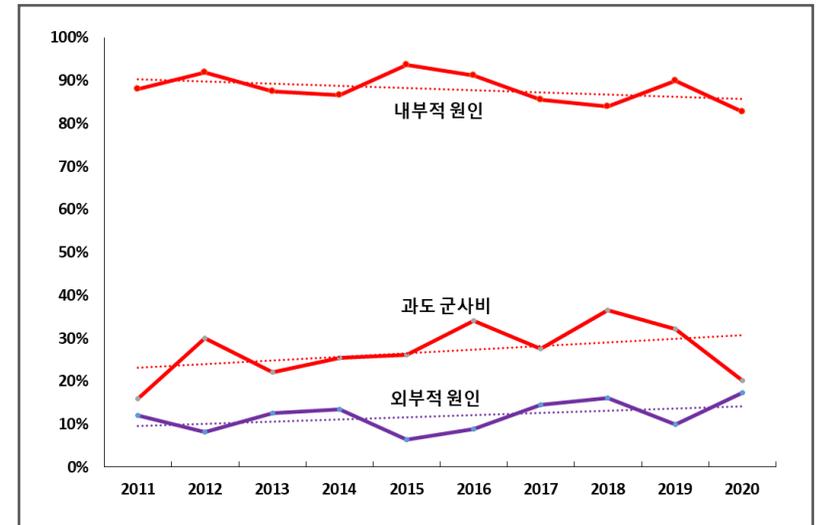
2.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은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질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자연재해,” “과도한 군사비,” “국가 정책의 오류,” “간부의 관료주의,”

60] 총과 버터 논쟁의 기원은 1차대전 중 질소화합물 관리와 관련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차대전 발발 후 미국이 비료 또는 폭발물의 재료가 되는 질소화합물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지만, 관리 주체와 공장 부지를 둘러싸고 군부와 농업부가 경쟁했다. 양측의 입장이 1916년 절충되어 농업부 장관이 평시에는 비료용으로 전시에는 군수용으로 질소화합물을 생산한다고 결정되었다. 이 표현은 이후 군비 지출과 경제성장 간 양자택일 상황을 묘사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지도자의 실정,” “개혁개방의 부재,” “미국의 경제제재,” “분단,” 그리고 “기타”였다.⁶¹⁾ 이 절은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다.

〈그림 6-1〉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내부 vs. 외부)



(1) 10년 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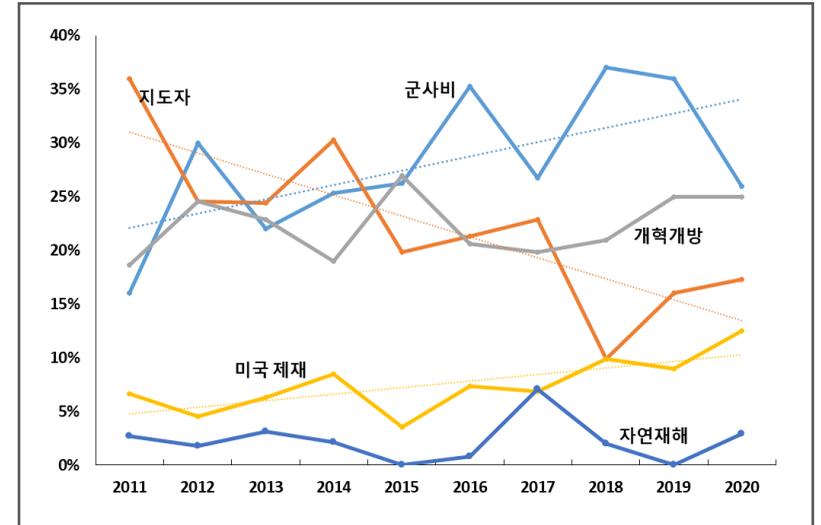
〈그림 6-1〉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결과를 보여준다. 외

61] 총 응답자 1,241명 중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꼽은 사람이 23명(1.85%), 과도한 군사비지출을 꼽은 사람이 322명(25.96%), 정책 오류를 꼽은 사람이 114명(9.19%), 관료주의를 꼽은 사람이 63명(5.08%), 지도자의 잘못을 꼽은 사람이 257명(20.71%), 미진한 개혁개방을 꼽은 사람이 257명(20.71%), 미국의 경제제재를 꼽은 사람이 84명(6.77%), 분단을 꼽은 사람이 27명(2.18%), 기타를 선택한 사람이 4명(0.32%), 결측사례가 90개이다.

부적 요인은 “자연재해”와 “미국의 경제제재”를 포함한다. 내부적 요인은 “과도한 군사비,” “국가 정책의 오류,” “간부의 관료주의,” “지도자의 실정,” “개혁개방의 부재”을 포함한다. 또한, 내부 요인 중 1순위를 차지하는 “과도한 군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림 6-1〉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놀랍게도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에서 찾는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자연재해와 외생적 변수, 미국의 “대조선압살정책”과 같은 외부의 압박에서 북한 경제침체가 유래되었다 주장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절대 다수는 북한의 정책실패와 정책담당자의 오류를 지적한다. 응답자의 85% 이상이 내부적 원인을 지목한다. 이 결과는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주민의 심정적 지지를 암시한다고 보여진다. 둘째, 미약하지만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약화된다. 반면,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점차 강화된다. 2013년 이후 대북제재가 심화되면서, 외부적 요인을 찾는 경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상반된 경향성은 북한 당국의 선전이 북한주민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북한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 또는 외생적 변수로 돌리는데, 이런 선전이 북한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된다.

〈그림 6-2〉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b(주요 항목별)



〈그림 6-2〉는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주요 항목별로 보여주는데,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과도한 군사비를 북한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조사에서 군사비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는 2019년부터 본격화된 군수산업의 민수화와 연결된다고 추정된다. 둘째, 미국 제재의 비중이 증가한다. 2013년 이후 대북제재와 북미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추정된다. 셋째, 지도자의 잘못을 꼽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추세가 강했는데, 이 시기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다고 추정된다. 이 시기 북한은 세계경제의 가치사슬에 동참하여 세계경제로 깊게 편입되었고,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반면, 2018년 조사

이후 지도자의 잘못을 짚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김정은 핵개발 추구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관련되어 보인다. 넷째, 개혁개방의 미비를 짚는 비율은 높은 변동성이 보인다. 다섯째,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짚는 사람이 매우 적다. 북한 당국이 자연재해를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특히 수해를 큰 도전으로 선전하지만^{62]}, 실제 북한이탈주민은 자연재해의 비중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2) mlogit 분석 결과

〈표 6-1〉은 개인적 속성, 북한의 경제성장, 북한의 대외관계가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에 관한 인식과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총 9개의 응답을 크게 외생적 충격(자연재해, 미국의 경제제재, 분단)과 내부적 요인(과도 군사비, 지도자의 오류, 불충분한 개혁개방, 정책 오류)으로 나눈 후, 외생적 충격을 준거로 삼고 4가지 내부적 요인과 비교한다.

〈표 6-1〉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 mlogit 분석

과도한 군사비				지도자의 오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1324	0.2672		성별	0.0159	0.2908	
노동당 당원	-1.0132	0.4080	**	노동당 당원	-0.4073	0.4006	
학력	-0.0283	0.1850		학력	0.1694	0.1946	

62] 북한의 자연재해는 외생적 충격이라기보다는 정책실패의 결과로 해석된다(김병로 2013, 227-232; 박소연·김백조·안숙희 2010).

과도한 군사비				지도자의 오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세대	-0.5005	0.1944	**	세대	-0.8209	0.1954	***
장사 경험	-0.3496	0.2379		장사 경험	-0.3627	0.2373	
한국 내 친척	0.0843	0.2512		한국 내 친척	0.4025	0.2671	
한국 문화접촉	0.5337	0.1794	***	한국 문화접촉	0.7259	0.2004	***
경제성장률 ¹	-0.0366	0.0549		경제성장률	0.0706	0.0614	
북중관계 ²	-0.0076	0.0408		북중관계	0.0467	0.0429	
상수	1.6550	0.9640	*	상수	1.2160	0.9661	
불충분한 개혁개방				정책 오류와 관료주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변수	계수	표준편차	유의
성별	0.1920	0.2834		성별	0.1692	0.2960	
노동당 당원	-0.8115	0.4170	*	노동당 당원	-0.6026	0.4296	
학력	0.2916	0.1818		학력	-0.2151	0.2086	
세대	-0.5127	0.1952	***	세대	-0.3710	0.2174	*
장사 경험	-0.3909	0.2375		장사 경험	-0.3920	0.2375	*
한국 내 친척	-0.0172	0.2587		한국 내 친척	0.2454	0.2767	
한국 문화접촉	0.5438	0.1892	***	한국 문화접촉	0.6829	0.2000	***
경제성장률 ^{3]}	0.0371	0.0578		경제성장률	0.0429	0.0621	
북중관계 ^{4]}	-0.0112	0.0416		북중관계	0.0244	0.0438	
상수	0.7413	0.9504		상수	0.6106	1.0533	
Log Likelihood				-1219.725			
Number of observations				800			
Wald chi2				87.11			
Prob > chi2				0.000			

* p-value < 0.1; ** p-value < 0.05; *** p-value < 0.01

63] 북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다(한국은행, “북한 GDP관련통계,” 2021).
 64] 북중관계는 GDELT Project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GDELT는 세계 언론매체에 등장한 모든 사건에 기반하여 빅데이터를 만든다. 모든 사건은 Glodstein 지수로 변환하여 양국 간 우호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GDELT Project, Querying, Analyzing and Downloading, 2021;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1992).

〈표 6-1〉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북중관계와 같은 거시 지표가 북한경제침체의 원인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계수의 방향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들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속성이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1)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은 대체로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다. 특히 당원 여부는 과도한 군사비를 북한 침체의 원인으로 선택하는 경향과 통계학적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 결과는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했던 사람은 외부 적대세력의 방해, 수해와 같은 외생적 충격으로부터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을 수용한다고 추정하게 한다. (2)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하여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다. 특히 세대 구분은 과도한 군사비, 지도자의 오류, 개혁개방의 불충분성을 원인으로 선택하는 것과 통계학적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 (3) 남한 문화와 접촉한 경험도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성과 연관된다. 이 변수는 4항목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가진다.

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북한주민은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질까? 북한의 핵보유는 대외용인 동시에 대내용이다. 북한에서 초기 핵실험 성공 후 대규모 축하행사가 열린 현상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긍정적 인식을

북한주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와 관련된다고 추정된다. 이 절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인식을 추적하고, 북한주민이 핵무기 보유를 ‘총과 버터’의 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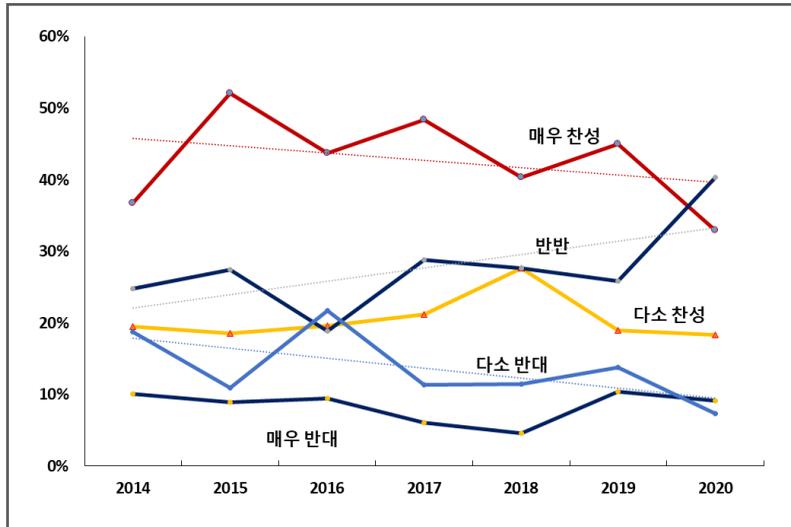
(1)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 최근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였다. 총 응답자 877명 중 북한에 거주할 당시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 사람은 263명(29.99%), “다소 찬성”한 사람은 177명(20.18%), “그저 그랬다”고 응답한 사람이 239명(27.25%), “다소 반대”한 사람이 75명(8.55%), “매우 반대”한 사람이 123명(14.03%)이다. 10년 간 조사결과는 북한주민이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6-3〉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이 약하게나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극적 찬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반대가 조금씩 증가한다. 또한,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의견을 보류하는 비중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다. 핵무기 보유에 관한 인식 조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림 6-3〉에 드러나는 추세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림 6-3〉은 북한 내부

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반 입장



(2) 순위로짓분석결과

〈표 6-2〉는 개인적 속성, 경제 성장률, 북한의 대외관계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순위로짓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은 매우 반대부터 찬성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구간별 거리가 동일한지 알 수 없기에, 순위로짓분석을 사용한다.

〈표 6-2〉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3〉은 성별과 핵무기 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Pearson $\chi^2(4) = 18.3102$; p -value = 0.001).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지만, 남성이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라는 서구의 조사 결과가 북한에도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Jensen 1987, 257-259). 둘째, 노동당 당원 여부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에의 영향과 연관된다.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던 사람은 비당원에 비하여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잠정적으로 조선노동당 당원이 북한 당국의 공식 선전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하는 사람의 특별한 속성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젊은 세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젊은 세대가 핵무기 보유에 상대적으로 덜 찬성하게 되는 원인도 현재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다.

〈표 6-2〉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 순위로짓분석

변수	계수	표준편차	z-score	P> z	유의
성별	-0.4743	0.1678	-2.83	0.005	***
노동당 당원	0.8673	0.2770	3.13	0.002	***
학력	-0.0968	0.1230	-0.79	0.431	
세대	0.3853	0.1149	3.35	0.001	***
장사 경험	0.1559	0.1543	1.01	0.312	
한국 내 친척	-0.0773	0.1503	-0.51	0.607	

변수	계수	표준편차	z-score	P> z	유의
한국 문화접촉	-0.1611	0.1074	-1.50	0.134	
경제성장률	-0.0300	0.0284	-1.05	0.292	
북중관계	0.0078	0.0359	0.22	0.827	
/cut1	-1.4490	0.6465			
/cut2	-0.8312	0.6475			
/cut3	0.5602	0.6526			
/cut4	1.4803	0.6577			
Log pseudolikelihood	-906.098				
관측수	617				
Wald chi2	43.18				
Prob > chi2	0.000				

〈표 6-3〉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과 성별 차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남성	128	72	78	21	47	346
	36.99%	20.81%	22.54%	6.07%	13.58%	100%
여성	135	105	161	54	76	531
	25.42%	19.77%	30.32%	10.17%	14.31%	100%
계	263	177	239	75	123	877
	29.99%	20.18%	27.25%	8.55%	14.03%	100%

(3) “총과 버터” 논쟁과 핵무기 보유

핵무기는 전형적으로 비대칭전력으로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상쇄한다.

즉, 핵무기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매력적 선택지이다.⁶⁵⁾ 경제생산 능력이 약한 국가는 화학무기를 시도하고, 경제 생산 능력이 강한 국가는 핵무기까지 시도하여 안보불안에 대처하려 한다. 핵무기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발하여 미래에는 핵무기 개발국/보유국의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핵보유는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핵무력 증강을 하면서 2015년부터 병력을 감축했고, 2021년 대규모 병력감축을 진행했다.⁶⁶⁾ 핵무력 완성 선언 후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아래와 같이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⁶⁷⁾

만약 북한주민이 비대칭전력으로서 핵무기의 장점을 이해한다면, 핵무기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고 추정된다. 반면, 북한주민이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싫어한다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입

65) 핵무기가 재래식 군비경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어, 핵억지 정책으로 이어졌다. 소련도 1950년대 후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동일한 논리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핵무기가 재래식 군비경쟁의 부담을 줄여 결국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66) 문성희 2015; 정태주 2021.

67)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 (2019.1.1).

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를 꼽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찬성할 입장을 가진다고 예상된다. 정말 북한주민은 비대칭 수단으로서 핵무력을 ‘총과 버터’의 시각으로 이해할까?

〈표 6-4〉는 ‘총과 버터’ 간 긴장을 이해하는 북한주민이 핵무기 보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를 꼽은 집단과 다른 요인을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꼽은 집단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진다(Pearson $\chi^2(4) = 10.6893$; p -value = 0.030). 과도한 군사비를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꼽은 집단은 핵무기 보유에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다른 요인을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꼽은 집단은 핵무기 보유에 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4〉 ‘총과 버터’ 논쟁에서 핵무기 보유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계
과도한 군사비	81	63	61	14	30	249
	32.53%	25.3%	24.5%	5.62%	12.05%	100%
다른 요인	182	114	178	61	93	628
	28.98%	18.15%	28.34%	9.71%	14.81%	100%
계	263	177	239	75	123	877
	29.99%	20.18%	27.25%	8.55%	14.03%	100%

4. 잠정적 결론

북한경제침체의 원인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은 외생적/외부적 요인이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잘못, 정책 실패와 같은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관측 횟수가 제한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부적 요인의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듯하다. 반면, 자연재해와 같은 외생적 충격, 대북경제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의 비중이 낮아지는 듯하다. 이 현상은, 내부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찾아야 북한의 경제개혁을 추동하는 내적 동력이 마련되기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내부적 요인의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지만, 특이하게도 지도자의 오류를 꼽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후반 혹독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특히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지도자의 잘못을 탓하는 북한주민이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의 비중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 당국은 안보를 위한 군비지출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다수는 과도한 군사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현상이 북한의 핵군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듯하다. 핵무기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는 비대칭 수단인데, 북한주민이 이를 인식하는 듯하다.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를 꼽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이들은 핵무력으로 재래식 전력을 대체해 군비지출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의 경제침체 원인과 핵보유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에서 두 가지 긍정적 현상이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가 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안에서 찾는다면, 북한이 개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주민 중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는 다수는 북한 내부에서 경제침체의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당 가입자가 여전히 북한 당국의 공식 선전에 따라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을 보이지만, 북한주민의 다수는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다.

외부 정보가 북한주민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한국 문화와 자주 접촉한 사람은 북한 내부에서 경제침체의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 문화와 접촉하지 못한 사람은 북한 당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통계학적 유의미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한국 문화를 접한 북한주민이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덜 적극적인 경향이 보인다.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주민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고, 이 변화가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듯하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7장 남한적응실태

제7장 남한적응실태

|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북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의 탈북 동기 및 탈북 형태 또한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고난의 행군 시기의 ‘꽃제비’ 또는 인신매매로 중국을 헤매다 입국하는 불쌍한 북한 여성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유지되어온 경향이 있다. 본 장에서는 대량탈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탈북의 형태 및 탈북자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국경 및 내부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가 확장된 김정은 체제에서의 탈북 경향과 이 시기에 탈북한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탈북한지 1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 설문조사의 탈북과 남한 적응 실태에 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이 파트에 대한 문항은 2011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으나, 조사 이후 문항이 자주 바뀌고 다수의 문항이 2018년 조

사 때부터 추가 되었다. 이 파트에는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된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는 국내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사인 남북하나재단에서 나온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관계 인식 및 적응 실태가 다르다. 남북하나재단 조사의 남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그룹의 조사 결과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는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의 조사는 입국년도 기준이지 탈북년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조사년도 1년 전에 탈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기에 입국년도뿐 아니라 탈북년도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탈북 후 입국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그렇기에 본 조사대상자들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과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에는 제3세계에서의 생활 경험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탈북 후 단 시일 내에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 남한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며, 또한 어떻게 남한에 적응해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추후,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북한 사람의 남한 사람에 대한 인식과 통일 한반도에서의 적응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는 매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눈덩이 표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에 관한 문

항은 대부분 조사년도 기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졌고, 응답자가 312명이라 타 문항에 비하여 표본 자체가 적다. 응답자 수가 적어 통계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돕고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2021년 8월 23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탈북이 급감하여 인터뷰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 탈북한 사람은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 중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1명으로, 이 면담자는 인터뷰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 탈북하였다. 다른 10명은 면담 시점 2년 이내에 탈북한 사람들이다. 면담자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8명이다.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6명, 30대 2명, 40대 2명, 60대 1명이다. 출신지는 청진, 혜산, 평양, 신의주, 회령 등이다. 면담자들은 모두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어 이들의 신변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면담자의 성별 및 연령, 출신지를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생략한다. 부부를 함께 인터뷰 한 하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면담자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이들을 일대 일로 심층 면담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개인 생애사를 간단히 구술하게 하였다. 그 후,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문항을 주관식 질문으로 변경하여 묻고 관련된 추가질문을 깊이 있게 묻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2. 탈북과 정체성

1) 탈북과 남한입국 추이 변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⁶⁸⁾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이후, 2000년대 후반에 급증하여 2009년도 한해에만 2,914명이 입국하였다(〈그림 7-1〉).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급격히 탈북민의 입국이 줄어들어 2019년도까지 매년 1,000~1,500명 사이의 탈북민이 남한으로 들어왔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감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29명으로 전년도 1047명 대비 78% 감소하였다. 그 중 2020년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중국 등 제 3국에 장기간 체류했다 입국한 경우가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 온 경우는 매우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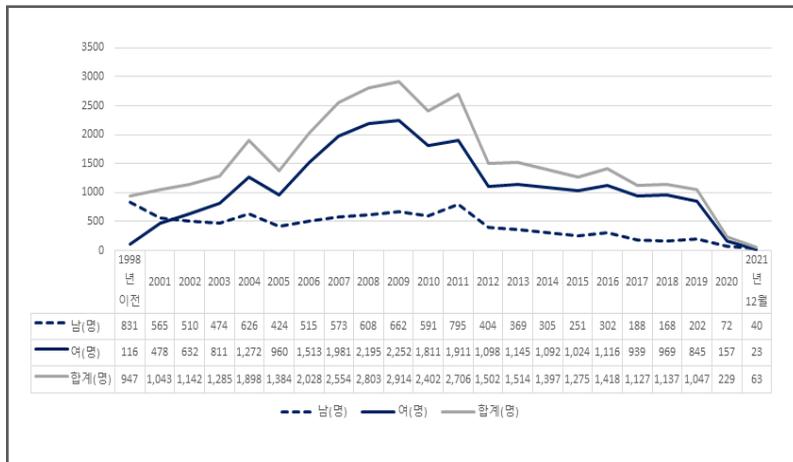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은 남한입국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자료로 시기별 북-중 경계에서 이루어졌던 탈북 이동의 규모를 짐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중 경계지역에서 탈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짐작하지만, 탈북민의 남한입국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중국내 탈북민에 대한 검거와 탄압이 극심했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였다. 이처럼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들어오는 탈북민이 늘면서 탈북민

6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 통일부, 2022년 12월 27일 접속,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ty/>.

의 남한 입국은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직전 거주국의 상황 또한 반영한다. 중국과 제 3국에 은신중인 탈북자의 수는 현재도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추정되기에⁶⁹⁾,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후 탈북민의 남한입국이 늘더라도 그 수가 북-중 경계지역에서의 탈북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림 7-1〉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입국 현황

(단위: 명)



출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입국인원 현황' (2021년 12월 기준)⁷⁰⁾

탈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의 입국자 수 뿐 아니라 입국자의 탈북시기 및 탈북 유형 또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

69) 강채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 11권 2호 (2018): 19.

7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 통일부, 2022년 12월 27일 접속,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료는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최근의 탈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이후 국경통제가 강화되었고 시장의 확대로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경제난이 다소 해소되면서, 탈북이 감소하였다. 2012년 시작된 김정은 체제에서 국경통제가 삼엄해 진 것은 〈그림 7-1〉에서도 보듯이 2012년 이후 남한 입국자가 급감한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의 국경통제 강화는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과 탈북이주 형태 뿐 아니라 탈북민의 젠더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에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과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혜산을 중심으로 한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였다. 이는 두만강변의 함경북도 청진 및 회령 지역에서의 탈북이 급증하자 이 지역에 대한 국경경비를 강화하여 탈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후 타 지역에서도 밀수를 포함한 국경지대에서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경제난을 덜 겪었던 양강도 출신의 북한주민들이 탈북 행렬에 합류한 것도 지난 10년 간 양강도 출신이 증가한 것의 원인으로 분석된다.⁷¹⁾ 그러나 최근에는 두만강변과 압록강 변에 물리적 장벽을 높이고 국경지대에서의 비공식적인 변경 무역을 강력히 통제할 뿐 아니라 중국산 휴대전화의 사용 및 비공식적 교류를 삼엄하게 검열하고 제재하면서, 함경북도 뿐 아니라 양강도를 포함한 북-중 경계지역 전역에서 밀입국이 급감하였다. 통제가 엄격해 질수록 통제를 뚫고 국경을 넘는 것이 위험

71) 조정아, 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127.

해져, 전문 브로커의 개입 없이는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주브로커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난 시기의 탈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주민의 생존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나 이주브로커 등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이주로 변화하며 탈북이 계층화 되어가고 있다. 국정통제의 강화로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는 여성들 또한 줄면서 '이주의 여성화'로 설명되던 북-중 국경시대 탈북의 젠더구성도 변화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내 장기 체류하던 탈북 여성들이 꾸준히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남한 입국의 이주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

2) 탈북 동기

대량탈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도 변화했다.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탈북 동기에 대한 문항은 2018년도 조사부터 포함되었다. 탈북시기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인 북한이탈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조사한 결과, <표 7-1>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이 30.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가 20.19%,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이 17.95%, '경제적 어려움'이 15.71%,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가 1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탈북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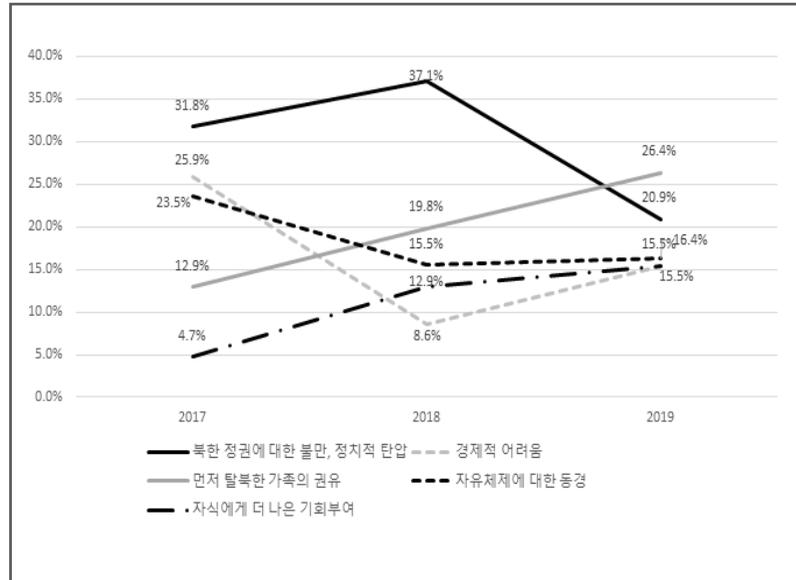
(단위: 명(%))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명(%)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94(30.13)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63(20.19)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56(17.95)
경제적 어려움	49(15.71)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 부여	36(11.54)
응답오류, 중복 응답	14(4.49)
합계	312(100.00)

<그림 7-2>에서 보듯이 탈북년도에 따라 응답자의 탈북 동기를 살펴보면,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가 2017년도에는 12.95%로 순위에서 4번째였지만, 2019년도에는 26.4%로 1순위로 올라섰다.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 이유로 꼽은 경우는 2017년도에 25.9%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15.5%로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와 함께 가장 후순위가 되었다.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위의 요인이지만, 2017년에 이 동기를 선택한 응답자가 4.7%에서 2019년에는 15.5%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7-2〉 탈북 동기의 변화 추이

(단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체 9,493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에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동기로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52.8%)이 가장 많았다.⁷²⁾ 8년이 지난 2020년, 남북하나재단에서 3,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서도 ‘식량이 부족해서’(22.8%)가 탈북 동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20.5%),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13.1%),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72) 북한이탈주민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83.

서’(10.0%)가 그 다음을 이었다.⁷³⁾ 2020년도 남북하나재단의 조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남북하나재단 2020년 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남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43.1%이고, 3년 미만이 11.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한다.⁷⁴⁾ 즉, 고난의 행군 시기는 식량부족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의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 북한을 나온 사람들의 탈북 동기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탄압, 가족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1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11명 중 4명은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을 탈북동기로 꼽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가 제재하는 경제활동 및 비사회주의 행위, 또는 정치적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협에 처하자 탈북하였다. 4명 중 2명은 전문직과 고위직 종사자였으며, 두 명은 무역과 관련하여 일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난이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들 중에는 경제적 이유 보다 정부의 제재나 탄압으로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껴 탈북을 감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터뷰한 11명 중 가족의 권유로 이주한 이는 5명이고, 이 중 4명이 20대였다. 가족의 권유로 이주했다고 답한 이들은 탈북한 부모 또는 친척의 권유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경유지로 통과한 후 남한으로 직행하였다. 이주 브로커 비용이 높아지자, 먼저 탈북하여 경비를 조달해 주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남한 거주 가족 및 친척의 도움이 탈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이주 동기를 가장 주된 요인 하

73)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0): 27.

74) 위의 책,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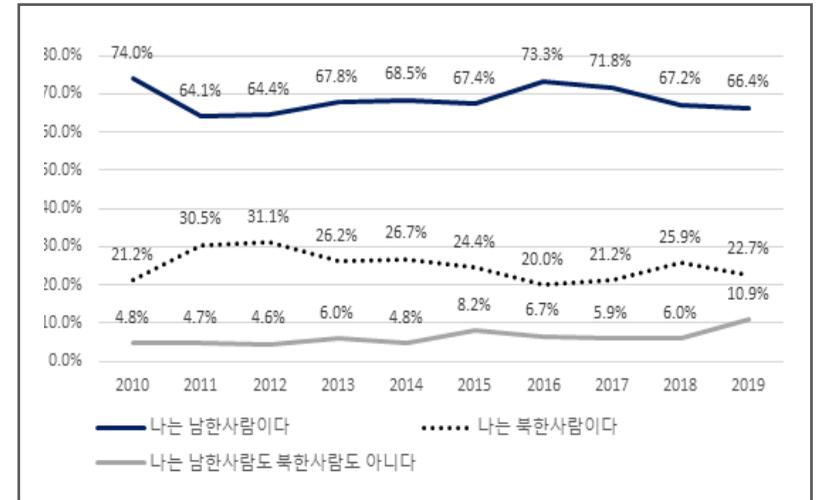
나만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결합되어 탈북을 결정하였다고 답하는 이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가족의 권유로 탈북을 하였지만, 권유를 받아들인 데는 ‘가족과의 재결합’, ‘자유 체제에 대한 동경’ 등 응답자가 내적으로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가 있었기에 선택지 중 한가지 만 꼽기에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귀하는 남한에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탈북한 응답자 1,24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나는 남한 사람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68.25%(847명)이며, ‘나는 북한 사람이다’는 25.22%(313명),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는 6.29%(7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7-3>에서 보듯이, ‘나는 남한 사람이다’라는 응답은 64.1%와 74% 사이에서 해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나는 북한 사람이다’라는 응답은 20.0%와 31.1%에서 매년 오르락내리락 한다. 반면,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2010년의 4.8%에서 2019년의 10.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7-3>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단위: %)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탈북한 총 응답자 1240명이 ‘남한에 살 것이다’(45.97%) >> ‘북한에서 살 것이다’(26.69%)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25%) >>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2.10%)의 순으로 답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아래의 인터뷰는 30대 여성 탈북민과의 면담 내용이다.

저는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 살기는 여기서 그냥 살 거예요. 여기서 살고 거기에 어떤 돈 지급을 마련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직업을 갖든가 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죠. 돈 벌 거. 왜 그러냐면 부모 형제 거기 있으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고 돈 버는 수단을 마련해야죠. 그렇다고 내가 또 거기 가서 살고 하겠어요? 떠나고 일단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에 사는 거죠. 이 땅에 뼈를 묻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땅에 터를 잡고 살면 내가 또 거기 가서 살겠어요? ... 일단 발을 붙였으니까 사실 거기 산 좋고 물 좋아서 공기도 맑고. 그래도 내가 그 땅을 배반하고 왔는데 또 거기에 가요? 그건 아니죠. ... 제 부모 다 버리고 오고. 형제한테 말도 못하고 도망쳐 왔는데. ... 또 가면 여기를 또 배반하는 거죠.

위의 면담자는 북에서 남으로 이주한 것을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온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북을 그리워하지만 통일이 된 후에라도 다시 북에 가서 살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남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냉전체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과 남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하고, 정체성 측면에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버리는 것을 강요받는다. 설문조사 질문에서 조차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북한사람이자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가능성이 담혀있는 질문 문항을 받았다. 재일동포에 대하여 연구한 신기영은 디아스포라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거주국에서 소수민족성과 모국을 동시에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⁷⁵⁾ 재중동포가 중국인으로서의 거주국 정체성을 가지면

75)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아", 「일본비평」 통권 14호 (2016): 42.

서도 민족적 정체성으로 조선인임을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는 반면, 재일동포나 북한이탈주민은 이항대립적인 정체성을 강요받는다. 재일동포가 모국과 민족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정주국인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써 존재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주의에 차별에 저항할 것을 요구받는 것처럼⁷⁶⁾, 북한이탈주민은 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남한사회에서 북을 지지하는 간첩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북을 부정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요받고 있다. 냉전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정체성의 강요를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출신 디아스포라로서의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정체성을 온전히 향유하며,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모두에 속한 삶이 가능하게 된 때일 것이다.

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 사회의 포용성

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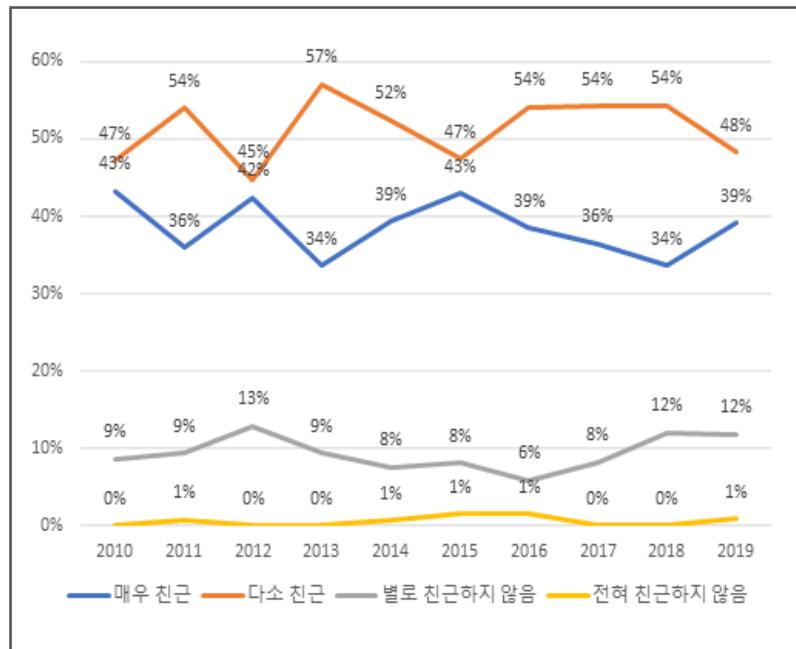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11년부터 조사하였다.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탈북하여 조사 시점 기준 한국 거주 1년 미만인 응답자 1240명 중, 38.4%(477명)가 남한주민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고, 51.45%(638명)가 ‘다소 친근하게

76) 위의 논문, 41-43.

느껴진다'라고 응답하였다. 두 응답을 합쳐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9.92%인 반면, '별로 친근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다'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91%(223명)이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남한 거주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6년 이래로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6년의 7%에서 2019년의 13%로 증가하였다(〈그림 7-4〉).

〈그림 7-4〉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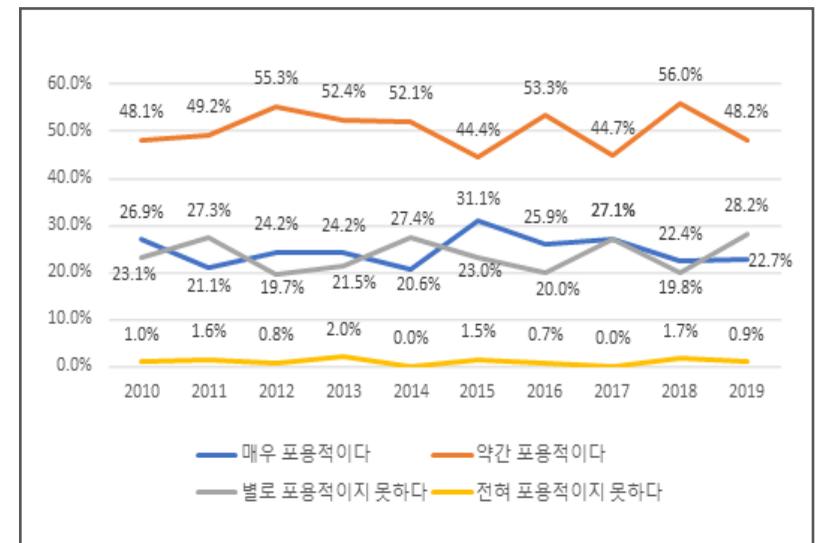
(단위: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2011년부터 조사하였다. 탈북 후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총 1,241명을 조사한 결과 24.5%(304명)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매우 포용적이다'라고 느끼며, 50.68%(629명)이 '약간 포용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포용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75.18%인 반면, 23.53%(292명)이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로 응답하였고 1.05%(13명)이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로 답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4.58%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2019년도에 탈북한 이들이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였다는 점이다(〈그림 7-5〉).

〈그림 7-5〉 남한주민의 포용성

(단위: %)



위의 통계자료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에 비하여,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소 덜 포용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근감”과 “포용성”이라는 지표는 유사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친근함”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감정에 기반한 가치인 반면, “포용성”은 현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로부터 얻어진 결과적 반응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⁷⁷⁾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면담 시 친근함과 포용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은 매우 친절하여 그들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말투가 친절하고 길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어 남한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적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졌던 경험이나 차별, 배척당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면담에 응한 20대의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람들의 친절함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으며, ‘친절하지만 끼워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며 남한 사람은 생각으로는 차별하면서도 말투와 행동은 상냥히 대해주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친근감과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순위형 로지스틱스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인 <표 7-2>에 따르면,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에 젠더와 세대별 차이가 있다.

77)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156.

<표 7-2>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남한주민 친근감(skd01)	남한주민 포용성(skd02)
main		
교육수준	-0.166 (0.124)	-0.332* (0.158)
성별	0.239** (0.0911)	0.253* (0.103)
연령대	0.204* (0.0993)	0.244*** (0.0538)
장사경험	-0.00941 (0.113)	-0.0497 (0.112)
당원	-0.122 (0.220)	-0.139 (0.0734)
장마당 세대	-0.287 (0.253)	-0.285* (0.138)
남한친척	0.0550 (0.105)	-0.0437 (0.158)
공식소득	-0.0171 (0.00877)	0.00764 (0.0167)
비공식소득	-0.0121 (0.0117)	0.00832 (0.0113)
/		
cut1	-5.082*** (0.505)	-4.401*** (0.355)
cut2	-2.110*** (0.250)	-0.901*** (0.159)
cut3	0.678** (0.211)	1.441*** (0.185)
cut4		
N	1068	1068
adj. R-sq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0=남성, 1=여성

북한이탈주민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남한주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남한 사람이 북한사람을 더 포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끼고, 남한사람이 북한 사람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조사의 20대 응답자 중 남한사람이 '매우 포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15.8%인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3.7%가 '매우 포용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20대는 32.4%의 북한이탈주민 응답자가 남한사람이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와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로 대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는 19.4%만이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생각한다. 장마당 세대가 아닐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에 걸맞는 직업을 남한에서 찾기가 어렵고, 이 과정에서 남한사람들의 배타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고위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엘리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한 40대 면담자는 한국에 입국 후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거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응시자격 인정 심사를 통과하고, "다시 새파랗게 젊고 머리 좋아 바로바로 외우는 젊은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이랑"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데, 북한에서 영어로 공부했던 게 아니라서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은 시험을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지만, 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다 온 사람은 더 걱정이라고도 하였다.

북한의 엘리트가 입국 시 남한에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던 시절과 달리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바뀌었다. 최근 국가 기관에서 북한 엘리트 출신을 고용하는 경우가 줄고, 북한인권 단체 등의 정치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엘리트 탈북민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여 남한 사회를 포용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북한 당국의 내부 단속과 북중 간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전문직 탈북민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입국한 탈북민의 직업유형별 비중을 보면 무직이 2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3%p 감소한 반면 노동자와 농장원은 40.8%에서 56.9%로 16.1%p 늘었고 특히 군인 및 공무원이 1.8%에서 3.5%로, 전문직은 2.6%에서 4.1%로 각각 늘었다.⁷⁸⁾ 이들 전문직 탈북민이 반공 교육 등에 활용되기보다, 이들이 북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살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4. 남한생활에 대한 환상과 부적응, 만족과 어려움

(1) 남한 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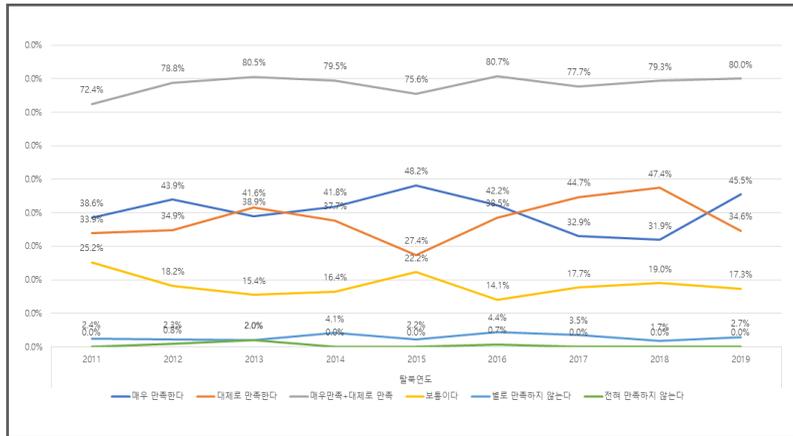
〈그림 7-6〉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78] 카톨릭뉴스. 2017년 9월 17일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95776&path=201709 (접속일: 2022년 4월 15일)

고 응답한 비율은 31.9%부터 48.2% 사이에서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강한 긍정(매우 만족한다)과 약한 긍정(대체로 만족한다)을 합한 응답은 탈북기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0% 내외를 유지한다.

〈그림 7-6〉 남한생활 만족도



이주 동기에 따라 남한 생활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탈북을 결심한 이유와 남한 생활만족도를 교차분석 하였다. 〈표 7-3〉에 따르면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탈북을 하였다는 응답자 36명중 86.11%가 남한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이 이유로 탈북한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였다는 56명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2%로 만족도는 이 그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7-3〉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따른 남한 생활 만족도

(단위: %(명))

	매우 만족 한다	대체로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38.3% (36)	41.49% (39)	18.09% (17)	2.13% (3)	-	0% (0)	30.1% (94)
경제적 어려움	44.9% (22)	36.73% (18)	16.33% (8)	0% (0)	-	2.04% (1)	15.71% (49)
먼저 탈북한 가족 권유	31.75% (20)	46.03% (29)	19.05% (12)	3.17% (2)	-	0% (0)	20.19% (63)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26.79% (15)	46.43% (26)	21.43% (12)	5.36% (3)	-	0% (0)	17.95% (56)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 부여	50% (18)	36.11% (13)	11.11% (4)	2.78% (1)	-	0% (0)	11.54% (36)
응답 오류	28.57% (4)	50% (7)	21.43% (3)	0% (0)	-	0% (0)	4.49% (14)
합계	36.86% (115)	42.31% (132)	17.95% (56)	2.56% (8)	-	0.32% (1)	100% (312)

남한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아래 〈표 7-4〉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사한 어떠한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4〉 지원정책 만족도, 기대와 현실, 탈북 후회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남한생활 만족도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남한생활 기대와 현실	탈북 후회 정도
main				
교육수준	-0.0509	-0.0430	-0.374***	-0.181
	(0.202)	(0.200)	(0.0985)	(0.271)
성별	0.0319	0.283*	0.427**	-0.113*
	(0.106)	(0.121)	(0.149)	(0.0494)

	남한생활 만족도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남한생활 기대와 현실	탈북 후회 정도
연령대	0.237	0.0725	-0.0689	-0.164
	(0.131)	(0.0945)	(0.0393)	(0.359)
장사경험	0.0825	-0.152	0.411	0.148
	(0.111)	(0.217)	(0.560)	(0.308)
당원	-0.00244	-0.179	0.358	-0.0549
	(0.165)	(0.207)	(0.325)	(0.355)
장마당 세대	0.0309	0.133	0.153	0.577
	(0.344)	(0.242)	(0.0824)	(0.800)
남한친척	0.225	0.118	0.121	-0.243
	(0.167)	(0.109)	(0.700)	(0.306)
공식소득	-0.00812	-0.0105	0.0435***	-0.0449
	(0.0130)	(0.0157)	(0.0115)	(0.0390)
비공식소득	-0.0106	-0.00228	-0.0212	-0.0213
	(0.0172)	(0.0155)	(0.0300)	(0.0308)
/				
cut1	-2.863***	-4.275***	-1.901***	-0.407
	(0.347)	(0.575)	(0.321)	(0.379)
cut2	-0.641	-2.939***	-1.160*	0.983
	(0.376)	(0.410)	(0.502)	(0.559)
cut3	1.072**	-1.327***	1.215*	3.123***
	(0.399)	(0.373)	(0.619)	(0.927)
cut4	6.052***	0.433		
	(0.725)	(0.360)		
N	975	975	202	253
adj. R-sq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0=남성, 1=여성

(2) 남한생활의 어려움과 탈북 후회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80%가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로 제출받아 국정감사에 보고된 ‘북한이탈주민 자살율 현황’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율은 전체 사망자 대비 2017년 8.7%, 2018년 14.9%, 2019년 10.1%로 이는 2019년 기준 남한사람의 자살율(4.5%)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79]}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포함한 탈남 현상 및 생활고에 대한 기사가 최근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7-5>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와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를 합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니 ‘문화적 어려움’(78.6%) >> ‘경제적 어려움’(66.44%) >> 심리적 외로움(58.33%) >> 사회적 편견(49.78%) >> 인간관계(35.25%) >> 건강문제(28.16%)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9] “〈2020 국정감사 : 외교통일 이슈 특특〉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자살’(2020.10.07.)” 국회 의원 김영주 블로그, 2021년 10월 12일, <https://blog.naver.com/qufoxod1004/222113264898>,

〈표 7-5〉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단위: %(명))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총합
문화적 차이	25.90% (115)	52.70% (234)	15.99% (71)	4.73% (21)	0.68% (3)	100% (444)
건강문제	8.11% (36)	20.05% (89)	40.09% (178)	30.18% (134)	1.58% (7)	100% (444)
경제적 문제	24.32% (108)	42.12% (187)	23.87% (106)	8.33% (37)	1.35% (6)	100% (444)
인간관계	8.56% (38)	27.25% (121)	45.50% (202)	17.34% (77)	1.35% (6)	100% (444)
사회적 편견	11.49% (51)	38.29% (170)	38.06% (169)	11.04% (49)	1.13% (5)	100% (444)
심리적 외로움	23.65% (105)	34.68% (154)	23.65% (105)	17.12% (76)	0.90% (4)	100% (444)

78.6%의 응답자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면담자 11명 모두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남한사람들이 북한 말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물으면 위축되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답한 이들이 많다. 또한 오역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였다. 북한말의 억양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다소 거칠게 전달되거나, 단어의 의미의 차이로 인하여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북한말투 때문에 자신을 북한 사람으로 알아챌까 염려되어 공공장소에서는 말을 안 한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 외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으로 남한사회의 개인주의와 지나친 경쟁 등이 자주 거론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은 보인 것은 경제적 문제이다. 2019년 8월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듯이,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입국하여 국가의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보호를 받는 면담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된 직업을 찾지 못했다는 조급함과 “남한 사람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답하였다. 특히, 최근 탈북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인터뷰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탈북하여 2020년에 입국한 30대 탈북여성의 면담 내용이다.

왜 그런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과 의욕이 왜 없어질까요? 희망과 기대가 자꾸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왔을 때는 의욕이 있었고,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올 때는 아무리 힘든 거라도 다 할 수 있고 이겨내자 했는데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태어나 나이 먹고 살았으니까 저기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땅은 금방 왔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온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빠르면 3년~5년 있어야 조금 보인대요. 뭘 해야 하고, 나한테 뭐가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걸 안대요. 5년까지 정착 못하면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까지 버티며 살아보라고 해요. 부딪쳐 보라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데 코로나로 간혀만 있으니 뭘 시도도 못해보고 답답해요. 북에 돈도 보내야 하는데 꿈쩍을 못하고. 앞이 안보여 그냥 어지러워요. 내가 이 땅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외로워서 여기 와서 계속 울었어요.

위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회를 찾아 시도를 하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 최근 2-3년 사이에 탈북하여 입국한 탈북민들은 더 답답함을 느낀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입국하였지만 아무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국경통제 강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구직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제약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심리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그 전 시기에 비해 크게 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탈북년도 기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한 총 219명이 답하였다. <표 7-6>에 따르면, 79.91%의 응답자가 현재의 남한생활이 북에서의 기대와 가깝다고 응답한 반면, 20.10%가 가깝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표 7-6> 남한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례 수	%
매우 가깝다	70	31.96%
다소 가깝다	105	47.95%
별로 가깝지 않다	25	11.42%
전혀 가깝지 않다	19	8.68%
	총 219	100%

<표 7-4>의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와 현실이 가깝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가깝지 않다. 이는 앞에 장에서 살폈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

한 사회가 포용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것보다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남한사회가 기대와 가깝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한친척 유무 및 북에서의 당원 유무는 남한 생활의 기대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 남한 생활에 대한 후회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 면담자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가졌던 환상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기대와 달랐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북한에는 직업이 없고 백수가 너무 많아요. ... 그냥 직업 배치라기보다 돌격대 이런 데에 보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니 다 놀아요. 진짜 다 놀아요. ... 그래서 한국 오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보고 한국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우리 집으로 배정받은 데는 쪼끄만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들은 다 좋고, 한국 사람들은 다 바쁘는데 저는 여기서도 일이 없어요. 저는 언제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좋은 직업 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한 입국 후회에 대한 조사는 탈북년도 기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12명이 답변하였다. <표 7-7>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남한에 온 것을 후회 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매우 후회한다’와 ‘약간 후회한다’고 대답한 이들이 전체 312명 응답자 중 58명으로 18.59%이다.

〈표 7-7〉 탈북 후 남한 입국 후회

	사례 수	%
매우 그렇다	7명	2.24%
약간 그렇다	51명	16.35%
별로 그렇지 않다	87명	27.88%
전혀 그렇지 않다	166명	53.21%
	총 312명	100.00 %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문화 적응과정을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낭만기-절망기-성찰기-적응기로 구분할 수 있다⁸⁰⁾. 낭만기는 남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절망기는 취업 및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으며 남한 사회에서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 본 설문조사의 연구참여자들은 입국 후 1년 미만의 참여자들이기에 낭만기와 절망기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이 시기 중 북한에서 가졌던 남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남한으로의 목숨을 건 여정에 대한 보상이 합쳐져 남한 생활에 대한 환상이 큰 만큼 실망도 커서 입국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탈북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뽑아 이들이 느끼는 남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고(〈표 7-8〉), 이를 전체 조사자의 응답과 비교하였다(〈표 7-9〉).

80)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과 정착지원 방안”, 『접경지역 통일연구』 제4권 제2호 (2020): 163-183.

〈표 7-8〉 탈북을 후회한 적 있는 이들의 남한에서 느끼는 어려움

	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별로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무응답	(%)
문화적 차이	32.76	51.72	10.34	3.45	1.72	100.00
건강문제	13.79	25.86	34.48	24.14	1.72	100.00
경제적 문제	32.76	32.76	22.41	10.34	1.72	100.00
인간관계	13.79	31.03	41.38	10.34	3.45	100.00
사회적 편견	18.97	43.10	29.31	6.90	1.72	100.00
심리적 외로움	32.76	37.93	17.24	10.34	1.72	100.00

〈표 7-9〉 전체 조사자와 탈북을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의 어려움 비교

남한에서 느끼는 어려움	전체조사자 2016-2019	탈북을 후회하는 사람 (총 58명) 2016- 2019
문화적 차이	78.6%	84.48%
건강 문제	28.16%	39.65%
경제적 문제	66.44%	65.52%
인간관계	35.25%	44.82%
사회적 편견	49.78%	62.07%
심리적 외로움	58.33%	70.69%

탈북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응답자 중 어려움을 표현한 이들의 비율보다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

회적 편견'과 '심리적 외로움' 측면에서 12%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으며, 70.69%의 응답자가 남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외로움'을 꼽았다. 이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다음으로 2순위이다.

탈북 후회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타 기관의 연구를 통해 '심리적 외로움'과 '탈북후회'와의 연관성을 더 살필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⁸¹⁾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1위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5.8%)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에 따르면⁸²⁾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414명 중 14.8%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가끔 있음', '종종 있음' 또는 '많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 '가족이 그리워서'(34.9%), '고향이 그리워서'(33.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25.6%)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을 후회한 이유와 '심리적 외로움'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탈북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후회의 원인을 추가적으로 묻는 문항이 있었다면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및 입남 후회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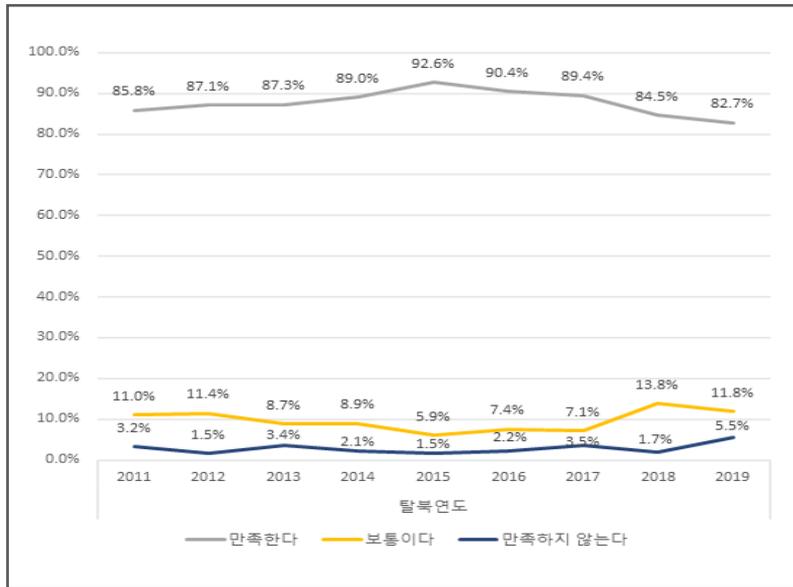
81)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0.

82)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1).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만족도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5점 척도로 답을 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1136명 중 56.69%(644명)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31.07%(353명), '보통이다'는 9.51%(108명),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0.79%(9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0.79%(9명)이며 중복응답으로 응답 오류가 1명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7-7>에서 보듯이, 추세 상으로는 탈북년도 201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도에 탈북한 이들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였지만, 2019년도에는 10%로 이상 감소하여 82.7%이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015년도에 1.5%에서 2019년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2015년도에 탈북한 이들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남한에 입국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6년은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언론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해인데 이와 동시에 탈북민의 해외 이주 또한 활발했다. 탈북민의 해외 이주가 활발해지고 남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동기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탈북'이 많았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탈북한 이들이 증가하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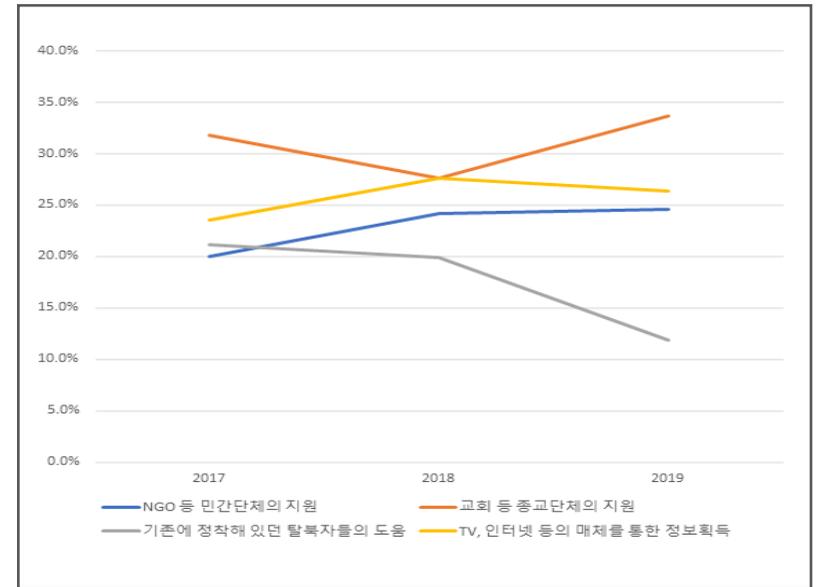
〈그림 7-7〉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표 7-4〉의 회귀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의 요인은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림 7-8〉은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 조사는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응답자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탈북을 한 이들이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교회 등 종교 단체의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도움’은 20.0%에서 11.8%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7-8〉 지원 주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차이(2017-2019)



면담한 탈북자들은 최근에 입남하였기에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신부, 수녀, 목사 등의 종교인으로 답하였다.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속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거나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또는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정부 지원 외에 북한이탈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주체는 교회 등의 종교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살폈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에 남은 가족 및 친척들이 자신의 탈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까 그들의 신변을 매우 염려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중에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서 이들을 믿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준다면 속이는 경우를 듣거나 경험하였기에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결론

- 김정은 집권 시기가 시작되면서 탈북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난이 완화되고, 국경통제가 삼엄해 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삼엄한 국경통제는 탈북민의 젠더 구성 및 출신지역, 탈북 및 입남 동기, 탈북 형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식량난 시기의 탈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주민의 생존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나 이주브로커 등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의 이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이 줄어들고, 가족 단위의 연쇄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탈북여성들이 많이 국내로 입국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중국내 장기 거주하던 탈북민의 입남이며, 새롭게 탈북하는 직행 이주는 여성화가 완화되고 있다.
-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80%가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의 자살율이 남한주민 자살률의 두 배가 넘고, 최근 북한이

탈주민의 재입북을 포함한 탈남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적 차이는 한국사람과의 말투 차이에서 오는 차별, 남한 사회의 지나친 경쟁 등을 언급하였다.

- 응답자의 18.59%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인터뷰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모두 북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주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며, 남한 사람이 북한사람을 더 포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트 남성과 북한 출신 MZ세대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추세 상으로는 2015년도 탈북이 이들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2.6%였지만, 2019년도에는 10%로 이상 감소하여 82.7%으로 꾸준히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2015년도에 1.5%에서 2019년도는 5.5%로 증가하였다. 최근 탈북민의 구성 및 탈북동기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 방안에도 탈북민의 인구구성 변화 및 탈북 동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외에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통로는 종교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록]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대값
남한주민 친근감	1,238	2.28	0.65	0	3
남한주민 포용성	1,238	1.99	0.72	0	3
남한생활 만족도	1,135	2.18	0.84	0	5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1,135	3.41	0.80	0	4
문화적 차이	441	2.00	0.78	0	3
건강문제	438	1.84	0.90	0	3
인간관계	438	1.27	0.85	0	3
사회적 편견	439	1.51	0.84	0	3
심리적 외로움	440	1.65	1.03	0	3
남한생활기대와 현실	219	2.03	0.89	0	3
남한후회 정도	311	0.68	0.89	0	3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8장 **결장**

제8장 결장

본 조사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탈북 1년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해 그들의 의식을 조사한 누적 결과를 분석한 자료로, 국내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자료 중 가장 일관된 조사 기법에 의해 이루어진 10년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202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조사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코로나19 충격이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추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철저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였고 이 때문에 연간 2019년 1,047명에 달하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감하였다. 이 점에서 본 조사 연구는 최근의 의식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시대 10년의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로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영역별 북한주민의식과 통일의식 그리고 정착 실태와 관련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김학재는 지난 10년 간 북한의 통일 여론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차원에서 통일문제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과 요인이 통일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와 시장화의 경향은 사회 내부의 통일 여론 변화를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학재에 따르면 북한의 통일여론은 남한사회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이러한 통일 인식은 민족주의적 당위와 북한도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실용적 기대의 결합이었다. 세대 차이가 있고, 남한식, 북한식 일방통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체로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체제 정당성의 다양한 차원들과 영향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군사정치적 변수가 체제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경제 변수(경제 실패, 장마당 등)들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과 남북협력관계변수들은 군사정치, 경제요인을 제외한 모델에서는 체제 정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군사정치, 경제, 남북통일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한 종합모델에서는 통일과 남북관계 변수가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통일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 남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가장 큰 긍정 영향을 주고 있었다.

끝으로 대북 제재와 시장화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감지되는데, 시장 노출도가 높은 장마당 세대와 비공식 소득이 높은 행위자들의 경우

통일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남북 교류 협력에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흥미를 끌었다. 대북제재 하에서의 시장화 경험이 체제 통일보다는 보다 실용적 남북 교류에 대한 선호로 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재의 연구는 2011~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부분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기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체제 정당성 요인과 남북관계 요인에 대한 확인, 통일 여론의 다양한 흐름,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분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남북 간의 상호 합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접점들을 찾아내고자 한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변수별 상관관계와 변수와 의식 간 상관관계를 심화 분석한 송원준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첫째, 북한주민(북한이탈주민)은 압도적으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당원일수록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남한의 주요 정치 사회적 이벤트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남한 '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았으며 남한에 대한 친숙도 또한 높게 나온다. 이를테면 장사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문화를 접한 뒤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 것 등이 그것이다. 반면 당원의 경우 남한 문화를 접한 뒤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반대 조사는 북한체제 성원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넷째, 2017년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고 있다. 남북관계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그

리고 당원일수록 남한의 대북 무력도발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주요 지지층의 구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 근거를 보여준다. 한편 남한에 친척이 사는 경우 북한의 핵이 남한에게 위협이 된다고 본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수가 대북지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이 대북지원에 대해 알 가능성은 높으나 일관적으로 여성이 대북지원의 증가나 효용성, 남한의 대북 투자, 그리고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으로 남한 친척 유무도 중요한 변수였다. 마지막으로 남한문화 경험은 남한을 더 협력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덜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더 큰 위협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대북지원 인식에만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 나머지 경제 관련 문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김병로는 북한의 각 영역별 실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김병로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정치체제에 대해 약 6:4의 비율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경제체제는 3:7의 비율로 사회주의 정상경제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고, 사회체제는 4:6의 비율로 사회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기 동안 김정은 지지도는 평균 63.7%로 기록되고 평균 59.4%의 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대체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민의 58.2%는 지도자나 정부에 대해 낙서나 뼈라 등을 통해 비판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치적

불만과 불안정도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30% 정도만 지켜지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 지지가 24.1% 정도여서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은 더 심각하며 개혁개방과 정책전환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도 발견된다.

시기별로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다가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 이후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경제사회의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집권 이후 경제청사진을 제시하고 병진노선을 추진하여 2017년 전략무기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체제의 자긍심이 한껏 고취되었으나,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대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데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김정은 집권 초기와 7차 당대회가 있었던 2016년에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회적으로도 김정은 집권 이후 통제와 질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다 2016년 이후 대폭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1~2년 사이에는 통제가 다시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내부의 체제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계층과 세대, 성별과 지역, 시장경험과 문화접촉 등 기존에 논의된 여러 변수들이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변수가 일사분란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불일치하는 현상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세대 변수의 경우 김정은 지지 등 정치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경제사회 의식과는 뚜렷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시장경험은 전반적으로 정치의식과 경제사회의식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인집단의 정치의식(정권지지 의식)은 결코 낮지 않으며 비공식 소득도 정권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형성하는 등 상반된 상관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한문화 접촉 경험은 북한의 체제의식을 비판적으로 형성하는 데 가장 일관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현실에서 한류의 접촉과 경험은 정치와 경제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일관된 효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체제의식, 특히 정치의식은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통일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의식이 높은 사람은 통일방식에서도 북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을 경계 대상이나 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정치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남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다. 또 체제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국 선호도에서도 남한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체제의식이 더 강한 사람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체제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김병로의 이 같은 결론은 김학재가 군사정치, 경제, 남북통일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한 종합모델에서는 통일과 남북관계 변수가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고 한 주장과 비교하여 검토해 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한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조동준에 따르

면 다섯 가지의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첫째, 주변국발 위협감이 북한주민의 인식 체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둘째, 접촉이론이 탈북민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와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은 물론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에 대한 위협감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발 위협감이 올라간다. 셋째, 주변국 중 다른 국가에 대해 가지는 위협감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위협감이 높다. 여성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에 관한 북한 내 사회화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넷째, 교육 수준이나 당원 여부는 주변국에 대한 탈북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 다섯째,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화되고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강화된다. “장마당 세대”가 자유진영에 우호적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앞선 세대에 비하여 민족동질성의 약화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진다.

북한경제침체와 핵보유 문제를 다룬 조동준의 심화분석 연구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인식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은 외생적/외부적 요인이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잘못, 정책 실패와 같은 내부적 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자연재해와 같은 외생적 충격, 대북경제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의 비중이 낮아지는 듯하다. 이 현상은, 내부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을 찾아야 북한의 경제개혁을 추동하는 내적 동력이 마련되기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북한경제침체의 내부적 원인 중 지도자의 오류를 꼽는 사람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지도도가 올라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후반 혹독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특히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 지도자의 잘못을 탓하는 북한주민이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신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의 비중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 당국은 안보를 위한 군비지출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의 다수는 과도한 군사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를 꼽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조동준은 이들이 핵무력으로 재래식 전력을 대체해 군비지출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군축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동준은 북한주민의 인식에 대한 이상의 연구에서 두 가지 긍정적 현상을 찾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가 경제침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안에서 찾는다면, 북한이 개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 요인이다. 둘째, 한국 문화를 접한 북한주민은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덜 적극적이고, 경제침체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 또는 외생적 요인으로 돌리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정보가 북한주민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대외 접촉이 북한의 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관여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의 발견은 매우 긍정적 결과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 실태를 분석한 최은영의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대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

이다. 본 의식 조사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주민의식을 바라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최은영의 연구 내용 또한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최은영에 따르면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80%가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이 남한주민 자살률의 두 배가 넘고,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포함한 탈남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적 차이는 한국 사람과의 말투 차이에서 오는 차별, 남한 사회의 지나친 경쟁 등을 언급하였다.

응답자의 18.59%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더 어려워하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인터뷰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모두 북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주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며, 남한 사람이 북한사람을 더 포용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주민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트 남성과 북한 출신 MZ세대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추세 상으로는 2015년도 당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2.6%였지만, 2019년도에는 10%p 이상 감소하여 82.7%로 꾸준히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2015년도에 1.5%에서 2019년도는 5.5%로 증가하였다. 최근 탈북민의 구성 및 탈북동기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 방안에도 탈북민의 인구구성 변화 및 탈북동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 외에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통로는 종교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의식조사에 근거한 연구는 두 가지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본 의식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식 조사 결과이지 북한주민의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연구가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를 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북한 연구의 방법적 한계에 기인한 대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러 방법의 개발과 추가 자료를 통한 복합적인 연구 기법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 점은 북한 실태 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실태 조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오버 샘플링 기법 등을 통해 북한 사회경제적 실태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식 조사에 비해서는 북한 추론에 더 근사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 탈북민 급감과 북한 이 탈 주민의 급감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의식 조사는 2020년 이후의 실상을 추론하는데는 더욱 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 같은 두 가지 전제를 감안하고 이상 연구진의 연구를 독해한다면 본 연구가 갖는 결과의 의의에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의식 조사라는 점에서 연구진 간의 연구 결과나 상관관계 분석이 다소 명료하지 않고 여러 분석에서 다소 상충하는 듯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주민의식 추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차이(limit of tolerance)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 독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참고문헌

| 제1장 _ 서장 |

- 김병연 외,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12, (2018): 35-64.
- 통계청, 『2020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20, 217.
- KDB 미래전략연구소, 『북한 포커스』, 2020.8.10.

| 제2장 _ 통일인식 |

- 김학재, “평화로운 격변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백지운, 오르트나상, 편, 『몽골의 전환과 동북아 평화지정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막스 베버, 박성환 옮김. 『경제와 사회 1』, 문학과지성사 1997.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묻다』, 2014.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8』,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9』,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이성춘, 박동훈, “김정은체제 정당성 원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77), 77-97.
- Alexander, M., Doorn, N. & Priest, S. “Bridging the legitimacy gap—translating theory into practical signposts for legitimate flood risk governance”.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8 (2018), 397-408.

- Bas, M., & Coe, A. "A Dynamic Theory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Preventive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70(4) (2016), 655-685.
- Guriev, Sergei, Treisman, Daniel. "The Popularity of Authoritarian Leaders: A Cross-National Investigation", *World Politics* 72, no. 4 (October 2020) 601-38.
- Habermas, J.r.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1.
- Hynek, Nik, Smetana, Michael. *Global Nuclear Disarmament : Strategic, political, and regional perspectives*, Routledge, 2016.
- Muhammet A Bas, Andrew J Coe. "Give Peace a (Second) Chance: A Theory of Nonproliferation Deal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ume 62, Issue 3, September, 2018, 606-617.
- Risse, Thomas, Stollenwerk, Eric. "Legitimacy in Areas of Limited Statehoo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1 (2018): 403-418.
- Rokkan, Stein. *State Formation, Nation-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Klosek, Kamil Christoph. (2021).
- Weatherford SM. "Measuring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1992): 149-66.
- Zeng, Jingh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_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Palgrave Macmillan, 2016.
- Zhao, D.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Discourses and Activities of the 1989 Beijing Student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 (2010), pp. 1592-1632.
- Zhao, D. *The Power of Tiananmen: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1989 Beijing Student Move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Zhao, D.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Legitimation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2009), pp. 416-433.

| 제3장 _ 대남외식 |

- Allport, G. W. *The Nature Prejudice*. Addison-Wiley, 1979.

| 제4장 _ 북한실태외식 |

- 권영전, "북한서 코로나로 시장 붕괴하면서 여성 위상도 추락 가능성", *연합뉴스*, 2021년 8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5164300504?input=1179m>.
- 김규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거시경제 추세, 단절인가 지속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9.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172-214.
- 김병로 · 정동준 · 정근식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2000): 219-242.
- 김학재 · 엄현숙 · 문인철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20』,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제5장 _ 주변국외식 |

- 강동완,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 『정치정보연구』 22(1) (2019): 1-26.
- 김갑식,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통일과 평화』 2 (2009): 103-139.
- 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 (2017): 235-264.

- 이무철, 최완규.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로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9.1 (2008), 89-112.
- 조동준, 『북한주민 통일외식』 중 “주변국 관계인식”, 142-163.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21.
- 현명호, “북한의 피포위의식 (Siege Mentality)과 역사적 단절-한국전쟁기 원산을 중심으로” *사이판 SAI* 31 (2021), 43-74.
- 한국은행, “북한 GDP관련통계,” 2022.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 Goldstein, Joshua S.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2) (1992): 369-385.
- Passport Index. “North Korea Passport Dashboard.” Passport Index. <https://www.passportindex.org/>.
- The GDELP Project. “Querying, Analyzing and Downloading.” The GDELP Project. 2021. <https://www.gdeltproject.org/about.html>.

| 제6장 _ 심화분석 - 경제실패 인식 |

- 강동완,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2(1) (2019): 1-26.
- 김갑식, “김정일 시대 권력엘리트 변화”, *통일과 평화* 2 (2009):103-139.
- 김병로, “자연재해인가 정책실패인가? 북한의 문화생태 현실과 구조”, *평화학 연구* 14(1) (2013): 219-242.
- 김재인, 2020, 41-45.
-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2019.1.1).
-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 (2017): 235-264.
- 박소연·김백조·안숙희,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및 특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0(3) (2010): 21-29.
- 문성휘, “북 대규모 병력감축 조짐”, *RFA*(2015.7.16).

- 외교부,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21-475(보도자료, 2021.7.4).
- 정대주, “유지비만 많이 든다”...북한 군, 보병 중심 ‘병력 감축’ 결정” *Daily NK*(2021.10.28).
- 한국은행, “북한 GDP관련통계,” 2022.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 Brunnstrom and Ahmann. “U.S. targets Russians in new North Korea sanctions after missile launches,” (2022.3.12); David, 2020; Wertz 2020, 24-27.
- Correlates of War Project. 2021.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v6.0) <https://correlatesofwar.org/>.
- GDELP Project. Querying, Analyzing and Downloading 2021. <https://www.gdeltproject.org/about.html>.
- Goldstein, Joshua S.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2)(1992):369-385.
- Jensen, Mark P. Gender, Sex Roles, and Attitudes toward War and Nuclear Weapons. *Sex Roles* 17(1987):253-267.

| 제7장 _ 남한적응실태 |

-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과 정착지원 방안”, 『*접경지역 통일연구*』 제4권 제2호 (2020): 163-183.
- 강채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제 11권 2호 (2018).
- 김영주, “〈2020 국정감사 : 외교통일 이슈 특특〉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2020.10.07.)”, 국회의원 김영주 블로그, 2021년 10월 12일 접속, <https://blog.naver.com/qufxod1004/222113264898>.
- 김병로 외,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20.

- 북한이탈주민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1.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통권 14호 (2016).
- 이상도, “올해 입국 탈북민 780명 총 탈북자는 30,992명”, 카톨릭뉴스, (2017. 9. 17.), 2022년 4월 15일 접속, http://www.cpbk.co.kr/CMS/news/view_body.hp?cid=695776&path=201709.
- 조정아, 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 통일부, 2022년 12월 27일 접속,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부록

집계표

설문지

통일의 필요성(uni01)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필요성(%)							
		사례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89.12% (1,106)	8.54% (106)	1.85% (23)	0.32% (4)	0.14% (2)	0% (0)	
탈북연도	2010	104	89.4%	8.7%	1.0%	0.0%	1.0%	0.0%	
	2011	128	90.6%	8.6%	0.0%	0.8%	0.0%	0.0%	
	2012	132	90.9%	6.8%	2.3%	0.0%	0.0%	0.0%	
	2013	149	94.0%	3.4%	2.7%	0.0%	0.0%	0.0%	
	2014	146	89.7%	7.5%	2.7%	0.0%	0.0%	0.0%	
	2015	135	88.2%	6.7%	5.2%	0.0%	0.0%	0.0%	
	2016	135	90.4%	8.2%	1.5%	0.0%	0.0%	0.0%	
	2017	85	92.9%	5.9%	0.0%	1.2%	0.0%	0.0%	
	2018	116	84.5%	13.8%	1.7%	0.0%	0.0%	0.0%	
	2019	110	79.1%	18.2%	0.0%	1.8%	0.9%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86.7%	10.3%	2.2%	0.6%	0.2%	0.0%	
	여자	745	90.7%	7.4%	1.6%	0.1%	0.1%	0.0%	
연령대	20대	411	82.5%	13.6%	2.9%	0.5%	0.5%	0.0%	
	30대	286	91.3%	7.7%	1.1%	0.0%	0.0%	0.0%	
	40대	272	93.8%	3.7%	2.2%	0.7%	0.0%	0.0%	
	50대	185	91.9%	7.0%	1.1%	0.0%	0.0%	0.0%	
	60대	67	98.5%	0.0%	0.0%	1.5%	0.0%	0.0%	
	무응답	11	72.7%	27.3%	0.0%	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64.7%	29.4%	5.9%	0.0%	0.0%	0.0%	
	남포	7	100.0%	0.0%	0.0%	0.0%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75.0%	20.0%	5.0%	0.0%	0.0%	0.0%	
	평안북도	19	79.0%	21.1%	0.0%	0.0%	0.0%	0.0%	
	함경남도	66	87.9%	10.6%	1.5%	0.0%	0.0%	0.0%	
	함경북도	432	89.8%	7.4%	2.3%	0.5%	0.0%	0.0%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양강도	632	90.2%	7.9%	1.3%	0.3%	0.3%	0.0%	
	황해남도	10	80.0%	10.0%	10.0%	0.0%	0.0%	0.0%	
	황해북도	16	93.8%	6.3%	0.0%	0.0%	0.0%	0.0%	
	강원도	13	92.3%	0.0%	7.7%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92.9%	6.0%	0.6%	0.6%	0.0%	0.0%
		후보당원	6	66.7%	33.3%	0.0%	0.0%	0.0%	0.0%
비당원		1040	88.7%	8.8%	2.1%	0.3%	0.2%	0.0%	
무응답		11	81.8%	18.2%	0.0%	0.0%	0.0%	0.0%	

		통일의 필요성(%)						
		사례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90.7%	5.6%	3.3%	0.5%		0.0%
	농민	54	90.7%	5.6%	3.7%	0.0%		0.0%
	사무원	91	95.6%	4.4%	0.0%	0.0%		0.0%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0.0%
	학생	43	86.1%	9.3%	4.7%	0.0%		0.0%
	군인	31	83.9%	12.9%	3.2%	0.0%		0.0%
	가정부인	125	92.0%	4.8%	3.2%	0.0%		0.0%
	무직 및 기타	81	92.6%	6.2%	1.2%	0.0%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0.0%
공식소득	0원	622	87.9%	9.3%	2.3%	0.3%	0.2%	0.0%
	천원 이하	74	90.5%	8.1%	1.4%	0.0%	0.0%	0.0%
	5천원 이하	347	91.2%	7.5%	1.1%	0.3%	0.0%	0.0%
	만원 이하	20	95.0%	0.0%	5.0%	0.0%	0.0%	0.0%
	10만원 이하	45	84.4%	13.3%	2.2%	0.0%	0.0%	0.0%
	50만원 이하	34	85.3%	5.9%	5.9%	2.9%	0.0%	0.0%
	100만원 이하	10	100.0%	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56	87.5%	10.7%	0.0%	0.0%	1.8%	0.0%
	비공식소득	0원	253	83.4%	12.7%	3.2%	0.8%	0.0%
천원 이하		20	85.0%	15.0%	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94.7%	5.3%	0.0%	0.0%	0.0%	0.0%
만원 이하		12	75.0%	16.7%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91.4%	7.2%	1.4%	0.0%	0.0%	0.0%
50만원 이하		373	92.5%	5.6%	1.9%	0.0%	0.0%	0.0%
100만원 이하		170	88.2%	11.2%	0.6%	0.0%	0.0%	0.0%
100만원 초과		193	91.2%	5.7%	2.1%	1.0%	0.0%	0.0%
무응답		53	84.9%	11.3%	0.0%	0.0%	3.8%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58	90.7%	7.6%	1.5%	0.2%	0.0%	0.0%
	없다	378	85.7%	10.9%	2.7%	0.5%	0.3%	0.0%
	무응답	5	80.0%	0.0%	0.0%	0.0%	20.0%	0.0%
남한친척	있다	710	89.9%	7.6%	2.0%	0.6%	0.0%	0.0%
	없다	528	88.3%	9.9%	1.7%	0.0%	0.2%	0.0%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0.0%
혼인여부	미혼	420	88.8%	9.1%	1.9%	0.2%	0.0%	0.0%
	결혼	476	91.4%	6.1%	2.3%	0.2%	0.0%	0.0%
	사별/별거/이혼	109	95.4%	2.8%	1.8%	0.0%	0.0%	0.0%
	무응답	9	88.9%	0.0%	0.0%	0.0%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외지(uni02)

문)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 통일외지(%)							
	사례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외류, 중복응답	
전체	1241	89.12% (1,106)	8.54% (106)	1.85% (23)	0.32% (4)	0.14% (2)	0% (0)	
탈북연도	2010	104	89.4%	8.7%	1.0%	0.0%	1.0%	0.0%
	2011	128	90.6%	8.6%	0.0%	0.8%	0.0%	0.0%
	2012	132	90.9%	6.8%	2.3%	0.0%	0.0%	0.0%
	2013	149	94.0%	3.4%	2.7%	0.0%	0.0%	0.0%
	2014	146	89.7%	7.5%	2.7%	0.0%	0.0%	0.0%
	2015	135	88.2%	6.7%	5.2%	0.0%	0.0%	0.0%
	2016	135	90.4%	8.2%	1.5%	0.0%	0.0%	0.0%
	2017	85	92.9%	5.9%	0.0%	1.2%	0.0%	0.0%
	2018	116	84.5%	13.8%	1.7%	0.0%	0.0%	0.0%
	2019	110	79.1%	18.2%	0.0%	1.8%	0.9%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86.7%	10.3%	2.2%	0.6%	0.2%	0.0%
	여자	745	90.7%	7.4%	1.6%	0.1%	0.1%	0.0%
연령대	20대	411	82.5%	13.6%	2.9%	0.5%	0.5%	0.0%
	30대	286	91.3%	7.7%	1.1%	0.0%	0.0%	0.0%
	40대	272	93.8%	3.7%	2.2%	0.7%	0.0%	0.0%
	50대	185	91.9%	7.0%	1.1%	0.0%	0.0%	0.0%
	60대	67	98.5%	0.0%	0.0%	1.5%	0.0%	0.0%
	무응답	11	72.7%	27.3%	0.0%	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64.7%	29.4%	5.9%	0.0%	0.0%	0.0%
	남포	7	100.0%	0.0%	0.0%	0.0%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75.0%	20.0%	5.0%	0.0%	0.0%	0.0%
	평안북도	19	79.0%	21.1%	0.0%	0.0%	0.0%	0.0%
	함경남도	66	87.9%	10.6%	1.5%	0.0%	0.0%	0.0%
	함경북도	432	89.8%	7.4%	2.3%	0.5%	0.0%	0.0%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양강도	632	90.2%	7.9%	1.3%	0.3%	0.3%	0.0%
	황해남도	10	80.0%	10.0%	10.0%	0.0%	0.0%	0.0%
	황해북도	16	93.8%	6.3%	0.0%	0.0%	0.0%	0.0%
	강원도	13	92.3%	0.0%	7.7%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외류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92.9%	6.0%	0.6%	0.6%	0.0%	0.0%
	후보당원	6	66.7%	33.3%	0.0%	0.0%	0.0%	0.0%
	비당원	1040	88.7%	8.8%	2.1%	0.3%	0.2%	0.0%
	무응답	11	81.8%	18.2%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외지(%)						
		사례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외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90.7%	5.6%	3.3%	0.5%		0.0%
	농민	54	90.7%	5.6%	3.7%	0.0%		0.0%
	사무원	91	95.6%	4.4%	0.0%	0.0%		0.0%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0.0%
	학생	43	86.1%	9.3%	4.7%	0.0%		0.0%
	군인	31	83.9%	12.9%	3.2%	0.0%		0.0%
	가정부인	125	92.0%	4.8%	3.2%	0.0%		0.0%
	무직 및 기타	81	92.6%	6.2%	1.2%	0.0%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응답외류	4	75.0%	25.0%	0.0%	0.0%		0.0%	
공식소득	0원	622	87.9%	9.3%	2.3%	0.3%	0.2%	0.0%
	천원 이하	74	90.5%	8.1%	1.4%	0.0%	0.0%	0.0%
	5천원 이하	347	91.2%	7.5%	1.1%	0.3%	0.0%	0.0%
	만원 이하	20	95.0%	0.0%	5.0%	0.0%	0.0%	0.0%
	10만원 이하	45	84.4%	13.3%	2.2%	0.0%	0.0%	0.0%
	50만원 이하	34	85.3%	5.9%	5.9%	2.9%	0.0%	0.0%
	100만원 이하	10	100.0%	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56	87.5%	10.7%	0.0%	0.0%	1.8%	0.0%
비공식소득	0원	253	83.4%	12.7%	3.2%	0.8%	0.0%	0.0%
	천원 이하	20	85.0%	15.0%	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94.7%	5.3%	0.0%	0.0%	0.0%	0.0%
	만원 이하	12	75.0%	16.7%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91.4%	7.2%	1.4%	0.0%	0.0%	0.0%
	50만원 이하	373	92.5%	5.6%	1.9%	0.0%	0.0%	0.0%
	100만원 이하	170	88.2%	11.2%	0.6%	0.0%	0.0%	0.0%
	100만원 초과	193	91.2%	5.7%	2.1%	1.0%	0.0%	0.0%
	무응답	53	84.9%	11.3%	0.0%	0.0%	3.8%	0.0%
응답외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58	90.7%	7.6%	1.5%	0.2%	0.0%	0.0%
	없다	378	85.7%	10.9%	2.7%	0.5%	0.3%	0.0%
	무응답	5	80.0%	0.0%	0.0%	0.0%	20.0%	0.0%
남한친척	있다	710	89.9%	7.6%	2.0%	0.6%	0.0%	0.0%
	없다	528	88.3%	9.9%	1.7%	0.0%	0.2%	0.0%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0.0%
혼인여부	미혼	420	88.8%	9.1%	1.9%	0.2%	0.0%	0.0%
	결혼	476	91.4%	6.1%	2.3%	0.2%	0.0%	0.0%
	사별/별거/이혼	109	95.4%	2.8%	1.8%	0.0%	0.0%	0.0%
	무응답	9	88.9%	0.0%	0.0%	0.0%	11.1%	0.0%
	응답외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통일이유(uni03)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이유(%)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 의 고통을 해결해주 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을 없 애기 위해	북한 주민 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 다 선진국 이 되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877	32.27% (283)	6.5% (57)	9.46% (83)	38.88% (341)	7.98% (70)	2.39% (21)	0.23% (2)	2.28% (20)	
탈북 연도	2013	149	23.5%	7.4%	11.4%	46.3%	8.1%	0.7%	0.0%	2.7%
	2014	146	27.4%	3.4%	8.2%	46.6%	9.6%	2.1%	1.4%	1.4%
	2015	135	30.4%	8.9%	11.9%	42.2%	4.4%	2.2%	0.0%	0.0%
	2016	135	37.0%	8.2%	10.4%	29.6%	11.9%	3.0%	0.0%	0.0%
	2017	85	41.2%	4.7%	14.1%	29.4%	5.9%	2.4%	0.0%	2.4%
	2018	116	28.5%	6.0%	6.0%	46.6%	4.3%	2.6%	0.0%	6.0%
	2019	110	44.6%	6.4%	4.6%	24.6%	10.9%	4.6%	0.0%	4.6%
	2020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346	36.4%	5.2%	9.8%	35.0%	7.8%	4.1%	0.3%	1.5%
	여자	531	29.6%	7.3%	9.2%	41.4%	8.1%	1.3%	0.2%	2.8%
연령대	20대	294	29.3%	8.2%	9.2%	41.2%	7.5%	2.4%	0.3%	2.0%
	30대	205	33.2%	5.9%	5.4%	38.5%	11.7%	3.4%	0.0%	2.0%
	40대	187	35.3%	5.4%	9.1%	40.6%	6.4%	2.1%	0.0%	1.1%
	50대	137	29.9%	6.6%	12.4%	37.2%	6.6%	1.5%	0.7%	5.1%
	60대	37	46.0%	5.4%	21.6%	21.6%	2.7%	0.0%	0.0%	2.7%
	무응답	8	25.0%	0.0%	12.5%	37.5%	25.0%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6	18.8%	12.5%	12.5%	31.3%	18.8%	6.3%	0.0%	0.0%
	남포	6	50.0%	0.0%	33.3%	0.0%	16.7%	0.0%	0.0%	0.0%
	개성	3	33.3%	0.0%	33.3%	33.3%	0.0%	0.0%	0.0%	0.0%
	평안남도	13	38.5%	15.4%	7.7%	30.8%	7.7%	0.0%	0.0%	0.0%
	평안북도	12	25.0%	8.3%	16.7%	16.7%	25.0%	0.0%	0.0%	8.3%
	함경남도	38	23.7%	5.3%	5.3%	57.9%	5.3%	0.0%	0.0%	2.6%
	함경북도	261	29.1%	8.1%	10.0%	42.5%	5.4%	3.1%	0.4%	1.5%
	자강도	4	75.0%	0.0%	0.0%	25.0%	0.0%	0.0%	0.0%	0.0%
	양강도	495	34.1%	5.7%	8.5%	38.2%	8.7%	1.8%	0.2%	2.8%
	황해남도	7	14.3%	0.0%	28.6%	14.3%	14.3%	28.6%	0.0%	0.0%
	황해북도	11	54.6%	0.0%	9.1%	18.2%	9.1%	9.1%	0.0%	0.0%
	강원도	10	40.0%	10.0%	20.0%	20.0%	1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35	43.7%	2.2%	6.7%	34.1%	8.2%	3.0%	0.7%
후보당원		5	60.0%	0.0%	0.0%	40.0%	0.0%	0.0%	0.0%	0.0%
비당원		730	29.9%	7.4%	10.1%	40.0%	8.0%	2.3%	0.1%	2.2%
무응답		7	42.9%	0.0%	0.0%	14.3%	14.3%	0.0%	0.0%	28.6%

	사례수	통일이유(%)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 의 고통을 해결해주 기 위해	남북 간에 전쟁을 없 애기 위해	북한 주민 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 다 선진국 이 되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37.4%	7.9%	10.3%	33.6%	7.5%	2.3%	0.5%	0.5%	
	농민	54	31.5%	5.6%	16.7%	42.6%	1.9%	1.9%	0.0%	0.0%	
	사무원	914	29.7%	4.4%	5.5%	37.4%	15.4%	4.4%	1.1%	2.2%	
	피부양자	5	60.0%	0.0%	20.0%	20.0%	0.0%	0.0%	0.0%	0.0%	
	학생	43	18.6%	7.0%	20.9%	41.9%	11.6%	0.0%	0.0%	0.0%	
	군인	31	32.3%	3.2%	12.9%	48.4%	3.2%	0.0%	0.0%	0.0%	
	가정부인	125	30.4%	7.2%	10.4%	41.6%	7.2%	0.8%	0.0%	2.4%	
	무직 및 기타	81	19.8%	7.4%	8.6%	53.1%	7.4%	2.5%	0.0%	1.2%	
	무응답	4	50.0%	0.0%	0.0%	25.0%	25.0%	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25.0%	0.0%	25.0%	25.0%	0.0%	0.0%	0.0%	25.0%	
	0원	495	31.1%	7.1%	11.3%	40.6%	6.1%	1.4%	0.2%	2.2%	
	천원 이하	55	36.4%	3.6%	7.3%	43.6%	9.1%	0.0%	0.0%	0.0%	
	5천원 이하	242	32.6%	6.2%	6.6%	35.5%	12.4%	3.7%	0.4%	2.5%	
	만원 이하	9	55.6%	0.0%	22.2%	11.1%	0.0%	0.0%	0.0%	11.1%	
	10만원 이하	30	23.3%	10.0%	6.7%	50.0%	3.3%	6.7%	0.0%	0.0%	
	50만원 이하	23	43.5%	4.4%	13.0%	34.8%	4.4%	0.0%	0.0%	0.0%	
	100만원 이하	7	14.3%	14.3%	0.0%	14.3%	28.6%	28.6%	0.0%	0.0%	
	100만원 초과	4	50.0%	0.0%	0.0%	5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10	40.0%	0.0%	0.0%	30.0%	10.0%	0.0%	0.0%	20.0%	
	0원	182	31.9%	8.2%	12.1%	40.1%	4.4%	0.6%	0.0%	2.8%	
	천원 이하	11	54.6%	9.1%	0.0%	36.4%	0.0%	0.0%	0.0%	0.0%	
	5천원 이하	10	40.0%	0.0%	10.0%	40.0%	10.0%	0.0%	0.0%	0.0%	
	만원 이하	5	80.0%	20.0%	0.0%	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87	32.2%	5.8%	11.5%	40.2%	6.9%	2.3%	0.0%	1.2%	
	50만원 이하	259	28.6%	5.4%	9.7%	43.6%	8.5%	1.5%	0.0%	2.7%	
	100만원 이하	144	31.3%	3.5%	9.0%	38.9%	9.7%	4.2%	1.4%	2.1%	
	100만원 초과	161	36.0%	8.1%	6.2%	32.3%	11.2%	4.4%	0.0%	1.9%	
장사 경험	무응답	10	30.0%	10.0%	10.0%	30.0%	0.0%	10.0%	0.0%	1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0%	0.0%	0.0%	
	있다	600	30.5%	6.0%	8.7%	41.0%	8.2%	2.7%	0.3%	2.7%	
	없다	277	36.1%	7.6%	11.2%	34.3%	7.6%	1.8%	0.0%	1.4%	
	남한 친척	있다	535	31.2%	8.4%	8.8%	40.9%	6.2%	1.7%	0.2%	2.6%
		없다	342	33.9%	3.5%	10.5%	35.7%	10.8%	3.5%	0.3%	1.8%
		미혼	258	28.7%	7.0%	10.9%	41.9%	7.8%	2.3%	0.4%	1.2%
	혼인 여부	결혼	305	33.8%	6.6%	10.8%	37.1%	8.5%	1.6%	0.3%	1.3%
		사별/별거/이혼	85	25.9%	5.9%	11.8%	44.7%	8.2%	2.4%	0.0%	1.2%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통일시기(uni04)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시기(%)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1.44% (142)	22.32% (277)	7.66% (95)	3.46% (43)	6.85% (85)	47.86% (594)	0.32% (4)	0.08% (1)	
연도	2010	104	20.2%	29.8%	12.5%	2.9%	6.7%	26.9%	1.0%	0.0%	
	2011	128	11.7%	29.7%	8.6%	1.6%	5.5%	43.0%	0.0%	0.0%	
	2012	132	11.4%	22.7%	8.3%	4.6%	8.3%	44.7%	0.0%	0.0%	
	2013	149	18.8%	18.1%	9.4%	3.4%	4.7%	45.0%	0.7%	0.0%	
	2014	146	11.0%	30.1%	6.9%	2.1%	6.2%	43.2%	0.0%	0.7%	
	2015	135	13.3%	31.1%	6.7%	2.2%	2.2%	44.4%	0.0%	0.0%	
	2016	135	6.7%	20.0%	5.2%	3.7%	8.9%	54.8%	0.7%	0.0%	
	2017	85	7.1%	12.9%	9.4%	4.7%	8.2%	57.7%	0.0%	0.0%	
	2018	116	6.9%	8.6%	3.5%	2.6%	11.2%	66.4%	0.9%	0.0%	
	2019	110	5.5%	15.5%	7.3%	8.2%	8.2%	55.5%	0.0%	0.0%	
202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9.1%	25.2%	8.3%	4.0%	9.5%	43.4%	0.4%	0.2%	
	여자	745	13.0%	20.4%	7.2%	3.1%	5.1%	50.9%	0.3%	0.0%	
연령대	20대	411	6.3%	20.4%	9.3%	5.6%	10.7%	47.0%	0.7%	0.0%	
	30대	286	10.1%	23.4%	8.0%	3.9%	5.2%	49.3%	0.0%	0.0%	
	40대	272	15.4%	29.4%	5.2%	1.8%	5.2%	42.7%	0.4%	0.0%	
	50대	185	13.5%	15.1%	6.5%	1.6%	3.8%	58.9%	0.0%	0.5%	
	60대	67	26.9%	23.9%	4.5%	0.0%	4.5%	40.3%	0.0%	0.0%	
	무응답	11	9.1%	18.2%	18.2%	9.1%	9.1%	36.4%	0.0%	0.0%	
	평양	17	5.9%	17.7%	17.7%	5.9%	17.7%	29.4%	0.0%	5.9%	
	남포	7	14.3%	42.9%	0.0%	0.0%	0.0%	42.9%	0.0%	0.0%	
북한 거주지	개성	3	0.0%	66.7%	0.0%	0.0%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10.0%	40.0%	5.0%	0.0%	5.0%	40.0%	0.0%	0.0%	
	평안북도	19	10.5%	21.1%	15.8%	10.5%	10.5%	26.3%	5.3%	0.0%	
	함경남도	66	13.6%	21.2%	9.1%	6.1%	9.1%	40.9%	0.0%	0.0%	
	함경북도	432	11.6%	23.2%	7.9%	4.2%	6.5%	46.5%	0.2%	0.0%	
	자강도	4	0.0%	50.0%	0.0%	0.0%	0.0%	50.0%	0.0%	0.0%	
	양강도	632	11.7%	20.6%	6.8%	2.7%	6.7%	51.3%	0.3%	0.0%	
	황해남도	10	10.0%	40.0%	10.0%	10.0%	0.0%	30.0%	0.0%	0.0%	
	황해북도	16	12.5%	31.3%	12.5%	0.0%	6.3%	37.5%	0.0%	0.0%	
	강원도	13	0.0%	15.4%	15.4%	0.0%	7.7%	61.5%	0.0%	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14.3%	25.8%	6.6%	2.2%	4.4%	46.7%	0.0%	0.0%
		후보당원	6	0.0%	16.7%	0.0%	0.0%	0.0%	83.3%	0.0%	0.0%
비당원		1040	11.1%	21.9%	8.0%	3.8%	7.4%	47.5%	0.3%	0.1%	
무응답		11	9.1%	9.1%	0.0%	0.0%	0.0%	72.7%	0.1%	0.0%	
직업	노동자	214	11.2%	21.0%	7.5%	2.8%	8.4%	48.6%	0.5%	0.0%	
	농민	54	20.4%	16.7%	7.4%	1.9%	3.7%	50.0%	0.0%	0.0%	
	사무원	91	13.2%	26.4%	11.0%	2.2%	5.5%	40.7%	0.0%	1.1%	
	피부양자	5	0.0%	20.0%	0.0%	0.0%	0.0%	80.0%	0.0%	0.0%	
	학생	43	2.3%	32.6%	14.0%	11.3%	13.5%	25.6%	0.0%	0.0%	
	군인	31	22.6%	22.6%	0.0%	6.5%	0.0%	48.4%	0.0%	0.0%	
	가정부인	125	10.4%	23.2%	4.8%	1.6%	3.2%	56.8%	0.0%	0.0%	
	무직 및 기타	81	11.1%	23.5%	7.4%	2.5%	2.5%	51.9%	1.2%	0.0%	
	무응답	4	25.0%	25.0%	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4	0.0%	50.0%	0.0%	0.0%	25.0%	25.0%	0.0%	0.0%	

		통일시기(%)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공식 소득	0원	622	11.9%	20.4%	6.1%	3.2%	5.0%	52.9%	0.5%	0.0%
	천원 이하	74	14.9%	24.3%	6.8%	6.8%	12.2%	35.1%	0.0%	0.0%
	5천원 이하	374	9.9%	27.0%	9.9%	2.7%	7.5%	42.8%	0.0%	0.3%
	만원 이하	20	30.0%	15.0%	10.0%	0.0%	10.0%	35.0%	0.0%	0.0%
	10만원 이하	45	4.4%	17.8%	11.1%	4.4%	8.9%	53.3%	0.0%	0.0%
	50만원 이하	34	2.9%	14.7%	2.9%	5.9%	17.7%	55.9%	0.0%	0.0%
	100만원 이하	10	0.0%	0.0%	10.0%	10.0%	10.0%	70.0%	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25.0%	0.0%	0.0%	75.0%	0.0%	0.0%
	무응답	56	19.6%	26.8%	8.9%	5.4%	7.1%	30.4%	1.8%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8.7%	19.8%	9.1%	5.1%	9.1%	48.2%	0.0%	0.0%
	천원 이하	20	25.0%	25.0%	5.0%	0.0%	10.0%	35.0%	0.0%	0.0%
	5천원 이하	19	36.8%	21.1%	5.3%	0.0%	0.0%	36.8%	0.0%	0.0%
	만원 이하	12	25.0%	25.0%	8.3%	8.3%	8.3%	25.0%	0.0%	0.0%
	10만원 이하	139	12.2%	28.8%	6.5%	2.9%	2.9%	46.0%	0.7%	0.0%
	50만원 이하	373	11.8%	20.4%	8.9%	3.8%	7.5%	47.5%	0.3%	0.0%
	100만원 이하	170	9.4%	28.2%	5.3%	2.9%	7.1%	46.5%	0.6%	0.0%
	100만원 초과	193	8.3%	20.2%	6.7%	2.1%	4.7%	57.5%	0.0%	0.5%
	무응답	53	17.0%	20.8%	9.4%	3.8%	9.4%	37.7%	1.9%	0.0%
	응답오류	1	0.0%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1.8%	22.5%	7.2%	3.4%	6.2%	48.5%	0.4%	0.1%
	없다	378	10.3%	22.2%	8.7%	3.7%	8.2%	46.8%	0.0%	0.0%
	무응답	5	40.0%	0.0%	0.0%	0.0%	20.0%	2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10.7%	21.6%	6.8%	0.8%	7.3%	50.6%	0.1%	0.1%
	없다	528	12.3%	23.5%	8.9%	4.4%	6.3%	44.3%	0.4%	0.0%
	무응답	3	33.3%	0.0%	0.0%	0.0%	0.0%	33.3%	33.3%	0.0%
혼인 여부	미혼	420	11.4%	25.2%	8.6%	5.0%	7.9%	41.9%	0.0%	0.0%
	결혼	476	12.8%	24.0%	8.4%	2.1%	5.3%	47.1%	0.2%	0.2%
	사별/별거/이혼	109	14.7%	27.5%	5.5%	0.0%	3.7%	47.7%	0.9%	0.0%
	무응답	9	22.2%	0.0%	11.1%	0.0%	11.1%	44.4%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uni05)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집단 이익(%)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89.04% (1,105)	9.51% (118)	1.13% (14)	0.32% (4)	0%	0%	
탈북연도	2010	104	92.3%	7.7%	0.0%	0.0%	0.0%	
	2011	128	83.6%	13.3%	2.3%	0.8%	0.0%	
	2012	132	91.7%	7.6%	0.8%	0.0%	0.0%	
	2013	149	92.6%	5.4%	1.3%	0.7%	0.0%	
	2014	146	93.8%	5.5%	0.0%	0.7%	0.0%	
	2015	135	92.6%	5.9%	1.5%	0.0%	0.0%	
	2016	135	88.2%	11.1%	0.0%	0.7%	0.0%	
	2017	85	82.4%	16.5%	1.2%	0.0%	0.0%	
	2018	116	86.2%	12.9%	0.9%	0.0%	0.0%	
	2019	110	82.7%	13.6%	3.6%	0.0%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89.1%	9.5%	1.0%	0.4%	0.0%	0.0%
	여자	745	89.0%	9.5%	1.2%	0.3%	0.0%	0.0%
연령대	20대	411	82.5%	16.1%	1.2%	0.2%	0.0%	0.0%
	30대	286	92.0%	6.6%	1.4%	0.0%	0.0%	
	40대	272	94.5%	4.8%	0.4%	0.4%	0.0%	
	50대	185	93.5%	6.0%	0.0%	0.5%	0.0%	
	60대	67	86.6%	7.5%	4.5%	1.5%	0.0%	
	무응답	11	63.6%	27.3%	9.1%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88.2%	11.8%	0.0%	0.0%	0.0%	
	남포	7	100.0%	0.0%	0.0%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95.0%	5.0%	0.0%	0.0%	0.0%	
	평안북도	19	73.7%	26.3%	0.0%	0.0%	0.0%	
	함경남도	66	84.9%	9.1%	4.6%	1.5%	0.0%	
	함경북도	432	90.7%	8.3%	0.5%	0.5%	0.0%	
	자강도	4	75.0%	25.0%	0.0%	0.0%	0.0%	
	양강도	632	88.1%	10.4%	1.3%	0.2%	0.0%	
	황해남도	10	100.0%	0.0%	0.0%	0.0%	0.0%	
	황해북도	16	100.0%	0.0%	0.0%	0.0%	0.0%	
	강원도	13	84.6%	7.7%	7.7%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90.1%	8.8%	0.6%	0.6%	0.0%	
	후보당원	6	100.0%	0.0%	0.0%	0.0%	0.0%	
	비당원	1040	89.0%	9.5%	1.2%	0.3%	0.0%	
	무응답	11	72.7%	18.2%	9.1%	0.0%	0.0%	

		통일 집단 이익(%)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91.1%	7.0%	1.4%	0.5%	0.0%
	농민	54	87.0%	13.0%	0.0%	0.0%	0.0%
	사무원	91	92.3%	6.6%	0.0%	1.1%	0.0%
	피부양자	5	80.0%	0.0%	20.0%	0.0%	0.0%
	학생	43	83.7%	16.3%	0.0%	0.0%	0.0%
	군인	31	93.6%	6.5%	0.0%	0.0%	0.0%
	가정부인	125	91.2%	8.0%	0.0%	0.8%	0.0%
	무직 및 기타	81	92.6%	6.2%	1.2%	0.0%	0.0%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응답오류	4	10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89.1%	9.7%	1.1%	0.2%	0.0%
	천원 이하	74	87.8%	12.2%	0.0%	0.0%	0.0%
	5천원 이하	374	90.6%	8.3%	0.5%	0.5%	0.0%
	만원 이하	20	85.0%	10.0%	5.0%	0.0%	0.0%
	10만원 이하	45	88.9%	6.7%	4.4%	0.0%	0.0%
	50만원 이하	34	79.4%	17.7%	0.0%	2.9%	0.0%
	100만원 이하	10	90.0%	1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무응답	56	87.5%	8.9%	3.6%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88.5%	10.7%	0.8%	0.0%	0.0%
	천원 이하	20	90.0%	1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94.7%	5.3%	0.0%	0.0%	0.0%
	만원 이하	12	75.0%	16.7%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85.6%	13.0%	0.7%	0.7%	0.0%
	50만원 이하	373	87.9%	10.2%	1.6%	0.3%	0.0%
	100만원 이하	170	91.8%	7.1%	0.6%	0.6%	0.0%
	100만원 초과	193	92.2%	6.2%	1.0%	0.5%	0.0%
	무응답	53	88.7%	9.4%	1.9%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90.1%	8.3%	1.2%	0.5%	0.0%
	없다	378	86.5%	12.4%	1.1%	0.0%	0.0%
	무응답	5	10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89.4%	9.0%	1.1%	0.4%	0.0%
	없다	528	88.5%	10.2%	1.1%	0.2%	0.0%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87.6%	11.2%	1.0%	0.2%	0.0%
	결혼	476	92.2%	6.5%	0.8%	0.4%	0.0%
	사별/별거/이혼	109	89.0%	9.2%	0.9%	0.9%	0.0%
	무응답	9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통일 개인 이익(uni05a)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집단 이익(%)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75.5% (937)	20.79% (258)	3.06% (38)	0.56% (7)	0.08% (1)	0% (0)
탈북 연도	2010	104	77.9%	17.3%	3.9%	1.0%	0.0%	0.0%
	2011	128	66.4%	28.1%	4.7%	0.8%	0.0%	0.0%
	2012	132	78.0%	17.4%	3.0%	1.5%	0.0%	0.0%
	2013	149	81.9%	16.1%	0.7%	1.3%	0.0%	0.0%
	2014	146	85.6%	12.3%	1.4%	0.7%	0.0%	0.0%
	2015	135	80.0%	17.8%	2.2%	0.0%	0.0%	0.0%
	2016	135	74.8%	21.5%	3.7%	0.0%	0.0%	0.0%
	2017	85	69.4%	28.2%	2.4%	0.0%	0.0%	0.0%
	2018	116	65.5%	30.2%	4.1%	0.0%	0.0%	0.0%
	2019	110	69.1%	24.6%	5.5%	0.0%	0.9%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74.6%	21.8%	2.8%	0.6%	0.2%	0.0%
	여자	745	76.1%	20.1%	3.2%	0.5%	0.0%	0.0%
연령대	20대	411	64.0%	29.7%	5.8%	0.2%	0.2%	0.0%
	30대	286	74.5%	23.1%	2.1%	0.4%	0.0%	0.0%
	40대	272	84.2%	14.3%	0.7%	0.7%	0.0%	0.0%
	50대	185	84.9%	12.4%	1.6%	1.1%	0.0%	0.0%
	60대	67	89.6%	7.5%	1.5%	1.5%	0.0%	0.0%
	무응답	11	63.6%	18.2%	18.2%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8.8%	29.4%	11.8%	0.0%	0.0%	0.0%
	남포	7	100.0%	0.0%	0.0%	0.0%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70.0%	30.0%	0.0%	0.0%	0.0%	0.0%
	평안북도	19	63.2%	36.8%	0.0%	0.0%	0.0%	0.0%
	함경남도	66	75.8%	16.7%	6.1%	1.5%	0.0%	0.0%
	함경북도	432	77.3%	19.2%	2.8%	0.7%	0.0%	0.0%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양강도	632	75.0%	21.7%	2.9%	0.3%	0.2%	0.0%
	황해남도	10	80.0%	20.0%	0.0%	0.0%	0.0%	0.0%
	황해북도	16	75.0%	12.5%	12.5%	0.0%	0.0%	0.0%
	강원도	13	69.2%	23.1%	0.0%	7.7%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 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81.9%	15.9%	1.1%	1.1%	0.0%
후보당원		6	50.0%	50.0%	0.0%	0.0%	0.0%	0.0%
비당원		1040	74.9%	21.3%	3.3%	0.5%	0.1%	0.0%
무응답		11	54.6%	27.3%	18.2%	0.0%	0.0%	0.0%

		통일 집단 이익(%)						
		사례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77.6%	20.6%	1.4%	0.5%		0.0%
	농민	54	74.1%	25.9%	0.0%	0.0%		0.0%
	사무원	91	84.6%	14.3%	1.1%	0.0%		0.0%
	피부양자	5	80.0%	0.0%	0.0%	20.0%		0.0%
	학생	43	72.1%	25.6%	2.3%	0.0%		0.0%
	군인	31	83.9%	12.9%	3.2%	0.0%		0.0%
	가정부인	125	79.2%	16.0%	4.0%	0.8%		0.0%
	무직 및 기타	81	82.7%	14.8%	2.5%	0.0%		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4	50.0%	5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76.4%	20.1%	2.9%	0.6%		0.0%
	천원 이하	74	73.0%	24.3%	1.4%	0.0%		0.0%
	5천원 이하	374	77.3%	19.3%	3.2%	0.3%		0.0%
	만원 이하	20	85.0%	15.0%	0.0%	0.0%		0.0%
	10만원 이하	45	71.1%	20.0%	6.7%	2.2%		0.0%
	50만원 이하	34	55.9%	41.2%	0.0%	2.9%		0.0%
	100만원 이하	10	60.0%	30.0%	10.0%	0.0%		0.0%
	100만원 초과	4	25.0%	75.0%	0.0%	0.0%		0.0%
	무응답	56	76.8%	17.9%	5.4%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70.0%	25.7%	3.6%	0.4%	0.4%	0.0%
	천원 이하	20	65.0%	35.0%	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4.7%	5.3%	0.0%	0.0%	0.0%	0.0%
	만원 이하	12	58.3%	33.3%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77.7%	15.8%	5.8%	0.7%	0.0%	0.0%
	50만원 이하	373	75.1%	20.9%	3.2%	0.8%	0.0%	0.0%
	100만원 이하	170	80.6%	17.1%	1.8%	0.6%	0.0%	0.0%
	100만원 초과	193	77.7%	20.2%	1.6%	0.5%	0.0%	0.0%
무응답	53	75.5%	20.8%	3.8%	0.0%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78.6%	18.3%	2.6%	0.6%	0.0%	0.0%
	없다	378	68.5%	26.5%	4.2%	0.5%	0.3%	0.0%
	무응답	5	80.0%	2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76.6%	19.6%	3.1%	0.7%	0.0%	0.0%
	없다	528	74.1%	22.4%	3.0%	0.4%	0.2%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73.8%	22.9%	2.9%	0.5%	0.0%	0.0%
	결혼	476	79.8%	16.6%	2.7%	0.8%	0.0%	0.0%
	사별/별거/이혼	109	79.8%	18.4%	1.8%	0.0%	0.0%	0.0%
	무응답	9	66.7%	22.2%	0.0%	11.1%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빈부격차(uni06a)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부격차(%)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5.76% (692)	25.62% (318)	7.25% (90)	4.43% (55)	5.72% (71)	1.21% (15)	0% (0)	
탈북연도	2010	104	53.9%	23.1%	4.8%	4.8%	6.7%	6.7%	0.0%	
	2011	128	54.7%	23.4%	7.0%	7.0%	5.5%	2.3%	0.0%	
	2012	132	62.1%	24.2%	3.8%	2.3%	7.6%	0.0%	0.0%	
	2013	149	61.1%	24.2%	4.7%	2.7%	7.4%	0.0%	0.0%	
	2014	146	48.0%	31.5%	9.6%	4.1%	6.9%	0.0%	0.0%	
	2015	135	61.5%	24.4%	4.4%	5.9%	3.7%	0.0%	0.0%	
	2016	135	57.8%	23.0%	9.6%	5.2%	3.7%	0.7%	0.0%	
	2017	85	58.8%	27.1%	5.9%	2.4%	4.7%	1.2%	0.0%	
	2018	116	49.1%	31.9%	9.5%	3.5%	6.0%	0.0%	0.0%	
	2019	110	50.0%	22.7%	13.6%	6.4%	4.6%	2.7%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53.0%	25.0%	8.3%	6.1%	7.5%	0.2%	0.0%	
	여자	745	57.6%	26.0%	6.6%	3.4%	4.6%	1.9%	0.0%	
연령대	20대	411	48.4%	30.2%	9.0%	4.9%	6.3%	1.2%	0.0%	
	30대	286	56.6%	24.8%	7.3%	4.2%	6.3%	0.7%	0.0%	
	40대	272	61.8%	20.6%	7.0%	5.2%	4.8%	0.7%	0.0%	
	50대	185	60.5%	23.8%	6.5%	3.2%	3.8%	2.2%	0.0%	
	60대	67	67.2%	20.9%	0.0%	1.5%	7.5%	3.0%	0.0%	
	무응답	11	18.2%	45.5%	9.1%	9.1%	18.2%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47.1%	23.5%	5.9%	5.9%	17.7%	0.0%	0.0%	
	남포	7	85.7%	14.2%	0.0%	0.0%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50.0%	25.0%	5.0%	0.0%	15.0%	5.0%	0.0%	
	평안북도	19	57.9%	21.1%	10.5%	0.0%	10.5%	0.0%	0.0%	
	함경남도	66	54.6%	19.7%	7.6%	10.6%	6.1%	1.5%	0.0%	
	함경북도	432	56.5%	24.8%	6.7%	4.4%	6.0%	1.6%	0.0%	
	자강도	4	50.0%	0.0%	25.0%	0.0%	0.0%	0.0%	0.0%	
	양강도	632	54.6%	27.7%	7.8%	4.1%	4.9%	1.0%	0.0%	
	황해남도	10	40.0%	40.0%	0.0%	10.0%	10.0%	0.0%	0.0%	
	황해북도	16	81.3%	6.3%	6.3%	0.0%	6.3%	0.0%	0.0%	
	강원도	13	76.9%	23.1%	0.0%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57.7%	24.7%	6.6%	3.9%	6.6%	0.6%	0.0%
		후보당원	6	33.3%	16.7%	0.0%	16.7%	33.3%	0.0%	0.0%
		비당원	1040	55.7%	25.8%	7.3%	4.4%	5.5%	1.4%	0.0%
무응답		11	36.4%	36.4%	18.2%	9.1%	0.0%	0.0%	0.0%	

		빈부격차(%)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5.1%	23.4%	7.5%	5.6%	7.9%	0.5%	0.0%
	농민	54	70.4%	20.7%	1.9%	3.7%	3.7%	0.0%	0.0%
	사무원	91	56.0%	28.6%	5.5%	4.4%	5.5%	0.0%	0.0%
	피부양자	5	60.0%	20.0%	0.0%	20.0%	0.0%	0.0%	0.0%
	학생	43	48.8%	27.9%	11.6%	2.3%	7.0%	2.3%	0.0%
	군인	31	58.1%	25.8%	6.5%	3.2%	6.5%	0.0%	0.0%
	가정부인	125	54.4%	35.2%	4.8%	3.2%	2.4%	0.0%	0.0%
	무직 및 기타	81	64.2%	18.5%	11.1%	2.5%	3.7%	0.0%	0.0%
	무응답	4	25.0%	50.0%	25.0%	0.0%	0.0%	0.0%	0.0%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0.0%	0.0%	0.0%
공식소득	0원	622	59.5%	23.5%	8.0%	3.5%	4.7%	0.8%	0.0%
	천원 이하	74	52.7%	28.4%	5.4%	6.8%	4.1%	2.7%	0.0%
	5천원 이하	374	52.4%	26.7%	6.4%	5.1%	8.0%	1.3%	0.0%
	만원 이하	20	65.0%	10.0%	0.0%	10.0%	15.0%	0.0%	0.0%
	10만원 이하	45	55.6%	33.3%	4.4%	2.2%	4.4%	0.0%	0.0%
	50만원 이하	34	50.0%	35.3%	5.9%	5.9%	2.9%	0.0%	0.0%
	100만원 이하	10	50.0%	30.0%	0.0%	10.0%	10.0%	0.0%	0.0%
	100만원 초과	4	25.0%	50.0%	25.0%	0.0%	0.0%	0.0%	0.0%
	무응답	56	46.4%	30.4%	10.7%	5.4%	3.6%	3.6%	0.0%
	응답오류	5	46.4%	30.4%	10.7%	5.4%	3.6%	3.6%	0.0%
비공식소득	0원	253	54.2%	27.7%	5.5%	3.2%	7.5%	2.0%	0.0%
	천원 이하	20	70.0%	20.0%	5.0%	0.0%	5.0%	0.0%	0.0%
	5천원 이하	19	52.6%	26.3%	10.5%	5.3%	0.0%	5.3%	0.0%
	만원 이하	12	66.7%	16.7%	8.3%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59.7%	26.6%	5.0%	6.5%	1.4%	0.7%	0.0%
	50만원 이하	373	54.2%	25.7%	8.8%	5.1%	5.9%	0.5%	0.0%
	100만원 이하	170	54.7%	28.8%	5.9%	5.3%	4.1%	1.2%	0.0%
	100만원 초과	193	56.5%	20.7%	10.4%	2.6%	8.8%	1.0%	0.0%
	무응답	53	54.7%	24.5%	5.7%	5.7%	5.7%	3.8%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56.6%	24.4%	7.5%	4.8%	5.4%	1.4%	0.0%
	없다	378	54.0%	28.8%	6.4%	3.4%	6.6%	0.8%	0.0%
	무응답	5	40.0%	0.0%	40.0%	2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54.8%	27.2%	6.5%	4.4%	5.6%	1.6%	0.0%
	없다	528	57.4%	23.7%	8.0%	4.4%	5.9%	0.8%	0.0%
	무응답	3	0.0%	0.0%	66.7%	33.3%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54.5%	24.8%	7.9%	3.8%	6.9%	2.1%	0.0%
	결혼	476	58.6%	26.5%	5.3%	4.0%	5.3%	0.4%	0.0%
	사별/별거/이혼	109	61.5%	22.9%	3.7%	6.4%	4.6%	0.9%	0.0%
	무응답	9	44.4%	11.1%	22.2%	22.2%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uni06c)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문제(%)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0	68.95% (855)	18.39% (228)	4.76% (59)	3.23% (40)	3.55% (44)	0.97% (12)	0.16% (2)
탈북연도	2010	104	61.5%	20.2%	1.0%	6.7%	3.9%	6.7%	0.0%
	2011	127	60.6%	18.1%	9.5%	3.9%	5.5%	2.4%	0.0%
	2012	132	71.2%	17.4%	2.3%	3.8%	3.8%	0.8%	0.8%
	2013	149	70.5%	19.5%	2.0%	4.0%	4.0%	0.0%	0.0%
	2014	146	73.3%	14.4%	5.5%	2.7%	4.1%	0.0%	0.0%
	2015	135	74.1%	17.8%	4.4%	0.7%	3.0%	0.0%	0.0%
	2016	135	74.8%	16.3%	3.7%	3.0%	2.2%	0.0%	0.0%
	2017	85	67.1%	17.7%	4.7%	4.7%	4.7%	1.2%	0.0%
	2018	116	66.4%	21.6%	7.7%	2.6%	1.7%	0.0%	0.0%
	2019	110	65.5%	22.7%	7.3%	0.9%	2.7%	0.0%	0.9%
2020	1	100.0%	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66.9%	18.4%	4.4%	4.2%	4.6%	1.0%	0.4%
	여자	744	70.3%	18.4%	5.0%	2.6%	2.8%	0.9%	0.0%
연령대	20대	411	66.9%	20.2%	5.4%	2.9%	3.9%	0.7%	0.0%
	30대	286	69.6%	17.8%	4.2%	4.2%	3.5%	0.4%	0.4%
	40대	271	73.1%	15.9%	4.1%	1.9%	3.3%	1.9%	0.0%
	50대	185	68.1%	17.8%	5.4%	4.3%	2.2%	1.6%	0.5%
	60대	67	70.2%	14.9%	4.5%	4.5%	6.0%	0.0%	0.0%
	무응답	11	45.5%	45.5%	9.1%	0.0%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82.4%	17.7%	0.0%	0.0%	0.0%	0.0%	0.0%
	남포	7	85.7%	14.3%	0.0%	0.0%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70.0%	20.0%	0.0%	0.0%	5.0%	5.0%	0.0%
	평안북도	19	47.4%	31.6%	15.8%	0.0%	5.3%	0.0%	0.0%
	함경남도	66	57.6%	22.7%	4.6%	7.6%	4.6%	3.0%	0.0%
	함경북도	431	67.1%	18.8%	5.3%	3.0%	4.2%	1.4%	0.2%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0.0%
	양강도	632	71.5%	17.4%	4.3%	3.2%	3.0%	0.5%	0.2%
	황해남도	10	70.0%	10.0%	0.0%	10.0%	10.0%	0.0%	0.0%
	황해북도	16	56.3%	25.0%	12.5%	6.3%	0.0%	0.0%	0.0%
	강원도	13	10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64.3%	19.2%	6.0%	5.0%	3.9%	1.1%
후보당원		6	50.0%	33.3%	0.0%	16.7%	0.0%	0.0%	0.0%
비당원		1039	1.0%	0.1%	69.9%	18.2%	4.4%	2.9%	3.6%
무응답		11	81.8%	9.1%	9.1%	0.0%	0.0%	0.0%	0.0%

		실업문제(%)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72.0%	17.3%	3.7%	2.3%	4.7%	0.0%	
	농민	54	63.0%	18.5%	9.3%	7.4%	1.9%	0.0%	
	사무원	91	68.1%	17.6%	4.4%	4.4%	5.5%	0.0%	
	피부양자	5	60.0%	0.0%	20.0%	20.0%	0.0%	0.0%	
	학생	43	69.8%	20.9%	2.3%	2.3%	2.3%	2.3%	
	군인	31	71.0%	19.4%	6.5%	0.0%	3.2%	0.0%	
	가정부인	125	76.8%	18.4%	2.4%	0.0%	2.4%	0.0%	
	무직 및 기타	81	79.0%	11.1%	2.5%	4.9%	2.5%	0.0%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0.0%	
	응답오류	4	100.0%	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69.6%	19.6%	4.0%	3.4%	2.4%	0.6%	0.0%
	천원 이하	74	74.3%	12.2%	4.1%	4.1%	2.7%	2.7%	0.0%
	5천원 이하	374	69.0%	17.1%	4.3%	3.2%	4.8%	1.1%	0.5%
	만원 이하	20	60.0%	5.0%	15.0%	5.0%	10.0%	5.0%	0.0%
	10만원 이하	45	64.4%	24.4%	4.4%	2.2%	4.4%	0.0%	0.0%
	50만원 이하	34	64.7%	26.5%	5.9%	2.9%	0.0%	0.0%	0.0%
	100만원 이하	10	70.0%	10.0%	10.0%	0.0%	10.0%	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0.0%	0.0%
	무응답	55	58.2%	18.2%	12.7%	1.8%	7.3%	1.8%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67.2%	21.0%	4.7%	3.2%	2.8%	1.2%	0.0%
	천원 이하	20	85.0%	10.0%	0.0%	5.0%	0.0%	0.0%	0.0%
	5천원 이하	18	66.7%	16.7%	0.0%	11.1%	5.6%	0.0%	0.0%
	만원 이하	12	41.7%	41.7%	8.3%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61.9%	22.3%	5.0%	5.8%	4.3%	0.7%	0.0%
	50만원 이하	373	67.8%	18.0%	6.2%	3.2%	4.0%	0.5%	0.3%
	100만원 이하	170	75.9%	17.7%	2.9%	1.2%	1.8%	0.6%	0.0%
	100만원 초과	193	74.1%	13.5%	3.6%	2.6%	4.2%	1.6%	0.5%
	무응답	53	64.2%	15.1%	7.6%	1.9%	7.6%	3.8%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7	69.9%	16.9%	4.6%	3.4%	3.9%	1.2%	0.2%
	없다	378	66.9%	21.4%	5.3%	2.9%	2.9%	0.5%	0.0%
	무응답	5	60.0%	40.0%	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70.0%	17.2%	5.1%	3.2%	2.8%	1.6%	0.1%
	없다	527	67.7%	19.7%	4.4%	3.2%	4.6%	0.2%	0.2%
	무응답	3	33.3%	66.7%	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66.4%	20.0%	4.5%	2.6%	4.8%	1.4%	0.2%
	결혼	475	74.5%	14.3%	3.4%	4.0%	2.7%	1.1%	0.0%
	사별/별거/이혼	109	61.5%	21.1%	6.4%	5.5%	4.6%	0.9%	0.0%
	무응답	9	55.6%	33.3%	0.0%	0.0%	11.1%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uni06e)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갈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전체		1240	30.81% (382)	24.52% (304)	13.55% (168)	19.44% (241)	9.76% (121)	1.85% (23)	0.08% (1)	
탈북연도	2010	103	25.2%	23.3%	11.7%	18.5%	12.6%	8.7%	0.0%	
	2011	128	25.8%	21.9%	14.1%	18.0%	15.6%	4.7%	0.0%	
	2012	132	30.3%	24.2%	10.6%	25.8%	8.3%	0.8%	0.0%	
	2013	149	28.9%	20.1%	13.4%	25.5%	12.1%	0.0%	0.0%	
	2014	146	28.8%	25.3%	11.0%	24.0%	11.0%	0.0%	0.0%	
	2015	135	40.7%	21.5%	14.1%	15.6%	8.2%	0.0%	0.0%	
	2016	135	34.8%	20.7%	10.4%	26.7%	5.9%	1.5%	0.0%	
	2017	85	32.9%	29.4%	20.0%	10.6%	7.1%	0.0%	0.0%	
	2018	116	30.2%	31.9%	14.7%	8.6%	13.8%	0.9%	0.0%	
	2019	110	30.0%	30.0%	19.1%	14.6%	1.8%	3.6%	0.9%	
2020	1	0.0%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28.6%	21.8%	14.7%	19.6%	13.9%	1.2%	0.2%	
	여자	744	32.3%	26.3%	12.8%	19.4%	7.0%	2.3%	0.0%	
연령대	20대	411	25.6%	28.5%	15.1%	18.5%	10.7%	1.7%	0.0%	
	30대	285	30.5%	19.3%	15.1%	22.8%	10.9%	1.4%	0.0%	
	40대	271	34.2%	23.2%	11.0%	21.3%	8.1%	2.2%	0.0%	
	50대	185	35.1%	23.8%	11.4%	16.2%	10.3%	2.7%	0.5%	
	60대	67	43.3%	23.9%	9.0%	14.9%	7.5%	1.5%	0.0%	
	무응답	11	18.2%	45.5%	27.3%	9.1%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9%	23.5%	5.9%	47.1%	17.7%	0.0%	0.0%	
	남포	7	85.7%	0.0%	0.0%	14.3%	0.0%	0.0%	0.0%	
	개성	3	33.3%	33.3%	0.0%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20.0%	30.0%	5.0%	30.0%	10.0%	5.0%	0.0%	
	평안북도	19	36.8%	31.6%	15.8%	5.3%	10.5%	0.0%	0.0%	
	함경남도	66	21.2%	31.8%	7.6%	28.8%	7.6%	3.0%	0.0%	
	함경북도	431	27.8%	24.4%	14.9%	20.0%	10.9%	2.1%	0.0%	
	자강도	4	25.0%	50.0%	0.0%	25.0%	0.0%	0.0%	0.0%	
	양강도	632	4.5%	23.7%	13.3%	18.2%	8.4%	1.7%	0.2%	
	황해남도	10	10.0%	30.0%	10.0%	20.0%	30.0%	0.0%	0.0%	
	황해북도	16	25.0%	12.5%	37.5%	6.3%	18.8%	0.0%	0.0%	
	강원도	13	38.5%	30.8%	15.4%	0.0%	15.4%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31.9%	20.3%	13.7%	18.1%	14.3%	1.1%	0.6%
	후보당원	6	16.7%	0.0%	0.0%	33.3%	50.0%	0.0%	0.0%	
	비당원	1039	30.6%	25.3%	13.7%	19.6%	8.8%	2.0%	0.0%	
무응답	11	45.5%	27.3%	9.1%	9.1%	9.1%	0.0%	0.0%		

		지역갈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31.8%	19.2%	15.9%	22.0%	10.3%	0.9%	
	농민	54	31.5%	29.6%	13.0%	18.5%	7.4%	0.0%	
	사무원	91	29.7%	27.5%	8.8%	22.0%	12.1%	0.0%	
	피부양자	5	20.0%	40.0%	0.0%	40.0%	0.0%	0.0%	
	학생	43	20.9%	30.2%	18.6%	20.9%	9.3%	0.0%	
	군인	31	38.7%	12.9%	6.5%	29.0%	12.9%	0.0%	
	가정부인	125	36.0%	28.8%	12.8%	15.2%	7.2%	0.0%	
	무직 및 기타	81	40.7%	14.8%	14.8%	23.5%	6.2%	0.0%	
	무응답	4	0.0%	25.0%	0.0%	75.0%	0.0%	0.0%	
	응답오류	4	75.0%	0.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34.1%	25.7%	14.5%	16.7%	7.6%	1.5%	0.0%
	천원 이하	74	33.8%	21.6%	12.2%	21.6%	8.1%	2.7%	0.0%
	5천원 이하	373	26.5%	23.9%	11.5%	24.1%	11.8%	1.9%	0.3%
	만원 이하	20	30.0%	15.0%	10.0%	25.0%	15.0%	5.0%	0.0%
	10만원 이하	45	33.3%	20.0%	11.1%	17.8%	17.8%	0.0%	0.0%
	50만원 이하	34	32.4%	23.5%	14.7%	14.7%	14.7%	0.0%	0.0%
	100만원 이하	10	30.0%	0.0%	20.0%	5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25.0%	0.0%	25.0%	0.0%	0.0%
	무응답	56	19.6%	30.4%	19.6%	12.5%	12.5%	5.4%	0.0%
	응답오류	253	31.2%	25.3%	14.6%	17.4%	9.5%	2.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31.2%	25.3%	14.6%	17.4%	9.5%	2.0%	0.0%
	천원 이하	20	40.0%	20.0%	10.0%	20.0%	10.0%	0.0%	0.0%
	5천원 이하	19	26.3%	42.1%	0.0%	15.8%	10.5%	5.3%	0.0%
	만원 이하	12	25.0%	58.3%	0.0%	8.3%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30.2%	24.5%	13.7%	20.9%	8.6%	2.2%	0.0%
	50만원 이하	372	30.9%	24.2%	14.8%	19.1%	10.2%	0.8%	0.0%
	100만원 이하	170	34.1%	21.8%	13.5%	20.6%	8.8%	1.2%	0.0%
	100만원 초과	193	29.0%	22.8%	11.9%	23.3%	9.3%	3.1%	0.5%
	무응답	53	30.2%	22.6%	11.3%	15.1%	15.1%	5.7%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1.0%	22.7%	13.2%	20.9%	9.9%	2.2%	0.1%
	없다	377	30.8%	28.1%	14.3%	16.2%	9.6%	1.1%	0.0%
	무응답	5	0.0%	60.0%	20.0%	2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09	30.0%	23.7%	14.8%	18.6%	10.4%	2.3%	0.1%
	없다	528	32.0%	25.4%	11.9%	20.5%	8.9%	1.3%	0.0%
	무응답	3	0.0%	66.7%	0.0%	33.3%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19	29.1%	24.1%	13.6%	20.8%	10.0%	2.4%	
	결혼	476	32.4%	22.3%	12.8%	21.0%	10.3%	1.3%	
	사별/별거/이혼	109	32.1%	22.0%	11.9%	23.9%	8.3%	1.8%	
	무응답	9	11.1%	33.3%	0.0%	22.2%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uni06f)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념갈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전체		1241	41.34% (513)	19.82% (246)	8.86% (110)	17.24% (214)	11.12% (138)	1.61% (20)	0% (0)	
탈북연도	2010	104	37.5%	21.2%	9.6%	9.6%	14.4%	7.7%		
	2011	128	35.2%	16.4%	14.1%	18.0%	12.5%	3.9%		
	2012	132	43.9%	16.7%	10.6%	19.7%	8.3%	0.8%		
	2013	149	43.0%	14.8%	8.7%	20.1%	13.4%	0.0%		
	2014	146	41.1%	14.4%	10.3%	21.2%	13.0%	0.0%		
	2015	135	48.2%	26.7%	3.0%	14.1%	8.2%	0.0%		
	2016	135	46.7%	14.8%	9.6%	22.2%	5.9%	0.7%		
	2017	85	32.9%	32.9%	7.1%	16.5%	9.4%	1.2%		
	2018	116	40.5%	25.0%	4.3%	12.9%	16.4%	0.9%		
	2019	110	40.0%	21.8%	10.9%	14.6%	10.0%	2.7%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9.1%	16.7%	10.3%	19.8%	13.5%	0.6%		
	여자	745	42.8%	21.9%	7.9%	15.6%	9.5%	2.3%		
연령대	20대	411	36.3%	24.3%	11.0%	16.8%	10.5%	1.2%		
	30대	286	39.2%	15.4%	10.1%	22.4%	10.8%	2.1%		
	40대	272	47.1%	16.9%	5.9%	16.9%	11.8%	1.5%		
	50대	185	45.4%	21.1%	6.0%	11.4%	13.5%	2.7%		
	60대	67	52.2%	17.9%	4.5%	14.9%	10.5%	0.0%		
	무응답	11	27.3%	27.3%	45.5%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11.8%	17.7%	11.8%	47.1%	11.8%	0.0%		
	남포	7	85.7%	0.0%	0.0%	14.3%	0.0%	0.0%		
	개성	3	66.7%	0.0%	0.0%	33.3%	0.0%	0.0%		
	평안남도	20	30.0%	20.0%	5.0%	15.0%	25.0%	5.0%		
	평안북도	19	47.4%	26.3%	5.3%	5.3%	15.8%	0.0%		
	함경남도	66	31.8%	22.7%	7.6%	18.2%	15.2%	4.6%		
	함경북도	432	41.9%	17.6%	11.1%	17.1%	10.7%	1.6%		
	자강도	4	25.0%	25.0%	0.0%	50.0%	0.0%	0.0%		
	양강도	632	42.6%	21.2%	8.1%	16.3%	10.4%	1.4%		
	황해남도	10	30.0%	40.0%	0.0%	20.0%	10.0%	0.0%		
	황해북도	16	37.5%	12.5%	6.3%	25.0%	18.8%	0.0%		
	강원도	13	46.2%	7.7%	7.7%	23.1%	15.4%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0.1%	15.4%	6.6%	23.6%	13.7%	0.6%		
	후보당원	6	16.7%	0.0%	0.0%	33.3%	50.0%	0.0%		
	비당원	1040	41.8%	20.6%	9.1%	16.2%	10.5%	1.8%		
		무응답	11	36.4%	36.4%	9.1%	9.1%	9.1%	0.0%	

		이념갈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41.1%	18.7%	8.4%	19.2%	12.2%	0.5%	
	농민	54	44.4%	22.2%	5.6%	20.4%	7.4%	0.0%	
	사무원	91	49.5%	14.3%	7.7%	9.8%	8.8%	0.0%	
	피부양자	5	40.0%	20.0%	20.0%	20.0%	0.0%	0.0%	
	학생	43	30.2%	20.9%	11.6%	25.6%	9.3%	2.3%	
	군인	31	41.9%	0.7%	12.9%	22.6%	12.9%	0.0%	
	가정부인	125	45.6%	24.8%	5.6%	15.2%	8.8%	0.0%	
	무직 및 기타	81	45.7%	21.0%	6.2%	16.1%	11.1%	0.0%	
		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0.0%
		응답오류	4	75.0%	0.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43.9%	21.7%	8.5%	15.1%	9.5%	1.3%	
	천원 이하	74	29.7%	23.0%	14.9%	14.9%	16.2%	1.4%	
	5천원 이하	374	44.1%	12.8%	8.0%	20.9%	12.8%	1.3%	
	만원 이하	20	40.0%	15.0%	10.0%	25.0%	5.0%	5.0%	
	10만원 이하	45	33.3%	24.4%	2.2%	20.0%	20.0%	0.0%	
	50만원 이하	34	26.5%	26.5%	17.7%	17.7%	11.8%	0.0%	
	100만원 이하	10	40.0%	20.0%	10.0%	30.0%	0.0%	0.0%	
	100만원 초과	4	25.0%	25.0%	25.0%	0.0%	25.0%	0.0%	
		무응답	56	28.6%	33.9%	8.9%	14.3%	7.1%	7.1%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37.6%	21.3%	10.7%	16.6%	11.9%	2.0%	
	천원 이하	20	55.0%	25.0%	10.0%	10.0%	0.0%	0.0%	
	5천원 이하	19	47.4%	21.1%	5.3%	15.8%	5.3%	5.3%	
	만원 이하	12	33.3%	41.7%	8.3%	16.7%	0.0%	0.0%	
	10만원 이하	139	43.9%	16.6%	7.2%	17.3%	13.0%	2.2%	
	50만원 이하	373	40.8%	18.8%	10.5%	18.2%	10.7%	1.1%	
	100만원 이하	170	40.6%	21.8%	6.5%	18.8%	11.2%	1.2%	
	100만원 초과	193	47.7%	17.1%	6.2%	16.6%	10.9%	1.6%	
		무응답	53	34.0%	24.5%	9.4%	15.1%	13.2%	3.8%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42.7%	18.5%	9.4%	16.0%	11.5%	1.9%	
	없다	378	38.9%	22.2%	7.4%	20.1%	10.3%	1.1%	
	무응답	5	0.0%	60.0%	20.0%	2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41.4%	21.0%	8.7%	16.3%	10.7%	1.8%	
	없다	528	41.5%	18.0%	8.9%	18.6%	11.7%	1.3%	
	무응답	3	0.0%	66.7%	33.3%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39.3%	20.0%	11.0%	17.4%	10.0%	2.4%	
	결혼	476	43.3%	18.1%	8.0%	19.3%	10.5%	0.8%	
	사별/별거/이혼	109	44.0%	18.4%	7.3%	16.5%	11.9%	1.8%	
		무응답	9	33.3%	22.2%	11.1%	0.0%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uni07a)

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1.65% (641)	17.41% (216)	17.32% (215)	13.05% (162)	0.56% (7)	0% (0)
탈북 연도	2010	104	57.7%	10.6%	23.1%	8.7%	0.0%	
	2011	128	43.8%	20.3%	18.8%	14.8%	2.3%	
	2012	132	48.5%	15.9%	17.4%	18.2%	0.0%	
	2013	149	55.0%	12.1%	20.1%	12.8%	0.0%	
	2014	146	45.2%	24.0%	19.2%	11.6%	0.0%	
	2015	135	54.8%	15.6%	16.3%	13.3%	0.0%	
	2016	135	52.6%	17.0%	14.1%	16.3%	0.0%	
	2017	85	60.0%	17.7%	14.1%	8.2%	0.0%	
	2018	116	42.2%	21.6%	18.1%	15.5%	2.6%	
	2019	110	60.9%	19.1%	10.9%	8.2%	0.9%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40.1%	20.0%	22.0%	17.9%	0.0%	
	여자	745	59.3%	15.7%	14.2%	9.8%	0.9%	
연령대	20대	411	55.0%	19.0%	15.1%	11.0%	0.0%	
	30대	286	42.3%	21.7%	21.7%	14.0%	0.4%	
	40대	272	46.0%	16.9%	18.0%	18.4%	0.7%	
	50대	185	60.5%	11.4%	15.7%	10.3%	2.2%	
	60대	67	70.2%	11.9%	10.5%	7.5%	0.0%	
	무응답	11	54.6%	0.0%	27.3%	18.2%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23.5%	35.3%	41.2%	0.0%	0.0%	
	남포	7	57.1%	42.9%	0.0%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35.0%	15.0%	20.0%	30.0%	0.0%	
	평안북도	19	42.1%	15.8%	42.1%	0.0%	0.0%	
	함경남도	66	51.5%	21.2%	15.2%	10.6%	1.5%	
	함경북도	432	49.5%	17.4%	20.1%	12.3%	0.7%	
	자강도	4	0.0%	75.0%	25.0%	0.0%	0.0%	
	양강도	632	55.5%	16.6%	14.1%	13.3%	0.5%	
	황해남도	10	30.0%	0.0%	20.0%	50.0%	0.0%	
	황해북도	16	43.8%	12.5%	18.8%	25.0%	0.0%	
	강원도	13	46.2%	15.4%	23.1%	15.4%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182	45.6%	15.4%	20.9%	18.1%	0.0%	
	후보당원	6	16.7%	33.3%	33.3%	16.7%	0.0%	
	비당원	1040	52.8%	17.6%	16.8%	12.1%	0.7%	
	무응답	11	63.6%	18.2%	0.0%	18.2%	0.0%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1.9%	15.9%	14.0%	18.2%		
	농민	54	50.0%	22.2%	13.0%	14.8%		
	사무원	91	45.1%	24.2%	16.5%	14.3%		
	피부양자	5	80.0%	0.0%	0.0%	20.0%		
	학생	43	41.9%	18.6%	32.6%	7.0%		
	군인	31	48.4%	16.1%	29.0%	6.5%		
	가정부인	125	60.8%	14.4%	16.8%	8.0%		
	무직 및 기타	81	58.0%	16.1%	18.5%	7.4%		
	무응답	4	50.0%	25.0%	25.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75.0%	0.0%	0.0%	25.0%		
	0원	622	56.4%	16.6%	15.6%	10.6%	0.8%	
	천원 이하	74	52.7%	23.0%	12.2%	9.5%	2.7%	
	5천원 이하	374	43.1%	18.5%	20.3%	18.2%	0.0%	
	만원 이하	20	25.0%	25.0%	30.0%	20.0%	0.0%	
	10만원 이하	45	55.6%	11.1%	22.2%	11.1%	0.0%	
	50만원 이하	34	55.9%	17.7%	8.8%	17.7%	0.0%	
	100만원 이하	10	50.0%	20.0%	20.0%	1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56	55.4%	14.3%	21.4%	8.9%	0.0%	
	0원	253	53.4%	15.4%	18.2%	12.7%	0.4%	
	천원 이하	20	55.0%	5.0%	15.0%	25.0%	0.0%	
	5천원 이하	19	68.4%	5.3%	10.5%	15.8%	0.0%	
	만원 이하	12	50.0%	16.7%	25.0%	8.3%	0.0%	
	10만원 이하	139	56.1%	14.4%	18.7%	9.4%	1.4%	
	50만원 이하	373	49.9%	20.6%	16.6%	12.6%	0.3%	
	100만원 이하	170	48.2%	20.0%	16.5%	15.3%	0.0%	
	100만원 초과	193	47.2%	17.6%	18.7%	16.1%	0.5%	
장사 경험	무응답	53	58.5%	15.1%	15.1%	7.6%	3.8%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있다	858	52.6%	16.4%	17.0%	13.4%	0.6%	
	없다	378	49.5%	19.6%	18.0%	12.4%	0.5%	
남한 친척	무응답	5	60.0%	20.0%	20.0%	0.0%	0.0%	
	있다	710	54.1%	18.2%	14.7%	12.5%	0.6%	
	없다	528	48.3%	16.5%	20.8%	13.8%	0.6%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52.9%	16.9%	17.1%	12.9%	0.2%	
	결혼	476	51.3%	16.8%	17.2%	14.5%	0.2%	
	사별/별거/이혼	109	47.7%	17.4%	24.8%	9.2%	0.9%	
	무응답	9	44.4%	11.1%	22.2%	22.2%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uni07b)

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44.08% (547)	34.89% (433)	15.07% (187)	15.07% (187)	4.59% (57)	0% (0)
탈북연도	2010	104	49.0%	29.8%	12.5%	2.9%	5.8%	
	2011	128	43.0%	34.4%	13.3%	5.5%	3.9%	
	2012	132	45.5%	36.4%	13.6%	3.8%	0.8%	
	2013	149	37.6%	43.6%	16.1%	2.7%	0.0%	
	2014	146	50.7%	31.5%	11.0%	6.9%	0.0%	
	2015	135	45.9%	31.9%	16.3%	5.9%	0.0%	
	2016	135	47.4%	28.2%	16.3%	7.4%	0.7%	
	2017	85	32.9%	44.7%	18.8%	3.5%	0.0%	
	2018	116	33.6%	41.4%	19.8%	4.3%	0.9%	
	2019	110	51.8%	29.1%	14.6%	1.8%	2.7%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9.5%	37.5%	16.5%	5.2%	0.8%	
	여자	745	47.1%	32.9%	14.1%	4.2%	1.7%	
연령대	20대	411	43.3%	37.5%	13.9%	4.4%	1.0%	
	30대	286	38.5%	35.3%	20.6%	4.2%	1.4%	
	40대	272	43.8%	36.8%	11.0%	6.6%	1.8%	
	50대	185	51.9%	28.7%	13.5%	3.8%	2.2%	
	60대	67	56.7%	28.4%	13.4%	1.5%	0.0%	
	무응답	11	27.3%	36.4%	36.4%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23.5%	41.2%	17.7%	17.7%	0.0%	
	남포	7	57.1%	28.6%	14.3%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20	15.0%	55.0%	20.0%	5.0%	5.0%	
	평안북도	19	52.6%	36.8%	10.5%	0.0%	0.0%	
	함경남도	66	39.4%	36.4%	18.2%	3.0%	3.0%	
	함경북도	432	44.0%	35.4%	14.4%	4.9%	1.4%	
	자강도	4	25.0%	50.0%	25.0%	0.0%	0.0%	
	양강도	632	46.2%	33.5%	14.9%	4.3%	1.1%	
	황해남도	10	30.0%	40.0%	20.0%	10.0%	0.0%	
	황해북도	16	50.0%	18.8%	25.0%	0.0%	6.3%	
	강원도	13	38.5%	38.5%	15.4%	7.7%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1.8%	34.1%	18.1%	5.0%	1.1%	
	후보당원	6	33.3%	33.3%	16.7%	16.7%	0.0%	
	비당원	1040	44.7%	34.8%	14.5%	4.5%	1.4%	
		무응답	11	27.3%	54.6%	18.2%	0.0%	0.0%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45.3%	34.1%	15.0%	5.6%	0.0%	
	농민	54	27.8%	48.2%	16.7%	7.4%	0.0%	
	사무원	91	42.9%	34.1%	12.1%	9.9%	1.1%	
	피부양자	5	60.0%	40.0%	0.0%	0.0%	0.0%	
	학생	43	39.5%	41.9%	16.3%	2.3%	0.0%	
	군인	31	51.6%	25.8%	16.1%	6.5%	0.0%	
	가정부인	125	43.2%	36.0%	18.4%	2.4%	0.0%	
	무직 및 기타	81	48.2%	32.1%	14.8%	4.9%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75.0%	0.0%	25.0%	0.0%	0.0%
	0원	622	45.0%	33.0%	15.9%	5.0%	1.1%	
	천원 이하	74	51.4%	33.8%	12.2%	1.4%	1.4%	
	5천원 이하	374	42.5%	35.8%	14.4%	6.2%	1.1%	
	만원 이하	20	45.0%	25.0%	25.0%	0.0%	5.0%	
	10만원 이하	45	44.4%	37.8%	15.6%	2.2%	0.0%	
	50만원 이하	34	29.4%	55.9%	11.8%	2.9%	0.0%	
	100만원 이하	10	50.0%	30.0%	20.0%	0.0%	0.0%	
	100만원 초과	4	50.0%	50.0%	0.0%	0.0%	0.0%	
		무응답	56	42.9%	41.1%	10.7%	0.0%	5.4%
비공식 소득	0원	253	40.7%	39.5%	14.2%	5.1%	0.4%	
	천원 이하	20	45.0%	25.0%	10.0%	20.0%	0.0%	
	5천원 이하	19	63.2%	31.6%	0.0%	5.3%	0.0%	
	만원 이하	12	25.0%	50.0%	16.7%	8.3%	0.0%	
	10만원 이하	139	46.0%	31.7%	17.3%	3.6%	1.4%	
	50만원 이하	373	42.4%	36.2%	16.4%	3.8%	1.3%	
	100만원 이하	170	44.7%	36.5%	12.9%	5.3%	0.6%	
	100만원 초과	193	47.2%	30.6%	16.1%	5.2%	1.0%	
		무응답	53	49.1%	22.6%	17.0%	0.0%	11.3%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44.8%	34.4%	14.7%	4.7%	1.5%	
	없다	378	42.1%	36.5%	15.9%	4.5%	1.1%	
		무응답	5	80.0%	0.0%	2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42.0%	36.3%	15.5%	4.7%	1.6%	
	없다	528	46.8%	33.1%	14.4%	4.6%	1.1%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46.2%	34.1%	13.3%	4.5%	1.9%	
	결혼	476	43.7%	34.7%	16.6%	4.4%	0.6%	
	사별/별거/이혼	109	38.5%	40.4%	11.0%	8.3%	1.8%	
		무응답	9	55.6%	22.2%	11.1%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경제협력(uni07c)

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1.97% (645)	27.24% (338)	13.22% (164)	6.93% (86)	0.64% (8)	0% (0)
탈북연도	2010	104	51.9%	24.0%	13.5%	6.7%	3.9%	
	2011	128	49.2%	32.8%	14.8%	2.3%	0.8%	
	2012	132	55.3%	25.0%	12.9%	6.8%	0.0%	
	2013	149	53.7%	28.9%	12.8%	4.7%	0.0%	
	2014	146	49.3%	28.8%	13.0%	8.9%	0.0%	
	2015	135	48.2%	28.2%	11.1%	12.6%	0.0%	
	2016	135	54.8%	21.5%	14.1%	9.6%	0.0%	
	2017	85	48.2%	32.9%	15.3%	3.5%	0.0%	
	2018	116	47.4%	27.6%	14.7%	9.5%	0.9%	
	2019	110	61.8%	22.7%	10.9%	2.7%	1.8%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41.5%	27.8%	18.2%	12.1%	0.4%	
	여자	745	58.9%	26.9%	9.9%	3.5%	0.8%	
연령대	20대	411	56.0%	28.2%	9.7%	5.4%	0.7%	
	30대	286	46.2%	30.4%	14.7%	8.4%	0.4%	
	40대	272	50.0%	25.4%	15.4%	8.8%	0.4%	
	50대	185	53.5%	24.3%	13.5%	7.0%	1.6%	
	60대	67	59.7%	22.4%	14.9%	3.0%	0.0%	
	무응답	11	36.4%	45.5%	9.1%	9.1%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29.4%	41.2%	23.5%	5.9%	0.0%	
	남포	7	85.7%	14.3%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45.0%	20.0%	20.0%	10.0%	5.0%	
	평안북도	19	47.4%	31.6%	10.5%	10.5%	0.0%	
	함경남도	66	51.5%	34.9%	12.1%	1.5%	0.0%	
	함경북도	432	51.2%	26.6%	14.4%	7.2%	0.7%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양강도	632	53.3%	27.2%	11.6%	7.3%	0.6%	
	황해남도	10	30.0%	30.0%	30.0%	10.0%	0.0%	
	황해북도	16	62.5%	6.3%	25.0%	6.3%	0.0%	
	강원도	13	53.9%	7.7%	30.8%	7.7%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3.4%	26.9%	19.2%	10.4%	0.0%	
	후보당원	6	50.0%	16.7%	0.0%	33.3%	0.0%	
	비당원	1040	53.5%	27.3%	12.4%	6.1%	0.8%	
	무응답	11	45.5%	36.4%	0.0%	18.2%	0.0%	

		금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2.8%	24.3%	12.6%	10.3%		
	농민	54	44.4%	27.8%	16.7%	11.1%		
	사무원	91	41.8%	27.5%	17.6%	13.2%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학생	43	39.5%	34.9%	20.9%	4.7%		
	군인	31	54.8%	29.0%	9.7%	6.5%		
	가정부인	125	54.4%	32.8%	10.4%	2.4%		
	무직 및 기타	81	56.8%	27.2%	8.6%	7.4%		
	무응답	4	50.0%	25.0%	25.0%	0.0%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56.0%	27.2%	10.8%	5.8%	0.3%	
	천원 이하	74	50.0%	32.4%	12.2%	4.1%	1.4%	
	5천원 이하	374	46.5%	24.9%	17.4%	10.7%	0.5%	
	만원 이하	20	40.0%	30.0%	20.0%	10.0%	0.0%	
	10만원 이하	45	57.8%	31.1%	6.7%	4.4%	0.0%	
	50만원 이하	34	58.8%	23.5%	14.7%	2.9%	0.0%	
	100만원 이하	10	50.0%	40.0%	0.0%	10.0%	0.0%	
	100만원 초과	4	25.0%	75.0%	0.0%	0.0%	0.0%	
	무응답	56	44.6%	30.4%	19.6%	1.8%	3.6%	
	응답오류	56	44.6%	30.4%	19.6%	1.8%	3.6%	
비공식 소득	0원	253	52.2%	27.7%	11.9%	8.3%	0.0%	
	천원 이하	20	55.0%	15.0%	10.0%	20.0%	0.0%	
	5천원 이하	19	68.4%	10.5%	15.8%	5.3%	0.0%	
	만원 이하	12	33.3%	41.7%	16.7%	8.3%	0.0%	
	10만원 이하	139	52.5%	27.3%	15.1%	4.3%	0.7%	
	50만원 이하	373	54.2%	38.7%	11.0%	5.6%	0.5%	
	100만원 이하	170	48.8%	24.7%	19.4%	6.5%	0.6%	
	100만원 초과	193	47.7%	28.5%	13.0%	10.9%	0.0%	
	무응답	53	50.9%	28.3%	13.2%	0.0%	7.6%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52.1%	27.2%	13.6%	6.6%	0.5%	
	없다	378	51.3%	27.5%	12.4%	7.7%	1.1%	
	무응답	5	80.0%	2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50.7%	28.9%	13.0%	6.6%	0.9%	
	없다	528	53.6%	25.0%	13.6%	7.4%	0.4%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53.8%	27.1%	11.4%	6.7%	1.0%	
	결혼	476	50.2%	27.3%	14.5%	7.8%	0.2%	
	사별/별거/이혼	109	46.8%	32.1%	16.5%	4.6%	0.0%	
	무응답	9	55.6%	22.2%	0.0%	22.2%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남북회담(uni07d)

문)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2.70% (654)	26.67% (331)	12.89% (160)	6.53% (81)	1.13% (14)	0.08% (1)
탈북연도	2010	104	49.0%	25.0%	17.3%	3.9%	4.8%	0.0%
	2011	128	52.3%	25.8%	15.6%	3.9%	2.3%	0.0%
	2012	132	57.6%	30.3%	6.8%	5.3%	0.0%	0.0%
	2013	149	61.1%	25.5%	11.4%	2.0%	0.0%	0.0%
	2014	146	51.4%	28.1%	10.3%	10.3%	0.0%	0.0%
	2015	135	58.5%	23.7%	10.4%	7.4%	0.0%	0.0%
	2016	135	49.6%	21.5%	19.3%	9.6%	0.0%	0.0%
	2017	85	49.4%	38.8%	5.9%	5.9%	0.0%	0.0%
	2018	116	36.2%	28.5%	22.4%	10.3%	1.7%	0.9%
	2019	110	58.2%	22.7%	9.1%	6.4%	3.6%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42.7%	29.8%	16.7%	10.1%	0.6%	0.0%
	여자	745	59.3%	24.6%	10.3%	4.2%	1.5%	0.1%
연령대	20대	411	52.8%	30.2%	11.0%	5.1%	1.0%	0.0%
	30대	286	46.9%	28.7%	15.0%	8.7%	0.7%	0.0%
	40대	272	54.8%	25.0%	12.1%	6.6%	1.1%	0.4%
	50대	185	54.6%	22.2%	14.1%	6.5%	2.7%	0.0%
	무응답	11	36.4%	45.5%	18.2%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35.3%	17.7%	35.3%	11.8%	0.0%	0.0%
	남포	7	85.7%	0.0%	0.0%	14.3%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0.0%
	평안남도	20	40.0%	30.0%	20.0%	5.0%	5.0%	0.0%
	평안북도	19	36.8%	42.1%	10.5%	10.5%	0.0%	0.0%
	함경남도	66	50.0%	30.3%	10.6%	7.6%	1.5%	0.0%
	함경북도	432	50.9%	28.2%	13.0%	6.7%	1.2%	0.0%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양강도	632	55.9%	24.8%	12.3%	5.7%	1.1%	0.2%
	황해남도	10	40.0%	30.0%	0.0%	30.0%	0.0%	0.0%
	황해북도	16	50.0%	25.0%	25.0%	0.0%	0.0%	0.0%
	강원도	13	46.2%	23.1%	15.4%	15.4%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5.1%	28.0%	18.7%	8.2%	0.0%	0.0%
	후보당원	6	50.0%	16.7%	16.7%	16.7%	0.0%	0.0%
	비당원	1040	54.3%	26.4%	11.7%	6.1%	1.4%	0.1%
	무응답	11	36.4%	27.3%	18.2%	18.2%	0.0%	0.0%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1.9%	26.2%	11.2%	10.8%			
	농민	54	57.4%	29.6%	11.1%	1.9%			
	사무원	91	51.7%	25.3%	16.5%	6.6%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학생	43	44.2%	37.2%	14.0%	4.7%			
	군인	31	48.4%	29.0%	16.1%	6.5%			
	가정부인	125	62.4%	24.8%	9.6%	3.2%			
	무직 및 기타	81	53.1%	24.7%	12.4%	9.9%			
	무응답	4	75.0%	25.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0원	622	54.5%	26.1%	12.1%	6.0%	1.2%	0.2%	
	천원 이하	74	52.7%	25.7%	16.2%	4.1%	1.4%	0.0%	
	5천원 이하	374	48.4%	27.3%	14.7%	9.1%	0.5%	0.0%	
	만원 이하	20	40.0%	30.0%	25.0%	5.0%	0.0%	0.0%	
	10만원 이하	45	60.0%	28.9%	6.7%	4.4%	0.0%	0.0%	
	50만원 이하	34	61.8%	20.6%	8.8%	8.8%	0.0%	0.0%	
	100만원 이하	10	50.0%	40.0%	1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50.0%	5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56	57.1%	28.6%	10.7%	0.0%	3.6%	0.0%	
	0원	253	51.4%	28.9%	13.8%	5.5%	0.4%	0.0%	
	천원 이하	20	55.0%	25.0%	15.0%	5.0%	0.0%	0.0%	
	5천원 이하	19	73.7%	15.8%	5.3%	5.3%	0.0%	0.0%	
	만원 이하	12	41.7%	58.3%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58.3%	18.7%	11.5%	9.4%	2.2%	0.0%	
	50만원 이하	373	56.0%	25.5%	11.0%	6.4%	0.8%	0.3%	
	100만원 이하	170	45.3%	32.9%	13.5%	7.7%	0.6%	0.0%	
	100만원 초과	193	48.2%	25.9%	17.1%	7.8%	1.0%	0.0%	
정사 경험	무응답	53	56.6%	22.6%	13.2%	0.0%	7.6%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있다	858	54.1%	24.8%	12.8%	7.1%	1.1%	0.1%	
	없다	378	49.2%	31.0%	13.2%	5.3%	1.3%	0.0%	
	무응답	5	80.0%	2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51.3%	26.5%	14.4%	6.5%	1.4%	0.0%
		없다	528	54.6%	26.9%	11.0%	6.6%	0.8%	0.2%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51.2%	29.5%	11.2%	6.7%	1.4%	
결혼		476	56.3%	25.2%	12.6%	5.7%	0.2%		
사별/별거/이혼		109	55.1%	23.9%	13.8%	6.4%	0.9%		
무응답		9	44.4%	22.2%	3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통일방식(uni08)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방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전체	877	5.47% (48)	19.27% (169)	8.67% (76)	38.43% (337)	27.94% (245)	0.11% (1)	0.11% (1)		
탈북연도	2013	149	2.0%	21.5%	4.7%	39.6%	31.5%	0.0%	0.7%	
	2014	146	3.4%	17.1%	6.9%	48.6%	24.0%	0.0%	0.0%	
	2015	135	5.2%	14.8%	8.2%	43.0%	28.9%	0.7%	0.0%	
	2016	135	11.9%	14.8%	8.9%	37.8%	25.9%	0.0%	0.0%	
	2017	85	8.2%	30.6%	5.9%	31.8%	23.5%	0.0%	0.0%	
	2018	116	5.2%	17.2%	19.0%	32.8%	25.9%	0.0%	0.0%	
	2019	110	3.6%	23.6%	8.2%	30.0%	34.6%	0.0%	0.0%	
	2020	1	0.0%	0.0%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346	7.8%	21.1%	9.5%	41.3%	19.9%	0.0%	0.3%	
	여자	531	4.0%	18.1%	8.1%	36.5%	33.2%	0.2%	0.0%	
연령대	20대	294	6.8%	18.0%	9.5%	39.8%	25.2%	0.3%	0.3%	
	30대	205	4.4%	17.1%	8.3%	41.5%	28.8%	0.0%	0.0%	
	40대	187	5.4%	20.3%	5.4%	38.5%	30.5%	0.0%	0.0%	
	50대	137	5.1%	18.3%	10.2%	32.9%	33.6%	0.0%	0.0%	
	60대	37	5.4%	35.1%	13.5%	27.0%	18.9%	0.0%	0.0%	
	무응답	8	0.0%	37.5%	12.5%	37.5%	12.5%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6	6.3%	43.8%	6.3%	25.0%	18.8%	0.0%	0.0%
남포		6	0.0%	33.3%	0.0%	16.7%	50.0%	0.0%	0.0%	
개성		3	0.0%	66.7%	0.0%	0.0%	33.3%	0.0%	0.0%	
평안남도		13	7.7%	46.2%	0.0%	38.5%	7.7%	0.0%	0.0%	
평안북도		12	0.0%	16.7%	0.0%	50.0%	33.3%	0.0%	0.0%	
함경남도		38	2.6%	10.5%	15.8%	26.3%	42.1%	0.0%	2.6%	
함경북도		261	4.2%	14.9%	8.8%	40.2%	31.4%	0.4%	0.0%	
자강도		4	0.0%	0.0%	0.0%	25.0%	75.0%	0.0%	0.0%	
양강도		495	6.5%	21.0%	8.7%	38.0%	25.9%	0.0%	0.0%	
황해남도		7	0.0%	0.0%	14.3%	85.7%	0.0%	0.0%	0.0%	
황해북도		11	9.1%	0.1%	0.0%	54.6%	27.3%	0.0%	0.0%	
강원도		10	10.0%	10.0%	20.0%	50.0%	1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35	8.9%	18.5%	13.3%	31.9%	27.4%	0.0%	0.0%
		후보당원	5	0.0%	0.0%	0.0%	40.0%	60.0%	0.0%	0.0%
		비당원	730	4.9%	19.3%	7.7%	39.9%	28.0%	0.1%	0.1%
	무응답	7	0.0%	42.9%	28.6%	14.3%	14.3%	0.0%	0.0%	

	사례수	통일방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직업	노동자	214	5.6%	18.7%	5.1%	43.5%	26.2%	0.5%	0.5%	
	농민	54	7.4%	22.2%	7.4%	37.0%	25.9%	0.0%	0.0%	
	사무원	91	5.5%	23.1%	8.8%	34.1%	28.6%	0.0%	0.0%	
	피부양자	5	0.0%	20.0%	20.0%	0.0%	60.0%	0.0%	0.0%	
	학생	43	4.7%	20.9%	9.3%	51.2%	14.0%	0.0%	0.0%	
	군인	31	12.9%	19.4%	6.5%	41.9%	19.4%	0.0%	0.0%	
	가정부인	125	3.2%	14.4%	9.6%	36.8%	36.0%	0.0%	0.0%	
	무직 및 기타	81	7.4%	17.3%	2.5%	46.9%	25.9%	0.0%	0.0%	
	무응답	4	25.0%	25.0%	0.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0.0%	25.0%	25.0%	5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495	6.3%	19.2%	8.1%	36.8%	29.5%	0.0%	0.2%	
	천원 이하	55	1.8%	27.3%	9.1%	43.6%	18.2%	0.0%	0.0%	
	5천원 이하	242	5.8%	16.9%	9.1%	43.4%	24.8%	0.0%	0.0%	
	만원 이하	9	0.0%	22.2%	11.1%	33.3%	33.3%	0.0%	0.0%	
	10만원 이하	30	3.3%	20.0%	3.3%	33.3%	40.0%	0.0%	0.0%	
	50만원 이하	23	4.4%	17.4%	26.1%	17.4%	34.8%	0.0%	0.0%	
	100만원 이하	7	0.0%	14.3%	14.3%	42.9%	14.3%	14.3%	0.0%	
	100만원 초과	4	0.0%	0.0%	0.0%	75.0%	25.0%	0.0%	0.0%	
	무응답	10	0.0%	40.0%	0.0%	20.0%	40.0%	0.0%	0.0%	
	응답오류	10	0.0%	40.0%	0.0%	20.0%	4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182	4.4%	23.6%	12.6%	34.6%	24.2%	0.6%	0.0%	
	천원 이하	11	0.0%	36.4%	0.0%	36.4%	27.3%	0.0%	0.0%	
	5천원 이하	10	20.0%	0.0%	10.0%	30.0%	40.0%	0.0%	0.0%	
	만원 이하	5	0.0%	20.0%	0.0%	40.0%	40.0%	0.0%	0.0%	
	10만원 이하	87	9.2%	19.5%	8.1%	36.8%	26.4%	0.0%	0.0%	
	50만원 이하	259	5.0%	20.9%	8.9%	35.5%	29.7%	0.0%	0.0%	
	100만원 이하	144	5.6%	6.7%	6.9%	45.8%	25.0%	0.0%	0.0%	
	100만원 초과	161	5.6%	13.7%	6.8%	44.7%	29.2%	0.0%	0.0%	
	무응답	10	0.0%	30.0%	0.0%	10.0%	50.0%	0.0%	1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600	5.0%	19.3%	6.8%	39.7%	29.0%	0.0%	0.2%	
	없다	277	6.5%	19.1%	12.6%	35.7%	25.6%	0.4%	0.0%	
남한 친척	있다	535	4.1%	17.0%	10.5%	40.2%	28.0%	0.0%	0.2%	
	없다	342	7.6%	22.8%	5.9%	35.7%	27.8%	0.3%	0.0%	
혼인 여부	미혼	258	7.0%	19.0%	6.2%	43.4%	23.6%	0.4%	0.4%	
	결혼	305	5.9%	17.4%	6.6%	40.0%	30.2%	0.0%	0.0%	
	사별/별거/이혼	85	2.4%	22.4%	10.6%	37.7%	27.1%	0.0%	0.0%	
	무응답	3	0.0%	66.7%	0.0%	0.0%	3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통일 후 거주지역(uni10)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 할 생각이십니까?

	사례수	통일 후 거주지역(%)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0	26.69% (331)	45.97% (570)	25.00% (310)	2.10% (26)	0.08% (1)	0.16% (2)	
탈북연도	2010	103	29.1%	44.7%	25.2%	1.0%	0.0%	0.0%
	2011	128	32.0%	46.1%	20.3%	1.6%	0.0%	0.0%
	2012	132	27.3%	47.0%	23.5%	2.3%	0.0%	0.0%
	2013	149	30.2%	39.6%	28.2%	0.7%	0.7%	0.7%
	2014	146	26.7%	48.6%	21.9%	2.7%	0.0%	0.0%
	2015	135	35.6%	40.0%	20.7%	3.7%	0.0%	0.0%
	2016	135	31.1%	45.9%	22.2%	0.7%	0.0%	0.0%
	2017	85	18.8%	49.4%	30.6%	1.2%	0.0%	0.0%
	2018	116	19.8%	50.9%	26.7%	2.6%	0.0%	0.0%
	2019	110	10.0%	50.9%	33.6%	4.6%	0.0%	0.9%
2020	1	0.0%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4.9%	39.9%	23.2%	1.8%	0.2%	0.0%
	여자	744	21.2%	50.0%	26.2%	2.3%	0.0%	0.3%
연령대	20대	410	24.6%	44.6%	27.1%	3.2%	0.2%	0.2%
	30대	286	29.7%	44.1%	23.8%	2.5%	0.0%	0.0%
	40대	272	29.8%	47.8%	21.3%	1.1%	0.0%	0.0%
	50대	185	22.2%	47.0%	29.2%	1.6%	0.0%	0.0%
	60대	67	29.9%	49.3%	19.4%	0.0%	0.0%	1.5%
	무응답	11	9.1%	54.6%	36.4%	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23.5%	47.1%	29.4%	0.0%	0.0%	0.0%
	남포	7	14.3%	14.3%	57.1%	14.3%	0.0%	0.0%
	개성	3	33.3%	0.0%	66.7%	0.0%	0.0%	0.0%
	평안남도	20	25.0%	50.0%	20.0%	5.0%	0.0%	0.0%
	평안북도	19	42.1%	42.1%	15.8%	0.0%	0.0%	0.0%
	함경남도	66	33.3%	47.0%	16.7%	3.0%	0.0%	0.0%
	함경북도	432	28.0%	43.3%	26.9%	1.6%	0.0%	0.2%
	자강도	4	0.0%	75.0%	25.0%	0.0%	0.0%	0.0%
	양강도	631	24.9%	47.7%	24.7%	2.4%	0.3%	0.0%
	황해남도	10	40.0%	50.0%	10.0%	0.0%	0.0%	0.0%
	황해북도	16	37.5%	43.8%	18.8%	0.0%	0.0%	0.0%
	강원도	13	7.7%	61.5%	30.8%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34.1%	40.1%	23.6%	1.7%	0.0%	0.6%
	후보당원	6	50.0%	16.7%	33.3%	0.0%	0.0%	0.0%
	비당원	1039	25.3%	47.2%	25.2%	2.1%	0.1%	0.1%
	무응답	11	27.3%	36.4%	27.3%	9.1%	0.0%	0.0%

	사례수	통일 후 거주지역(%)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9.9%	42.1%	26.6%	1.4%	0.0%	0.0%
	농민	54	35.2%	53.7%	11.1%	0.0%	0.0%	0.0%
	사무원	91	30.8%	41.8%	27.5%	0.0%	0.0%	0.0%
	피부양자	5	40.0%	40.0%	20.0%	0.0%	0.0%	0.0%
	학생	43	20.9%	41.9%	37.2%	0.0%	0.0%	0.0%
	군인	31	41.9%	35.5%	16.1%	3.2%	3.2%	0.0%
	가정부인	125	26.4%	52.8%	18.4%	1.6%	0.8%	0.0%
	무직 및 기타	81	27.2%	38.3%	27.2%	7.4%	0.0%	0.0%
공식소득	무응답	4	25.0%	25.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0.0%	75.0%	25.0%	0.0%	0.0%	0.0%
	0원	622	24.4%	47.1%	25.6%	2.6%	0.2%	0.2%
	천원 이하	74	24.3%	52.7%	23.0%	0.0%	0.0%	0.2%
	5천원 이하	374	32.1%	40.4%	25.4%	1.9%	0.0%	0.3%
	만원 이하	20	40.0%	45.0%	15.0%	0.0%	0.0%	0.2%
	10만원 이하	44	18.2%	54.6%	25.0%	2.3%	0.0%	0.2%
	50만원 이하	34	14.7%	52.9%	29.4%	2.9%	0.0%	0.2%
	100만원 이하	10	50.0%	40.0%	10.0%	0.0%	0.0%	0.2%
	100만원 초과	4	50.0%	25.0%	25.0%	0.0%	0.0%	0.2%
	무응답	56	21.4%	53.6%	23.2%	1.8%	0.0%	0.0%
	비공식소득	0원	253	20.6%	51.0%	24.5%	3.6%	0.4%
천원 이하		20	40.0%	40.0%	2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36.8%	52.6%	10.5%	0.0%	0.0%	0.0%
만원 이하		12	16.7%	41.7%	25.0%	8.3%	0.0%	8.3%
10만원 이하		139	28.1%	41.7%	28.1%	1.4%	0.0%	0.7%
50만원 이하		373	26.8%	44.5%	27.6%	1.1%	0.0%	0.0%
100만원 이하		170	27.7%	50.0%	20.6%	1.8%	0.0%	0.0%
100만원 초과		193	30.6%	40.4%	25.9%	3.1%	0.0%	0.0%
무응답		52	23.1%	55.8%	19.2%	1.9%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57	29.2%	44.7%	24.3%	1.9%	0.0%	0.0%
	없다	378	21.2%	48.4%	27.0%	2.7%	0.3%	0.5%
	무응답	5	20.0%	8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709	23.1%	50.2%	24.8%	1.4%	0.1%	0.3%
	없다	528	31.4%	40.2%	25.4%	3.0%	0.0%	0.0%
	무응답	3	33.3%	66.7%	0.0%	0.0%	0.0%	0.0%
혼인여부	미혼	419	26.7%	42.7%	27.9%	2.6%	0.0%	0.0%
	결혼	476	32.1%	46.4%	20.0%	1.1%	0.2%	0.2%
	사별/별거/이혼	109	28.4%	45.9%	23.9%	1.8%	0.0%	0.0%
	무응답	9	22.2%	44.4%	33.3%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통일에 대한 내용(uni12)

문)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통일에 대한 내용(%)									
		사례수	제국주의 교양	남한에 대한 이해	남조선 해방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12	29.17% (91)	7.37% (23)	12.5% (39)	24.04% (75)	9.29% (29)	14.74% (46)	0.32% (1)	2.56% (8)	
탈북 연도	2017	85	27.1%	10.6%	10.6%	27.1%	7.1%	17.7%	0.0%	0.0%	
	2018	116	32.8%	5.2%	12.9%	25.0%	8.6%	10.3%	0.9%	4.3%	
	2019	110	27.3%	7.3%	13.6%	20.0%	11.8%	17.3%	0.0%	2.7%	
	2020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16	30.2%	6.0%	19.8%	21.6%	6.0%	15.5%	0.0%	0.9%	
	여자	196	28.6%	8.2%	8.2%	25.5%	11.2%	14.3%	0.5%	3.6%	
연령대	20대	106	24.5%	7.6%	10.4%	27.4%	9.4%	20.8%	0.0%	0.0%	
	30대	61	29.5%	0.0%	19.7%	23.0%	13.1%	13.1%	0.0%	1.6%	
	40대	50	28.0%	10.0%	14.0%	32.0%	4.0%	6.0%	0.0%	6.0%	
	50대	69	34.8%	11.6%	5.8%	14.5%	13.0%	14.5%	1.5%	4.4%	
	60대	13	30.8%	15.4%	23.1%	15.4%	0.0%	7.7%	0.0%	7.7%	
	무응답	4	50.0%	0.0%	0.0%	25.0%	0.0%	25.0%	0.0%	0.0%	
	무응답	3	0.0%	0.0%	33.3%	33.3%	0.0%	33.3%	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0									
	개성	2	0.0%	0.0%	50.0%	0.0%	50.0%	0.0%	0.0%	0.0%	
	평안남도	4	25.0%	0.0%	50.0%	25.0%	0.0%	0.0%	0.0%	0.0%	
	평안북도	7	28.6%	14.3%	14.3%	28.6%	0.0%	0.0%	0.0%	14.3%	
	함경남도	14	28.6%	7.1%	0.0%	28.6%	7.1%	28.6%	0.0%	0.0%	
	함경북도	53	32.1%	7.6%	11.3%	18.9%	11.3%	15.1%	0.0%	3.8%	
	자강도	3	0.0%	0.0%	33.3%	0.0%	33.3%	33.3%	0.0%	0.0%	
	양강도	216	29.6%	7.9%	11.6%	25.0%	9.3%	13.9%	0.5%	2.3%	
	황해남도	1	0.0%	0.0%	0.0%	100.0%	0.0%	0.0%	0.0%	0.0%	
	황해북도	5	20.0%	0.0%	20.0%	20.0%	0.0%	40.0%	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9	33.3%	7.7%	20.5%	23.1%	5.1%	10.3%	0.0%	0.0%
		후보당원	2	0.0%	0.0%	0.0%	0.0%	50.0%	50.0%	0.0%	0.0%
비당원		267	29.2%	7.5%	11.2%	24.0%	9.7%	15.4%	0.4%	2.6%	
무응답		4	0.0%	0.0%	25.0%	50.0%	0.0%	0.0%	0.0%	25.0%	

		통일에 대한 내용(%)								
		사례수	제국주의 교양	남한에 대한 이해	남조선 해방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8	32.1%	14.3%	7.1%	21.4%	3.6%	21.4%		
	농민	10	20.0%	10.0%	0.0%	30.0%	20.0%	20.0%		
	사무원	6	0.0%	16.7%	0.0%	50.0%	0.0%	33.3%		
	피부양자	0								
	학생	12	33.3%	0.0%	8.3%	33.3%	16.7%	8.3%		
	군인	3	33.3%	0.0%	33.3%	33.3%	0.0%	0.0%		
	가정부인	19	31.6%	10.5%	5.3%	31.6%	5.3%	15.8%		
무직 및 기타	9	22.2%	11.1%	44.4%	11.1%	0.0%	11.1%			
공식 소득	0원	182	28.6%	8.2%	12.6%	26.9%	8.8%	13.2%	0.6%	1.1%
	천원 이하	20	20.0%	10.0%	25.0%	10.0%	5.0%	20.0%	0.0%	10.0%
	5천원 이하	60	33.3%	8.3%	13.3%	13.3%	10.0%	16.7%	0.0%	5.0%
	만원 이하	2	50.0%	0.0%	0.0%	5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6	25.0%	0.0%	0.0%	31.3%	12.5%	31.3%	0.0%	0.0%
	50만원 이하	17	29.4%	5.9%	5.9%	29.4%	17.7%	11.8%	0.0%	0.0%
	100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1	0.0%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10	40.0%	0.0%	0.0%	30.0%	10.0%	10.0%	0.0%	10.0%
	무응답	10	40.0%	0.0%	0.0%	30.0%	10.0%	10.0%	0.0%	10.0%
비공식 소득	0원	75	30.7%	4.0%	16.0%	22.7%	8.0%	16.0%	1.3%	1.3%
	천원 이하	4	50.0%	0.0%	50.0%	0.0%	0.0%	0.0%	0.0%	0.0%
	5천원 이하	3	0.0%	33.3%	0.0%	33.3%	0.0%	33.3%	0.0%	0.0%
	만원 이하	2	0.0%	100.0%	0.0%	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30	26.7%	3.3%	6.7%	36.7%	10.0%	16.7%	0.0%	0.0%
	50만원 이하	91	20.9%	11.0%	9.9%	27.5%	13.2%	16.5%	0.0%	1.1%
	100만원 이하	40	37.5%	5.0%	22.5%	15.0%	2.5%	10.0%	0.0%	7.5%
	100만원 초과	56	39.3%	7.1%	8.9%	19.6%	8.9%	12.5%	0.0%	3.6%
	무응답	8	25.0%	0.0%	0.0%	25.0%	25.0%	25.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197	33.5%	7.6%	14.2%	21.3%	6.6%	13.2%	0.0%	3.6%
	없다	115	21.7%	7.0%	9.6%	28.7%	13.9%	17.4%	0.9%	0.9%
남한 친척	있다	195	30.3%	7.7%	12.3%	23.6%	7.7%	15.4%	0.5%	2.6%
	없다	117	27.4%	6.8%	12.8%	24.8%	12.0%	13.7%	0.0%	2.6%
혼인 여부	미혼	44	22.7%	9.1%	18.2%	22.7%	9.1%	18.2%		
	결혼	36	33.9%	13.9%	2.8%	27.8%	2.8%	13.9%		
	사별/별거/이혼	5	0.0%	0.0%	0.0%	60.0%	20.0%	20.0%		
	무응답	2	0.0%	0.0%	0.0%	50.0%	0.0%	50.0%		

대남인식(sk01)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대남인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전체		1241	8.38% (104)	57.29% (711)	2.98% (37)	10.15% (126)	19.82% (246)	1.05% (13)	1.37% (4)	
탈북 연도	2010	104	10.6%	47.1%	1.9%	19.2%	13.5%	7.7%	0.0%	
	2011	128	5.5%	64.1%	1.6%	12.5%	15.6%	0.8%	0.0%	
	2012	132	12.9%	63.6%	2.3%	8.3%	12.9%	0.0%	0.0%	
	2013	149	8.7%	55.7%	2.0%	10.1%	20.1%	1.3%	2.0%	
	2014	146	6.9%	62.3%	5.5%	8.2%	16.4%	0.7%	0.0%	
	2015	135	11.9%	53.3%	2.2%	9.6%	22.2%	0.7%	0.0%	
	2016	135	8.2%	53.3%	4.4%	10.4%	23.7%	0.0%	0.0%	
	2017	85	7.1%	57.7%	1.2%	4.7%	29.4%	0.0%	0.0%	
	2018	116	5.2%	50.9%	2.6%	11.2%	29.3%	0.0%	0.9%	
	2019	110	6.4%	62.7%	5.5%	7.3%	18.2%	0.0%	0.0%	
성별	남자	496	7.1%	55.2%	2.8%	11.1%	22.6%	0.8%	0.4%	
	여자	745	9.3%	58.7%	3.1%	9.5%	18.0%	1.2%	0.3%	
연령대	20대	411	6.6%	54.3%	4.1%	12.9%	21.2%	1.0%	0.0%	
	30대	286	6.6%	55.9%	3.5%	12.6%	21.0%	0.0%	0.4%	
	40대	272	9.6%	62.9%	1.8%	7.4%	16.9%	1.1%	0.4%	
	50대	185	10.8%	57.8%	1.1%	5.4%	22.2%	2.2%	0.5%	
	60대	67	17.9%	53.7%	3.0%	10.5%	10.5%	3.0%	1.5%	
	무응답	11	0.0%	72.7%	0.0%	0.0%	27.3%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0.0%	52.9%	5.9%	17.7%	17.7%	5.9%	0.0%	
	남포	7	14.3%	71.4%	0.0%	14.3%	0.0%	0.0%	0.0%	
	개성	3	0.0%	33.3%	0.0%	33.3%	33.3%	0.0%	0.0%	
	평안남도	20	10.0%	45.0%	0.0%	10.0%	30.0%	5.0%	0.0%	
	평안북도	19	0.0%	68.4%	0.0%	10.5%	21.1%	0.0%	0.0%	
	함경남도	66	9.1%	59.1%	3.0%	9.1%	18.2%	0.0%	1.5%	
	함경북도	432	7.6%	62.7%	3.0%	7.9%	17.6%	0.9%	0.2%	
	자강도	4	0.0%	50.0%	25.0%	25.0%	0.0%	0.0%	0.0%	
	양강도	632	9.5%	54.1%	2.9%	11.1%	21.2%	1.0%	0.3%	
	황해남도	10	10.0%	50.0%	10.0%	10.0%	10.0%	10.0%	0.0%	
	황해북도	16	6.3%	43.8%	0.0%	18.8%	31.3%	0.0%	0.0%	
	강원도	13	0.0%	53.9%	7.7%	15.4%	23.1%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당원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182	11.0%	52.2%	0.6%	8.2%	26.9%	0.0%	1.1%	
	후보당원	6	0.0%	66.7%	0.0%	0.0%	33.3%	0.0%	0.0%	
	비당원	1040	7.9%	58.2%	3.5%	10.5%	18.6%	1.3%	0.2%	
		무응답	11	9.1%	54.6%	0.0%	18.2%	18.2%	0.0%	0.0%

		대남인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직업	노동자	214	9.4%	53.3%	3.7%	10.8%	22.0%	0.5%	0.5%	
	농민	54	9.3%	50.0%	3.7%	13.0%	22.2%	1.9%	0.0%	
	사무원	91	14.3%	63.7%	3.3%	4.4%	13.2%	1.1%	0.0%	
	피부양자	5	0.0%	60.0%	0.0%	20.0%	20.0%	0.0%	0.0%	
	학생	43	4.7%	69.8%	2.3%	7.0%	14.0%	2.3%	0.0%	
	군인	31	3.2%	45.2%	0.0%	9.7%	41.9%	0.0%	0.0%	
	가정부인	125	6.4%	56.8%	3.2%	9.6%	23.2%	0.0%	0.8%	
	무직 및 기타	81	8.6%	58.0%	2.5%	6.2%	24.7%	0.0%	0.0%	
		무응답	4	0.0%	75.0%	25.0%	0.0%	0.0%	0.0%	0.0%
		응답오류	4	0.0%	50.0%	0.0%	0.0%	25.0%	0.0%	25.0%
공식 소득	0원	622	9.3%	56.1%	3.2%	11.4%	19.0%	0.5%	0.5%	
	천원 이하	74	6.8%	59.5%	4.1%	6.8%	23.0%	0.0%	0.0%	
	5천원 이하	374	7.5%	60.7%	2.7%	8.0%	19.8%	1.1%	0.3%	
	만원 이하	20	10.0%	55.0%	0.0%	20.0%	15.0%	0.0%	0.0%	
	10만원 이하	45	4.4%	46.7%	0.0%	13.3%	35.6%	0.0%	0.0%	
	50만원 이하	34	5.9%	67.7%	2.9%	2.9%	20.6%	0.0%	0.0%	
	100만원 이하	10	0.0%	40.0%	20.0%	0.0%	3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0.0%	25.0%	25.0%	0.0%	0.0%	
		무응답	56	10.7%	51.8%	1.8%	14.3%	12.5%	8.9%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7.1%	56.9%	4.0%	11.9%	19.4%	0.8%	0.0%	
	천원 이하	20	10.0%	45.0%	5.0%	15.0%	25.0%	0.0%	0.0%	
	5천원 이하	19	10.5%	63.2%	5.3%	0.0%	5.3%	15.8%	0.0%	
	만원 이하	12	8.3%	50.0%	8.3%	8.3%	25.0%	0.0%	0.0%	
	10만원 이하	139	8.6%	55.4%	2.9%	12.2%	19.4%	0.7%	0.7%	
	50만원 이하	373	8.3%	60.6%	1.1%	9.7%	19.6%	0.5%	0.3%	
	100만원 이하	170	8.2%	58.2%	2.9%	9.4%	20.6%	0.0%	0.6%	
	100만원 초과	193	9.8%	56.0%	5.2%	6.7%	21.2%	0.5%	0.5%	
		무응답	53	7.6%	47.2%	1.9%	18.9%	17.0%	7.6%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8.2%	57.8%	2.7%	9.4%	20.8%	0.8%	0.4%	
	없다	378	9.0%	56.6%	3.7%	11.9%	17.7%	0.8%	0.3%	
	무응답	5	0.0%	20.0%	0.0%	0.0%	20.0%	6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8.2%	56.5%	3.1%	10.6%	20.6%	0.7%	0.4%	
	없다	528	8.7%	58.7%	2.8%	9.7%	18.9%	1.0%	0.2%	
	무응답	3	0.0%	0.0%	0.0%	0.0%	0.0%	10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8.3%	56.9%	2.9%	9.8%	20.7%	1.4%	0.0%	
	결혼	476	9.9%	56.3%	3.2%	11.8%	17.4%	0.8%	0.6%	
	사별/별거/이혼	109	7.3%	67.0%	0.9%	6.4%	18.4%	0.0%	0.0%	
		무응답	9	0.0%	33.3%	0.0%	11.1%	22.2%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4.19 혁명(sk02_a)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4.19 혁명(%)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5.31% (190)	31.75% (394)	21.92% (272)	29.17% (362)	1.77% (22)	0.08% (1)
탈북연도	2010	104	14.4%	33.7%	22.1%	21.2%	8.7%	0.0%
	2011	128	24.2%	32.8%	15.6%	22.7%	4.7%	0.0%
	2012	132	19.7%	40.2%	17.4%	22.7%	0.0%	0.0%
	2013	149	12.8%	30.9%	21.5%	34.2%	0.0%	0.7%
	2014	146	20.6%	19.9%	26.7%	31.5%	1.4%	0.0%
	2015	135	14.1%	28.2%	29.6%	28.2%	0.0%	0.0%
	2016	135	10.4%	31.1%	20.0%	37.0%	1.5%	0.0%
	2017	85	9.4%	36.5%	14.1%	38.8%	1.2%	0.0%
	2018	116	15.5%	31.9%	22.4%	30.2%	0.0%	0.0%
	2019	110	9.1%	37.3%	27.3%	24.6%	1.8%	0.0%
2020	1	0.0%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20.6%	35.3%	20.2%	23.0%	0.8%	0.2%
	여자	745	11.8%	29.4%	23.1%	33.3%	2.4%	0.0%
연령대	20대	411	7.5%	28.5%	24.3%	38.0%	1.5%	0.2%
	30대	286	14.0%	27.6%	24.5%	32.2%	1.8%	0.0%
	40대	272	19.5%	34.2%	20.2%	23.9%	2.2%	0.0%
	50대	185	24.9%	36.8%	17.8%	18.4%	2.2%	0.0%
	60대	67	29.9%	40.3%	11.9%	16.4%	1.5%	0.0%
	무응답	11	0.0%	54.6%	27.3%	18.2%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23.5%	41.2%	11.8%	23.5%	0.0%	0.0%
	남포	7	0.0%	57.1%	28.6%	14.3%	0.0%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35.0%	30.0%	20.0%	15.0%	0.0%	0.0%
	평안북도	19	42.1%	31.6%	15.8%	10.5%	0.0%	0.0%
	함경남도	66	22.7%	39.4%	9.1%	22.7%	4.6%	1.5%
	함경북도	432	16.2%	31.3%	22.5%	27.8%	2.3%	0.0%
	자강도	4	0.0%	50.0%	25.0%	25.0%	0.0%	0.0%
	양강도	632	12.3%	31.3%	23.4%	31.7%	1.3%	0.0%
	황해남도	10	20.0%	20.0%	10.0%	40.0%	10.0%	0.0%
	황해북도	16	12.5%	31.3%	12.5%	43.8%	0.0%	0.0%
	강원도	13	23.1%	15.4%	30.8%	30.8%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26.9%	37.4%	16.5%	18.7%	0.6%	0.0%
	후보당원	6	0.0%	33.3%	16.7%	50.0%	0.0%	0.0%
	비당원	1040	13.5%	30.7%	23.0%	30.9%	1.9%	0.1%
	무응답	11	9.1%	36.4%	18.2%	36.4%	0.0%	0.0%

		4.19 혁명(%)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3.6%	29.4%	19.6%	35.5%	1.4%	0.5%
	농민	54	5.6%	25.9%	24.1%	44.4%	0.0%	0.0%
	사무원	91	28.6%	31.9%	17.6%	20.9%	1.1%	0.0%
	피부양자	5	40.0%	20.0%	20.0%	20.0%	0.0%	0.0%
	학생	43	14.0%	34.9%	25.6%	25.6%	0.0%	0.0%
	군인	31	9.7%	32.3%	16.1%	41.9%	0.0%	0.0%
	가정부인	125	8.8%	23.2%	32.0%	35.2%	0.0%	0.0%
	무직 및 기타	81	12.4%	25.9%	25.9%	35.8%	0.0%	0.0%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0.0%
공식소득	응답오류	4	0.0%	50.0%	25.0%	25.0%	0.0%	0.0%
	0원	622	11.6%	29.9%	25.2%	31.4%	1.8%	0.2%
	천원 이하	74	23.0%	29.7%	17.6%	28.4%	1.4%	0.0%
	5천원 이하	374	22.5%	36.4%	15.8%	24.1%	1.3%	0.0%
	만원 이하	20	25.0%	50.0%	10.0%	15.0%	0.0%	0.0%
	10만원 이하	45	4.4%	28.9%	22.2%	44.4%	0.0%	0.0%
	50만원 이하	34	14.7%	23.5%	26.5%	32.4%	2.9%	0.0%
	100만원 이하	10	10.0%	10.0%	30.0%	4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25.0%	75.0%	0.0%	0.0%
	무응답	56	7.1%	32.1%	28.6%	26.8%	5.4%	0.0%
비공식소득	0원	253	13.8%	31.2%	17.8%	36.0%	1.2%	0.0%
	천원 이하	20	10.0%	40.0%	25.0%	20.0%	5.0%	0.0%
	5천원 이하	19	15.8%	47.4%	10.5%	26.3%	0.0%	0.0%
	만원 이하	12	0.0%	33.3%	33.3%	33.3%	0.0%	0.0%
	10만원 이하	139	15.8%	29.5%	22.3%	30.9%	1.4%	0.0%
	50만원 이하	373	15.0%	31.4%	24.4%	27.4%	1.9%	0.0%
	100만원 이하	170	18.2%	32.4%	26.5%	22.9%	0.0%	0.0%
	100만원 초과	193	15.5%	32.6%	19.7%	30.1%	2.1%	0.0%
	무응답	53	18.9%	28.3%	1887.0%	22.6%	9.4%	1.9%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858	15.9%	31.8%	22.8%	27.5%	1.9%	0.1%
	없다	378	14.3%	32.0%	19.1%	33.3%	1.3%	0.0%
	무응답	5	0.0%	0.0%	80.0%	0.0%	20.0%	0.0%
남한친척	있다	710	14.7%	33.8%	23.0%	26.8%	1.7%	0.1%
	없다	528	16.3%	29.2%	20.3%	32.6%	1.7%	0.0%
	무응답	3	0.0%	0.0%	66.7%	0.0%	33.3%	0.0%
혼인여부	미혼	420	12.6%	30.7%	21.2%	33.1%	2.1%	0.2%
	결혼	476	18.9%	31.7%	19.3%	28.8%	1.3%	0.0%
	사별/별거/이혼	109	16.5%	30.3%	29.4%	20.2%	3.7%	0.0%
	무응답	9	11.1%	22.2%	33.3%	22.2%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5.18 광주항쟁(sk02_b)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5.18 광주항쟁(%)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29.57% (367)	35.05% (435)	20.06% (249)	13.94% (173)	1.29% (16)	0.08% (1)
탈북 연도	2010	104	23.1%	40.4%	20.2%	12.5%	3.9%	0.0%
	2011	128	34.4%	33.6%	19.5%	8.6%	3.9%	0.0%
	2012	132	32.6%	42.4%	14.4%	9.9%	0.8%	0.0%
	2013	149	29.5%	33.6%	18.8%	17.5%	0.7%	0.0%
	2014	146	35.6%	27.4%	21.2%	14.4%	0.7%	0.7%
	2015	135	32.6%	25.9%	26.7%	14.8%	0.0%	0.0%
	2016	135	21.5%	40.0%	19.3%	17.8%	1.5%	0.0%
	2017	85	24.7%	34.1%	24.7%	15.3%	1.2%	0.0%
	2018	116	32.8%	32.8%	20.7%	13.8%	0.0%	0.0%
	2019	110	24.6%	43.6%	16.4%	14.6%	0.9%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5.9%	38.1%	15.1%	9.9%	0.8%	0.2%
	여자	745	25.4%	33.0%	23.4%	16.6%	1.6%	0.0%
연령대	20대	411	16.3%	32.9%	27.3%	22.6%	1.0%	0.0%
	30대	286	26.9%	35.3%	21.3%	15.0%	1.4%	0.0%
	40대	272	43.0%	33.8%	15.4%	6.3%	1.5%	0.0%
	50대	185	41.1%	37.3%	13.5%	5.4%	2.2%	0.5%
	60대	67	40.3%	43.3%	9.0%	7.5%	0.0%	0.0%
	무응답	11	27.3%	36.4%	0.0%	36.4%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8.8%	29.4%	5.9%	0.0%	0.0%	5.9%
	남포	7	28.6%	71.4%	0.0%	0.0%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0.0%
	평안남도	20	35.0%	35.0%	15.0%	15.0%	0.0%	0.0%
	평안북도	19	63.2%	31.6%	0.0%	5.3%	0.0%	0.0%
	함경남도	66	43.9%	27.3%	15.2%	9.1%	4.6%	0.0%
	함경북도	432	31.0%	33.6%	21.1%	13.0%	1.4%	0.0%
	자강도	4	25.0%	50.0%	25.0%	0.0%	0.0%	0.0%
	양강도	632	24.7%	37.0%	21.5%	16.0%	0.8%	0.0%
	황해남도	10	30.0%	20.0%	10.0%	20.0%	20.0%	0.0%
	황해북도	16	43.8%	37.5%	6.3%	12.5%	0.0%	0.0%
	강원도	13	38.5%	23.1%	30.8%	7.7%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1.8%	37.9%	15.9%	3.9%	0.6%	0.0%
	후보당원	6	0.0%	66.7%	16.7%	16.7%	0.0%	0.0%
	비당원	1040	27.8%	34.5%	20.8%	15.5%	1.4%	0.1%
	무응답	11	18.2%	27.3%	18.2%	36.4%	0.0%	0.0%

		5.18 광주항쟁(%)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9.4%	32.7%	21.0%	15.9%	0.9%	0.0%
	농민	54	14.8%	31.5%	29.6%	24.1%	0.0%	0.0%
	사무원	91	39.6%	39.6%	14.3%	4.4%	1.1%	1.1%
	피부양자	5	80.0%	20.0%	0.0%	0.0%	0.0%	0.0%
	학생	43	41.9%	27.9%	23.3%	6.8%	0.0%	0.0%
	군인	31	32.3%	38.7%	12.9%	16.2%	0.0%	0.0%
	가정부인	125	26.4%	26.4%	28.8%	17.6%	0.0%	0.0%
	무직 및 기타	81	22.2%	29.6%	19.8%	27.2%	1.2%	0.0%
	무응답	4	25.0%	25.0%	25.0%	25.0%	0.0%	0.0%
	응답오류	4	0.0%	50.0%	5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26.5%	33.1%	22.0%	17.0%	1.3%	0.0%
	천원 이하	74	41.9%	28.4%	17.6%	10.8%	1.4%	0.0%
	5천원 이하	374	36.6%	39.0%	14.4%	8.8%	0.8%	0.3%
	만원 이하	20	35.0%	35.0%	25.0%	0.0%	5.0%	0.0%
	10만원 이하	45	17.8%	33.3%	31.1%	17.8%	0.0%	0.0%
	50만원 이하	34	17.7%	35.3%	23.5%	23.5%	0.0%	0.0%
	100만원 이하	10	20.0%	20.0%	30.0%	2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0.0%	50.0%	0.0%	0.0%
	무응답	56	17.9%	41.1%	26.8%	10.7%	3.6%	0.0%
	응답오류	253	26.1%	34.8%	20.2%	18.2%	0.8%	0.0%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20	35.0%	35.0%	30.0%	0.0%	0.0%	0.0%
	5천원 이하	19	36.8%	52.6%	0.0%	10.5%	0.0%	0.0%
	만원 이하	12	8.3%	25.0%	41.7%	16.7%	8.3%	0.0%
	10만원 이하	139	30.2%	29.5%	25.2%	13.7%	1.4%	0.0%
	50만원 이하	373	29.0%	38.9%	18.8%	12.6%	0.8%	0.0%
	100만원 이하	170	33.5%	29.4%	23.5%	12.9%	0.6%	0.0%
	100만원 초과	193	30.6%	37.3%	16.1%	14.0%	1.6%	0.5%
	무응답	53	28.3%	34.0%	17.0%	13.2%	7.6%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1.0%	35.2%	19.8%	12.4%	1.5%
없다		378	26.7%	34.7%	20.4%	17.7%	0.5%	0.0%
무응답		5	0.0%	40.0%	40.0%	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29.9%	35.6%	19.4%	13.9%	1.0%	0.1%
	없다	528	29.4%	34.1%	21.0%	14.0%	1.5%	0.0%
	무응답	3	0.0%	66.7%	0.0%	0.0%	33.3%	0.0%
혼인 여부	미혼	420	25.0%	32.4%	22.6%	18.6%	1.4%	0.0%
	결혼	476	33.8%	35.9%	18.1%	10.9%	1.1%	0.2%
	사별/별거/이혼	109	30.3%	35.8%	22.0%	9.2%	2.8%	0.0%
	무응답	9	22.2%	22.2%	33.3%	11.1%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88 서울올림픽(sk02_c)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0	9.84% (122)	21.61% (268)	30.81% (382)	34.52% (428)	2.98% (37)	0.24% (3)
탈북연도	2010	103	10.7%	24.3%	26.2%	28.2%	10.7%	0.0%
	2011	128	16.4%	24.2%	29.7%	22.7%	7.0%	0.0%
	2012	132	12.9%	27.3%	26.5%	30.3%	1.5%	1.5%
	2013	149	6.0%	15.4%	34.2%	43.0%	0.7%	0.7%
	2014	146	8.9%	27.4%	30.8%	30.1%	2.7%	0.0%
	2015	135	13.3%	16.3%	34.8%	35.6%	0.0%	0.0%
	2016	135	10.4%	21.5%	30.4%	33.3%	4.4%	0.0%
	2017	85	2.4%	17.7%	31.8%	47.1%	1.2%	0.0%
	2018	116	7.8%	19.8%	27.6%	44.0%	0.9%	0.0%
	2019	110	7.3%	21.8%	35.5%	33.6%	1.8%	0.0%
2020	1	0.0%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15.3%	27.2%	29.0%	25.6%	2.4%	0.4%
	여자	744	6.2%	17.9%	32.0%	40.5%	3.4%	0.1%
연대	20대	410	8.3%	22.9%	31.0%	35.9%	1.7%	0.2%
	30대	286	10.1%	24.5%	33.2%	29.4%	2.5%	0.4%
	40대	272	12.1%	17.7%	31.3%	34.6%	4.0%	0.4%
	50대	185	9.2%	21.1%	26.5%	37.8%	5.4%	0.0%
	60대	67	10.5%	19.4%	28.4%	38.8%	3.0%	0.0%
	무응답	11	9.1%	27.3%	27.3%	36.4%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11.8%	41.2%	11.8%	29.4%	5.9%	0.0%
	남포	7	28.6%	28.6%	28.6%	14.3%	0.0%	0.0%
	개성	3	0.0%	33.3%	0.0%	66.7%	0.0%	0.0%
	평안남도	20	5.0%	30.0%	30.0%	35.0%	0.0%	0.0%
	평안북도	19	15.8%	42.1%	31.6%	10.5%	0.0%	0.0%
	함경남도	66	13.6%	13.6%	34.9%	28.8%	7.6%	1.5%
	함경북도	431	11.8%	21.8%	31.1%	32.5%	2.6%	0.2%
	자강도	4	0.0%	25.0%	50.0%	25.0%	0.0%	0.0%
	양강도	632	7.9%	19.6%	31.5%	37.8%	3.0%	0.2%
	황해남도	10	20.0%	20.0%	20.0%	30.0%	10.0%	0.0%
	황해북도	16	12.5%	50.0%	25.0%	12.5%	0.0%	0.0%
	강원도	13	0.0%	30.8%	15.4%	53.9%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17.6%	24.2%	34.1%	20.9%	3.3%	0.0%
	후보당원	6	0.0%	50.0%	33.3%	16.7%	0.0%	0.0%
	비당원	1039	8.7%	20.9%	30.3%	36.9%	3.0%	0.3%
	무응답	11	0.0%	27.3%	18.2%	54.6%	0.0%	0.0%

		88 서울올림픽(%)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2.2%	20.6%	32.7%	33.2%	0.9%	0.5%
	농민	54	3.7%	14.8%	24.1%	55.6%	1.9%	0.0%
	사무원	91	15.4%	19.8%	35.2%	26.4%	3.3%	0.0%
	피부양자	5	20.0%	0.0%	40.0%	20.0%	20.0%	0.0%
	학생	43	7.0%	18.6%	44.2%	30.2%	0.0%	0.0%
	군인	31	9.7%	16.1%	35.5%	38.7%	0.0%	0.0%
	가정부인	125	0.8%	16.8%	34.4%	45.6%	2.4%	0.0%
	무직 및 기타	81	7.4%	25.9%	24.7%	39.5%	2.5%	0.0%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0.0%
	응답오류	4	0.0%	75.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7.6%	20.4%	30.1%	38.8%	2.9%	0.3%
	천원 이하	74	13.5%	23.0%	31.1%	31.1%	1.4%	0.0%
	5천원 이하	373	13.9%	21.7%	33.5%	27.9%	2.7%	0.3%
	만원 이하	20	10.0%	30.0%	30.0%	25.0%	5.0%	0.0%
	10만원 이하	45	8.9%	31.1%	24.4%	35.6%	0.0%	0.0%
	50만원 이하	34	2.9%	26.5%	17.7%	52.9%	0.0%	0.0%
	100만원 이하	10	0.0%	10.0%	40.0%	4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25.0%	75.0%	0.0%	0.0%
	무응답	56	8.9%	23.2%	32.1%	25.0%	10.7%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9.1%	17.0%	31.6%	39.4%	2.8%	0.0%
	천원 이하	20	15.0%	20.0%	40.0%	20.0%	5.0%	0.0%
	5천원 이하	19	10.5%	15.8%	26.3%	36.8%	10.5%	0.0%
	만원 이하	12	0.0%	16.7%	25.0%	50.0%	8.3%	0.0%
	10만원 이하	139	7.2%	13.7%	32.4%	44.6%	2.2%	0.0%
	50만원 이하	372	8.9%	22.6%	35.0%	30.1%	3.2%	0.3%
	100만원 이하	170	14.1%	21.8%	32.4%	30.6%	0.6%	0.6%
	100만원 초과	193	10.4%	29.0%	21.2%	36.8%	2.6%	0.0%
	무응답	53	11.3%	35.9%	20.8%	20.8%	9.4%	1.9%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0.5%	22.3%	30.8%	33.0%	3.2%	0.4%
	없다	377	8.5%	19.9%	31.3%	38.5%	1.9%	0.0%
	무응답	5	0.0%	40.0%	0.0%	0.0%	6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8.7%	20.3%	31.8%	36.9%	2.1%	0.1%
	없다	527	11.4%	23.5%	29.6%	31.5%	3.6%	0.4%
	무응답	3	0.0%	0.0%	0.0%	0.0%	100.0%	0.0%
혼인 여부	미혼	419	11.2%	22.4%	31.3%	31.5%	3.1%	0.5%
	결혼	476	10.5%	20.8%	30.3%	35.7%	2.5%	0.2%
	사별/별거/이혼	109	7.3%	22.0%	32.1%	33.0%	5.5%	0.0%
	무응답	9	0.0%	33.3%	11.1%	22.2%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최고기 수입반대(sk02_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최고기 수입반대(%)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513	19.30% (99)	21.83% (112)	20.27% (104)	35.87% (184)	2.73% (14)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15.4%	17.3%	25.0%	35.6%	6.7%	
	2011	128	25.8%	22.7%	17.2%	30.5%	3.9%	
	2012	132	22.7%	26.5%	17.4%	32.6%	0.8%	
	2013	149	13.4%	20.1%	22.2%	43.6%	0.7%	
성별	남자	200	26.0%	27.0%	20.5%	25.0%	1.5%	
	여자	313	15.0%	18.5%	20.1%	42.8%	3.5%	
연령대	20대	162	16.7%	20.4%	16.1%	45.1%	1.9%	
	30대	109	21.1%	21.1%	23.9%	32.1%	1.8%	
	40대	124	21.0%	24.2%	18.6%	32.3%	4.0%	
	50대	67	16.4%	25.4%	25.4%	28.4%	4.5%	
	60대	45	24.4%	17.8%	24.4%	31.1%	2.2%	
	무응답	6	16.7%	16.7%	16.7%	50.0%	0.0%	
	평양	4	25.0%	25.0%	0.0%	5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3	0.0%	33.3%	33.3%	3.3%	0.0%	
	개성	0						
	평안남도	11	27.3%	18.2%	18.2%	36.4%	0.0%	
	평안북도	7	57.1%	28.6%	14.3%	0.0%	0.0%	
	함경남도	37	24.3%	13.5%	21.6%	35.1%	5.4%	
	함경북도	224	19.6%	24.6%	21.0%	32.6%	2.2%	
	자강도	1	0.0%	0.0%	0.0%	100.0%	0.0%	
	양강도	209	16.8%	20.6%	21.1%	38.3%	3.4%	
	황해남도	4	25.0%	25.0%	25.0%	25.0%	0.0%	
	황해북도	7	28.6%	28.6%	0.0%	42.9%	0.0%	
	강원도	5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67	25.4%	23.9%	29.9%	19.4%	1.5%
후보당원		2	0.0%	50.0%	0.0%	50.0%	0.0%	
비당원		437	18.8%	21.5%	18.5%	38.2%	22.0%	
무응답		5	0.0%	0.0%	40.0%	60.0%	0.0%	

		최고기 수입반대(%)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48	12.5%	20.8%	25.0%	41.7%	0.0%	
	농민	13	7.7%	7.7%	30.8%	53.9%	0.0%	
	사무원	21	14.3%	23.8%	28.6%	33.3%	0.0%	
	피부양자	3	33.3%	0.0%	0.0%	66.7%	0.0%	
	학생	11	45.5%	0.0%	9.1%	45.5%	0.0%	
	군인	7	14.3%	28.6%	28.6%	28.6%	0.0%	
	가정부인	25	8.0%	20.0%	20.0%	48.0%	4.0%	
	무직 및 기타	18	5.6%	27.8%	11.1%	55.6%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3	0.0%	66.7%	33.3%	0.0%	0.0%	
	0원	218	13.3%	19.3%	17.9%	46.3%	3.2%	
	천원 이하	32	37.5%	15.6%	25.0%	21.9%	0.0%	
	5천원 이하	171	24.6%	26.9%	19.9%	28.1%	0.6%	
	만원 이하	13	38.5%	15.4%	15.4%	15.4%	15.4%	
	10만원 이하	18	16.7%	33.3%	22.2%	27.8%	0.0%	
	50만원 이하	11	9.1%	36.4%	9.1%	45.5%	0.0%	
	100만원 이하	3	0.0%	0.0%	0.0%	66.7%	33.3%	
	100만원 초과	1	0.0%	0.0%	0.0%	100.0%	0.0%	
	무응답	46	15.2%	15.2%	34.8%	28.3%	6.5%	
비공식 소득	0원	104	18.3%	25.0%	15.4%	39.4%	1.9%	
	천원 이하	13	15.4%	7.7%	38.5%	38.5%	0.0%	
	5천원 이하	11	9.1%	36.4%	9.1%	27.3%	18.2%	
	만원 이하	9	11.1%	33.3%	0.0%	44.4%	11.1%	
	10만원 이하	78	15.4%	23.1%	29.5%	32.1%	0.0%	
	50만원 이하	157	23.6%	22.3%	16.6%	35.7%	1.9%	
	100만원 이하	43	11.6%	16.3%	25.6%	46.5%	0.0%	
	100만원 초과	47	19.2%	21.3%	21.3%	34.0%	4.3%	
	무응답	45	26.7%	15.6%	24.4%	24.4%	8.9%	
장사 경험	있다	362	19.6%	20.4%	20.7%	36.7%	2.5%	
	없다	146	19.2%	26.0%	19.2%	34.3%	1.4%	
	무응답	5	0.0%	0.0%	20.0%	20.0%	60.0%	
남한 친척	있다	278	15.8%	21.6%	23.4%	37.1%	2.2%	
	없다	232	23.7%	22.4%	16.8%	34.9%	2.2%	
	무응답	3	0.0%	0.0%	0.0%	0.0%	100.0%	
혼인 여부	미혼	208	21.2%	21.6%	17.8%	38.0%	1.4%	
	결혼	253	21.0%	21.0%	23.3%	32.8%	2.0%	
	사별/별거/이혼	45	4.4%	24.4%	17.8%	46.7%	6.7%	
	무응답	6	0.0%	33.3%	0.0%	16.7%	50.0%	

개성공업지구(sk02_g)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개성공업지구(%)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28	27.88% (203)	42.31% (308)	20.60% (150)	8.65% (63)	0.41% (3)	0.14% (1)	
탈북연도	2014	146	33.6%	40.4%	19.2%	6.9%	0.0%	0.0%	
	2015	135	32.6%	38.5%	20.7%	8.2%	0.0%	0.0%	
	2016	135	25.2%	45.2%	21.5%	7.4%	0.7%	0.0%	
	2017	85	22.4%	40.0%	23.5%	14.1%	0.0%	0.0%	
	2018	116	23.3%	48.3%	19.8%	7.8%	0.9%	0.0%	
	2019	110	27.3%	41.8%	19.1%	10.0%	0.9%	0.9%	
	2020	1	0.0%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296	29.1%	48.3%	14.9%	7.4%	0.3%	0.0%
	여자	432	27.1%	38.2%	24.5%	9.5%	0.5%	0.2%	
연령대	20대	249	26.5%	38.2%	24.9%	10.4%	0.0%	0.0%	
	30대	177	26.6%	42.4%	22.6%	7.9%	0.6%	0.0%	
	40대	148	30.4%	45.3%	15.5%	8.1%	0.7%	0.0%	
	50대	118	29.7%	46.6%	17.0%	5.1%	0.9%	0.9%	
	60대	22	45.5%	36.4%	13.6%	4.6%	0.0%	0.0%	
	무응답	5	0.0%	40.0%	20.0%	4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3	69.2%	30.8%	0.0%	0.0%	0.0%	0.0%
남포		4	75.0%	25.0%	0.0%	0.0%	0.0%	0.0%	
개성		3	66.7%	0.0%	33.3%	0.0%	0.0%	0.0%	
평안남도		9	22.2%	44.4%	33.3%	0.0%	0.0%	0.0%	
평안북도		12	50.0%	50.0%	0.0%	0.0%	0.0%	0.0%	
함경남도		29	44.8%	44.8%	3.5%	6.9%	0.0%	0.0%	
함경북도		208	31.7%	41.4%	19.2%	7.7%	0.0%	0.0%	
자강도		3	66.7%	33.3%	0.0%	0.0%	0.0%	0.0%	
양강도		423	21.5%	43.0%	24.1%	10.4%	7.1%	0.2%	
황해남도		6	50.0%	50.0%	0.0%	0.0%	0.0%	0.0%	
황해북도		9	33.3%	44.4%	11.1%	11.1%	0.0%	0.0%	
강원도		8	37.5%	37.5%	25.0%	0.0%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15	33.0%	46.1%	14.8%	5.2%	0.9%	0.0%
		후보당원	4	25.0%	75.0%	0.0%	0.0%	0.0%	0.0%
	비당원	603	27.2%	41.3%	21.7%	9.3%	0.3%	0.2%	
	무응답	6	0.0%	50.0%	33.3%	16.7%	0.0%	0.0%	

		개성공업지구(%)						
		사례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66	27.7%	45.8%	18.7%	7.2%	0.6%	
	농민	41	9.8%	34.2%	43.9%	12.2%	0.0%	
	사무원	70	44.3%	32.9%	17.1%	5.7%	0.0%	
	피부양자	2	100.0%	0.0%	0.0%	0.0%	0.0%	
	학생	32	46.9%	34.4%	12.5%	6.3%	0.0%	
	군인	24	20.8%	54.2%	12.5%	12.5%	0.0%	
	가정부인	100	28.0%	41.0%	24.0%	7.0%	0.0%	
	무직 및 기타	63	23.8%	44.4%	17.5%	14.3%	0.0%	
	무응답	4	25.0%	25.0%	25.0%	25.0%	0.0%	
공식소득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원	404	27.0%	42.8%	20.1%	10.2%	2.4%	0.0%
	천원 이하	42	31.0%	35.7%	23.8%	7.1%	0.5%	0.0%
	5천원 이하	203	32.5%	44.3%	17.2%	5.4%	0.0%	0.0%
	만원 이하	7	57.1%	42.9%	0.0%	0.0%	0.0%	0.0%
	10만원 이하	27	7.4%	44.4%	37.0%	7.4%	0.0%	3.7%
	50만원 이하	23	21.7%	34.8%	26.1%	17.4%	0.0%	0.0%
	100만원 이하	7	14.3%	42.9%	42.9%	0.0%	0.0%	0.0%
	100만원 초과	3	0.0%	66.7%	33.3%	0.0%	0.0%	0.0%
	무응답	10	20.0%	20.0%	30.0%	20.0%	10.0%	0.0%
비공식소득	0원	149	24.2%	40.3%	22.2%	12.1%	0.7%	0.7%
	천원 이하	7	14.3%	42.9%	14.3%	28.6%	0.0%	0.0%
	5천원 이하	8	37.5%	37.5%	12.5%	12.5%	0.0%	0.0%
	만원 이하	3	0.0%	10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61	21.3%	39.3%	31.2%	8.2%	0.0%	0.0%
	50만원 이하	216	27.8%	42.1%	22.2%	7.4%	0.5%	0.0%
	100만원 이하	127	29.1%	45.7%	18.9%	6.3%	0.0%	0.0%
	100만원 초과	146	34.9%	41.8%	15.8%	7.5%	0.0%	0.0%
	무응답	8	0.0%	20.0%	12.5%	25.0%	12.5%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496	30.7%	43.4%	18.6%	6.9%	0.6%	0.0%
	없다	232	22.0%	40.1%	25.0%	12.5%	0.0%	0.4%
남한친척	있다	432	27.6%	40.5%	20.6%	10.7%	0.5%	0.2%
	없다	296	28.4%	44.9%	20.6%	5.7%	0.3%	0.0%
혼인여부	미혼	212	29.3%	41.0%	21.7%	8.0%	0.0%	
	결혼	223	27.8%	41.3%	21.1%	9.4%	0.5%	
	사별/별거/이혼	64	32.8%	43.8%	15.6%	7.8%	0.0%	
	무응답	3	33.3%	0.0%	66.7%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sk03)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남한문화 경험(%)						
		사례수	자주 접해봤다	한 두번 접해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45.61% (566)	40.45% (502)	13.78% (171)	0.16% (2)	0.00% (0)	
탈북연도	2010	104	42.3%	32.7%	23.1%	1.9%		
	2011	128	43.8%	45.3%	10.9%	0.0%		
	2012	132	43.2%	44.7%	12.1%	0.0%		
	2013	149	39.6%	46.3%	14.1%	0.0%		
	2014	146	57.5%	30.8%	11.6%	0.0%		
	2015	135	53.3%	34.8%	11.9%	0.0%		
	2016	135	42.2%	44.4%	13.3%	0.0%		
	2017	85	38.8%	42.4%	18.8%	0.0%		
	2018	116	47.4%	44.0%	8.6%	0.0%		
	2019	110	43.6%	39.1%	17.3%	0.0%		
2020	1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54.6%	36.1%	9.3%	0.0%		
	여자	745	39.6%	43.4%	16.8%	0.3%		
연령대	20대	411	51.3%	38.4%	10.0%	0.2%		
	30대	286	52.8%	37.8%	9.4%	0.0%		
	40대	272	44.1%	40.1%	15.4%	0.4%		
	50대	185	33.0%	47.6%	19.5%	0.0%		
	60대	67	17.9%	46.3%	35.8%	0.0%		
	무응답	11	45.5%	54.6%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64.7%	29.4%	5.9%	0.0%		
	남포	7	42.9%	42.9%	14.3%	0.0%		
	개성	3	33.3%	33.3%	33.3%	0.0%		
	평안남도	20	65.0%	30.0%	5.0%	0.0%		
	평안북도	19	47.4%	52.6%	0.0%	0.0%		
	함경남도	66	45.5%	39.4%	15.2%	0.0%		
	함경북도	432	49.1%	37.5%	13.2%	0.2%		
	자강도	4	50.0%	25.0%	25.0%	0.0%		
	양강도	632	42.7%	43.0%	14.1%	0.2%		
	황해남도	10	30.0%	20.0%	50.0%	0.0%		
	황해북도	16	43.8%	37.5%	18.8%	0.0%		
	강원도	13	30.8%	53.9%	15.4%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2.3%	45.6%	12.1%	0.0%	
		후보당원	6	50.0%	33.3%	16.7%	0.0%	
비당원		1040	46.4%	39.9%	13.6%	0.2%		
무응답		11	27.3%	9.1%	63.6%	0.0%		

		남한문화 경험(%)					
		사례수	자주 접해봤다	한 두번 접해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0.5%	37.4%	12.2%		
	농민	54	20.4%	42.6%	37.0%		
	사무원	91	49.5%	45.1%	5.5%		
	피부양자	5	20.0%	40.0%	40.0%		
	학생	43	69.8%	20.9%	9.3%		
	군인	31	51.6%	45.2%	3.2%		
	가정부인	125	41.6%	41.6%	16.8%		
	무직 및 기타	81	48.2%	42.0%	9.9%		
	무응답	4	75.0%	25.0%	0.0%		
	응답오류	4	50.0%	25.0%	25.0%		
공식소득	0원	622	45.3%	39.9%	14.8%	0.0%	
	천원 이하	74	44.6%	40.5%	14.9%	0.0%	
	5천원 이하	374	49.2%	42.0%	8.8%	0.0%	
	만원 이하	20	50.0%	35.0%	15.1%	0.0%	
	10만원 이하	45	35.6%	42.2%	22.2%	0.0%	
	50만원 이하	34	52.9%	29.4%	17.7%	0.0%	
	100만원 이하	10	60.0%	20.0%	10.0%	1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무응답	56	21.4%	50.0%	26.8%	1.8%		
비공식소득	0원	253	40.3%	40.3%	19.4%	0.0%	
	천원 이하	20	65.0%	25.0%	10.0%	0.0%	
	5천원 이하	19	21.1%	52.6%	26.3%	0.0%	
	만원 이하	12	33.3%	50.0%	16.7%	0.0%	
	10만원 이하	139	31.7%	47.5%	20.9%	0.0%	
	50만원 이하	373	45.8%	42.9%	11.3%	0.0%	
	100만원 이하	170	56.5%	37.7%	5.9%	0.0%	
	100만원 초과	193	60.6%	31.1%	8.3%	0.0%	
	무응답	53	18.9%	49.1%	28.3%	3.8%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정사경험	있다	858	49.4%	39.6%	11.0%	0.0%	
	없다	378	37.0%	42.6%	20.4%	0.0%	
	무응답	5	40.0%	20.0%	0.0%	40.0%	
남한친척	있다	710	43.8%	42.0%	14.2%	0.0%	
	없다	528	48.3%	38.5%	13.3%	0.0%	
	무응답	3	0.0%	33.3%	0.0%	66.7%	
혼인여부	미혼	420	49.1%	38.1%	12.9%	0.0%	
	결혼	476	43.7%	41.4%	14.9%	0.0%	
	사별/별거/이혼	109	43.1%	43.1%	13.8%	0.0%	
	무응답	9	22.2%	44.4%	11.1%	22.2%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sk03_a)

문) (sk03에서 1번과 2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남한문화 친숙도(%)						
		사례수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28	58.95% (665)	31.21% (352)	5.23% (59)	1.77% (20)	2.66% (30)	0.18% (2)
탈북 연도	2010	104	49.0%	26.0%	3.9%	3.9%	17.3%	0.0%
	2011	128	53.1%	31.3%	7.8%	3.1%	4.7%	0.0%
	2012	118	58.5%	30.5%	9.3%	0.0%	0.0%	1.7%
	2013	135	54.1%	36.3%	5.9%	2.2%	1.5%	0.0%
	2014	129	65.9%	29.5%	3.1%	0.8%	0.8%	0.0%
	2015	120	65.8%	27.5%	5.0%	1.7%	0.0%	0.0%
	2016	120	65.0%	27.5%	5.0%	1.7%	0.8%	0.0%
	2017	71	53.5%	42.3%	2.8%	1.4%	0.0%	0.0%
	2018	108	64.8%	29.6%	3.7%	0.0%	1.9%	0.0%
	2019	94	57.5%	35.1%	4.3%	3.2%	0.0%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68	58.3%	34.2%	4.7%	0.6%	2.1%	0.0%
	여자	660	59.4%	29.1%	5.6%	2.6%	3.0%	0.3%
연령대	20대	380	61.1%	31.8%	5.0%	0.5%	1.6%	0.0%
	30대	267	58.1%	34.0%	5.6%	0.4%	1.9%	0.0%
	40대	245	62.0%	26.1%	5.7%	2.9%	2.9%	0.4%
	50대	160	56.3%	31.9%	5.0%	3.8%	2.5%	0.6%
	무응답	11	45.5%	45.5%	9.1%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6	68.8%	31.3%	0.0%	0.0%	0.0%	0.0%
	남포	6	66.7%	33.3%	0.0%	0.0%	0.0%	0.0%
	개성	2	50.0%	50.0%	0.0%	0.0%	0.0%	0.0%
	평안남도	19	68.4%	21.1%	5.3%	0.0%	5.3%	0.0%
	평안북도	19	52.6%	36.8%	10.5%	0.0%	0.0%	0.0%
	함경남도	60	53.3%	35.0%	6.7%	1.7%	3.3%	0.0%
	함경북도	405	61.2%	28.9%	4.7%	1.7%	3.5%	0.0%
	자강도	4	75.0%	0.0%	0.0%	25.0%	0.0%	0.0%
	양강도	563	57.0%	33.4%	5.3%	1.8%	2.1%	0.4%
	황해남도	7	57.1%	28.6%	0.0%	0.0%	14.3%	0.0%
	황해북도	14	50.0%	28.6%	14.3%	7.1%	0.0%	0.0%
	강원도	11	81.8%	9.1%	9.1%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70	53.5%	34.7%	6.7%	2.4%	2.9%	0.0%
	후보당원	6	66.7%	16.7%	0.0%	16.7%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사례수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당원	비당원	941	60.2%	30.6%	5.1%	1.3%	2.7%	0.2%
	무응답	9	44.4%	22.2%	0.0%	33.3%	0.0%	0.0%
직업	노동자	192	62.5%	31.3%	4.2%	0.5%	1.6%	
	농민	36	50.0%	38.9%	5.6%	5.6%	0.0%	
	사무원	87	65.5%	27.6%	5.8%	1.2%	0.0%	
	피부양자	4	50.0%	25.0%	25.0%	0.0%	0.0%	
	학생	40	62.5%	32.5%	5.0%	0.0%	0.0%	
	군인	29	61.7%	41.4%	6.9%	0.0%	0.0%	
	가정부인	108	55.6%	35.2%	4.6%	3.7%	0.9%	
	무직 및 기타	73	74.0%	24.7%	1.4%	0.0%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50.0%	25.0%	0.0%	25.0%	0.0%	
공식 소득	0원	556	59.9%	30.8%	5.6%	2.3%	5.8%	0.4%
	천원 이하	69	50.7%	42.0%	1.5%	0.0%	2.0%	0.0%
	5천원 이하	349	59.0%	31.5%	6.6%	0.9%	10.0%	0.0%
	만원 이하	20	65.0%	10.0%	5.0%	10.0%	5.3%	0.0%
	10만원 이하	38	52.6%	36.8%	2.6%	2.6%	3.2%	0.0%
	50만원 이하	31	54.8%	38.7%	0.0%	3.2%	11.1%	0.0%
	100만원 이하	9	66.7%	22.2%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0.0%
	무응답	50	60.0%	22.0%	4.0%	0.0%	14.0%	0.0%
	0원	218	55.5%	32.6%	4.1%	4.1%	3.2%	0.5%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19	47.4%	36.8%	10.5%	0.0%	5.3%	0.0%
	5천원 이하	18	44.4%	27.8%	5.6%	0.0%	22.2%	0.0%
	만원 이하	12	25.0%	58.3%	8.3%	0.0%	8.3%	0.0%
	10만원 이하	121	51.2%	39.7%	4.1%	2.5%	2.5%	0.0%
	50만원 이하	340	60.0%	31.2%	7.1%	0.9%	0.6%	0.3%
	100만원 이하	161	65.2%	29.2%	3.7%	0.6%	1.2%	0.0%
	100만원 초과	182	68.1%	25.3%	3.9%	1.7%	1.1%	0.0%
	무응답	49	51.0%	24.5%	6.1%	2.0%	16.3%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96	61.3%	30.3%	4.9%	1.5%	1.9%
없다		327	53.5%	33.6%	6.1%	2.5%	4.0%	0.3%
무응답		5	40.0%	20.0%	0.0%	0.0%	40.0%	0.0%
남한 친척	있다	633	58.0%	32.9%	5.5%	1.7%	1.7%	0.2%
	없다	492	60.4%	29.3%	4.9%	1.8%	3.5%	0.2%
	무응답	3	33.3%	0.0%	0.0%	0.0%	66.7%	0.0%
혼인 여부	미혼	385	61.6%	29.9%	4.9%	0.8%	2.6%	0.3%
	결혼	434	54.2%	34.6%	5.8%	2.1%	3.2%	0.2%
	사별/별거/이혼	98	67.4%	19.4%	7.1%	5.1%	1.0%	0.0%
	무응답	8	50.0%	25.0%	0.0%	0.0%	25.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남한문화 유통경로(sk03_b)

문)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십니까?

	남한문화 유통경로(%)							
	사례수	시장에서 집적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 서 구하여 접 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 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 을 때 접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641	5.15% (33)	62.87% (403)	21.37% (137)	7.80% (50)	0.94% (6)	1.87% (12)	0.11% (1)
탈북연도	2014	129	7.8%	60.5%	22.5%	3.9%	2.3%	3.1%
	2015	120	6.7%	68.3%	17.5%	7.5%	0.0%	0.0%
	2016	120	5.8%	54.2%	25.0%	14.2%	0.8%	0.0%
	2017	71	1.4%	60.6%	19.7%	14.1%	0.0%	4.2%
	2018	108	2.8%	68.5%	19.4%	5.6%	0.9%	2.8%
	2019	92	4.4%	65.2%	23.9%	3.3%	1.1%	2.2%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273	7.0%	61.2%	16.5%	11.4%	1.5%	2.6%
	여자	368	3.8%	64.1%	25.0%	5.2%	0.5%	1.4%
연령대	20대	226	5.8%	66.4%	20.4%	5.8%	0.9%	0.9%
	30대	160	3.8%	65.0%	20.0%	8.1%	0.0%	3.1%
	40대	131	7.6%	56.5%	20.6%	11.5%	2.3%	1.5%
	50대	95	4.2%	55.8%	29.5%	6.3%	1.1%	3.2%
	60대	16	0.0%	75.0%	12.5%	12.5%	0.0%	0.0%
	무응답	5	0.0%	80.0%	20.0%	0.0%	0.0%	0.0%
	무응답	12	0.0%	66.7%	33.3%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3	0.0%	66.7%	0.0%	33.3%	0.0%	0.0%
	남포	2	0.0%	100.0%	0.0%	0.0%	0.0%	0.0%
	개성	8	0.0%	62.5%	37.5%	0.0%	0.0%	0.0%
	평안남도	12	16.7%	50.0%	25.0%	0.0%	0.0%	8.3%
	평안북도	26	11.5%	42.3%	34.6%	3.9%	0.0%	7.7%
	함경남도	188	4.3%	68.1%	20.7%	4.3%	1.1%	1.6%
	함경북도	3	0.0%	33.3%	66.7%	0.0%	0.0%	0.0%
	자강도	368	4.9%	62.5%	19.6%	10.3%	1.1%	1.6%
	양강도	3	33.3%	33.3%	33.3%	0.0%	0.0%	0.0%
	황해남도	7	0.0%	42.9%	42.9%	14.3%	0.0%	0.0%
	황해북도	8	12.5%	75.0%	12.5%	0.0%	0.0%	0.0%
	강원도	1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106	5.7%	59.4%	16.0%	12.3%	1.9%	4.7%
	후보당원	4	0.0%	75.0%	0.0%	0.0%	25.0%	0.0%
비당원	527	5.1%	63.6%	22.6%	6.8%	0.6%	1.3%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0.0%	

	사례수	남한문화 유통경로(%)						
		시장에서 집적 구하여 접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 서 구하여 접 했다	주변 사람들 (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 께 접했다	외국에 나갔 을 때 접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51	8.6%	56.3%	22.5%	10.6%	0.7%	1.3%
	농민	27	0.0%	70.4%	22.2%	7.4%	0.0%	0.0%
	사무원	67	0.0%	65.7%	23.9%	7.5%	1.5%	1.5%
	피부양자	1	0.0%	0.0%	100.0%	0.0%	0.0%	0.0%
	학생	28	10.7%	60.7%	10.7%	10.7%	0.0%	7.1%
	군인	23	4.4%	65.2%	26.1%	0.0%	4.4%	0.0%
	가정부인	85	5.9%	60.0%	22.4%	8.2%	1.2%	2.4%
	무직 및 기타	55	7.3%	65.5%	16.4%	10.9%	0.0%	0.0%
	무응답	4	0.0%	75.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351	4.6%	64.1%	21.9%	7.1%	0.6%	1.7%
	천원 이하	38	7.9%	73.7%	10.5%	2.6%	2.6%	2.6%
	5천원 이하	186	6.5%	59.1%	20.4%	10.8%	1.1%	2.2%
	만원 이하	7	0.0%	57.1%	14.3%	14.3%	14.3%	0.0%
	10만원 이하	20	0.0%	65.0%	25.0%	10.0%	0.0%	0.0%
	50만원 이하	21	9.5%	66.7%	23.8%	0.0%	0.0%	0.0%
	100만원 이하	7	0.0%	42.9%	42.9%	14.3%	0.0%	0.0%
	100만원 초과	3	0.0%	66.7%	33.3%	0.0%	0.0%	0.0%
	무응답	6	0.0%	33.3%	50.0%	0.0%	0.0%	16.7%
비공식 소득	0원	126	2.4%	67.5%	23.0%	5.6%	0.8%	0.8%
	천원 이하	6	0.0%	16.7%	66.7%	16.7%	0.0%	0.0%
	5천원 이하	8	0.0%	50.0%	0.0%	50.0%	0.0%	0.0%
	만원 이하	3	0.0%	66.7%	33.3%	0.0%	0.0%	0.0%
	10만원 이하	46	6.5%	69.6%	17.4%	6.5%	0.0%	0.0%
	50만원 이하	190	5.8%	57.9%	24.2%	7.9%	1.1%	3.2%
	100만원 이하	119	5.9%	64.7%	17.7%	7.6%	2.5%	1.7%
	100만원 초과	134	6.7%	64.9%	18.7%	8.2%	0.0%	1.5%
	무응답	6	0.0%	50.0%	33.3%	0.0%	0.0%	16.7%
정사 경험	있다	448	6.5%	60.9%	20.5%	8.7%	0.9%	2.5%
	없다	193	2.1%	67.4%	23.3%	5.7%	1.0%	0.5%
남한 친척	있다	378	4.2%	64.6%	22.8%	5.0%	1.3%	2.1%
	없다	263	6.5%	60.5%	19.4%	11.8%	0.4%	1.5%
혼인 여부	미혼	186	7.5%	66.1%	18.3%	5.9%	1.1%	1.1%
	결혼	197	4.6%	57.9%	22.3%	12.7%	0.5%	2.0%
	사별/별거/이혼	56	5.4%	55.4%	26.8%	8.9%	1.8%	1.8%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sk03_c)

문)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사례수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90	67.69% (264)	23.08% (90)	6.92% (27)	1.54% (6)	0.26% (1)	0.51% (2)	0.00% (0)
탈북연도	2016	116	69.0%	21.6%	9.5%	0.0%	0.0%	0.0%	
	2017	71	59.2%	35.2%	4.2%	1.4%	0.0%	0.0%	
	2018	108	66.7%	22.2%	8.3%	0.9%	0.9%	0.9%	
	2019	94	74.5%	16.0%	4.3%	4.3%	0.0%	1.1%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70	65.3%	25.9%	7.7%	0.6%	0.6%	0.0%	
	여자	220	69.6%	20.9%	6.4%	2.3%	0.0%	0.9%	
연령대	20대	140	70.0%	23.6%	5.0%	0.7%	0.0%	0.7%	
	30대	90	65.6%	23.3%	7.8%	3.3%	0.0%	0.0%	
	40대	69	68.1%	21.7%	8.7%	0.0%	0.0%	1.5%	
	50대	68	67.7%	20.6%	7.4%	2.9%	1.5%	0.0%	
	60대	11	72.7%	18.2%	9.1%	0.0%	0.0%	0.0%	
	무응답	4	25.0%	50.0%	25.0%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40.0%	40.0%	20.0%	0.0%	0.0%	0.0%
	남포	1	100.0%	0.0%	0.0%	0.0%	0.0%	0.0%	
	개성	2	50.0%	50.0%	0.0%	0.0%	0.0%	0.0%	
	평안남도	3	100.0%	0.0%	0.0%	0.0%	0.0%	0.0%	
	평안북도	8	62.5%	37.5%	0.0%	0.0%	0.0%	0.0%	
	함경남도	19	68.4%	15.8%	15.8%	0.0%	0.0%	0.0%	
	함경북도	78	80.8%	15.4%	2.6%	0.0%	1.3%	0.0%	
	자강도	3	66.7%	0.0%	0.0%	33.3%	0.0%	0.0%	
	양강도	261	63.2%	26.4%	8.1%	1.5%	0.0%	0.8%	
	황해남도	2	100.0%	0.0%	0.0%	0.0%	0.0%	0.0%	
	황해북도	4	75.0%	0.0%	0.0%	25.0%	0.0%	0.0%	
	강원도	3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56	53.6%	33.9%	8.9%	3.6%	0.0%	0.0%	
	후보당원	3	33.3%	0.0%	0.0%	33.3%	33.3%	0.0%	
	비당원	328	70.4%	21.3%	6.7%	0.9%	0.0%	0.6%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0.0%	

		남한문화 접촉 후 호감도 변화(%)						
		사례수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무응답
직업	노동자	77	75.3%	22.1%	2.6%	0.0%		0.0%
	농민	12	50.0%	50.0%	0.0%	0.0%		0.0%
	사무원	22	54.6%	27.3%	18.2%	0.0%		0.0%
	피부양자	1	100.0%	0.0%	0.0%	0.0%		0.0%
	학생	15	46.7%	53.3%	0.0%	0.0%		0.0%
	군인	7	28.6%	42.9%	28.6%	0.0%		0.0%
	가정부인	31	48.4%	25.8%	19.4%	3.2%		3.2%
	무직 및 기타	21	90.5%	9.5%	0.0%	0.0%		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214	66.4%	22.9%	7.0%	2.3%	0.5%	0.9%
	천원 이하	25	64.0%	28.0%	8.0%	0.0%	0.0%	0.0%
	5천원 이하	101	68.3%	22.8%	7.9%	1.0%	0.0%	0.0%
	만원 이하	2	50.0%	5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6	75.0%	18.8%	6.3%	0.0%	0.0%	0.0%
	50만원 이하	18	61.1%	38.9%	0.0%	0.0%	0.0%	0.0%
	100만원 이하	4	100.0%	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6	83.3%	0.0%	16.7%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79	65.8%	30.4%	2.5%	1.3%	0.0%	0.0%
	천원 이하	5	80.0%	0.0%	20.0%	0.0%	0.0%	0.0%
	5천원 이하	7	57.1%	28.6%	14.3%	0.0%	0.0%	0.0%
	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31	67.7%	22.6%	9.7%	0.0%	0.0%	0.0%
	50만원 이하	119	67.2%	23.5%	7.6%	0.8%	0.8%	0.0%
	100만원 이하	55	60.0%	29.1%	7.3%	1.8%	0.0%	1.8%
	100만원 초과	83	73.5%	14.5%	7.2%	3.6%	0.0%	1.2%
	무응답	6	83.3%	0.0%	16.7%	0.0%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60	73.5%	18.1%	5.4%	1.9%	0.4%	0.8%
	없다	130	56.2%	33.1%	10.0%	0.8%	0.0%	0.0%
	남한 친척	있다	235	71.1%	19.6%	6.4%	1.7%	0.4%
	없다	155	62.6%	28.4%	7.7%	1.3%	0.0%	
혼인 여부	미혼	83	69.9%	27.7%	2.4%	0.0%		0.0%
	결혼	84	63.1%	25.0%	10.7%	1.2%		0.0%
	사별/별거/이혼	20	60.0%	25.0%	15.0%	0.0%		0.0%
	무응답	2	0.0%	50.0%	0.0%	0.0%		50.0%

선거방식(sk04_a)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방식(%)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2140	91.61% (1,136)	4.92% (61)	1.29% (16)	1.61% (20)	0.56% (7)	0.00% (0)
탈북연도	2010	104	88.5%	5.8%	0.0%	1.9%	3.9%	
	2011	128	87.5%	8.6%	1.6%	1.6%	0.8%	
	2012	132	96.2%	1.5%	1.5%	0.8%	0.0%	
	2013	149	92.6%	4.7%	0.7%	2.0%	0.0%	
	2014	145	93.8%	4.1%	0.0%	2.1%	0.0%	
	2015	135	91.1%	3.0%	3.7%	2.2%	0.0%	
	2016	135	94.1%	3.0%	1.5%	1.5%	0.0%	
	2017	85	85.9%	10.6%	1.2%	2.4%	0.0%	
	2018	116	93.1%	4.3%	1.7%	0.9%	0.0%	
	2019	110	90.0%	6.4%	0.9%	0.9%	1.8%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5	92.1%	4.0%	1.8%	2.0%	0.0%	
	여자	745	91.3%	5.5%	0.9%	1.3%	0.9%	
연령대	20대	410	89.0%	6.3%	2.0%	2.4%	0.2%	
	30대	286	91.6%	5.6%	1.4%	0.7%	0.7%	
	40대	272	94.5%	2.2%	0.7%	2.2%	0.4%	
	50대	185	93.5%	4.3%	1.1%	0.0%	1.1%	
	60대	67	92.5%	3.0%	0.0%	3.0%	1.5%	
	무응답	11	81.8%	18.2%	0.0%	0.0%	0.0%	
	평양	17	88.2%	0.0%	0.0%	11.8%	0.0%	
북한 거주지	남포	7	71.4%	0.0%	28.6%	0.0%	0.0%	
	개성	3	10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80.0%	10.0%	0.0%	5.0%	5.0%	
	평안북도	19	94.7%	5.3%	0.0%	0.0%	0.0%	
	함경남도	66	97.0%	3.0%	0.0%	0.0%	0.0%	
	함경북도	432	91.0%	5.6%	0.9%	2.1%	0.5%	
	자강도	4	50.0%	25.0%	0.0%	25.0%	0.0%	
	양강도	631	92.2%	4.8%	1.4%	1.0%	0.6%	
	황해남도	10	90.0%	10.0%	0.0%	0.0%	0.0%	
	황해북도	16	100.0%	0.0%	0.0%	0.0%	0.0%	
	강원도	13	92.3%	0.0%	7.7%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95.6%	2.2%	1.1%	1.1%	0.0%
후보당원		6	83.3%	0.0%	0.0%	16.7%	0.0%	
비당원		1039	91.0%	5.4%	1.4%	1.6%	0.7%	
무응답		11	90.9%	9.1%	0.0%	0.0%	0.0%	

		선거방식(%)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91.1%	4.7%	1.9%	2.3%		
	농민	54	90.7%	5.6%	0.0%	3.7%		
	사무원	91	93.4%	5.5%	0.0%	1.1%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학생	42	83.3%	11.9%	2.4%	2.4%		
	군인	31	96.8%	3.2%	0.0%	0.0%		
	가정부인	125	92.8%	2.4%	1.6%	3.2%		
	무직 및 기타	81	93.8%	3.7%	2.5%	0.0%		
	무응답	4	100.0%	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100.0%	0.0%	0.0%	0.0%		
	0원	621	91.5%	5.0%	1.8%	1.6%	0.2%	
	천원 이하	74	90.5%	5.4%	0.0%	4.1%	0.0%	
	5천원 이하	374	94.9%	2.4%	0.8%	1.1%	0.8%	
	만원 이하	20	90.0%	10.0%	0.0%	0.0%	0.0%	
	10만원 이하	45	77.8%	17.8%	2.2%	2.2%	0.0%	
	50만원 이하	34	88.2%	5.9%	0.0%	5.9%	0.0%	
	100만원 이하	10	90.0%	0.0%	0.0%	0.0%	1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무응답	56	85.7%	8.9%	1.8%	0.0%	3.6%	
비공식 소득	0원	253	88.1%	7.1%	2.0%	2.8%	0.0%	
	천원 이하	20	95.0%	0.0%	0.0%	5.0%	0.0%	
	5천원 이하	19	94.7%	5.3%	0.0%	0.0%	0.0%	
	만원 이하	12	83.3%	0.0%	0.0%	8.3%	8.3%	
	10만원 이하	139	95.7%	1.4%	1.4%	0.7%	0.7%	
	50만원 이하	373	91.4%	5.6%	0.8%	1.9%	0.3%	
	100만원 이하	170	92.9%	5.3%	1.2%	0.6%	0.0%	
	100만원 초과	192	93.2%	3.7%	2.1%	0.5%	0.5%	
	무응답	53	86.8%	5.7%	0.0%	1.9%	5.7%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7	93.5%	3.6%	1.2%	1.2%	0.6%	
	없다	378	87.6%	7.9%	1.6%	2.7%	0.3%	
	무응답	5	80.0%	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93.1%	3.5%	1.4%	1.4%	0.6%	
	없다	527	89.8%	6.8%	1.1%	1.9%	0.4%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여부	미혼	419	90.5%	6.2%	1.0%	1.9%	0.5%	
	결혼	476	92.7%	3.4%	1.7%	1.9%	0.4%	
	사별/별거/이혼	109	92.7%	5.5%	0.9%	0.9%	0.0%	
	무응답	9	77.8%	11.1%	0.0%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생활수준(sk04_b)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수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97	93.22% (743)	3.51% (28)	1.88% (15)	0.50% (4)	0.88% (7)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92.3%	2.9%	1.0%	1.0%	2.9%	
	2011	128	89.1%	5.5%	3.1%	0.0%	2.3%	
	2012	132	96.2%	1.5%	1.5%	0.0%	0.8%	
	2013	149	96.0%	2.7%	1.3%	0.0%	0.0%	
	2014	146	94.5%	2.7%	2.1%	0.7%	0.0%	
	2015	135	90.4%	5.9%	2.2%	1.5%	0.0%	
	2016	3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310	93.9%	3.2%	2.3%	0.3%	0.3%	
	여자	487	92.8%	3.7%	1.6%	0.6%	1.2%	
연령대	20대	258	91.1%	5.0%	3.5%	0.0%	0.4%	
	30대	186	93.0%	3.2%	2.2%	0.5%	1.1%	
	40대	195	94.9%	2.1%	0.5%	1.0%	1.5%	
	50대	99	96.0%	2.0%	1.0%	0.0%	1.0%	
	60대	52	94.2%	3.9%	0.0%	1.9%	0.0%	
	무응답	7	85.7%	14.3%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2	91.7%	8.3%	0.0%	0.0%	0.0%	
	남포	6	100.0%	0.0%	0.0%	0.0%	0.0%	
	개성	0						
	평안남도	16	87.5%	6.3%	0.0%	0.0%	6.3%	
	평안북도	11	81.8%	9.1%	9.1%	0.0%	0.0%	
	함경남도	46	95.7%	0.0%	0.0%	2.2%	2.2%	
	함경북도	346	93.4%	3.2%	2.0%	0.6%	0.9%	
	자강도	1	100.0%	0.0%	0.0%	0.0%	0.0%	
	양강도	332	94.0%	3.6%	1.8%	0.0%	0.6%	
	황해남도	5	60.0%	40.0%	0.0%	0.0%	0.0%	
	황해북도	11	90.9%	0.0%	0.0%	9.1%	0.0%	
	강원도	10	90.0%	0.0%	1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19	94.1%	5.0%	0.0%	0.0%	0.8%	
	후보당원	3	100.0%	0.0%	0.0%	0.0%	0.0%	
	비당원	667	93.1%	3.2%	2.3%	0.6%	0.9%	
	무응답	6	83.3%	16.7%	0.0%	0.0%	0.0%	

		생활수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31	90.8%	5.3%	3.1%	0.8%		
	농민	35	94.3%	2.9%	2.9%	0.0%		
	사무원	67	94.0%	4.5%	1.5%	0.0%		
	피부양자	4	100.0%	0.0%	0.0%	0.0%		
	학생	26	88.5%	11.5%	0.0%	0.0%		
	군인	23	100.0%	0.0%	0.0%	0.0%		
	가정부인	87	95.4%	1.2%	1.2%	2.3%		
	무직 및 기타	55	96.4%	1.8%	1.8%	0.0%		
	무응답	2	100.0%	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3	100.0%	0.0%	0.0%	0.0%		
	0원	378	93.7%	2.9%	2.4%	0.8%	0.3%	
	천원 이하	46	93.5%	4.4%	2.2%	0.0%	0.0%	
	5천원 이하	260	93.5%	3.9%	1.5%	0.4%	0.8%	
	만원 이하	18	94.4%	0.0%	0.0%	0.0%	5.6%	
	10만원 이하	27	88.9%	11.1%	0.0%	0.0%	0.0%	
	50만원 이하	14	92.9%	7.1%	0.0%	0.0%	0.0%	
	100만원 이하	6	83.3%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10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46	91.3%	2.2%	2.2%	0.0%	4.4%	
	0원	160	89.4%	8.1%	1.3%	1.3%	0.0%	
	천원 이하	15	100.0%	0.0%	0.0%	0.0%	0.0%	
	5천원 이하	12	100.0%	0.0%	0.0%	0.0%	0.0%	
	만원 이하	10	80.0%	0.0%	0.0%	10.0%	10.0%	
	10만원 이하	98	91.8%	2.0%	3.1%	0.0%	3.1%	
	50만원 이하	237	94.9%	2.1%	2.0%	0.4%	0.0%	
	100만원 이하	112	95.5%	1.8%	2.7%	0.0%	0.0%	
	100만원 초과	102	94.1%	3.9%	1.0%	0.0%	0.0%	
장사 경험	무응답	45	91.1%	4.4%	0.0%	0.0%	4.4%	
	있다	569	94.7%	2.3%	1.9%	0.2%	0.9%	
	없다	223	89.7%	6.7%	1.8%	1.4%	0.5%	
남한 친척	무응답	5	80.0%	0.0%	0.0%	0.0%	20.0%	
	있다	447	94.2%	2.7%	1.8%	0.7%	0.7%	
	없다	347	92.2%	4.6%	2.0%	0.3%	0.9%	
혼인 여부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미혼	323	92.6%	4.3%	2.5%	0.0%	0.6%	
	결혼	380	93.7%	3.2%	1.6%	1.1%	0.5%	
	사별/별거/이혼	86	94.2%	2.3%	1.2%	0.0%	2.3%	
	무응답	6	83.3%	0.0%	0.0%	0.0%	16.7%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역사인식(sk04_c)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인식(%)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97	66.62% (531)	26.22% (209)	4.52% (36)	1.00% (8)	1.63% (13)	0.00% (0)	
탈북연도	2010	104	64.4%	24.0%	4.8%	1.0%	5.8%		
	2011	128	67.2%	25.0%	4.7%	0.0%	3.1%		
	2012	132	68.2%	24.2%	4.6%	0.8%	2.3%		
	2013	149	70.5%	24.8%	4.0%	0.7%	0.0%		
	2014	146	65.1%	27.4%	5.5%	2.1%	0.0%		
	2015	135	63.7%	31.1%	3.7%	1.5%	0.0%		
	2016	3	66.7%	33.3%	0.0%	0.0%	0.0%		
	성별	남자	310	60.3%	31.6%	5.2%	1.3%	1.6%	
여자		487	70.6%	22.8%	4.1%	0.8%	1.6%		
연령대	20대	258	62.4%	29.1%	7.0%	0.8%	0.8%		
	30대	186	66.7%	28.0%	2.7%	0.5%	2.2%		
	40대	195	66.7%	25.1%	4.1%	2.1%	2.1%		
	50대	99	75.8%	17.2%	4.0%	1.0%	2.0%		
	60대	52	75.0%	23.1%	0.0%	0.0%	1.9%		
	무응답	7	28.6%	57.1%	14.3%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2	83.3%	16.7%	0.0%	0.0%	0.0%	
		남포	6	50.0%	50.0%	0.0%	0.0%	0.0%	
개성		0							
평안남도		16	31.3%	50.0%	12.5%	0.0%	6.3%		
평안북도		11	54.6%	45.5%	0.0%	0.0%	0.0%		
함경남도		46	60.9%	60.4%	4.4%	0.0%	4.4%		
함경북도		346	69.7%	24.9%	3.8%	0.6%	1.2%		
자강도		1	100.0%	0.0%	0.0%	0.0%	0.0%		
양강도		332	66.3%	25.3%	5.4%	1.2%	1.8%		
황해남도		5	40.0%	40.0%	0.0%	20.0%	0.0%		
황해북도		11	63.6%	27.3%	0.0%	9.1%	0.0%		
강원도		10	80.0%	10.0%	1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19	65.6%	29.4%	1.7%	1.7%	1.7%	
	후보당원	3	33.3%	33.3%	33.3%	0.0%	0.0%		
	비당원	667	67.0%	25.5%	5.0%	0.9%	1.7%		
	무응답	6	66.7%	33.3%	0.0%	0.0%	0.0%		

		역사인식(%)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31	63.4%	29.8%	5.3%	1.5%		
	농민	35	62.9%	28.6%	5.7%	2.9%		
	사무원	67	64.2%	29.9%	4.5%	1.5%		
	피부양자	4	75.0%	25.0%	0.0%	0.0%		
	학생	26	69.2%	26.9%	3.9%	0.0%		
	군인	23	69.6%	30.4%	0.0%	0.0%		
	가정부인	87	71.3%	24.1%	3.5%	1.2%		
	무직 및 기타	55	69.1%	25.5%	3.6%	1.8%		
	무응답	2	50.0%	0.0%	50.0%	0.0%		
	응답오류	3	66.7%	33.3%	0.0%	0.0%		
공식 소득	0원	378	69.1%	22.5%	5.8%	1.6%	1.1%	
	천원 이하	46	69.6%	26.1%	2.2%	0.0%	2.2%	
	5천원 이하	260	63.1%	31.5%	3.1%	0.8%	1.5%	
	만원 이하	18	55.6%	33.3%	5.6%	0.0%	5.6%	
	10만원 이하	27	51.9%	40.7%	7.4%	0.0%	0.0%	
	50만원 이하	14	71.4%	21.4%	7.4%	0.0%	0.0%	
	100만원 이하	6	66.7%	16.7%	0.0%	0.0%	16.7%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46	76.1%	17.4%	2.2%	0.0%	4.4%		
비공식 소득	0원	160	66.9%	26.3%	5.6%	0.0%	1.3%	
	천원 이하	15	66.7%	33.3%	0.0%	0.0%	0.0%	
	5천원 이하	12	75.0%	8.3%	8.3%	0.0%	8.3%	
	만원 이하	10	50.0%	20.0%	20.0%	0.0%	10.0%	
	10만원 이하	98	72.5%	21.4%	2.0%	1.0%	3.1%	
	50만원 이하	237	65.4%	28.3%	3.8%	2.1%	0.4%	
	100만원 이하	112	67.9%	26.8%	5.4%	0.0%	0.0%	
	100만원 초과	102	59.8%	32.4%	4.9%	1.0%	2.0%	
무응답	45	71.1%	17.8%	2.2%	2.2%	6.7%		
장사 경험	있다	569	66.4%	26.9%	4.0%	1.1%	1.6%	
	없다	223	67.3%	24.7%	5.8%	0.9%	1.4%	
	무응답	5	60.0%	2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447	66.4%	26.2%	4.7%	0.9%	1.8%	
	없다	347	66.9%	26.5%	4.3%	1.2%	1.2%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323	61.9%	30.7%	5.3%	0.6%	1.6%	
	결혼	380	71.1%	21.6%	4.5%	1.6%	1.3%	
	사별/별거/이혼	86	66.3%	29.1%	2.3%	0.0%	2.3%	
	무응답	6	33.3%	50.0%	0.0%	0.0%	16.7%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언어사용(sk04_d)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사용(%)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66.40% (824)	26.27% (326)	4.27% (53)	2.18% (27)	0.89% (11)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65.4%	24.0%	4.8%	1.0%	4.8%	
	2011	128	60.2%	35.2%	1.6%	0.8%	2.3%	
	2012	132	64.4%	29.6%	4.6%	0.8%	0.8%	
	2013	149	67.1%	28.2%	2.7%	2.0%	0.0%	
	2014	146	65.1%	28.8%	6.2%	0.0%	0.0%	
	2015	135	63.0%	30.4%	5.2%	1.5%	0.0%	
	2016	135	83.7%	7.4%	4.4%	4.4%	0.0%	
	2017	85	58.8%	27.1%	9.4%	4.7%	0.0%	
	2018	116	64.7%	27.6%	3.5%	3.5%	0.9%	
	2019	110	68.2%	24.6%	1.8%	4.6%	0.9%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62.9%	29.4%	4.4%	2.4%	0.8%	
	여자	745	68.7%	24.2%	4.2%	2.0%	0.9%	
연령대	20대	411	71.1%	22.1%	5.4%	1.2%	0.2%	
	30대	286	69.6%	25.9%	2.8%	1.1%	0.7%	
	40대	272	56.3%	35.3%	4.4%	2.9%	1.1%	
	50대	185	67.6%	22.2%	4.9%	3.2%	2.2%	
	60대	67	59.7%	31.3%	1.5%	6.0%	1.5%	
	무응답	11	81.8%	18.2%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8.8%	35.3%	0.0%	5.9%	0.0%	
	남포	7	57.1%	28.6%	0.0%	14.3%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평안남도	20	40.0%	30.0%	10.0%	15.0%	5.0%	
	평안북도	19	52.6%	47.4%	0.0%	0.0%	0.0%	
	함경남도	66	63.6%	25.8%	4.6%	3.0%	3.0%	
	함경북도	432	68.3%	26.4%	3.5%	0.9%	0.9%	
	자강도	4	25.0%	50.0%	0.0%	25.0%	0.0%	
	양강도	632	67.4%	24.5%	5.1%	2.4%	0.6%	
	황해남도	10	50.0%	50.0%	0.0%	0.0%	0.0%	
	황해북도	16	75.0%	25.0%	0.0%	0.0%	0.0%	
	강원도	13	76.9%	23.1%	0.0%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62.6%	30.8%	3.3%	2.8%	0.6%	
	후보당원	6	33.3%	33.3%	0.0%	16.7%	16.7%	
	비당원	1040	67.2%	25.5%	4.4%	2.0%	0.9%	
	무응답	11	72.7%	18.2%	9.1%	0.0%	0.0%	

		언어사용(%)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72.9%	21.5%	3.3%	2.3%		
	농민	54	63.0%	24.1%	11.1%	1.9%		
	사무원	91	71.4%	24.2%	3.3%	1.1%		
	피부양자	5	60.0%	20.0%	0.0%	20.0%		
	학생	43	65.1%	23.3%	9.3%	2.3%		
	군인	31	54.8%	38.7%	6.5%	0.0%		
	가정부인	125	97.2%	26.4%	4.0%	2.4%		
	무직 및 기타	81	65.4%	23.5%	7.4%	3.7%		
	무응답	4	50.0%	25.0%	25.0%	0.0%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66.9%	25.4%	4.5%	2.7%	0.0%	
	천원 이하	74	59.5%	35.1%	5.4%	0.0%	0.8%	
	5천원 이하	374	69.8%	24.6%	3.2%	1.6%	5.0%	
	만원 이하	20	45.0%	50.0%	0.0%	0.0%	2.2%	
	10만원 이하	45	66.7%	22.2%	6.7%	2.2%	0.0%	
	50만원 이하	34	52.9%	32.4%	11.8%	2.9%	10.0%	
	100만원 이하	10	50.0%	4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무응답	56	64.3%	25.0%	3.6%	3.6%	3.6%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70.8%	22.5%	3.6%	2.4%	0.8%	
	천원 이하	20	60.0%	20.0%	0.0%	15.0%	5.0%	
	5천원 이하	19	57.9%	26.3%	0.0%	10.5%	5.3%	
	만원 이하	12	41.7%	41.7%	8.3%	0.0%	8.3%	
	10만원 이하	139	68.4%	25.2%	4.3%	0.7%	1.4%	
	50만원 이하	373	65.2%	27.1%	5.1%	2.4%	0.3%	
	100만원 이하	170	60.6%	32.9%	5.9%	0.6%	0.0%	
	100만원 초과	193	68.9%	24.9%	3.1%	2.1%	1.0%	
	무응답	53	71.7%	2.8%	3.8%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65.3%	27.5%	4.1%	2.0%	1.2%	
	없다	378	68.8%	23.8%	4.8%	2.7%	0.0%	
	무응답	5	80.0%	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67.2%	25.5%	4.1%	2.5%	0.7%	
	없다	528	65.3%	27.5%	4.6%	1.7%	1.0%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68.1%	24.5%	5.0%	1.9%	0.5%	
	결혼	476	65.1%	27.7%	4.4%	1.9%	0.8%	
	사별/별거/이혼	109	64.2%	28.4%	4.6%	0.9%	1.8%	
	무응답	9	77.8%	11.1%	0.0%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생활풍습(sk04_e)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풍습(%)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2.22% (648)	35.78% (444)	8.78% (109)	1.77% (22)	1.37% (17)	0.08% (1)
탈북연도	2010	104	56.7%	32.7%	3.9%	1.0%	5.8%	0.0%
	2011	128	44.5%	39.1%	10.2%	0.8%	5.5%	0.0%
	2012	132	56.1%	32.6%	9.1%	1.5%	0.8%	0.0%
	2013	149	55.0%	36.9%	7.4%	0.7%	0.0%	0.0%
	2014	146	48.6%	38.4%	11.6%	1.4%	0.0%	0.0%
	2015	135	51.9%	37.0%	10.4%	0.7%	0.0%	0.0%
	2016	135	60.0%	36.3%	3.0%	0.7%	0.0%	0.0%
	2017	85	55.3%	30.6%	8.2%	5.9%	0.0%	0.0%
	2018	116	45.7%	37.9%	11.2%	3.5%	0.9%	1.8%
	2019	110	6.9%	9.9%	12.7%	3.6%	1.8%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51.0%	36.9%	9.9%	2.0%	0.2%	0.0%
	여자	745	53.0%	35.0%	8.1%	1.6%	2.2%	0.1%
연령대	20대	411	52.3%	35.3%	9.7%	1.5%	1.0%	0.2%
	30대	286	53.9%	37.1%	7.0%	1.1%	1.1%	0.0%
	40대	272	46.7%	39.3%	9.2%	2.6%	2.2%	0.0%
	50대	185	58.4%	29.7%	8.7%	1.6%	1.6%	0.0%
	60대	67	58.2%	29.9%	7.5%	3.0%	1.5%	0.0%
	무응답	11	18.2%	63.6%	18.2%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47.1%	29.4%	5.9%	17.7%	0.0%	0.0%
	남포	7	71.4%	0.0%	28.6%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0.0%
	평안남도	20	40.0%	40.0%	5.0%	10.0%	5.0%	0.0%
	평안북도	19	52.6%	42.1%	5.3%	0.0%	0.0%	0.0%
	함경남도	66	54.6%	39.4%	3.0%	0.0%	3.0%	0.0%
	함경북도	432	52.6%	37.5%	7.9%	0.9%	1.2%	0.0%
	자강도	4	25.0%	25.0%	25.0%	25.0%	0.0%	0.0%
	양강도	632	52.5%	34.2%	10.0%	1.7%	1.4%	0.2%
	황해남도	10	30.0%	60.0%	0.0%	10.0%	0.0%	0.0%
	황해북도	16	37.5%	43.8%	18.8%	0.0%	0.0%	0.0%
	강원도	13	61.5%	30.8%	7.7%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50.6%	37.9%	9.3%	1.7%	0.6%	0.0%
	후보당원	6	16.7%	83.3%	0.0%	0.0%	0.0%	0.0%
	비당원	1040	0.1%	52.4%	35.4%	8.8%	1.8%	1.5%
	무응답	11	0.0%	72.7%	18.2%	9.1%	0.0%	0.0%

		생활풍습(%)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3.7%	36.5%	7.9%	1.9%			
	농민	54	57.4%	35.2%	5.6%	1.9%			
	사무원	91	57.1%	35.2%	5.5%	2.2%			
	피부양자	5	100.0%	0.0%	0.0%	0.0%			
	학생	43	44.2%	44.2%	9.3%	2.3%			
	군인	31	58.1%	32.3%	9.7%	0.0%			
	가정부인	125	51.2%	40.8%	8.0%	0.0%			
	무직 및 기타	81	56.8%	29.6%	11.1%	2.5%			
	무응답	4	0.0%	50.0%	5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4	50.0%	50.0%	0.0%	0.0%			
	0원	622	54.0%	33.6%	9.8%	1.8%	0.8%	0.0%	
	천원 이하	74	46.0%	48.7%	4.1%	1.4%	0.0%	0.0%	
	5천원 이하	374	51.6%	37.4%	8.0%	1.6%	1.3%	0.0%	
	만원 이하	20	35.0%	55.0%	5.0%	0.0%	5.0%	0.0%	
	10만원 이하	45	57.8%	24.4%	11.1%	2.2%	2.2%	2.2%	
	50만원 이하	34	47.1%	41.2%	5.9%	5.9%	0.0%	0.0%	
	100만원 이하	10	60.0%	30.0%	0.0%	0.0%	10.0%	0.0%	
	100만원 초과	4	25.0%	75.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56	51.8%	28.6%	10.7%	1.8%	7.1%	0.0%	
	0원	253	53.0%	37.9%	6.3%	2.0%	0.8%	0.0%	
	천원 이하	20	60.0%	15.0%	15.0%	10.0%	0.0%	0.0%	
	5천원 이하	19	47.4%	42.1%	0.0%	5.3%	5.3%	0.0%	
	만원 이하	12	33.3%	58.3%	0.0%	0.0%	8.3%	0.0%	
	10만원 이하	139	54.7%	33.1%	10.1%	0.0%	2.2%	0.0%	
	50만원 이하	373	51.7%	35.7%	9.7%	1.9%	0.8%	0.3%	
	100만원 이하	170	46.5%	40.6%	11.2%	1.8%	0.0%	0.0%	
	100만원 초과	193	57.0%	33.2%	7.3%	1.6%	1.0%	0.0%	
	무응답	53	0.0%	52.8%	26.4%	9.4%	1.9%	9.4%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52.0%	36.1%	9.0%	1.6%	1.3%	0.0%
		없다	378	53.2%	35.2%	8.5%	2.1%	0.8%	0.3%
		무응답	5	20.0%	20.0%	0.0%	0.0%	6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52.4%	35.5%	8.7%	1.8%	1.4%	0.1%	
	없다	528	52.3%	36.4%	8.9%	1.7%	0.8%	0.0%	
혼인 여부	무응답	3	0.0%	0.0%	0.0%	0.0%	100.0%	0.0%	
	미혼	420	51.4%	37.4%	8.3%	1.7%	1.2%		
	결혼	476	54.0%	35.3%	8.6%	1.3%	0.8%		
	사별/별거/이혼	109	60.6%	31.2%	5.5%	0.9%	1.8%		
	무응답	9	11.1%	55.6%	0.0%	0.0%	33.3%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가치관(sk04_f)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96	63.44% (505)	26.51% (211)	6.78% (54)	1.51% (12)	1.76% (14)	0.00% (0)
탈북연도	2010	104	61.5%	24.0%	4.8%	1.0%	8.7%	
	2011	128	55.5%	31.3%	9.4%	1.6%	2.3%	
	2012	132	68.2%	22.7%	6.1%	2.3%	0.8%	
	2013	149	69.8%	23.5%	6.0%	0.7%	0.0%	
	2014	145	60.0%	31.0%	7.6%	0.7%	0.7%	
	2015	135	64.4%	25.9%	6.7%	3.0%	0.0%	
	2016	3	66.7%	33.3%	0.0%	0.0%	0.0%	
	성별	남자	310	61.0%	29.4%	8.4%	0.7%	0.7%
	여자	486	65.0%	24.7%	5.8%	2.1%	2.5%	
연령대	20대	258	60.5%	28.7%	8.9%	0.4%	1.6%	
	30대	186	61.3%	28.0%	8.1%	1.6%	1.1%	
	40대	195	68.7%	21.5%	4.1%	3.6%	2.1%	
	50대	98	61.2%	28.6%	5.1%	1.0%	4.1%	
	60대	52	73.1%	23.1%	3.9%	0.0%	0.0%	
	무응답	7	42.9%	42.9%	14.3%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2	66.7%	25.0%	0.0%	8.3%	0.0%
남포		6	66.7%	16.7%	16.7%	0.0%	0.0%	
개성		0						
평안남도		16	56.3%	37.5%	0.0%	0.0%	6.3%	
평안북도		11	54.6%	27.3%	18.2%	0.0%	0.0%	
함경남도		46	67.4%	17.4%	8.7%	2.2%	4.4%	
함경북도		346	63.0%	26.3%	7.5%	1.5%	1.7%	
자강도		1	100.0%	0.0%	0.0%	0.0%	0.0%	
양강도		331	63.8%	27.8%	5.7%	1.2%	1.5%	
황해남도		5	40.0%	40.0%	20.0%	0.0%	0.0%	
황해북도		11	63.6%	27.3%	0.0%	9.1%	0.0%	
강원도		10	80.0%	10.0%	1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119	67.2%	26.9%	4.2%	0.8%	0.8%	
	후보당원	3	66.7%	33.3%	0.0%	0.0%	0.0%	
	비당원	666	62.9%	26.3%	7.2%	1.7%	2.0%	
	무응답	6	50.0%	50.0%	0.0%	0.0%	0.0%	

		가치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31	58.0%	33.6%	7.6%	0.8%	0.0%	
	농민	35	48.6%	31.4%	11.4%	5.7%	2.9%	
	사무원	67	65.7%	31.3%	3.0%	0.0%	0.0%	
	피부양자	4	100.0%	0.0%	0.0%	0.0%	0.0%	
	학생	26	73.1%	19.2%	3.9%	3.9%	0.0%	
	군인	23	60.9%	30.4%	8.7%	0.0%	0.0%	
	가정부인	86	70.9%	20.9%	5.8%	2.3%	0.0%	
	무직 및 기타	55	76.4%	16.4%	7.3%	0.0%	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공식소득	응답오류	3	66.7%	33.3%	0.0%	0.0%	0.0%	
	0원	377	66.3%	24.4%	6.1%	2.1%	1.1%	
	천원 이하	46	60.9%	26.1%	6.5%	2.2%	4.4%	
	5천원 이하	260	64.6%	28.9%	5.8%	0.4%	0.4%	
	만원 이하	18	33.3%	44.4%	16.7%	0.0%	5.6%	
	10만원 이하	27	51.9%	33.3%	11.1%	0.0%	3.7%	
	50만원 이하	14	57.1%	21.4%	14.3%	7.1%	0.0%	
	100만원 이하	6	50.0%	33.3%	0.0%	0.0%	16.7%	
100만원 초과	2	100.0%	0.0%	0.0%	0.0%	0.0%		
비공식소득	무응답	46	56.5%	21.7%	10.9%	2.2%	8.7%	
	0원	160	63.1%	26.9%	8.8%	1.3%	0.0%	
	천원 이하	15	66.7%	26.7%	0.0%	6.7%	0.0%	
	5천원 이하	12	75.0%	8.3%	0.0%	0.0%	16.7%	
	만원 이하	10	60.0%	10.0%	20.0%	10.0%	0.0%	
	10만원 이하	98	66.3%	21.4%	6.1%	2.0%	4.1%	
	50만원 이하	237	65.8%	25.7%	5.5%	2.1%	0.8%	
	100만원 이하	111	61.3%	31.5%	7.2%	0.0%	0.0%	
	100만원 초과	102	55.9%	34.3%	7.8%	1.0%	1.0%	
	무응답	45	62.2%	20.0%	6.7%	0.0%	11.1%	
장사경험	있다	568	64.8%	25.7%	6.5%	1.6%	1.4%	
	없다	223	61.0%	28.7%	7.6%	1.4%	1.4%	
	무응답	5	20.0%	20.0%	0.0%	0.0%	60.0%	
남한친척	있다	446	63.9%	25.8%	6.7%	1.8%	1.8%	
	없다	347	63.4%	27.7%	6.9%	1.2%	0.9%	
	무응답	3	0.0%	0.0%	0.0%	0.0%	100.0%	
혼인여부	미혼	323	61.3%	29.1%	7.4%	0.9%	1.2%	
	결혼	379	64.9%	25.6%	6.1%	2.4%	1.1%	
	사별/별거/이혼	86	67.4%	22.1%	8.1%	0.0%	2.3%	
	무응답	6	16.7%	16.7%	0.0%	0.0%	66.7%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가족중시(sk04_g)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36.04% (160)	36.26% (161)	21.62% (96)	5.41% (24)	0.68% (3)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43.9%	42.4%	12.9%	0.8%	0.0%	
	2017	85	34.1%	30.6%	27.1%	8.2%	0.0%	
	2018	116	31.0%	33.6%	26.7%	7.8%	0.9%	
	2019	110	32.7%	36.4%	22.7%	6.4%	1.8%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41.4%	36.0%	17.7%	4.8%	0.0%	
	여자	258	32.2%	36.4%	24.4%	5.8%	1.2%	
연령대	20대	153	37.9%	30.1%	24.8%	6.5%	0.7%	
	30대	100	40.0%	37.0%	16.0%	6.0%	1.0%	
	40대	77	35.1%	41.6%	19.5%	3.9%	0.0%	
	50대	86	29.1%	41.9%	22.1%	5.8%	1.2%	
	60대	15	46.7%	33.3%	20.0%	0.0%	0.0%	
	무응답	4	25.0%	50.0%	25.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20.0%	20.0%	0.0%	60.0%	0.0%
	남포	1	0.0%	100.0%	0.0%	0.0%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평안남도	4	0.0%	25.0%	50.0%	25.0%	0.0%	
	평안북도	8	62.5%	37.5%	0.0%	0.0%	0.0%	
	함경남도	20	25.0%	40.0%	25.0%	10.0%	0.0%	
	함경북도	86	29.1%	40.7%	20.9%	9.3%	0.0%	
	자강도	3	33.3%	66.7%	0.0%	0.0%	0.0%	
	양강도	300	39.7%	33.7%	22.7%	3.0%	1.0%	
	황해남도	5	20.0%	60.0%	20.0%	0.0%	0.0%	
	황해북도	5	0.0%	80.0%	20.0%	0.0%	0.0%	
	강원도	3	33.3%	33.3%	0.0%	33.3%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3	33.3%	42.9%	22.2%	1.6%	0.0%	
	후보당원	3	66.7%	33.3%	0.0%	0.0%	0.0%	
	비당원	373	35.9%	35.1%	22.0%	6.2%	0.8%	
	무응답	5	60.0%	40.0%	0.0%	0.0%	0.0%	

		가치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50.6%	28.9%	15.7%	4.8%	50.6%	
	농민	19	31.6%	52.6%	15.8%	0.0%	31.6%	
	사무원	24	25.0%	45.8%	20.8%	8.3%	25.0%	
	피부양자	1	0.0%	100.0%	0.0%	0.0%	0.0%	
	학생	17	35.3%	29.4%	35.3%	0.0%	35.3%	
	군인	8	62.5%	37.5%	0.0%	0.0%	62.5%	
	가정부인	38	29.0%	47.4%	18.4%	5.3%	29.0%	
	무직 및 기타	26	46.2%	34.6%	19.2%	0.0%	46.2%	
	무응답	2	0.0%	50.0%	5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원	244	37.3%	36.1%	21.7%	4.5%	0.4%	
	천원 이하	28	32.1%	42.9%	17.9%	7.1%	0.0%	
	5천원 이하	114	36.8%	36.8%	17.5%	7.9%	0.9%	
	만원 이하	2	0.0%	100.0%	0.0%	0.0%	0.0%	
	10만원 이하	18	27.8%	27.8%	33.3%	5.6%	5.6%	
	50만원 이하	20	25.0%	30.0%	40.0%	5.0%	0.0%	
	100만원 이하	4	50.0%	25.0%	25.0%	0.0%	0.0%	
	100만원 초과	2	0.0%	50.0%	50.0%	0.0%	0.0%	
	무응답	10	60.0%	30.0%	1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29.0%	43.0%	23.7%	4.3%	0.0%	
	천원 이하	5	60.0%	20.0%	0.0%	20.0%	0.0%	
	5천원 이하	7	28.6%	57.1%	14.3%	0.0%	0.0%	
	만원 이하	2	0.0%	0.0%	100.0%	0.0%	0.0%	
	10만원 이하	41	34.2%	39.0%	24.4%	2.4%	0.0%	
	50만원 이하	136	35.3%	31.6%	25.0%	6.6%	1.5%	
	100만원 이하	58	44.8%	29.3%	19.0%	6.9%	0.0%	
	100만원 초과	91	38.5%	37.4%	17.6%	5.5%	1.1%	
	무응답	8	37.5%	62.5%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39.1%	33.9%	21.1%	5.2%	0.7%	
	없다	155	30.3%	40.7%	22.6%	5.8%	0.7%	
남한 친척	있다	263	36.5%	35.4%	21.7%	5.3%	1.1%	
	없다	181	35.4%	37.6%	21.6%	5.5%	0.0%	
혼인 여부	미혼	97	37.1%	36.1%	21.7%	5.2%		
	결혼	96	39.6%	39.6%	17.7%	3.1%		
	사별/별거/이혼	23	52.2%	39.1%	8.7%	0.0%		
	무응답	3	33.3%	0.0%	0.0%	66.7%		

사회복지(sk04_h)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69.82% (310)	19.14% (85)	6.31% (28)	4.28% (19)	0.45% (2)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41.7%	38.6%	14.4%	5.3%	0.0%		
	2017	85	85.9%	5.9%	4.7%	3.5%	0.0%		
	2018	116	81.9%	11.2%	1.7%	5.2%	0.0%		
	2019	110	78.2%	14.6%	2.7%	2.7%	1.8%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67.7%	21.0%	7.5%	3.8%	0.0%		
	여자	258	71.3%	17.8%	5.4%	4.7%	0.8%		
연령대	20대	153	64.1%	22.9%	9.2%	3.9%	0.0%		
	30대	100	69.0%	20.0%	6.0%	4.0%	1.0%		
	40대	77	74.0%	15.6%	7.8%	2.6%	0.0%		
	50대	86	75.6%	14.0%	2.3%	7.0%	1.2%		
	60대	15	66.7%	33.3%	0.0%	0.0%	0.0%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평균	5	100.0%	0.0%	0.0%	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1	0.0%	0.0%	0.0%	10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4	50.0%	0.0%	0.0%	50.0%	0.0%		
	평안북도	8	100.0%	0.0%	0.0%	0.0%	0.0%		
	함경남도	20	65.0%	20.0%	15.0%	0.0%	0.0%		
	함경북도	86	66.3%	19.8%	11.6%	2.3%	0.0%		
	자강도	3	33.3%	66.7%	0.0%	0.0%	0.0%		
	양강도	300	70.7%	19.3%	4.7%	4.7%	0.7%		
	황해남도	5	60.0%	20.0%	20.0%	0.0%	0.0%		
	황해북도	5	80.0%	20.0%	0.0%	0.0%	0.0%		
	강원도	3	100.0%	0.0%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3	69.8%	20.6%	7.9%	1.6%	0.0%	
		후보당원	3	33.3%	33.3%	0.0%	33.3%	0.0%	
비당원		373	70.2%	18.8%	5.9%	4.6%	0.5%		
무응답		5	60.0%	20.0%	20.0%	0.0%	0.0%		

		사회복지(%)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56.6%	21.7%	16.9%	4.8%		
	농민	19	79.0%	21.1%	0.0%	0.0%		
	사무원	24	37.5%	41.7%	16.7%	4.2%		
	피부양자	1	100.0%	0.0%	0.0%	0.0%		
	학생	17	58.8%	17.7%	17.7%	5.9%		
	군인	8	75.0%	25.0%	0.0%	0.0%		
	가정부인	38	60.5%	36.8%	2.6%	0.0%		
	무직 및 기타	26	69.2%	19.2%	0.0%	11.5%		
	무응답	2	0.0%	0.0%	50.0%	5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원	244	72.5%	18.0%	4.1%	4.9%	0.4%	
	천원 이하	28	71.4%	28.6%	0.0%	0.0%	0.0%	
	5천원 이하	114	64.9%	20.2%	11.4%	2.6%	0.9%	
	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8	72.2%	11.1%	11.1%	5.6%	0.0%	
	50만원 이하	20	70.0%	25.0%	5.0%	0.0%	0.0%	
	100만원 이하	4	50.0%	25.0%	0.0%	25.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70.0%	0.0%	10.0%	2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71.0%	18.3%	6.5%	4.3%	0.0%	
	천원 이하	5	80.0%	0.0%	0.0%	20.0%	0.0%	
	5천원 이하	7	42.9%	57.1%	0.0%	0.0%	0.0%	
	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41	78.1%	12.2%	7.3%	2.4%	0.0%	
	50만원 이하	136	66.9%	19.1%	5.9%	7.4%	0.7%	
	100만원 이하	58	72.4%	20.7%	6.9%	0.0%	0.0%	
	100만원 초과	91	67.0%	22.0%	7.7%	2.2%	1.1%	
	무응답	8	75.0%	12.5%	0.0%	12.5%	0.0%	
	응답오류, 중복 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71.3%	18.3%	5.5%	4.2%	0.7%	
	없다	155	67.1%	20.7%	7.7%	4.5%	0.0%	
남한 친척	있다	263	71.9%	17.9%	5.3%	4.2%	0.8%	
	없다	181	66.9%	21.0%	7.7%	4.4%	0.0%	
혼인 여부	미혼	97	58.8%	23.7%	12.4%	5.2%		
	결혼	96	59.4%	26.0%	9.4%	5.2%		
	사별/별거/이혼	23	56.5%	34.8%	8.7%	0.0%		
	무응답	3	100.0%	0.0%	0.0%	0.0%		

돈 중시(sk04_i)

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중시(%)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56.98% (253)	19.59% (87)	15.77% (70)	6.98% (31)	0.68% (3)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58.3%	22.7%	12.1%	6.8%	0.0%	
	2017	85	62.4%	12.9%	17.7%	7.1%	0.0%	
	2018	116	57.8%	19.0%	15.5%	6.9%	0.9%	
	2019	110	50.0%	21.8%	19.1%	7.3%	1.8%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59.1%	17.7%	14.0%	8.6%	0.5%	
	여자	258	55.4%	20.9%	17.1%	5.8%	0.8%	
연령대	20대	153	53.6%	19.6%	16.3%	10.5%	0.0%	
	30대	100	61.0%	22.0%	9.0%	6.0%	2.0%	
	40대	77	58.4%	19.5%	16.9%	5.2%	0.0%	
	50대	86	59.3%	18.6%	15.1%	5.8%	1.2%	
	60대	15	80.0%	6.7%	13.3%	0.0%	0.0%	
	무응답	4	0.0%	75.0%	25.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40.0%	0.0%	0.0%	60.0%	0.0%
	남포	1	100.0%	0.0%	0.0%	0.0%	0.0%	
	개성	3	66.7%	0.0%	33.3%	0.0%	0.0%	
	평안남도	4	0.0%	0.0%	50.0%	50.0%	0.0%	
	평안북도	8	75.0%	25.0%	0.0%	0.0%	0.0%	
	함경남도	20	60.0%	10.0%	20.0%	10.0%	0.0%	
	함경북도	86	45.4%	24.4%	15.1%	15.1%	0.0%	
	자강도	3	33.3%	33.3%	33.3%	0.0%	0.0%	
	양강도	300	61.0%	19.7%	15.0%	3.3%	1.0%	
	황해남도	5	60.0%	0.0%	20.0%	20.0%	0.0%	
	황해북도	5	40.0%	20.0%	40.0%	0.0%	0.0%	
	강원도	3	33.3%	33.3%	33.3%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3	63.5%	15.9%	14.3%	6.4%	0.0%	
	후보당원	3	66.7%	0.0%	33.3%	0.0%	0.0%	
	비당원	373	55.8%	20.1%	16.1%	7.2%	0.8%	
	무응답	5	60.0%	40.0%	0.0%	0.0%	0.0%	

		돈 중시(%)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61.5%	14.5%	15.7%	8.4%		
	농민	19	68.4%	21.1%	10.5%	0.0%		
	사무원	24	33.3%	25.0%	20.8%	20.8%		
	피부양자	1	100.0%	0.0%	0.0%	0.0%		
	학생	17	35.3%	17.7%	41.2%	5.9%		
	군인	8	50.0%	25.0%	12.5%	12.5%		
	가정부인	38	71.1%	23.7%	5.3%	0.0%		
	무직 및 기타	26	76.9%	15.4%	7.7%	0.0%		
	무응답	2	0.0%	50.0%	0.0%	5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원	244	61.1%	17.2%	16.4%	4.9%	0.4%	
	천원 이하	28	46.4%	35.7%	14.3%	3.6%	0.0%	
	5천원 이하	114	54.4%	17.5%	13.2%	13.2%	1.8%	
	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8	50.0%	22.2%	22.2%	5.6%	0.0%	
	50만원 이하	20	45.0%	20.0%	25.0%	10.0%	0.0%	
	100만원 이하	4	25.0%	50.0%	25.0%	0.0%	0.0%	
	100만원 초과	2	100.0%	0.0%	0.0%	0.0%	0.0%	
	무응답	10	50.0%	5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48.4%	22.6%	23.7%	5.4%	0.0%	
	천원 이하	5	100.0%	0.0%	0.0%	0.0%	0.0%	
	5천원 이하	7	71.4%	14.3%	14.3%	0.0%	0.0%	
	만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10만원 이하	41	53.7%	17.1%	17.1%	12.2%	0.0%	
	50만원 이하	136	53.7%	20.6%	16.9%	7.4%	1.5%	
	100만원 이하	58	72.4%	13.8%	10.3%	3.5%	0.0%	
	100만원 초과	91	59.3%	18.7%	11.0%	9.9%	1.1%	
	무응답	8	37.5%	62.5%	0.0%	0.0%	0.0%	
	응답오류, 중복 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59.2%	18.3%	13.8%	7.6%	1.0%	
	없다	155	52.9%	21.9%	19.4%	5.8%	0.0%	
남한 친척	있다	263	60.1%	17.9%	16.0%	5.3%	0.8%	
	없다	181	52.5%	22.1%	15.5%	9.4%	0.6%	
혼인 여부	미혼	97	54.6%	17.5%	16.5%	11.3%		
	결혼	96	64.6%	18.8%	12.5%	4.2%		
	사별/별거/이혼	23	56.5%	26.1%	17.4%	0.0%		
	무응답	3	10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sk05)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무력도발(%)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25.71% (319)	27.40% (340)	27.48% (341)	19.26% (239)	0.16% (2)	0.00% (0)
탈북연도	2010	104	30.8%	29.8%	26.0%	12.5%	1.0%	
	2011	128	28.1%	25.8%	25.8%	19.5%	0.8%	
	2012	132	22.7%	23.5%	25.8%	28.0%	0.0%	
	2013	149	32.2%	31.5%	22.8%	13.4%	0.0%	
	2014	146	25.3%	23.3%	30.8%	20.6%	0.0%	
	2015	135	28.9%	27.4%	23.0%	20.7%	0.0%	
	2016	135	28.2%	25.9%	28.9%	17.0%	0.0%	
	2017	85	21.2%	36.5%	30.6%	11.8%	0.0%	
	2018	116	19.0%	25.9%	34.5%	20.7%	0.0%	
	2019	110	17.3%	27.3%	29.1%	26.4%	0.0%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24.2%	26.2%	27.6%	22.0%	0.0%	
	여자	745	26.7%	28.2%	27.4%	17.5%	0.3%	
연령대	20대	411	21.9%	30.4%	31.1%	16.3%	0.2%	
	30대	286	25.9%	26.6%	27.3%	20.3%	0.0%	
	40대	272	24.6%	25.4%	29.0%	20.6%	0.4%	
	50대	185	29.7%	28.1%	20.0%	22.2%	0.0%	
	60대	67	44.8%	17.9%	19.4%	17.9%	0.0%	
	무응답	11	18.2%	45.5%	18.2%	18.2%	0.0%	
	평양	17	29.4%	0.0%	17.7%	52.9%	0.0%	
북한 거주지	남포	7	42.9%	28.6%	28.6%	0.0%	0.0%	
	개성	3	33.3%	33.3%	0.0%	33.3%	0.0%	
	평안남도	20	40.0%	25.0%	20.0%	15.0%	0.0%	
	평안북도	19	21.1%	21.1%	26.3%	31.6%	0.0%	
	함경남도	66	25.8%	27.3%	31.8%	15.2%	0.0%	
	함경북도	432	23.6%	31.0%	25.7%	19.4%	0.2%	
	자강도	4	0.0%	25.0%	0.0%	75.0%	0.0%	
	양강도	632	25.6%	26.7%	30.1%	17.4%	0.2%	
	황해남도	10	50.0%	20.0%	10.0%	20.0%	0.0%	
	황해북도	16	37.5%	25.0%	6.3%	31.3%	0.0%	
	강원도	13	38.5%	0.0%	23.1%	38.5%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182	30.8%	23.1%	28.0%	18.1%	0.0%
후보당원		6	33.3%	16.7%	16.7%	33.3%	0.0%	
비당원		1040	24.5%	28.2%	27.6%	19.5%	0.2%	
무응답		11	45.5%	27.3%	18.2%	9.1%	0.0%	

		남한의 무력도발(%)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9.4%	29.0%	27.6%	14.0%		
	농민	54	33.3%	35.2%	25.9%	5.6%		
	사무원	91	22.0%	23.1%	29.7%	25.3%		
	피부양자	5	40.0%	40.0%	20.0%	0.0%		
	학생	43	14.0%	23.3%	27.9%	34.9%		
	군인	31	38.7%	29.0%	12.9%	19.4%		
	가정부인	125	32.0%	27.2%	26.4%	14.4%		
	무직 및 기타	81	21.0%	30.9%	32.1%	16.1%		
공식 소득	무응답	4	0.0%	50.0%	0.0%	50.0%		
	응답오류	4	50.0%	0.0%	0.0%	50.0%		
	0원	622	26.2%	28.6%	27.3%	17.7%	0.2%	
	천원 이하	74	24.3%	29.7%	25.7%	20.3%	0.0%	
	5천원 이하	374	24.3%	25.9%	27.0%	22.7%	0.0%	
	만원 이하	20	25.0%	15.0%	45.0%	15.0%	0.0%	
	10만원 이하	45	37.8%	33.3%	15.6%	13.3%	0.0%	
	50만원 이하	34	11.8%	29.4%	41.2%	17.7%	0.0%	
	100만원 이하	10	20.0%	20.0%	20.0%	30.0%	10.0%	
	100만원 초과	4	25.0%	50.0%	25.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56	30.4%	19.6%	30.4%	19.6%	0.0%	
	0원	253	24.9%	29.3%	24.1%	21.7%	0.0%	
	천원 이하	20	40.0%	25.0%	30.0%	5.0%	0.0%	
	5천원 이하	19	52.6%	15.8%	10.5%	21.1%	0.0%	
	만원 이하	12	41.7%	33.3%	16.7%	8.3%	0.0%	
	10만원 이하	139	29.5%	28.1%	26.6%	15.1%	0.7%	
	50만원 이하	373	21.5%	29.5%	30.0%	19.0%	0.0%	
	100만원 이하	170	25.3%	25.3%	31.8%	17.7%	0.0%	
	100만원 초과	193	26.4%	23.3%	26.9%	23.3%	0.0%	
	무응답	53	26.4%	28.3%	24.5%	18.9%	1.9%	
장사 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있다	858	26.3%	26.6%	27.0%	19.9%	0.1%	
	없다	378	24.6%	28.8%	28.8%	17.7%	0.0%	
남한 친척	무응답	5	0.0%	60.0%	0.0%	20.0%	20.0%	
	있다	710	27.5%	26.1%	27.3%	19.2%	0.0%	
	없다	528	23.5%	29.0%	27.8%	19.5%	0.2%	
혼인 여부	무응답	3	0.0%	66.7%	0.0%	0.0%	33.3%	
	미혼	420	26.0%	30.7%	26.0%	17.1%	0.2%	
	결혼	476	27.9%	24.6%	27.7%	19.8%	0.0%	
	사별/별거/이혼	109	30.3%	25.7%	25.7%	18.4%	0.0%	
	무응답	9	11.1%	55.6%	11.1%	11.1%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핵무기 위협(sk06)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무기 위협(%)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0	64.27% (797)	22.82% (283)	10.00% (124)	2.74% (34)	0.16% (2)	0.00% (0)
탈북 연도	2010	103	69.9%	19.4%	8.7%	1.0%	1.0%	
	2011	128	71.9%	18.0%	7.0%	2.3%	0.8%	
	2012	132	63.6%	18.9%	12.1%	5.3%	0.0%	
	2013	149	71.1%	15.4%	13.4%	0.0%	0.0%	
	2014	146	65.1%	25.3%	7.5%	2.1%	0.0%	
	2015	135	63.0%	25.9%	9.6%	1.5%	0.0%	
	2016	135	60.7%	22.2%	11.9%	5.2%	0.0%	
	2017	85	57.7%	30.6%	11.8%	0.0%	0.0%	
	2018	116	62.1%	25.0%	8.6%	4.3%	0.0%	
	2019	110	53.6%	31.8%	9.1%	5.5%	0.0%	
2020	1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67.1%	19.8%	9.3%	3.8%	0.0%	
	여자	744	62.4%	24.9%	10.5%	2.0%	0.3%	
연령대	20대	411	58.6%	29.2%	10.2%	1.7%	0.2%	
	30대	286	63.6%	21.0%	11.9%	3.5%	0.0%	
	40대	272	69.1%	18.4%	9.2%	2.9%	0.4%	
	50대	184	69.6%	16.9%	10.3%	3.3%	0.0%	
	60대	67	74.6%	14.9%	6.0%	4.5%	0.0%	
	무응답	11	45.5%	54.6%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8.8%	11.8%	17.7%	11.8%	0.0%	
	남포	7	85.7%	14.3%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65.0%	25.0%	10.0%	0.0%	0.0%	
	평안북도	19	57.9%	21.1%	15.8%	5.3%	0.0%	
	함경남도	66	74.2%	13.6%	9.1%	3.0%	0.0%	
	함경북도	431	62.4%	25.5%	10.0%	1.9%	0.2%	
	자강도	4	25.0%	50.0%	25.0%	0.0%	0.0%	
	양강도	632	64.7%	22.9%	9.5%	2.7%	0.2%	
	황해남도	10	50.0%	0.0%	20.0%	30.0%	0.0%	
	황해북도	16	62.5%	25.0%	12.5%	0.0%	0.0%	
	강원도	13	76.9%	0.0%	15.4%	7.7%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70.9%	15.9%	8.8%	4.4%	0.0%	
	후보당원	6	66.7%	33.3%	0.0%	0.0%	0.0%	
	비당원	1039	63.4%	23.8%	10.1%	2.5%	0.2%	
	무응답	11	36.4%	36.4%	27.3%	0.0%	0.0%	

		핵무기 위협(%)						
		사례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8.9%	29.0%	9.8%	2.3%		
	농민	54	72.2%	16.7%	9.3%	1.9%		
	사무원	91	63.7%	24.2%	9.9%	2.2%		
	피부양자	5	80.0%	20.0%	0.0%	0.0%		
	학생	43	69.8%	16.3%	9.3%	4.7%		
	군인	31	83.9%	12.9%	3.2%	0.0%		
	가정부인	125	63.2%	23.2%	12.8%	0.8%		
	무직 및 기타	81	59.3%	22.2%	17.3%	1.2%		
	무응답	4	100.0%	0.0%	0.0%	0.0%		
응답오류	4	10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62.2%	24.8%	10.5%	2.4%	0.2%	
	천원 이하	74	67.6%	21.6%	6.8%	4.1%	0.0%	
	5천원 이하	374	65.8%	19.8%	10.4%	4.0%	0.0%	
	만원 이하	20	85.0%	10.0%	5.0%	0.0%	0.0%	
	10만원 이하	45	66.7%	22.2%	8.9%	2.2%	0.0%	
	50만원 이하	34	64.7%	23.5%	11.8%	0.0%	0.0%	
	100만원 이하	10	40.0%	30.0%	20.0%	0.0%	1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무응답	55	65.5%	27.3%	7.3%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54.9%	31.2%	9.9%	4.0%	0.0%	
	천원 이하	20	60.0%	20.0%	20.0%	0.0%	0.0%	
	5천원 이하	19	68.4%	15.8%	10.5%	5.3%	0.0%	
	만원 이하	12	50.0%	41.7%	0.0%	8.3%	0.0%	
	10만원 이하	139	71.9%	16.6%	8.6%	2.2%	0.7%	
	50만원 이하	373	64.3%	22.3%	11.0%	2.4%	0.0%	
	100만원 이하	170	67.7%	20.0%	10.0%	2.4%	0.0%	
	100만원 초과	193	67.4%	20.7%	9.3%	2.6%	0.0%	
	무응답	52	67.3%	19.2%	9.6%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66.3%	21.0%	9.7%	2.9%	0.1%	
	없다	377	59.7%	27.1%	10.9%	2.4%	0.0%	
	무응답	5	60.0%	2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67.0%	22.0%	8.3%	2.7%	0.0%	
	없다	527	60.5%	24.1%	12.3%	2.9%	0.2%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62.1%	25.2%	10.2%	2.1%	0.2%	
	결혼	475	68.4%	20.6%	8.6%	2.3%	0.0%	
	사별/별거/이혼	109	67.0%	11.9%	18.4%	2.8%	0.0%	
	무응답	9	66.7%	22.2%	0.0%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sk07)

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지원 인식(%)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9.66% (244)	40.69% (505)	25.54% (317)	13.94% (173)	0.16% (2)	0.00% (0)
탈북연도	2010	104	21.2%	41.4%	26.0%	10.6%	1.0%	
	2011	128	23.4%	43.8%	24.2%	7.8%	0.8%	
	2012	132	23.5%	42.4%	25.8%	8.3%	0.0%	
	2013	149	22.8%	39.6%	22.2%	15.4%	0.0%	
	2014	146	23.3%	43.8%	21.9%	11.0%	0.0%	
	2015	135	20.0%	42.2%	27.4%	10.4%	0.0%	
	2016	135	23.0%	31.1%	28.9%	17.0%	0.0%	
	2017	85	16.5%	40.0%	27.1%	16.5%	0.0%	
	2018	116	6.9%	39.7%	35.3%	18.1%	0.0%	
	2019	110	10.9%	43.6%	18.2%	27.3%	0.0%	
성별	남자	496	24.6%	43.4%	22.2%	9.7%	0.2%	
	여자	745	16.4%	38.9%	27.8%	16.8%	0.1%	
연령대	20대	411	11.2%	40.2%	30.7%	18.0%	0.0%	
	30대	286	20.6%	43.7%	25.9%	9.8%	0.0%	
	40대	272	28.3%	40.1%	21.0%	9.9%	0.7%	
	50대	185	23.2%	38.4%	25.4%	13.0%	0.0%	
	60대	67	26.9%	41.8%	10.5%	20.9%	0.0%	
북한 거주지	무응답	11	9.1%	27.3%	45.5%	18.2%	0.0%	
	평양	17	17.7%	29.4%	35.3%	17.7%	0.0%	
	남포	7	42.9%	42.9%	14.3%	0.0%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평안남도	20	25.0%	60.0%	10.0%	5.0%	0.0%	
	평안북도	19	10.5%	42.1%	42.1%	5.3%	0.0%	
	함경남도	66	13.6%	40.9%	33.3%	12.1%	0.0%	
	함경북도	432	22.7%	41.4%	24.5%	10.9%	0.5%	
	자강도	4	0.0%	25.0%	25.0%	50.0%	0.0%	
	양강도	632	17.7%	39.9%	36.0%	16.5%	0.0%	
	황해남도	10	50.0%	30.0%	10.0%	10.0%	0.0%	
	황해북도	16	12.5%	37.5%	31.3%	18.8%	0.0%	
	강원도	13	23.1%	53.9%	0.0%	23.1%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182	33.5%	37.9%	21.4%	7.1%	0.0%	
	후보당원	6	16.7%	66.7%	0.0%	16.7%	0.0%	
	비당원	1040	17.1%	41.4%	26.3%	15.0%	0.2%	
	무응답	11	27.3%	0.0%	45.5%	27.3%	0.0%	

		대북지원 인식(%)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잘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2.9%	42.5%	19.6%	15.0%			
	농민	54	18.5%	35.2%	33.3%	13.0%			
	사무원	91	31.9%	35.2%	19.8%	13.2%			
	피부양자	5	0.0%	0.0%	60.0%	40.0%			
	학생	43	18.6%	37.2%	30.2%	14.0%			
	군인	31	25.8%	38.7%	22.6%	12.9%			
	가정부인	125	14.4%	44.8%	28.0%	12.8%			
	무직 및 기타	81	18.5%	33.3%	34.6%	13.6%			
	무응답	4	75.0%	25.0%	0.0%	0.0%			
공식소득	응답오류	4	0.0%	75.0%	25.0%	0.0%			
	0원	622	16.7%	40.4%	27.3%	15.6%	0.0%		
	천원 이하	74	20.3%	43.2%	20.3%	16.2%	0.0%		
	5천원 이하	374	24.6%	42.5%	23.0%	9.6%	0.3%		
	만원 이하	20	30.0%	40.0%	25.0%	5.0%	0.0%		
	10만원 이하	45	13.3%	55.6%	28.9%	2.2%	0.0%		
	50만원 이하	34	11.8%	29.4%	32.4%	26.5%	0.0%		
	100만원 이하	10	30.0%	40.0%	10.0%	10.0%	10.0%		
	100만원 초과	4	25.0%	25.0%	50.0%	0.0%	0.0%		
비공식소득	무응답	56	23.2%	25.0%	25.0%	26.8%	0.0%		
	0원	253	13.0%	41.9%	25.7%	19.4%	0.0%		
	천원 이하	20	20.0%	30.0%	25.0%	25.0%	0.0%		
	5천원 이하	19	36.8%	26.3%	5.3%	31.6%	0.0%		
	만원 이하	12	0.0%	25.0%	66.7%	8.3%	0.0%		
	10만원 이하	139	22.3%	39.6%	28.1%	10.1%	0.0%		
	50만원 이하	373	18.8%	43.7%	25.7%	11.5%	0.3%		
	100만원 이하	170	22.9%	42.4%	25.3%	9.4%	0.0%		
	100만원 초과	193	24.4%	37.3%	23.8%	14.5%	0.0%		
	무응답	53	18.9%	35.9%	26.4%	17.0%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21.7%	39.3%	25.9%	13.1%	0.1%	
		없다	378	15.3%	44.2%	24.9%	15.6%	0.0%	
무응답		5	0.0%	20.0%	20.0%	4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19.6%	39.7%	25.9%	14.7%	0.1%		
	없다	528	19.9%	42.2%	25.2%	12.7%	0.0%		
	무응답	3	0.0%	0.0%	0.0%	66.7%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17.4%	41.7%	26.4%	14.5%	0.0%		
	결혼	476	25.8%	39.3%	25.0%	9.7%	0.2%		
	사별/별거/이혼	109	23.9%	45.0%	20.2%	11.0%	0.0%		
	무응답	9	0.0%	11.1%	55.6%	22.2%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대북지원 효용성(sk08+sk11a)

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북지원 효용성(%)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51.81% (643)	21.35% (265)	18.37% (228)	4.75% (59)	3.14%(39)	0.48%(6)	0.08%(1)
탈북 연도	2010	104	49.0%	18.3%	20.2%	8.7%	1.9%	1.9%	0.0%
	2011	128	46.1%	29.7%	20.3%	1.6%	1.6%	0.8%	0.0%
	2012	132	53.0%	24.2%	21.2%	0.8%	0.8%	0.0%	0.0%
	2013	149	45.0%	27.5%	16.8%	8.1%	2.0%	0.0%	0.7%
	2014	146	59.6%	14.4%	15.8%	5.5%	4.8%	0.0%	0.0%
	2015	135	55.6%	22.2%	14.8%	5.9%	1.5%	0.0%	0.0%
	2016	135	57.8%	17.0%	17.8%	1.5%	5.2%	0.7%	0.0%
	2017	85	44.7%	20.0%	22.4%	7.1%	5.9%	0.0%	0.0%
	2018	116	44.0%	23.3%	23.3%	3.5%	6.0%	0.0%	0.0%
	2019	110	60.0%	15.5%	13.6%	6.4%	2.7%	1.8%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43.6%	22.6%	24.4%	5.2%	3.8%	0.2%	0.2%
	여자	745	57.3%	20.5%	14.4%	4.4%	2.7%	0.7%	0.0%
연령대	20대	411	49.2%	27.0%	18.3%	3.2%	2.2%	0.2%	0.0%
	30대	286	45.8%	21.7%	22.7%	5.9%	2.8%	0.7%	0.4%
	40대	272	58.5%	15.8%	15.1%	4.4%	5.5%	0.7%	0.0%
	50대	185	55.7%	16.8%	17.3%	6.5%	3.2%	0.5%	0.0%
	60대	67	62.7%	19.4%	10.5%	6.0%	1.5%	0.0%	0.0%
	무응답	11	36.4%	27.3%	27.3%	9.1%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47.1%	5.9%	35.3%	5.9%	5.9%	0.0%	0.0%
	남포	7	57.1%	28.6%	14.3%	0.0%	0.0%	0.0%	0.0%
	개성	3	0.0%	33.3%	66.7%	0.0%	0.0%	0.0%	0.0%
	평안남도	20	30.0%	15.0%	30.0%	15.0%	10.0%	0.0%	0.0%
	평안북도	19	52.6%	5.3%	31.6%	5.3%	5.3%	0.0%	0.0%
	함경남도	66	53.0%	18.2%	19.7%	7.6%	1.5%	0.0%	0.0%
	함경북도	432	55.3%	20.6%	15.7%	5.1%	2.6%	0.7%	0.0%
	자강도	4	50.0%	25.0%	0.0%	25.0%	0.0%	0.0%	0.0%
	양강도	632	50.5%	23.9%	17.9%	4.1%	3.0%	0.5%	0.2%
	황해남도	10	40.0%	10.0%	30.0%	0.0%	20.0%	0.0%	0.0%
	황해북도	16	43.8%	12.5%	37.5%	0.0%	6.3%	0.0%	0.0%
	강원도	13	61.5%	7.7%	23.1%	0.0%	7.7%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47.8%	22.0%	19.8%	5.5%	5.0%	0.0%	0.0%
	후보당원	6	50.0%	0.0%	16.7%	16.7%	16.7%	0.0%	0.0%
	비당원	1040	52.7%	21.3%	18.0%	4.6%	2.8%	0.6%	0.1%
	무응답	11	36.4%	27.3%	36.4%	0.0%	0.0%	0.0%	0.0%

		대북지원 효용성(%)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4.2%	18.2%	15.9%	6.1%	5.6%	0.0%	0.0%
	농민	54	46.3%	20.4%	24.1%	5.6%	3.7%	0.0%	0.0%
	사무원	91	50.6%	24.2%	17.6%	5.5%	2.2%	0.0%	0.0%
	피부양자	5	60.0%	0.0%	0.0%	20.0%	20.0%	0.0%	0.0%
	학생	43	39.5%	25.6%	30.2%	4.7%	0.0%	0.0%	0.0%
	군인	31	51.6%	29.0%	16.1%	3.2%	0.0%	0.0%	0.0%
	가정부인	125	58.4%	19.2%	12.0%	4.8%	4.8%	0.8%	0.0%
	무직 및 기타	81	56.8%	18.5%	18.5%	4.9%	1.2%	0.0%	0.0%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4	50.0%	0.0%	0.0%	25.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52.9%	20.6%	16.2%	5.5%	4.2%	0.5%	0.2%
	천원 이하	74	54.1%	21.6%	18.9%	4.1%	1.4%	0.0%	0.0%
	5천원 이하	374	50.8%	20.9%	21.9%	3.5%	2.4%	0.5%	0.0%
	만원 이하	20	60.0%	15.0%	15.0%	5.0%	5.0%	0.0%	0.0%
	10만원 이하	45	37.8%	33.3%	24.4%	4.4%	0.0%	0.0%	0.0%
	50만원 이하	34	52.9%	29.4%	14.7%	0.0%	2.9%	0.0%	0.0%
	100만원 이하	10	60.0%	20.0%	10.0%	0.0%	0.0%	10.0%	0.0%
	100만원 초과	4	25.0%	50.0%	25.0%	0.0%	0.0%	0.0%	0.0%
	무응답	56	50.0%	19.6%	17.9%	10.7%	1.8%	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52.6%	24.1%	17.0%	4.7%	1.2%	0.4%	0.0%
	천원 이하	20	55.0%	15.0%	20.0%	5.0%	5.0%	0.0%	0.0%
	5천원 이하	19	73.7%	15.8%	5.3%	0.0%	5.3%	0.0%	0.0%
	만원 이하	12	25.0%	50.0%	25.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54.7%	20.1%	18.7%	4.3%	1.4%	0.7%	0.0%
	50만원 이하	373	52.6%	18.5%	21.2%	3.8%	3.8%	0.3%	0.0%
	100만원 이하	170	49.4%	22.9%	14.7%	6.5%	5.9%	0.0%	0.6%
	100만원 초과	193	50.3%	19.7%	20.2%	4.7%	4.2%	1.0%	0.0%
	무응답	53	45.3%	28.3%	13.2%	11.3%	0.0%	1.9%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0%	0.0%
정사 경험	있다	858	52.9%	20.1%	18.2%	5.0%	3.2%	0.6%	0.1%
	없다	378	49.2%	24.6%	19.1%	4.0%	3.2%	0.0%	0.0%
	무응답	5	60.0%	0.0%	0.0%	20.0%	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55.4%	17.9%	16.9%	5.9%	3.2%	0.6%	0.1%
	없다	528	47.0%	26.1%	20.5%	3.2%	3.0%	0.2%	0.0%
	무응답	3	66.7%	0.0%	0.0%	0.0%	0.0%	33.3%	0.0%
혼인 여부	미혼	420	47.9%	24.1%	20.5%	4.8%	2.4%	0.5%	0.0%
	결혼	476	52.1%	21.6%	18.5%	4.4%	2.9%	0.2%	0.2%
	사별/별거/이혼	109	65.1%	14.7%	10.1%	5.5%	4.6%	0.0%	0.0%
	무응답	9	66.7%	11.1%	11.1%	0.0%	0.0%	11.1%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sk09)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지원 규모(%)							
		사례수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유류, 중복응답
전체		1241	37.39% (464)	24.01% (298)	5.24% (65)	6.12% (76)	24.74% (307)	2.34% (29)	0.16% (2)
탈북연도	2010	104	44.2%	24.0%	5.8%	7.7%	11.5%	6.7%	0.0%
	2011	128	37.5%	24.2%	5.5%	10.2%	18.8%	3.9%	0.0%
	2012	132	34.1%	21.2%	7.6%	7.6%	25.8%	3.8%	0.0%
	2013	149	45.0%	21.5%	3.4%	7.4%	20.8%	2.0%	0.0%
	2014	146	37.7%	23.3%	4.8%	3.4%	28.1%	1.4%	1.4%
	2015	135	40.7%	22.2%	4.4%	6.7%	25.2%	0.7%	0.0%
	2016	135	32.6%	23.7%	3.0%	3.0%	36.3%	1.5%	0.0%
	2017	85	30.6%	32.9%	3.5%	2.4%	29.4%	1.2%	0.0%
	2018	116	35.3%	20.7%	5.2%	7.8%	28.5%	2.6%	0.0%
	2019	110	32.7%	30.9%	10.0%	4.6%	21.8%	0.0%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3.5%	23.2%	5.7%	6.1%	28.6%	2.8%	0.2%
	여자	745	40.0%	24.6%	5.0%	6.2%	22.2%	2.0%	0.1%
연령대	20대	411	39.4%	32.6%	5.8%	4.4%	14.1%	3.7%	0.0%
	30대	286	37.1%	25.2%	5.2%	7.0%	24.1%	0.7%	0.7%
	40대	272	34.6%	18.0%	3.7%	5.2%	36.4%	2.2%	0.0%
	50대	185	36.2%	15.7%	4.9%	8.7%	32.4%	2.2%	0.0%
	60대	67	44.8%	14.9%	4.5%	10.5%	22.4%	3.0%	0.0%
	무응답	11	45.5%	0.0%	18.2%	9.1%	27.3%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47.1%	23.5%	5.9%	5.9%	17.7%	0.0%	0.0%
	남포	7	42.9%	57.1%	0.0%	0.0%	0.0%	0.0%	0.0%
	개성	3	0.0%	33.3%	33.3%	0.0%	33.3%	0.0%	0.0%
	평안남도	20	25.0%	25.0%	10.0%	15.0%	20.0%	5.0%	0.0%
	평안북도	19	26.3%	15.8%	5.3%	0.0%	47.4%	0.0%	5.3%
	함경남도	66	36.4%	31.8%	4.6%	10.6%	13.6%	3.0%	0.0%
	함경북도	432	38.0%	23.6%	6.5%	6.0%	23.6%	2.3%	0.0%
	자강도	4	25.0%	25.0%	0.0%	25.0%	25.0%	0.0%	0.0%
	양강도	632	38.1%	24.1%	4.6%	5.9%	25.0%	2.2%	0.2%
	황해남도	10	20.0%	20.0%	0.0%	0.0%	60.0%	0.0%	0.0%
	황해북도	16	25.0%	12.5%	0.0%	0.0%	56.3%	6.3%	0.0%
	강원도	13	46.2%	7.7%	0.0%	7.7%	30.8%	7.7%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유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36.3%	18.7%	5.0%	5.5%	31.9%	2.2%	0.6%
	후보당원	6	16.7%	0.0%	16.7%	0.0%	50.0%	16.7%	0.0%
	비당원	1040	37.6%	25.0%	5.2%	6.3%	23.6%	2.3%	0.1%
	무응답	11	45.5%	36.4%	0.0%	9.1%	9.1%	0.0%	0.0%

		대북지원 규모(%)							
		사례수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유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34.6%	22.4%	5.1%	7.5%	27.1%	2.8%	0.5%
	농민	54	38.9%	33.3%	0.0%	5.6%	20.4%	1.9%	0.0%
	사무원	91	35.2%	15.4%	6.6%	5.5%	35.2%	1.1%	1.1%
	피부양자	5	20.0%	0.0%	20.0%	0.0%	60.0%	0.0%	0.0%
	학생	43	30.2%	41.9%	9.3%	0.0%	18.6%	0.0%	0.0%
	군인	31	41.9%	35.5%	3.2%	3.2%	16.1%	0.0%	0.0%
	가정부인	125	45.6%	21.6%	0.0%	3.2%	28.8%	0.8%	0.0%
	무직 및 기타	81	40.7%	24.7%	1.2%	1.2%	32.1%	0.0%	0.0%
	무응답	4	50.0%	0.0%	25.0%	25.0%	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유류	4	50.0%	25.0%	0.0%	0.0%	25.0%	0.0%	0.0%
	0원	622	38.1%	25.1%	4.0%	6.4%	23.5%	2.7%	0.2%
	천원 이하	74	33.8%	26.5%	8.1%	2.7%	14.9%	4.1%	0.0%
	5천원 이하	374	37.2%	18.7%	6.2%	6.2%	30.2%	1.3%	0.3%
	만원 이하	20	45.0%	15.0%	0.0%	0.0%	40.0%	0.0%	0.0%
	10만원 이하	45	35.6%	31.1%	4.4%	8.9%	17.8%	2.2%	0.0%
	50만원 이하	34	29.4%	26.5%	2.9%	8.8%	29.4%	2.9%	0.0%
	100만원 이하	10	30.0%	50.0%	0.0%	10.0%	10.0%	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0.0%	0.0%
	무응답	56	37.5%	21.4%	14.3%	5.4%	17.9%	3.6%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40.3%	30.8%	4.4%	3.6%	17.4%	3.6%	0.0%
	천원 이하	20	40.0%	20.0%	0.0%	5.0%	35.0%	0.0%	0.0%
	5천원 이하	19	31.6%	21.1%	10.5%	15.8%	21.1%	0.0%	0.0%
	만원 이하	12	16.7%	41.7%	8.3%	0.0%	33.3%	0.0%	0.0%
	10만원 이하	139	39.6%	18.7%	5.0%	10.1%	24.5%	2.2%	0.0%
	50만원 이하	373	36.7%	25.2%	4.8%	6.4%	25.2%	1.6%	0.0%
	100만원 이하	170	33.5%	25.9%	5.3%	4.7%	27.1%	2.9%	0.6%
	100만원 초과	193	37.8%	17.6%	3.6%	6.7%	32.1%	1.6%	0.5%
	무응답	53	39.6%	15.1%	13.2%	7.6%	20.8%	0.0%	3.8%
	응답유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7.2%	22.5%	4.8%	7.3%	25.9%	2.1%	0.2%
	없다	378	37.6%	27.5%	6.4%	3.4%	22.5%	2.7%	0.0%
	무응답	5	60.0%	20.0%	0.0%	0.0%	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39.2%	24.4%	5.1%	5.2%	23.5%	2.7%	0.0%
	없다	528	35.0%	23.5%	5.5%	7.4%	26.5%	1.7%	0.4%
	무응답	3	33.3%	33.3%	0.0%	0.0%	0.0%	33.3%	0.0%
혼인 여부	미혼	420	35.7%	31.9%	4.8%	6.4%	17.9%	3.3%	0.0%
	결혼	476	39.5%	17.9%	5.7%	6.3%	28.8%	1.5%	0.4%
	사별/별거/이혼	109	39.5%	18.4%	0.9%	4.6%	33.0%	3.7%	0.0%
	무응답	9	55.6%	22.2%	0.0%	0.0%	11.1%	11.1%	0.0%
	응답유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sk10+sk11b)

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전체		1241	59.23% (227)	18.29% (227)	14.75% (183)	3.87% (48)	3.55% (44)	0.32% (4)	0.00% (0)
탈북연도	2010	104	63.5%	16.4%	14.4%	2.9%	1.9%	1.0%	
	2011	128	68.8%	19.5%	8.6%	3.1%	0.0%	0.0%	
	2012	132	73.5%	12.1%	11.4%	3.0%	0.0%	0.0%	
	2013	149	68.5%	16.8%	9.4%	2.7%	2.7%	0.0%	
	2014	146	55.5%	19.2%	14.4%	5.5%	5.5%	0.0%	
	2015	135	47.4%	28.2%	15.6%	4.4%	4.4%	0.0%	
	2016	135	55.6%	15.6%	19.3%	3.7%	5.2%	0.7%	
	2017	85	48.2%	17.7%	23.5%	4.7%	5.9%	0.0%	
	2018	116	46.6%	19.8%	23.3%	3.5%	6.9%	0.0%	
	2019	110	60.0%	17.3%	11.8%	5.5%	3.6%	1.8%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56.5%	17.1%	17.3%	3.6%	5.2%	0.2%	
	여자	745	61.1%	19.1%	13.0%	4.0%	2.4%	0.4%	
연령대	20대	411	57.4%	21.7%	15.8%	3.9%	1.2%	0.0%	
	30대	286	55.6%	16.8%	17.8%	5.2%	3.9%	0.7%	
	40대	272	64.7%	13.6%	12.5%	3.7%	5.5%	0.0%	
	50대	185	57.8%	18.4%	15.1%	2.7%	5.4%	0.5%	
	60대	67	73.1%	16.4%	3.0%	1.5%	4.5%	1.5%	
	무응답	11	54.6%	18.2%	18.2%	9.1%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8.8%	11.8%	23.5%	0.0%	5.9%	0.0%	
	남포	7	57.1%	28.6%	14.3%	0.0%	0.0%	0.0%	
	개성	3	0.0%	33.3%	33.3%	33.3%	0.0%	0.0%	
	평안남도	20	35.0%	35.0%	20.0%	5.0%	5.0%	0.0%	
	평안북도	19	57.9%	15.8%	21.1%	0.0%	5.3%	0.0%	
	함경남도	66	66.7%	15.2%	15.2%	1.5%	1.5%	0.0%	
	함경북도	432	61.1%	17.1%	13.4%	4.9%	3.0%	0.5%	
	자강도	4	25.0%	0.0%	50.0%	0.0%	25.0%	0.0%	
	양강도	632	59.0%	19.5%	14.1%	3.8%	3.3%	0.3%	
	황해남도	10	60.0%	0.0%	30.0%	0.0%	10.0%	0.0%	
	황해북도	16	43.8%	18.8%	25.0%	0.0%	12.5%	0.0%	
	강원도	13	61.5%	7.7%	23.1%	0.0%	7.7%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57.1%	19.2%	11.5%	3.3%	8.2%	0.6%	
	후보당원	6	50.0%	0.0%	0.0%	33.3%	16.7%	0.0%	
	비당원	1040	59.5%	18.3%	15.4%	3.9%	2.7%	0.3%	
	무응답	11	72.7%	18.2%	9.1%	0.0%	0.0%	0.0%	

		대북경제 투자 효용성(%)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55.1%	16.8%	17.3%	4.2%	6.5%	0.0%	
	농민	54	48.2%	18.5%	24.1%	3.7%	5.6%	0.0%	
	사무원	91	57.1%	23.1%	13.2%	2.2%	4.4%	0.0%	
	피부양자	5	40.0%	20.0%	0.0%	20.0%	20.0%	0.0%	
	학생	43	53.5%	27.9%	14.0%	4.7%	0.0%	0.0%	
	군인	31	64.5%	29.0%	6.5%	0.0%	0.0%	0.0%	
	가정부인	125	59.2%	17.6%	14.4%	4.0%	4.0%	0.8%	
	무직 및 기타	81	54.3%	18.5%	16.1%	7.4%	3.7%	0.0%	
	무응답	4	75.0%	0.0%	25.0%	0.0%	0.0%	0.0%	
응답오류	4	75.0%	25.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56.8%	18.8%	14.6%	5.0%	4.5%	0.3%	
	천원 이하	74	60.8%	18.9%	10.8%	4.1%	4.1%	1.4%	
	5천원 이하	374	63.1%	17.1%	15.2%	1.9%	2.4%	0.3%	
	만원 이하	20	55.0%	20.0%	10.0%	5.0%	10.0%	0.0%	
	10만원 이하	45	44.4%	22.2%	28.9%	4.4%	0.0%	0.0%	
	50만원 이하	34	64.7%	20.6%	8.8%	2.9%	2.9%	0.0%	
	100만원 이하	10	80.0%	10.0%	0.0%	0.0%	10.0%	0.0%	
	100만원 초과	4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56	60.7%	17.9%	16.1%	5.4%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61.7%	19.8%	12.3%	4.7%	1.6%	0.0%	
	천원 이하	20	70.0%	15.0%	10.0%	5.0%	0.0%	0.0%	
	5천원 이하	19	63.2%	21.1%	10.5%	0.0%	5.3%	0.0%	
	만원 이하	12	58.3%	25.0%	16.7%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61.9%	15.8%	15.8%	2.9%	2.9%	0.7%	
	50만원 이하	373	59.5%	17.2%	14.8%	4.8%	3.5%	0.3%	
	100만원 이하	170	58.2%	19.4%	14.7%	2.4%	5.3%	0.0%	
	100만원 초과	193	51.8%	20.7%	17.6%	3.1%	5.7%	1.0%	
	무응답	53	60.4%	15.1%	15.1%	5.7%	3.8%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59.9%	18.1%	14.2%	3.7%	3.6%	0.5%	
	없다	378	57.7%	19.1%	15.9%	4.2%	3.2%	0.0%	
	무응답	5	60.0%	0.0%	20.0%	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60.0%	18.7%	12.7%	4.7%	3.4%	0.6%	
	없다	528	58.0%	17.8%	17.6%	2.8%	3.8%	0.0%	
	무응답	3	100.0%	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56.4%	21.2%	16.2%	4.3%	1.7%	0.2%	
	결혼	476	61.3%	17.7%	13.0%	3.4%	4.4%	0.2%	
	사별/별거/이혼	109	69.7%	11.0%	11.9%	3.7%	3.7%	0.0%	
	무응답	9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개성공업지구(sk11c)

문)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업지구(%)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전체		728	59.07% (430)	21.84% (159)	13.32% (97)	2.75% (20)	2.75% (20)	0.27% (2)	0.00% (0)
탈북연도	2014	146	63.7%	15.1%	15.1%	3.4%	2.7%	0.0%	
	2015	135	63.0%	22.2%	9.6%	1.5%	3.7%	0.0%	
	2016	135	55.6%	23.7%	14.1%	3.7%	2.2%	0.7%	
	2017	85	54.1%	27.1%	12.9%	1.2%	4.7%	0.0%	
	2018	116	51.7%	25.0%	18.1%	3.5%	1.7%	0.0%	
	2019	110	63.6%	20.9%	10.0%	2.7%	1.8%	0.9%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296	50.3%	23.7%	17.2%	4.4%	4.4%	0.0%	
	여자	432	65.1%	20.6%	10.7%	1.6%	1.6%	0.5%	
연령대	20대	249	61.9%	23.3%	12.1%	1.6%	1.2%	0.0%	
	30대	177	58.8%	18.1%	15.8%	5.1%	1.7%	0.6%	
	40대	148	55.4%	23.7%	13.5%	2.0%	5.4%	0.0%	
	50대	118	59.3%	21.2%	11.9%	2.5%	4.2%	0.9%	
	60대	22	68.2%	18.2%	9.1%	0.0%	4.6%	0.0%	
	무응답	5	40.0%	0.0%	40.0%	2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3	61.5%	7.7%	23.1%	0.0%	7.7%	0.0%	
	남포	4	75.0%	25.0%	0.0%	0.0%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0.0%	
	평안남도	9	22.2%	44.4%	22.2%	0.0%	11.1%	0.0%	
	평안북도	12	75.0%	8.3%	8.3%	8.3%	0.0%	0.0%	
	함경남도	29	69.0%	20.7%	10.3%	0.0%	0.0%	0.0%	
	함경북도	208	62.0%	21.6%	9.6%	2.4%	3.9%	0.5%	
	자강도	3	66.7%	0.0%	33.3%	0.0%	0.0%	0.0%	
	양강도	423	56.7%	23.2%	14.2%	3.3%	2.4%	0.2%	
	황해남도	6	66.7%	16.7%	16.7%	0.0%	0.0%	0.0%	
	황해북도	9	55.6%	0.0%	44.4%	0.0%	0.0%	0.0%	
	강원도	8	75.0%	0.0%	25.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15	59.1%	18.3%	12.2%	6.1%	4.4%	0.0%
후보당원		4	75.0%	0.0%	0.0%	25.0%	0.0%	0.0%	
비당원		603	58.9%	22.9%	13.4%	2.0%	2.5%	0.3%	
무응답		6	66.7%	0.0%	33.3%	0.0%	0.0%	0.0%	

		개성공업지구(%)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직업	노동자	166	63.3%	18.7%	13.3%	1.8%	3.0%	0.0%	
	농민	41	36.6%	31.7%	22.0%	2.4%	7.3%	0.0%	
	사무원	70	48.6%	22.9%	21.4%	1.4%	5.7%	0.0%	
	피부양자	2	50.0%	50.0%	0.0%	0.0%	0.0%	0.0%	
	학생	32	59.4%	21.9%	15.6%	3.1%	0.0%	0.0%	
	군인	24	75.0%	16.7%	4.2%	4.2%	0.0%	0.0%	
	가정부인	100	69.0%	18.0%	6.0%	3.0%	3.0%	1.0%	
	무직 및 기타	63	57.1%	27.0%	11.1%	3.2%	1.6%	0.0%	
	무응답	4	75.0%	0.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404	59.7%	22.8%	11.6%	2.7%	2.7%	0.5%	
	천원 이하	42	64.3%	26.2%	4.8%	2.4%	2.4%	0.0%	
	5천원 이하	203	55.7%	19.2%	18.7%	3.0%	3.5%	0.0%	
	만원 이하	7	57.1%	14.3%	0.0%	14.3%	14.3%	0.0%	
	10만원 이하	27	51.9%	22.2%	25.9%	0.0%	0.0%	0.0%	
	50만원 이하	23	65.2%	26.1%	8.7%	0.0%	0.0%	0.0%	
	100만원 이하	7	85.7%	0.0%	14.3%	0.0%	0.0%	0.0%	
	100만원 초과	3	33.3%	66.7%	0.0%	0.0%	0.0%	0.0%	
	무응답	10	70.0%	20.0%	0.0%	1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149	60.4%	23.5%	13.4%	2.0%	0.7%	0.0%	
	천원 이하	7	71.4%	14.3%	14.3%	0.0%	0.0%	0.0%	
	5천원 이하	8	75.0%	0.0%	12.5%	0.0%	12.5%	0.0%	
	만원 이하	3	33.3%	33.3%	33.3%	0.0%	0.0%	0.0%	
	10만원 이하	61	52.5%	21.3%	21.3%	0.0%	4.9%	0.0%	
	50만원 이하	216	58.8%	23.6%	10.2%	4.2%	3.2%	0.0%	
	100만원 이하	127	61.4%	20.5%	12.6%	3.2%	2.4%	0.0%	
	100만원 초과	146	58.2%	19.9%	15.1%	2.1%	3.4%	1.4%	
	무응답	8	50.0%	25.0%	12.5%	12.5%	0.0%	0.0%	
장사 경험	있다	496	61.5%	21.2%	11.9%	2.6%	2.4%	0.4%	
	없다	232	53.9%	23.3%	16.4%	3.0%	3.5%	0.0%	
남한 친척	있다	432	61.8%	21.1%	10.9%	2.8%	3.0%	0.5%	
	없다	296	55.1%	23.0%	16.9%	2.7%	2.4%	0.0%	
혼인 여부	미혼	212	62.3%	20.3%	15.6%	0.0%	1.9%	0.0%	
	결혼	223	52.9%	25.1%	12.6%	5.4%	3.6%	0.5%	
	사별/별거/이혼	64	75.0%	10.9%	6.3%	1.6%	6.3%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nk01)

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체사상 자부심(%)						
		사례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36.02% (447)	23.45% (291)	31.02% (385)	9.35% (116)	0.16% (2)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38.5%	20.2%	33.7%	5.8%	1.9%	
	2011	128	40.6%	23.4%	25.0%	10.9%	0.0%	
	2012	132	24.2%	28.0%	38.6%	9.1%	0.0%	
	2013	149	36.9%	20.1%	32.2%	10.7%	0.0%	
	2014	146	29.5%	23.3%	36.3%	11.0%	0.0%	
	2015	135	44.4%	19.3%	25.9%	10.4%	0.0%	
	2016	135	37.0%	27.4%	28.9%	6.7%	0.0%	
	2017	85	42.4%	27.1%	21.2%	9.4%	0.0%	
	2018	116	34.5%	26.7%	29.3%	9.5%	0.0%	
	2019	110	35.5%	19.1%	36.4%	9.1%	0.0%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5.1%	27.2%	27.0%	10.3%	0.4%	
	여자	745	36.6%	20.9%	33.7%	8.7%	0.0%	
연령대	20대	411	36.3%	25.6%	32.1%	5.8%	0.2%	
	30대	286	35.3%	25.2%	30.8%	8.7%	0.0%	
	40대	272	38.6%	20.2%	30.5%	10.7%	0.0%	
	50대	185	35.7%	20.5%	32.4%	11.4%	0.0%	
	60대	67	31.3%	20.9%	23.9%	22.4%	1.5%	
	무응답	11	36.4%	18.2%	27.3%	18.2%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47.1%	29.4%	5.9%	17.7%	0.0%	
	남포	7	57.1%	14.3%	28.6%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20	35.0%	25.0%	35.0%	5.0%	0.0%	
	평안북도	19	21.1%	26.3%	36.8%	15.8%	0.0%	
	함경남도	66	50.0%	22.7%	18.2%	9.1%	0.0%	
	함경북도	432	35.0%	20.4%	33.8%	10.4%	0.5%	
	자강도	4	25.0%	25.0%	25.0%	25.0%	0.0%	
	양강도	632	35.1%	26.0%	30.7%	8.2%	0.0%	
	황해남도	10	30.0%	10.0%	30.0%	30.0%	0.0%	
	황해북도	16	37.5%	12.5%	50.0%	0.0%	0.0%	
	강원도	13	53.9%	15.4%	23.1%	7.7%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40.7%	21.4%	26.4%	11.0%	0.6%
후보당원		6	50.0%	33.3%	16.7%	0.0%	0.0%	
비당원		1040	35.1%	23.9%	31.7%	9.1%	0.1%	
무응답		11	45.5%	9.1%	36.4%	9.1%	0.0%	

		주체사상 자부심(%)						
		사례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33.2%	25.7%	34.6%	6.5%		
	농민	54	40.7%	16.7%	33.3%	9.3%		
	사무원	91	35.2%	23.1%	24.2%	17.6%		
	피부양자	5	80.0%	0.0%	20.0%	0.0%		
	학생	43	27.9%	37.2%	23.3%	11.6%		
	군인	31	64.5%	19.4%	9.7%	6.5%		
	가정부인	125	42.4%	20.8%	28.8%	8.0%		
	무직 및 기타	81	33.3%	21.0%	33.3%	12.4%		
	무응답	4	50.0%	0.0%	50.0%	0.0%		
	응답오류	4	50.0%	25.0%	0.0%	25.0%		
공식 소득	0원	622	34.9%	25.2%	30.2%	9.5%	0.2%	
	천원 이하	74	36.5%	24.3%	32.4%	5.4%	1.4%	
	5천원 이하	374	34.5%	23.0%	31.6%	11.0%	0.0%	
	만원 이하	20	35.0%	5.0%	45.0%	15.0%	0.0%	
	10만원 이하	45	51.1%	15.6%	28.9%	4.4%	0.0%	
	50만원 이하	34	38.2%	23.5%	32.4%	5.9%	0.0%	
	100만원 이하	10	30.0%	40.0%	20.0%	10.0%	0.0%	
	100만원 초과	4	50.0%	25.0%	25.0%	0.0%	0.0%	
	무응답	56	46.4%	16.1%	30.4%	7.1%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35.6%	24.1%	30.8%	9.1%	0.4%
천원 이하		20	45.0%	10.0%	40.0%	5.0%	0.0%	
5천원 이하		19	57.9%	10.5%	31.6%	0.0%	0.0%	
만원 이하		12	50.0%	16.7%	16.7%	16.7%	0.0%	
10만원 이하		139	36.0%	19.4%	31.7%	12.2%	0.7%	
50만원 이하		373	35.9%	22.5%	35.1%	6.4%	0.0%	
100만원 이하		170	33.5%	27.7%	30.0%	8.8%	0.0%	
100만원 초과		193	33.7%	26.4%	25.4%	14.5%	0.0%	
무응답		53	39.6%	22.6%	26.4%	11.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4.6%	22.8%	32.1%	10.3%	0.2%	
	없다	378	38.9%	24.9%	28.8%	7.4%	0.0%	
	무응답	5	60.0%	20.0%	2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33.4%	24.7%	33.8%	8.0%	0.1%	
	없다	528	39.4%	22.0%	27.3%	11.2%	0.2%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37.4%	22.9%	31.2%	8.1%	0.5%	
	결혼	476	34.0%	26.3%	31.1%	8.6%	0.0%	
	사별/별거/이혼	109	40.4%	15.6%	26.6%	17.4%	0.0%	
	무응답	9	55.6%	11.1%	3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김정일, 김정은 지지도(nk02)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2011~2012) / 김정은 국무위원장(2013~)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지지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전체		1241	10.15% (126)	7.25% (90)	12.09% (150)	6.04% (75)	18.29% (227)	9.91% (123)	7.33% (91)	11.44% (142)	17.08% (212)	0.40% (5)	0.00% (0)	
연령대	2010	104	12.5%	7.25%	12.09%	6.04%	18.29%	9.91%	7.33%	11.44%	17.08%	0.40%	0.00%	
	2011	128	9.4%	4.7%	10.9%	4.7%	15.6%	11.7%	9.4%	11.7%	21.1%	0.8%		
	2012	132	10.6%	6.8%	16.7%	4.6%	21.2%	8.3%	2.3%	15.9%	13.6%	0.0%		
	2013	149	8.1%	7.4%	10.7%	8.7%	18.8%	8.7%	8.1%	10.7%	18.1%	0.7%		
	2014	146	13.7%	12.3%	11.6%	3.4%	21.9%	12.3%	4.1%	7.5%	12.3%	0.7%		
	2015	135	10.4%	8.2%	14.1%	5.2%	17.0%	9.6%	9.6%	8.9%	17.0%	0.0%		
	2016	135	8.9%	3.7%	14.8%	8.2%	15.6%	11.1%	9.6%	11.1%	16.3%	0.7%		
	2017	85	14.1%	0.0%	9.4%	3.5%	15.3%	9.4%	10.6%	15.3%	22.4%	0.0%		
	2018	116	5.2%	4.3%	10.3%	7.8%	20.7%	9.5%	9.5%	12.9%	19.8%	0.0%		
	2019	110	10.0%	9.1%	10.0%	8.2%	15.5%	10.0%	3.6%	10.0%	23.6%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11.5%	6.7%	11.1%	7.1%	14.3%	11.5%	7.5%	11.7%	17.9%	0.8%		
	여자	745	9.3%	7.7%	12.8%	5.4%	20.9%	8.9%	7.3%	11.3%	16.5%	0.1%		
연령대	20대	411	8.5%	6.3%	9.5%	4.4%	18.0%	11.2%	9.5%	12.2%	20.2%	0.2%		
	30대	286	8.7%	7.7%	9.1%	5.2%	16.1%	9.8%	9.8%	16.1%	17.1%	0.4%		
	40대	272	11.0%	8.1%	15.8%	8.5%	18.8%	10.7%	4.0%	8.1%	14.7%	0.4%		
	50대	185	13.5%	6.0%	14.1%	8.7%	20.5%	8.1%	5.4%	8.7%	14.6%	0.5%		
	60대	67	16.4%	10.5%	19.4%	1.5%	25.4%	2.9%	1.5%	10.5%	10.5%	1.5%		
북한 거주지	무응답	11	0.0%	18.2%	18.2%	0.0%	9.1%	9.1%	9.1%	9.1%	27.3%	0.0%		
	평양	17	5.9%	11.8%	11.8%	11.8%	11.8%	0.0%	11.8%	17.7%	11.8%	5.9%		
	남포	7	14.3%	0.0%	0.0%	0.0%	42.9%	14.3%	0.0%	28.6%	0.0%	0.0%		
	개성	3	0.0%	0.0%	33.3%	33.3%	0.0%	0.0%	0.0%	0.0%	33.3%	0.0%		
	평안남도	20	15.0%	0.0%	15.0%	5.0%	25.0%	10.0%	5.0%	20.0%	5.0%	0.0%		
	평안북도	19	26.3%	5.3%	10.5%	5.3%	5.3%	5.3%	0.0%	26.3%	15.8%	0.0%		
	함경남도	66	7.6%	1.5%	12.1%	12.1%	19.7%	6.1%	6.1%	12.1%	22.7%	0.0%		
	함경북도	432	10.9%	8.1%	9.0%	5.6%	18.1%	9.7%	8.6%	12.0%	17.8%	0.2%		
	자강도	4	25.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양강도	632	9.2%	7.8%	13.6%	5.9%	18.8%	11.1%	7.1%	10.0%	16.1%	0.5%		
	황해남도	10	10.0%	10.0%	30.0%	0.0%	0.0%	20.0%	0.0%	0.0%	30.0%	0.0%		
	황해북도	16	12.5%	0.0%	12.5%	6.3%	18.8%	6.3%	6.3%	12.5%	25.0%	0.0%		
	강원도	13	15.4%	0.0%	15.4%	0.0%	23.1%	0.0%	0.0%	15.4%	30.8%	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182	12.6%	7.1%	11.5%	8.8%	13.7%	12.6%	7.1%	11.0%	14.3%	1.1%		
후보당원		6	0.0%	16.7%	0.0%	16.7%	66.7%	0.0%	0.0%	0.0%	0.0%	0.0%		
비당원		1040	9.7%	7.3%	12.2%	5.6%	19.0%	9.4%	7.5%	11.4%	17.6%	0.3%		
무응답		11	18.2%	0.0%	18.2%	0.0%	0.0%	18.2%	0.0%	27.3%	18.2%	0.0%		

		김정일 지지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직업	노동자	214	10.3%	7.5%	11.2%	3.7%	15.9%	12.2%	9.4%	12.2%	17.3%	0.5%		
	농민	54	13.0%	7.4%	9.3%	3.7%	9.3%	13.0%	3.7%	16.7%	24.1%	0.0%		
	사무원	91	12.1%	11.0%	11.0%	7.7%	22.0%	7.7%	8.8%	9.9%	8.8%	1.1%		
	피부양자	5	0.0%	0.0%	0.0%	20.0%	20.0%	20.0%	0.0%	0.0%	40.0%	0.0%		
	학생	43	9.3%	4.7%	16.3%	2.3%	14.0%	14.0%	16.3%	9.3%	14.0%	0.0%		
	군인	31	9.7%	9.7%	0.0%	6.5%	9.7%	12.9%	12.9%	6.5%	32.3%	0.0%		
	가정부인	125	8.0%	3.2%	16.0%	7.2%	27.2%	8.8%	4.8%	8.0%	16.8%	0.0%		
	무직 및 기타	81	14.8%	6.2%	17.3%	9.9%	16.1%	4.9%	7.4%	7.4%	16.1%	0.0%		
	무응답	4	0.0%	25.0%	0.0%	25.0%	0.0%	25.0%	0.0%	0.0%	25.0%	0.0%		
	응답오류	4	25.0%	0.0%	0.0%	0.0%	25.0%	0.0%	0.0%	25.0%	0.0%	25.0%		
공식 소득	0원	622	10.1%	6.3%	12.2%	6.8%	21.1%	9.0%	6.1%	10.8%	17.5%	0.2%		
	천원 이하	74	8.1%	1.4%	16.2%	8.1%	20.3%	13.5%	8.1%	10.8%	12.2%	1.4%		
	5천원 이하	374	10.4%	10.7%	12.0%	5.1%	15.0%	9.9%	8.6%	12.6%	15.0%	0.8%		
	만원 이하	20	20.0%	0.0%	15.0%	10.0%	20.0%	5.0%	10.0%	10.0%	10.0%	0.0%		
	10만원 이하	45	4.4%	4.4%	2.2%	2.2%	4.4%	28.9%	13.3%	15.6%	24.4%	0.0%		
	50만원 이하	34	8.8%	5.9%	8.8%	8.8%	8.8%	2.9%	2.9%	20.6%	32.4%	0.0%		
	100만원 이하	10	10.0%	10.0%	10.0%	0.0%	30.0%	10.0%	10.0%	0.0%	20.0%	0.0%		
	100만원 초과	4	25.0%	0.0%	25.0%	0.0%	25.0%	25.0%	0.0%	0.0%	0.0%	0.0%		
	무응답	56	12.5%	8.9%	12.5%	3.6%	19.6%	5.4%	8.9%	7.1%	21.4%	0.0%		
	0원	253	10.7%	3.2%	9.5%	7.5%	17.0%	9.5%	8.3%	11.5%	22.9%	0.0%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20	10.0%	10.0%	20.0%	0.0%	20.0%	5.0%	10.0%	15.0%	10.0%	0.0%		
	5천원 이하	19	21.1%	0.0%	15.8%	5.3%	26.3%	10.5%	0.0%	10.5%	10.5%	0.0%		
	만원 이하	12	0.0%	8.3%	16.7%	8.3%	16.7%	0.0%	0.0%	8.3%	41.7%	0.0%		
	10만원 이하	139	10.8%	9.4%	20.1%	5.0%	14.4%	10.1%	6.5%	13.0%	10.1%	0.7%		
	50만원 이하	373	6.2%	7.5%	12.6%	5.9%	18.8%	11.5%	5.9%	12.3%	18.8%	0.5%		
	100만원 이하	170	11.8%	7.7%	12.9%	7.1%	20.6%	9.4%	7.7%	10.0%	12.4%	0.6%		
	100만원 초과	193	13.5%	10.4%	8.8%	5.7%	18.7%	9.3%	10.4%	8.8%	14.0%	0.5%		
	무응답	53	17.0%	7.6%	5.7%	3.8%	22.6%	7.6%	5.7%	11.3%	18.9%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0.1%	8.3%	13.3%	6.1%	19.2%	9.4%	7.1%	10.7%	15.2%	0.6%	
없다		378	9.8%	5.0%	9.5%	6.1%	15.9%	11.1%	7.9%	13.2%	21.4%	0.0%		
무응답		5	40.0%	0.0%	0.0%	0.0%	40.0%	0.0%	0.0%	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11.7%	6.1%	13.0%	6.3%	19.4%	8.7%	6.8%	11.6%	15.9%	0.6%		
	없다	528	7.8%	8.9%	11.0%	5.7%	16.7%	11.6%	8.1%	11.4%	18.8%	0.2%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9.1%	7.6%	11.4%	5.5%	15.7%	11.4%	8.1%	12.6%	18.1%	0.5%		
	결혼	476	11.3%	6.5%	13.0%	6.5%	20.2%	8.6%	7.1%	10.7%	15.3%	0.6%		
	사별/별거/이혼	109	11.9%	10.1%	13.8%	2.8%	19.3%	11.0%	7.3%	11.0%	12.8%	0.0%		
	무응답	9	44.4%	0.0%	11.1%	0.0%	22.2%	0.0%	0.0%	0.0%	22.2%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김정은 직무평가(nk02_a)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정은 직무평가(%)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9.46% (42)	29.73% (132)	31.08% (138)	29.50% (131)	0.23% (1)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7.6%	22.7%	30.3%	39.4%	0.0%	
	2017	85	9.4%	37.7%	32.9%	20.0%	0.0%	
	2018	116	8.6%	37.1%	29.3%	24.1%	0.9%	
	2019	110	12.7%	23.6%	32.7%	30.9%	0.0%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9.1%	26.3%	33.9%	30.7%	0.0%	
	여자	258	9.7%	32.2%	29.1%	28.7%	0.4%	
연령대	20대	153	14.4%	36.0%	28.8%	20.3%	0.7%	
	30대	100	6.0%	30.0%	35.0%	29.0%	0.0%	
	40대	77	3.9%	33.8%	26.0%	36.4%	0.0%	
	50대	86	9.3%	18.6%	31.4%	40.7%	0.0%	
	60대	15	13.3%	13.3%	33.3%	40.0%	0.0%	
	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0.0%	40.0%	0.0%	60.0%	0.0%	
	남포	1	0.0%	100.0%	0.0%	0.0%	0.0%	
	개성	3	33.3%	0.0%	33.3%	33.3%	0.0%	
	평안남도	4	25.0%	25.0%	25.0%	25.0%	0.0%	
	평안북도	8	12.5%	25.0%	37.5%	25.0%	0.0%	
	함경남도	20	40.0%	10.0%	25.0%	25.0%	0.0%	
	함경북도	86	5.8%	40.7%	27.9%	24.4%	1.2%	
	자강도	3	0.0%	0.0%	66.7%	33.3%	0.0%	
	양강도	300	8.0%	28.7%	33.0%	30.3%	0.0%	
	황해남도	5	20.0%	20.0%	20.0%	40.0%	0.0%	
	황해북도	5	0.0%	20.0%	20.0%	6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63	4.8%	25.4%	38.1%	31.8%	0.0%
후보당원		3	0.0%	0.0%	100.0%	0.0%	0.0%	
비당원		373	10.5%	30.8%	29.2%	29.2%	0.3%	
무응답		5	0.0%	20.0%	40.0%	40.0%	0.0%	
무응답		5	0.0%	20.0%	40.0%	40.0%	0.0%	

		김정은 직무평가(%)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3.6%	26.5%	34.9%	34.9%		
	농민	19	10.5%	42.1%	26.3%	21.1%		
	사무원	24	4.2%	25.0%	29.2%	41.7%		
	피부양자	1	0.0%	0.0%	100.0%	0.0%		
	학생	17	5.9%	47.1%	35.3%	11.8%		
	군인	8	37.5%	25.0%	25.0%	12.5%		
	가정부인	38	13.2%	34.2%	21.1%	31.6%		
	무직 및 기타	26	11.5%	15.4%	34.6%	38.5%		
	무응답	2	0.0%	50.0%	0.0%	5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공식 소득	0원	244	10.7%	32.4%	28.7%	27.9%	0.4%	
	천원 이하	28	14.3%	21.4%	46.4%	17.9%	0.0%	
	5천원 이하	114	3.5%	25.4%	32.5%	38.6%	0.0%	
	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10만원 이하	18	11.1%	44.4%	38.9%	5.6%	0.0%	
	50만원 이하	20	15.0%	35.0%	30.0%	20.0%	0.0%	
	100만원 이하	4	0.0%	25.0%	25.0%	50.0%	0.0%	
	100만원 초과	2	0.0%	0.0%	50.0%	50.0%	0.0%	
	무응답	10	20.0%	20.0%	20.0%	40.0%	0.0%	
	무응답	10	20.0%	20.0%	20.0%	4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12.9%	29.0%	34.4%	22.6%	1.1%	
	천원 이하	5	0.0%	20.0%	20.0%	60.0%	0.0%	
	5천원 이하	7	14.3%	0.0%	14.3%	71.4%	0.0%	
	만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10만원 이하	41	9.8%	24.4%	36.6%	29.3%	0.0%	
	50만원 이하	136	9.6%	34.6%	28.7%	27.2%	0.0%	
	100만원 이하	58	10.3%	27.6%	29.3%	32.8%	0.0%	
	100만원 초과	91	4.4%	30.8%	29.7%	35.2%	0.0%	
	무응답	8	12.5%	0.0%	62.5%	25.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7.3%	30.1%	27.0%	35.6%	0.0%	
	없다	155	13.6%	29.0%	38.7%	18.1%	0.7%	
남한 친척	있다	263	8.4%	29.7%	32.3%	29.3%	0.4%	
	없다	181	11.1%	29.8%	29.3%	29.8%	0.0%	
혼인 여부	미혼	97	12.4%	34.0%	27.8%	25.8%		
	결혼	96	4.2%	20.8%	38.5%	36.5%		
	사별/별거/이혼	23	8.7%	39.1%	17.4%	34.8%		
	무응답	3	0.0%	66.7%	0.0%	33.3%		

사회통제 유지도(nk04)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통제 유지도(%)						
		사례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0.56% (131)	29.01% (360)	49.23% (611)	11.12% (138)	0.08% (1)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10.6%	26.9%	51.9%	9.6%	1.0%	
	2011	128	10.9%	25.8%	52.3%	10.9%	0.0%	
	2012	132	12.1%	33.3%	49.2%	5.3%	0.0%	
	2013	149	14.1%	26.9%	47.7%	11.4%	0.0%	
	2014	146	9.6%	40.4%	43.2%	6.9%	0.0%	
	2015	135	12.6%	36.3%	40.7%	10.4%	0.0%	
	2016	135	9.6%	29.6%	44.4%	16.3%	0.0%	
	2017	85	8.2%	18.8%	57.7%	15.3%	0.0%	
	2018	116	12.1%	19.0%	53.5%	15.5%	0.0%	
	2019	110	3.6%	26.4%	58.2%	11.8%	0.0%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10.3%	33.1%	47.4%	9.1%	0.2%	
	여자	745	10.7%	26.3%	50.5%	12.5%	0.0%	
연령대	20대	411	10.5%	27.3%	50.9%	11.4%	0.0%	
	30대	286	8.4%	28.3%	50.0%	13.3%	0.0%	
	40대	272	11.0%	31.6%	48.2%	9.2%	0.0%	
	50대	185	11.9%	28.7%	48.1%	11.4%	0.0%	
	60대	67	14.9%	37.3%	35.8%	10.5%	1.5%	
	무응답	11	18.2%	27.3%	54.6%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17.7%	58.8%	23.5%	0.0%	0.0%	
	남포	7	14.3%	28.6%	57.1%	0.0%	0.0%	
	개성	3	33.3%	0.0%	66.7%	0.0%	0.0%	
	평안남도	20	15.0%	55.0%	25.0%	5.0%	0.0%	
	평안북도	19	21.1%	21.1%	52.6%	5.3%	0.0%	
	함경남도	66	7.6%	30.3%	52.5%	10.6%	0.0%	
	함경북도	432	11.1%	33.8%	46.1%	8.8%	0.2%	
	자강도	4	0.0%	0.0%	75.0%	25.0%	0.0%	
	양강도	632	9.0%	24.2%	53.0%	13.8%	0.0%	
	황해남도	10	20.0%	30.0%	40.0%	10.0%	0.0%	
	황해북도	16	12.5%	37.5%	37.5%	12.5%	0.0%	
	강원도	13	30.8%	30.8%	38.5%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7.1%	33.5%	50.0%	8.8%	0.6%
후보당원		6	0.0%	16.7%	83.3%	0.0%	0.0%	
비당원		1040	11.3%	28.4%	48.9%	11.4%	0.0%	
무응답		11	9.1%	27.3%	36.4%	27.3%	0.0%	

		사회통제 유지도(%)						
		사례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8.9%	35.5%	44.4%	11.2%		
	농민	54	11.1%	37.0%	40.7%	11.1%		
	사무원	91	11.0%	30.8%	45.1%	13.2%		
	피부양자	5	40.0%	0.0%	40.0%	20.0%		
	학생	43	2.3%	34.9%	53.5%	9.3%		
	군인	31	6.5%	35.5%	48.4%	9.7%		
	가정부인	125	14.4%	26.4%	51.2%	8.0%		
	무직 및 기타	81	16.1%	23.5%	45.7%	14.8%		
	무응답	4	25.0%	25.0%	25.0%	25.0%		
	응답오류	4	0.0%	25.0%	0.0%	75.0%		
공식 소득	0원	622	12.2%	26.1%	50.5%	11.3%	1.4%	
	천원 이하	74	6.8%	27.0%	52.7%	12.2%	0.0%	
	5천원 이하	374	7.5%	34.0%	48.7%	9.9%	0.0%	
	만원 이하	20	30.0%	25.0%	35.0%	10.0%	0.0%	
	10만원 이하	45	6.7%	33.3%	44.4%	15.6%	0.0%	
	50만원 이하	34	5.9%	29.4%	47.1%	17.7%	0.0%	
	100만원 이하	10	0.0%	30.0%	6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25.0%	25.0%	50.0%	0.0%	
	무응답	56	17.9%	30.4%	44.6%	7.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9.9%	30.0%	50.2%	9.9%	0.0%	
	천원 이하	20	15.0%	30.0%	35.0%	20.0%	0.0%	
	5천원 이하	19	21.1%	5.3%	63.2%	10.5%	0.0%	
	만원 이하	12	0.0%	33.3%	58.3%	8.3%	0.0%	
	10만원 이하	139	9.4%	23.0%	53.2%	13.7%	0.7%	
	50만원 이하	373	9.7%	31.4%	49.1%	9.9%	0.0%	
	100만원 이하	170	11.2%	28.2%	49.4%	11.2%	0.0%	
	100만원 초과	193	11.9%	28.5%	46.1%	13.5%	0.0%	
	무응답	53	13.2%	34.0%	43.4%	9.4%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0.6%	29.0%	48.0%	12.2%	0.1%
없다		378	10.1%	29.4%	52.1%	8.5%	0.0%	
무응답		5	40.0%	0.0%	4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11.3%	28.5%	48.6%	11.6%	0.1%	
	없다	528	9.3%	29.9%	50.2%	10.6%	0.0%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8.8%	30.7%	50.2%	10.0%	0.2%	
	결혼	476	11.1%	32.1%	44.5%	12.2%	0.0%	
	사별/별거/이혼	109	17.4%	24.8%	52.3%	5.5%	0.0%	
	무응답	9	44.4%	0.0%	44.4%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비판행위 정도(nk05)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빼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행위 정도(%)						
		사례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8.62% (107)	49.64% (616)	24.98% (310)	16.28% (202)	0.40% (5)	0.08% (1)
탈북 연도	2010	104	17.3%	49.0%	21.2%	10.6%	1.9%	0.0%
	2011	128	10.2%	62.5%	18.8%	7.0%	1.6%	0.0%
	2012	132	6.1%	59.9%	22.7%	11.4%	0.0%	0.0%
	2013	149	8.1%	39.6%	28.9%	23.5%	0.0%	0.0%
	2014	146	6.9%	55.5%	24.0%	12.3%	0.7%	0.7%
	2015	135	9.6%	48.9%	25.9%	15.6%	0.0%	0.0%
	2016	135	11.1%	47.4%	23.7%	17.8%	0.0%	0.0%
	2017	85	9.4%	38.8%	36.5%	15.3%	0.0%	0.0%
	2018	116	6.0%	41.4%	29.3%	23.3%	0.0%	0.0%
	2019	110	2.7%	49.1%	21.8%	26.4%	0.0%	0.0%
성별	남자	496	7.9%	50.4%	26.6%	14.3%	0.6%	0.2%
	여자	745	9.1%	49.1%	23.9%	17.6%	0.3%	0.0%
연령대	20대	411	8.8%	44.5%	29.7%	16.6%	0.5%	0.0%
	30대	286	8.4%	48.6%	26.2%	16.8%	0.0%	0.0%
	40대	272	8.8%	51.8%	22.1%	16.9%	0.4%	0.0%
	50대	185	7.0%	58.4%	17.8%	15.7%	0.5%	0.5%
	60대	67	11.9%	55.2%	16.4%	14.9%	1.5%	0.0%
북한 거주지	무응답	11	9.1%	54.6%	27.3%	9.1%	0.0%	0.0%
	평양	17	0.0%	23.5%	41.2%	29.4%	0.0%	5.9%
	남포	7	14.3%	57.1%	28.6%	0.0%	0.0%	0.0%
	개성	3	0.0%	100.0%	0.0%	0.0%	0.0%	0.0%
	평안남도	20	25.0%	60.0%	10.0%	5.0%	0.0%	0.0%
	평안북도	19	15.8%	52.6%	10.5%	21.1%	0.0%	0.0%
	함경남도	66	12.1%	56.1%	15.2%	16.7%	0.0%	0.0%
	함경북도	432	7.6%	50.2%	26.2%	15.3%	0.7%	0.0%
	자강도	4	0.0%	25.0%	0.0%	75.0%	0.0%	0.0%
	양강도	632	8.7%	48.6%	25.8%	16.6%	0.3%	0.0%
	황해남도	10	0.0%	80.0%	20.0%	0.0%	0.0%	0.0%
	황해북도	16	6.3%	37.5%	43.8%	12.5%	0.0%	0.0%
	강원도	13	7.7%	46.2%	15.4%	30.8%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7.7%	54.4%	22.0%	14.8%	1.1%	0.0%
	후보당원	6	16.7%	16.7%	50.0%	16.7%	0.0%	0.0%
	비당원	1040	8.8%	48.8%	25.4%	16.7%	0.3%	0.1%
	무응답	11	9.1%	72.7%	18.2%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사례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7.5%	49.1%	29.9%	13.1%	0.5%	0.0%
	농민	54	11.1%	35.2%	24.1%	29.6%	0.0%	0.0%
	사무원	91	9.9%	48.4%	24.2%	16.5%	0.0%	1.1%
	피부양자	5	0.0%	60.0%	20.0%	20.0%	0.0%	0.0%
	학생	43	11.6%	37.2%	39.5%	11.6%	0.0%	0.0%
	군인	31	12.9%	38.7%	32.3%	16.1%	0.0%	0.0%
	가정부인	125	8.0%	52.0%	19.2%	20.8%	0.0%	0.0%
	무직 및 기타	81	9.9%	40.7%	29.6%	19.8%	0.0%	0.0%
	무응답	4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4	0.0%	75.0%	25.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8.0%	48.1%	24.6%	19.0%	0.3%	0.0%
	천원 이하	74	9.5%	50.0%	21.6%	16.2%	2.7%	0.0%
	5천원 이하	374	7.5%	52.1%	27.0%	12.8%	0.3%	0.3%
	10만원 이하	20	10.0%	70.0%	10.0%	10.0%	0.0%	0.0%
	10만원 이하	45	6.7%	48.9%	35.6%	8.9%	0.0%	0.0%
	50만원 이하	34	11.8%	44.1%	20.6%	23.5%	0.0%	0.0%
	100만원 이하	10	10.0%	70.0%	2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50.0%	25.0%	25.0%	0.0%	0.0%	0.0%
	무응답	56	17.9%	44.6%	21.4%	16.1%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10.3%	43.1%	26.5%	18.8%	1.2%	0.0%
	천원 이하	20	20.0%	40.0%	15.0%	25.0%	0.0%	0.0%
	5천원 이하	19	21.1%	42.1%	15.8%	21.1%	0.0%	0.0%
	만원 이하	12	0.0%	91.7%	8.3%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10.1%	52.5%	19.4%	16.6%	1.4%	0.0%
	50만원 이하	373	5.9%	48.3%	29.8%	16.1%	0.0%	0.0%
	100만원 이하	170	7.7%	55.9%	23.5%	12.9%	0.0%	0.0%
	100만원 초과	193	9.8%	51.3%	24.4%	14.0%	0.0%	0.5%
	무응답	53	9.4%	58.5%	15.1%	17.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정사 경험	있다	858	8.5%	53.3%	23.4%	14.3%	0.4%	0.1%
	없다	378	8.5%	41.8%	28.3%	20.9%	0.5%	0.0%
	무응답	5	40.0%	20.0%	4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7.9%	48.7%	25.8%	17.0%	0.4%	0.1%
	없다	528	9.3%	51.0%	24.1%	15.3%	0.4%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420	9.1%	49.3%	26.9%	13.8%	1.0%	0.0%
	결혼	476	8.8%	52.1%	24.2%	14.5%	0.2%	0.2%
	사별/별거/이혼	109	11.0%	504.0%	21.1%	17.4%	0.0%	0.0%
	무응답	9	44.4%	44.4%	11.1%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정권 유지 예상기간(nk06)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유지 예상기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9.35% (116)	20.55% (255)	10.96% (136)	4.51% (56)	7.49% (93)	18.78% (233)	28.04 (348)	0.32% (4)	0.00% (0)
탈북민	2010	104	17.3%	24.0%	15.4%	5.8%	6.7%	7.7%	21.2%	1.9%	
	2011	128	8.6%	27.3%	14.1%	4.7%	10.2%	10.9%	23.4%	0.8%	
	2012	132	11.4%	18.2%	10.6%	6.1%	3.8%	18.2%	31.8%	0.0%	
	2013	149	12.8%	23.5%	11.4%	4.7%	6.0%	16.1%	25.5%	0.0%	
	2014	146	11.0%	24.7%	13.0%	5.5%	9.6%	18.5%	17.8%	0.0%	
	2015	135	10.4%	23.7%	16.3%	5.9%	5.9%	17.0%	20.7%	0.0%	
	2016	135	7.4%	18.5%	9.6%	3.0%	9.6%	27.4%	23.7%	0.7%	
	2017	85	5.9%	11.8%	10.6%	0.0%	11.8%	22.4%	37.7%	0.0%	
	2018	116	4.3%	13.8%	2.6%	2.6%	6.0%	29.3%	41.4%	0.0%	
	2019	110	2.7%	15.5%	4.6%	5.5%	6.4%	20.9%	44.6%	0.0%	
202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성별	남자	496	8.5%	18.4%	12.9%	3.8%	9.5%	21.4%	25.2%	0.4%	
	여자	745	9.9%	22.0%	9.7%	5.0%	6.2%	17.1%	29.9%	0.3%	
연령대	20대	411	6.1%	16.6%	11.0%	6.1%	8.3%	19.0%	33.1%	0.0%	
	30대	286	7.7%	18.5%	12.2%	3.9%	8.4%	21.3%	28.0%	0.0%	
	40대	272	11.4%	26.5%	9.9%	4.0%	7.4%	18.0%	22.4%	0.4%	
	50대	185	12.4%	21.1%	12.4%	3.8%	5.4%	18.4%	26.0%	0.5%	
	60대	67	22.4%	28.4%	4.5%	1.5%	4.5%	11.9%	23.9%	3.0%	
	무응답	11	0.0%	27.3%	18.2%	9.1%	18.2%	9.1%	18.2%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0.0%	17.7%	11.8%	5.9%	5.9%	35.3%	23.5%	0.0%	
	남포	7	0.0%	42.9%	14.3%	0.0%	0.0%	28.6%	14.3%	0.0%	
	개성	3	33.3%	0.0%	0.0%	33.3%	0.0%	0.0%	33.3%	0.0%	
	평안남도	20	20.0%	15.0%	10.0%	0.0%	0.0%	25.0%	30.0%	0.0%	
	평안북도	19	15.8%	21.1%	5.3%	0.0%	10.5%	31.6%	15.8%	0.0%	
	함경남도	66	19.7%	19.7%	10.6%	3.0%	6.1%	16.7%	24.2%	0.0%	
	함경북도	432	7.2%	20.8%	13.9%	6.9%	9.0%	16.0%	25.5%	0.7%	
	자강도	4	0.0%	25.0%	0.0%	0.0%	0.0%	50.0%	25.0%	0.0%	
	양강도	632	9.8%	20.3%	9.3%	3.2%	7.0%	19.6%	30.7%	0.2%	
	황해남도	10	0.0%	30.0%	20.0%	0.0%	0.0%	30.0%	20.0%	0.0%	
	황해북도	16	12.5%	25.0%	0.0%	12.5%	6.3%	6.3%	37.5%	0.0%	
	강원도	13	0.0%	15.4%	15.4%	0.0%	15.4%	30.8%	23.1%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182	12.1%	20.9%	9.9%	5.0%	8.8%	18.1%	24.2%	1.1%	
	후보당원	6	0.0%	0.0%	0.0%	0.0%	16.7%	33.3%	50.0%	0.0%	
	비당원	1040	9.0%	20.6%	11.2%	4.5%	7.1%	18.9%	28.6%	0.2%	
	무응답	11	0.0%	9.1%	18.2%	0.0%	18.2%	18.2%	36.4%	0.0%	

		정권 유지 예상기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9.8%	22.4%	9.4%	2.8%	11.2%	20.1%	24.3%	0.0%	
	농민	54	11.1%	16.7%	9.3%	1.9%	5.6%	25.9%	29.6%	0.0%	
	사무원	91	11.0%	26.4%	17.6%	5.5%	4.4%	19.8%	15.4%	0.0%	
	피부양자	5	0.0%	20.0%	20.0%	0.0%	0.0%	20.0%	40.0%	0.0%	
	학생	43	2.3%	20.9%	14.0%	4.7%	9.3%	23.3%	25.6%	0.0%	
	군인	31	12.9%	9.7%	6.5%	9.7%	16.1%	16.1%	29.0%	0.0%	
	가정부인	125	8.8%	23.2%	12.8%	5.6%	6.4%	16.0%	27.2%	0.0%	
	무직 및 기타	81	12.4%	16.1%	17.3%	3.7%	7.4%	23.5%	18.5%	1.2%	
	무응답	4	25.0%	25.0%	0.0%	0.0%	0.0%	25.0%	25.0%	0.0%	
	응답오류	4	0.0%	25.0%	0.0%	0.0%	0.0%	0.0%	75.0%	0.0%	
공식 소득	0원	622	10.5%	19.3%	10.8%	3.5%	7.1%	19.5%	29.3%	0.2%	
	천원 이하	74	9.5%	21.6%	9.5%	9.5%	9.5%	13.5%	25.7%	1.4%	
	5천원 이하	374	8.3%	23.0%	12.6%	5.6%	7.8%	20.3%	22.2%	0.3%	
	만원 이하	20	10.0%	15.0%	5.0%	0.0%	15.0%	25.0%	30.0%	0.0%	
	10만원 이하	45	4.4%	20.0%	8.9%	6.7%	6.7%	17.8%	35.6%	0.0%	
	50만원 이하	34	2.9%	14.7%	0.0%	0.0%	5.9%	26.5%	50.0%	0.0%	
	100만원 이하	10	0.0%	20.0%	10.0%	10.0%	20.0%	0.0%	30.0%	10.0%	
	100만원 초과	4	0.0%	25.0%	25.0%	0.0%	25.0%	0.0%	25.0%	0.0%	
	무응답	56	14.3%	21.4%	14.3%	3.6%	3.6%	7.1%	35.7%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8.3%	17.4%	8.3%	4.0%	7.9%	18.6%	35.2%	0.4%	
	천원 이하	20	15.0%	25.0%	5.0%	0.0%	0.0%	25.0%	30.0%	0.0%	
	5천원 이하	19	21.1%	26.3%	5.3%	5.3%	5.3%	10.5%	26.3%	0.0%	
	만원 이하	12	16.7%	33.3%	8.3%	8.3%	8.3%	8.3%	16.7%	0.0%	
	10만원 이하	139	13.0%	23.0%	13.0%	3.6%	6.5%	13.0%	27.3%	0.7%	
	50만원 이하	373	7.5%	21.7%	12.6%	5.9%	8.6%	17.2%	26.5%	0.0%	
	100만원 이하	170	7.1%	24.7%	11.8%	5.3%	6.5%	24.1%	20.6%	0.0%	
	100만원 초과	193	11.4%	17.6%	10.4%	2.1%	6.7%	25.9%	25.9%	0.0%	
	무응답	53	11.3%	13.2%	11.3%	5.7%	9.4%	5.7%	39.6%	3.8%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0.0%	21.8%	11.3%	4.7%	7.3%	18.2%	26.6%	0.1%	
	없다	378	7.1%	18.0%	10.3%	4.2%	7.9%	20.4%	31.5%	0.5%	
	무응답	5	60.0%	0.0%	0.0%	0.0%	0.0%	0.0%	2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9.4%	18.9%	12.0%	4.8%	6.9%	19.4%	28.5%	0.1%	
	없다	528	8.9%	22.9%	9.7%	4.2%	8.3%	18.0%	27.7%	0.4%	
	무응답	3	66.7%	0.0%	0.0%	0.0%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9.5%	22.1%	11.9%	5.2%	8.3%	15.7%	26.9%	0.2%	
	결혼	476	10.7%	21.4%	13.5%	3.8%	8.2%	18.5%	23.7%	0.2%	
	사별/별거/이혼	109	11.9%	23.9%	11.0%	5.5%	4.6%	20.2%	22.9%	0.0%	
	무응답	9	22.2%	11.1%	22.2%	11.1%	0.0%	11.1%	0.0%	22.2%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견해(nk07)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업지구(%)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전체		877	29.99(263)	20.18(177)	27.25(239)	8.55(75)	14.03(123)	0.00(0)	0.00(0)	
탈북 연도	2013	149	26.9%	19.5%	24.8%	10.1%	18.8%			
	2014	146	34.3%	18.5%	27.4%	8.9%	11.0%			
	2015	135	30.4%	20.0%	18.5%	9.6%	21.5%			
	2016	135	32.6%	20.7%	28.9%	5.9%	11.9%			
	2017	85	28.2%	27.1%	28.2%	4.7%	11.8%			
	2018	116	31.0%	19.8%	25.0%	10.3%	13.8%			
	2019	110	25.5%	18.2%	40.0%	9.1%	7.3%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346	37.0%	20.8%	22.5%	6.1%	13.6%			
	여자	531	25.4%	19.8%	30.3%	10.2%	14.3%			
연령대	20대	294	32.0%	23.5%	28.2%	6.5%	9.9%			
	30대	205	31.2%	17.1%	28.8%	8.8%	14.2%			
	40대	187	33.2%	20.9%	19.8%	9.1%	17.1%			
	50대	137	23.4%	19.0%	31.4%	10.2%	16.1%			
	60대	37	21.6%	10.8%	24.3%	13.5%	29.7%			
	무응답	8	0.0%	25.0%	50.0%	25.0%	0.0%			
	평균	16	25.0%	12.5%	12.5%	12.5%	37.5%			
북한 거주지	남포	6	50.0%	0.0%	16.7%	33.3%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평안남도	13	53.9%	0.0%	30.8%	7.7%	7.7%			
	평안북도	12	25.0%	8.3%	25.0%	8.3%	33.3%			
	함경남도	38	42.1%	18.4%	15.8%	10.5%	13.2%			
	함경북도	261	30.7%	18.4%	28.0%	8.1%	14.9%			
	자강도	4	0.0%	0.0%	25.0%	25.0%	50.0%			
	양강도	495	27.9%	23.0%	28.5%	8.5%	12.1%			
	황해남도	7	28.6%	0.0%	42.9%	0.0%	28.6%			
	황해북도	11	27.3%	27.3%	36.4%	0.0%	9.1%			
	강원도	10	50.0%	10.0%	10.0%	10.0%	2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당원	당원	135	40.7%	22.2%	16.3%	8.9%	11.9%		
		후보당원	5	40.0%	0.0%	20.0%	20.0%	20.0%		
비당원		730	28.0%	19.6%	29.5%	8.5%	14.5%			
무응답		7	28.6%	57.1%	14.3%	0.0%	0.0%			

		개성공업지구(%)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28.0%	22.4%	27.1%	8.9%	13.6%		
	농민	54	35.2%	16.7%	29.6%	7.4%	11.1%		
	사무원	91	30.8%	24.2%	16.5%	8.8%	19.8%		
	피부양자	5	40.0%	20.0%	0.0%	0.0%	40.0%		
	학생	43	37.2%	20.9%	18.6%	2.3%	20.9%		
	군인	31	51.6%	29.0%	16.1%	3.2%	0.0%		
	가정부인	125	25.6%	21.6%	32.0%	9.6%	11.2%		
	무직 및 기타	81	32.1%	12.4%	24.7%	9.9%	21.0%		
	무응답	4	0.0%	0.0%	50.0%	0.0%	50.0%		
	응답오류	4	25.0%	0.0%	25.0%	0.0%	50.0%		
공식 소득	0원	495	26.9%	19.0%	30.9%	9.3%	13.9%		
	천원 이하	55	29.1%	20.0%	32.7%	5.5%	12.7%		
	5천원 이하	242	34.3%	19.8%	19.4%	9.9%	16.5%		
	만원 이하	9	44.4%	22.2%	11.1%	0.0%	22.2%		
	10만원 이하	30	36.7%	30.0%	33.3%	0.0%	0.0%		
	50만원 이하	23	39.1%	34.8%	13.0%	4.4%	8.7%		
	100만원 이하	7	28.6%	0.0%	42.9%	0.0%	28.6%		
	100만원 초과	4	50.0%	25.0%	25.0%	0.0%	0.0%		
	무응답	10	20.0%	40.0%	20.0%	10.0%	10.0%		
	0원	182	28.6%	18.7%	29.7%	7.1%	15.9%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11	18.2%	27.3%	36.4%	0.0%	18.2%		
	5천원 이하	10	70.0%	10.0%	0.0%	10.0%	10.0%		
	만원 이하	5	40.0%	20.0%	0.0%	40.0%	0.0%		
	10만원 이하	87	28.7%	19.5%	33.3%	6.9%	11.5%		
	50만원 이하	259	29.0%	22.8%	25.9%	8.1%	14.3%		
	100만원 이하	144	31.9%	19.4%	27.1%	9.0%	12.5%		
	100만원 초과	161	30.4%	19.3%	25.5%	10.6%	14.3%		
	무응답	10	30.0%	20.0%	20.0%	20.0%	1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600	30.5%	18.7%	27.2%	8.5%	15.2%	
없다		277	28.9%	23.5%	27.4%	8.7%	11.6%		
남한 친척	있다	535	28.4%	19.1%	29.4%	9.0%	14.2%		
	없다	342	32.5%	21.9%	24.0%	7.9%	13.7%		
혼인 여부	미혼	258	32.6%	21.7%	25.2%	7.4%	13.2%		
	결혼	305	29.5%	21.3%	24.6%	8.2%	16.4%		
	사별/별거/이혼	85	29.4%	15.3%	28.2%	9.4%	17.7%		
	무응답	3	33.3%	33.3%	3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북한경제 어려움의 이유(nk08)

문)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일 지지도(%)											
		사례수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85% (23)	25.95% (322)	9.19% (114)	5.08% (63)	20.71% (257)	20.71% (257)	6.77% (84)	2.18% (27)	0.32% (4)	3.95% (49)	3.30% (41)
탈북연도	2010	104	1.9%	11.5%	5.8%	6.7%	26.0%	13.5%	4.8%	1.9%	0.0%	27.9%	0.0%
	2011	128	1.6%	25.8%	7.8%	3.1%	21.1%	21.1%	3.9%	1.6%	0.0%	14.1%	0.0%
	2012	132	3.0%	21.2%	14.4%	3.0%	23.5%	22.0%	6.1%	3.0%	0.0%	0.0%	3.8%
	2013	149	2.0%	24.2%	7.4%	4.0%	28.9%	18.1%	8.1%	2.7%	0.0%	0.0%	4.7%
	2014	146	0.0%	25.3%	14.4%	5.5%	19.2%	26.0%	3.4%	2.7%	0.0%	1.4%	2.1%
	2015	135	0.7%	34.1%	7.4%	6.7%	20.7%	20.7%	7.4%	0.7%	1.5%	0.0%	0.0%
	2016	135	4.4%	27.4%	11.1%	4.4%	23.0%	19.3%	6.7%	3.0%	0.7%	0.0%	0.0%
	2017	85	2.4%	34.1%	5.9%	9.4%	9.4%	20.0%	8.2%	3.5%	0.0%	0.0%	7.1%
	2018	116	0.0%	30.2%	6.9%	4.3%	13.8%	21.6%	8.6%	0.9%	0.0%	0.0%	13.8%
	2019	110	2.7%	26.4%	8.2%	5.5%	16.4%	23.6%	11.8%	1.8%	0.9%	0.0%	2.7%
202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성별	남자	496	1.4%	24.6%	10.9%	4.4%	22.8%	19.6%	7.9%	1.8%	0.2%	3.6%	2.8%
	여자	745	2.2%	26.9%	8.1%	5.5%	19.3%	21.5%	6.0%	2.4%	0.4%	4.2%	3.6%
연령대	20대	411	3.2%	29.7%	8.8%	10.2%	13.9%	20.2%	6.3%	1.7%	1.0%	3.2%	2.0%
	30대	286	2.1%	21.3%	10.8%	3.9%	21.7%	22.4%	8.7%	2.8%	0.0%	3.5%	2.8%
	40대	272	0.7%	22.4%	7.4%	1.8%	26.1%	24.6%	7.0%	2.6%	0.0%	4.4%	2.9%
	50대	185	0.5%	29.7%	9.2%	1.1%	26.0%	17.3%	3.8%	1.1%	0.0%	3.8%	7.6%
	60대	67	1.5%	28.4%	10.5%	1.5%	23.9%	11.9%	6.0%	1.5%	0.0%	10.5%	4.5%
	무응답	11	0.0%	18.2%	18.2%	0.0%	9.1%	27.3%	18.2%	9.1%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0.0%	29.4%	11.8%	0.0%	11.8%	11.8%	11.8%	5.9%	0.0%	0.0%	17.7%
	남포	7	0.0%	28.6%	0.0%	14.3%	0.0%	57.1%	0.0%	0.0%	0.0%	0.0%	0.0%
	개성	3	0.0%	33.3%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평안남도	20	0.0%	30.0%	5.0%	5.0%	30.0%	5.0%	15.0%	0.0%	5.0%	0.0%	5.0%
	평안북도	19	0.0%	21.1%	5.3%	0.0%	36.8%	5.3%	15.8%	0.0%	0.0%	0.0%	15.8%
	함경남도	66	3.0%	30.3%	7.6%	6.1%	25.8%	12.1%	7.6%	1.5%	0.0%	3.0%	3.0%
	함경북도	432	1.6%	28.0%	10.9%	5.6%	15.7%	22.5%	6.7%	1.6%	0.2%	5.1%	2.1%
	자강도	4	0.0%	0.0%	25.0%	0.0%	50.0%	25.0%	0.0%	0.0%	0.0%	0.0%	0.0%
	양강도	632	1.9%	24.7%	8.5%	4.8%	23.1%	20.9%	6.3%	2.5%	0.3%	3.5%	3.5%
	황해남도	10	0.0%	10.0%	0.0%	0.0%	30.0%	30.0%	10.0%	10.0%	0.0%	10.0%	0.0%
	황해북도	16	0.0%	18.8%	12.5%	12.5%	18.8%	12.5%	0.0%	6.3%	0.0%	12.5%	6.3%
	강원도	13	15.4%	15.4%	7.7%	7.7%	23.1%	30.8%	0.0%	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1.1%	20.9%	11.5%	1.1%	26.9%	15.9%	9.3%	3.3%	0.0%	4.4%
후보당원		6	0.0%	33.3%	16.7%	0.0%	0.0%	33.3%	16.7%	0.0%	0.0%	0.0%	0.0%
비당원		1040	2.0%	26.8%	8.8%	5.8%	19.7%	21.7%	6.3%	2.0%	0.4%	3.8%	2.8%
무응답		11	0.0%	18.2%	9.1%	9.1%	27.3%	0.0%	9.1%	0.0%	9.1%	18.2%	

		김정일 지지도(%)											
		사례수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9%	25.2%	9.4%	5.6%	25.2%	23.4%	4.7%	1.4%	0.9%	0.5%	1.9%
	농민	54	0.0%	31.5%	7.4%	7.4%	16.7%	18.5%	13.0%	1.9%	1.9%	0.0%	1.9%
	사무원	91	0.0%	29.7%	11.0%	4.4%	20.9%	19.8%	7.7%	2.2%	0.0%	0.0%	4.4%
	피부양자	5	20.0%	6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학생	43	0.0%	34.9%	11.6%	0.0%	11.6%	25.6%	7.0%	4.7%	0.0%	0.0%	4.7%
	군인	31	0.0%	35.5%	9.7%	6.5%	9.7%	22.6%	12.9%	0.0%	0.0%	3.2%	0.0%
	가정부인	125	2.4%	27.2%	8.8%	5.6%	21.6%	20.0%	5.6%	4.8%	0.0%	0.0%	4.0%
	무직 및 기타	81	4.9%	27.2%	9.9%	8.6%	23.5%	18.5%	4.9%	2.5%	0.0%	0.0%	0.0%
	무응답	4	0.0%	25.0%	25.0%	25.0%	0.0%	0.0%	25.0%	0.0%	0.0%	0.0%	0.0%
	응답오류	4	0.0%	50.0%	0.0%	0.0%	25.0%	0.0%	25.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2.3%	26.4%	9.2%	5.3%	20.9%	19.8%	6.9%	3.1%	0.5%	2.6%	3.2%
	천원 이하	74	1.4%	20.3%	8.1%	6.8%	14.9%	31.1%	6.8%	0.0%	0.0%	8.1%	2.7%
	5천원 이하	374	1.3%	24.9%	9.4%	3.5%	23.5%	21.9%	7.8%	1.1%	0.0%	3.2%	3.5%
	만원 이하	20	0.0%	20.0%	20.0%	0.0%	10.0%	20.0%	5.0%	10.0%	0.0%	5.0%	10.0%
	10만원 이하	45	4.4%	33.3%	11.1%	15.6%	4.4%	15.6%	6.7%	4.4%	0.0%	0.0%	4.4%
	50만원 이하	34	0.0%	35.3%	8.8%	5.9%	23.5%	14.7%	5.9%	0.0%	2.9%	2.9%	0.0%
	100만원 이하	10	10.0%	40.0%	10.0%	0.0%	10.0%	30.0%	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56	0.0%	23.2%	5.4%	5.4%	23.2%	16.1%	1.8%	0.0%	0.0%	23.2%	1.8%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2.0%	26.5%	9.9%	5.5%	19.8%	18.2%	7.9%	2.8%	1.2%	2.8%	3.6%
	천원 이하	20	5.0%	5.0%	0.0%	10.0%	35.0%	15.0%	20.0%	0.0%	0.0%	10.0%	0.0%
	5천원 이하	19	0.0%	15.8%	10.5%	0.0%	42.1%	10.5%	10.5%	0.0%	0.0%	10.5%	0.0%
	만원 이하	12	8.3%	8.3%	33.3%	0.0%	16.7%	16.7%	16.7%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39	2.2%	27.3%	7.9%	3.6%	18.0%	22.3%	7.2%	0.7%	0.0%	7.9%	2.9%
	50만원 이하	373	1.6%	26.3%	7.5%	7.0%	19.8%	23.1%	5.6%	2.1%	0.0%	3.0%	4.0%
	100만원 이하	170	0.6%	24.7%	11.2%	7.1%	22.4%	20.0%	5.3%	3.5%	0.6%	0.6%	4.1%
	100만원 초과	193	2.6%	26.9%	10.4%	1.6%	21.2%	23.3%	7.3%	2.1%	0.0%	1.6%	3.1%
	무응답	53	1.9%	32.1%	7.6%	1.9%	18.9%	13.2%	1.9%	0.0%	0.0%	22.6%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1.6%	25.1%	8.7%	4.8%	21.2%	21.5%	7.1%	2.5%	0.2%	4.2%	3.2%
	없다	378	2.4%	28.3%	10.1%	5.8%	19.8%	18.8%	6.1%	1.6%	0.5%	2.9%	3.7%
	무응답	5	0.0%	0.0%	20.0%	0.0%	0.0%	40.0%	0.0%	0.0%	0.0%	4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1.8%	26.6%	9.2%	5.4%	21.7%	19.7%	6.8%	1.7%	0.4%	3.4%	3.4%
	없다	528	1.9%	25.2%	9.3%	4.7%	19.5%	22.0%	6.8%	2.8%	0.2%	4.4%	3.2%
	무응답	3	0.0%	0.0%	0.0%	0.0%	0.0%	33.3%	0.0%	0.0%	0.0%	66.7%	0.0%
혼인 여부	미혼	420	2.9%	29.5%	8.1%	6.7%	17.1%	19.8%	6.4%	2.6%	0.5%	4.8%	1.7%
	결혼	476	1.7%	21.9%	10.9%	4.0%	25.6%	20.6%	5.5%	2.3%	0.2%	5.3%	2.1%
	사별/별거/이혼	109	0.0%	25.7%	7.3%	4.6%	26.6%	21.1%	8.3%	1.8%	0.0%	0.9%	3.7%
	무응답	9	0.0%	33.3%	11.1%	0.0%	0.0%	22.2%	0.0%	0.0%	0.0%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개인사업 인구(nk09)

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사업 인구(%)											
		사례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659	1.82% (12)	2.12% (14)	5.01% (33)	5.46% (36)	8.65% (57)	16.39% (108)	12.90% (85)	26.71% (176)	20.64% (136)	0.30% (2)	0.00% (0)
연도별	2010	104	1.9%	1.0%	7.7%	4.8%	5.8%	10.6%	12.5%	23.1%	30.8%	1.9%	
	2011	128	1.6%	2.3%	5.5%	3.9%	4.7%	14.8%	10.9%	28.9%	27.3%	0.0%	
	2012	132	0.8%	3.0%	7.6%	4.6%	17.4%	38.6%	10.6%	9.9%	7.6%	0.0%	
	2013	149	3.4%	3.4%	2.7%	9.4%	8.1%	9.4%	12.8%	38.3%	12.8%	0.0%	
	2014	146	1.4%	0.7%	2.7%	4.1%	6.9%	8.9%	17.1%	30.8%	27.4%	0.0%	
성별	남자	257	2.3%	3.9%	8.2%	9.0%	8.2%	16.3%	13.2%	24.1%	14.4%	0.4%	
	여자	402	1.5%	1.0%	3.0%	3.2%	9.0%	16.4%	12.7%	28.4%	24.6%	0.3%	
연령대	20대	206	2.9%	2.4%	5.3%	7.8%	6.8%	17.0%	8.3%	32.5%	17.0%	0.0%	
	30대	154	0.7%	1.3%	5.8%	4.6%	9.1%	17.5%	13.6%	18.8%	28.6%	0.0%	
	40대	161	1.2%	2.5%	6.2%	3.7%	8.7%	16.8%	17.4%	26.7%	16.2%	0.6%	
	50대	83	3.6%	1.2%	2.4%	3.6%	14.5%	13.3%	15.7%	22.9%	22.9%	0.0%	
	60대	48	0.0%	4.2%	2.1%	4.2%	4.2%	14.6%	6.3%	37.5%	25.0%	2.1%	
	무응답	7	0.0%	0.0%	0.0%	28.4%	14.3%	14.3%	42.9%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7	0.0%	0.0%	14.3%	0.0%	0.0%	14.3%	28.6%	14.3%	28.6%	0.0%
	남포	4	0.0%	25.0%	0.0%	0.0%	0.0%	50.0%	0.0%	25.0%	0.0%	0.0%	
	개성	0											
	평안남도	14	0.0%	14.3%	0.0%	0.0%	14.3%	14.3%	14.3%	28.6%	14.3%	0.0%	
	평안북도	10	0.0%	0.0%	10.0%	0.0%	20.0%	40.0%	10.0%	0.0%	20.0%	0.0%	
	함경남도	42	2.4%	4.8%	2.4%	2.4%	2.4%	19.1%	21.4%	26.2%	19.1%	0.0%	
	함경북도	288	1.4%	1.7%	5.2%	6.9%	9.0%	18.1%	11.8%	25.4%	19.8%	0.7%	
	자강도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양강도	269	2.6%	1.5%	5.2%	5.6%	8.9%	14.1%	12.3%	29.0%	20.8%	0.0%	
	황해남도	5	0.0%	0.0%	0.0%	0.0%	0.0%	0.0%	0.0%	80.0%	20.0%	0.0%	
	황해북도	11	0.0%	0.0%	0.0%	0.0%	0.0%	0.0%	27.3%	27.3%	45.5%	0.0%	
	강원도	7	0.0%	0.0%	14.3%	0.0%	28.6%	14.3%	0.0%	14.3%	28.6%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93	2.2%	2.2%	2.2%	7.5%	9.7%	18.3%	19.4%	16.1%	21.5%	1.1%	
	후보당원	3	0.0%	0.0%	0.0%	0.0%	0.0%	33.3%	0.0%	66.7%	0.0%	0.0%	
	비당원	555	1.8%	2.0%	5.6%	5.2%	8.7%	16.0%	12.1%	28.1%	20.4%	0.2%	
	무응답	6	0.0%	16.7%	0.0%	0.0%	0.0%	16.7%	0.0%	0.0%	33.3%	0.0%	

		개인사업 인구(%)											
		사례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95	2.1%	4.2%	5.3%	6.3%	6.3%	5.3%	14.7%	34.7%	21.1%		
	농민	21	4.8%	0.0%	4.8%	9.5%	28.6%	0.0%	4.8%	38.1%	9.5%		
	사무원	45	2.2%	2.2%	0.0%	8.9%	4.4%	13.3%	13.3%	31.1%	24.4%		
	피부양자	3	0.0%	0.0%	0.0%	0.0%	0.0%	33.3%	0.0%	0.0%	66.7%		
	학생	20	5.0%	0.0%	0.0%	15.0%	5.0%	20.0%	20.0%	30.0%	5.0%		
	군인	13	0.0%	7.7%	0.0%	7.7%	0.0%	7.7%	15.4%	38.5%	23.1%		
	가정부인	60	1.7%	0.0%	3.3%	1.7%	8.3%	8.3%	20.0%	31.7%	25.0%		
	무직 및 기타	33	3.0%	0.0%	0.0%	6.1%	6.1%	15.2%	12.1%	42.4%	15.2%		
	무응답	2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응답오류	3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공식 소득	0원	298	1.7%	2.4%	3.0%	4.7%	11.4%	17.8%	12.8%	27.5%	18.8%	0.0%	
	천원 이하	39	5.1%	0.0%	2.6%	10.3%	7.7%	15.4%	5.1%	46.2%	7.7%	0.0%	
	5천원 이하	223	0.9%	1.4%	7.2%	5.8%	7.2%	15.3%	15.7%	23.3%	23.3%	0.0%	
	만원 이하	14	0.0%	7.1%	0.0%	14.3%	7.1%	28.6%	14.3%	14.3%	7.1%	7.1%	
	10만원 이하	22	4.6%	4.6%	4.6%	4.6%	4.6%	9.1%	13.6%	22.7%	31.8%	0.0%	
	50만원 이하	11	0.0%	0.0%	9.1%	9.1%	18.2%	27.3%	0.0%	9.1%	27.3%	0.0%	
	100만원 이하	4	0.0%	25.0%	0.0%	25.0%	0.0%	25.0%	0.0%	0.0%	25.0%		
	100만원 초과	2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46	4.4%	2.2%	10.9%	0.0%	0.0%	10.9%	10.9%	30.4%	30.4%	0.0%	
비공식 소득	0원	128	2.3%	2.3%	6.3%	6.3%	9.4%	23.4%	11.7%	25.8%	12.5%	0.0%	
	천원 이하	13	0.0%	7.7%	7.7%	7.7%	7.7%	7.7%	30.8%	23.1%	0.0%		
	5천원 이하	11	9.1%	0.0%	0.0%	0.0%	0.0%	18.2%	9.1%	36.4%	27.3%	0.0%	
	만원 이하	9	0.0%	0.0%	0.0%	0.0%	0.0%	22.2%	22.2%	33.3%	22.2%	0.0%	
	10만원 이하	87	1.2%	2.3%	3.5%	4.6%	8.1%	14.9%	11.5%	29.9%	24.1%	0.0%	
	50만원 이하	200	1.5%	2.5%	5.5%	5.5%	10.5%	13.5%	14.0%	24.0%	23.0%	0.0%	
	100만원 이하	79	2.5%	1.3%	0.0%	3.8%	15.2%	13.9%	15.2%	26.6%	21.5%	0.0%	
	100만원 초과	81	1.2%	1.2%	7.4%	7.4%	3.7%	21.0%	14.8%	25.9%	17.3%	0.0%	
	무응답	45	2.2%	2.2%	8.9%	6.7%	2.2%	8.9%	6.7%	28.9%	28.9%	4.4%	
장사 경험	있다	474	1.3%	1.9%	4.4%	4.9%	8.2%	16.0%	13.1%	26.6%	23.6%	0.0%	
	없다	180	2.2%	2.8%	6.7%	6.7%	10.0%	17.8%	12.8%	27.2%	13.3%	0.6%	
	무응답	5	40.0%	0.0%	0.0%	20.0%	0.0%	0.0%	2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363	1.9%	2.8%	3.9%	6.3%	7.7%	16.8%	14.1%	27.8%	18.7%	0.0%	
	없다	293	1.0%	1.4%	6.5%	4.4%	9.9%	16.0%	11.6%	25.6%	23.2%	0.3%	
	무응답	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265	1.9%	2.3%	6.0%	7.9%	7.2%	14.0%	11.3%	28.7%	20.8%	0.0%	
	결혼	315	1.6%	2.5%	4.8%	3.5%	8.9%	18.1%	11.8%	26.7%	21.9%	0.3%	
	사별/별거/이혼	71	0.0%	0.0%	2.8%	5.6%	14.1%	19.7%	22.5%	21.1%	14.1%	0.0%	
	무응답	6	33.3%	0.0%	0.0%	0.0%	0.0%	0.0%	33.3%	0.0%	0.0%	16.7%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생산 규율 유지(nk10)

문)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생산 규율 유지(%)						
		사례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8.54% (106)	24.25% (301)	32.63% (405)	33.76% (419)	0.81% (10)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6.7%	23.1%	32.7%	36.5%	1.0%	
	2011	128	4.7%	21.9%	38.3%	32.8%	2.3%	
	2012	132	9.1%	31.8%	35.6%	23.5%	0.0%	
	2013	149	10.1%	22.2%	34.9%	30.9%	2.0%	
	2014	146	8.9%	24.7%	23.3%	43.2%	0.0%	
	2015	135	8.2%	16.3%	34.1%	41.5%	0.0%	
	2016	135	10.4%	28.2%	28.2%	33.3%	0.0%	
	2017	85	14.1%	24.7%	34.1%	27.1%	0.0%	
	2018	116	9.5%	25.0%	32.8%	30.2%	2.6%	
	2019	110	4.6%	25.5%	33.6%	36.4%	0.0%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7.3%	23.0%	36.5%	32.7%	0.6%	
	여자	745	9.4%	25.1%	30.1%	34.5%	0.9%	
연령대	20대	411	6.6%	24.3%	36.0%	32.9%	0.2%	
	30대	286	7.7%	20.3%	34.6%	36.7%	0.7%	
	40대	272	8.1%	28.7%	29.8%	32.0%	1.5%	
	50대	185	13.0%	21.1%	29.7%	35.1%	1.1%	
	60대	67	13.4%	32.8%	20.9%	32.8%	0.0%	
	무응답	11	9.1%	18.2%	45.5%	18.2%	9.1%	
북한 거주지	평양	17	17.7%	29.4%	11.8%	41.2%	0.0%	
	남포	7	0.0%	28.6%	28.6%	42.9%	0.0%	
	개성	3	0.0%	0.0%	66.7%	33.3%	0.0%	
	평안남도	20	25.0%	20.0%	25.0%	30.0%	0.0%	
	평안북도	19	10.5%	36.8%	10.5%	42.1%	0.0%	
	함경남도	66	9.1%	21.2%	37.9%	28.8%	3.0%	
	함경북도	432	10.2%	24.5%	32.2%	32.6%	0.5%	
	자강도	4	0.0%	25.0%	0.0%	75.0%	0.0%	
	양강도	632	6.5%	24.2%	34.3%	34.0%	1.0%	
	황해남도	10	10.0%	20.0%	20.0%	50.0%	0.0%	
남한 친척	황해북도	16	6.3%	25.0%	31.3%	37.5%	0.0%	
	강원도	13	23.1%	23.1%	15.4%	38.5%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당원	182	8.8%	23.1%	31.9%	36.3%	0.0%	
당원	후보당원	6	0.0%	0.0%	50.0%	50.0%	0.0%	
	비당원	1040	8.5%	24.3%	32.8%	33.5%	1.0%	
	무응답	11	18.2%	45.5%	18.2%	18.2%	0.0%	

		생산 규율 유지(%)						
		사례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3.1%	23.8%	26.6%	36.0%	0.5%	
	농민	54	3.7%	31.5%	35.2%	29.6%	0.0%	
	사무원	91	11.0%	27.5%	27.5%	34.1%	0.0%	
	피부양자	5	20.0%	20.0%	20.0%	40.0%	0.0%	
	학생	43	4.7%	16.3%	39.5%	37.2%	2.3%	
	군인	31	12.9%	19.4%	25.8%	41.9%	0.0%	
	가정부인	125	8.8%	19.2%	33.6%	38.4%	0.0%	
	무직 및 기타	81	8.6%	19.8%	35.8%	35.8%	0.0%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응답오류	4	0.0%	25.0%	25.0%	25.0%	25.0%	
공식 소득	0원	622	8.4%	22.0%	34.7%	33.9%	1.0%	
	천원 이하	74	6.8%	25.7%	32.4%	35.1%	0.0%	
	5천원 이하	374	8.3%	27.3%	27.8%	36.1%	0.5%	
	만원 이하	20	20.0%	20.0%	20.0%	40.0%	0.0%	
	10만원 이하	45	15.6%	26.7%	37.8%	20.0%	0.0%	
	50만원 이하	34	8.8%	20.6%	41.2%	29.4%	0.0%	
	100만원 이하	10	10.0%	30.0%	40.0%	10.0%	10.0%	
	100만원 초과	4	0.0%	25.0%	25.0%	50.0%	0.0%	
	무응답	56	5.4%	28.6%	33.9%	30.4%	1.8%	
	비공식 소득	0원	253	9.5%	21.0%	35.2%	33.2%	1.2%
천원 이하		20	5.0%	25.0%	35.0%	35.0%	0.0%	
5천원 이하		19	10.5%	26.3%	15.8%	47.4%	0.0%	
만원 이하		12	8.3%	41.7%	16.7%	25.0%	8.3%	
10만원 이하		139	11.5%	20.1%	33.1%	34.5%	0.7%	
50만원 이하		373	7.8%	26.3%	32.7%	32.7%	0.5%	
100만원 이하		170	6.5%	25.9%	34.7%	32.4%	0.6%	
100만원 초과		193	8.8%	22.8%	30.1%	37.8%	0.5%	
무응답		53	3.8%	32.1%	30.2%	32.1%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7.8%	23.8%	32.6%	35.1%	0.7%	
	없다	378	10.1%	25.7%	32.8%	30.7%	0.8%	
	무응답	5	20.0%	0.0%	20.0%	4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8.7%	24.5%	32.4%	33.4%	1.0%	
	없다	528	8.3%	24.1%	33.1%	34.1%	0.4%	
	무응답	3	0.0%	0.0%	0.0%	66.7%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9.1%	23.6%	34.3%	32.6%	0.5%	
	결혼	476	8.4%	25.0%	31.3%	34.7%	0.6%	
	사별/별거/이혼	109	10.1%	22.9%	30.3%	35.8%	0.9%	
	무응답	9	11.1%	11.1%	22.2%	44.4%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nk11)

문)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생활총화 출석률(%)							
		사례수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12.25% (152)	14.26% (177)	27.24% (338)	28.20% (350)	17.49% (217)	0.48% (6)	0.08% (1)
탈북연도	2010	104	13.5%	9.6%	34.6%	23.1%	17.3%	1.9%	0.0%
	2011	128	9.4%	15.6%	24.2%	37.5%	13.3%	0.0%	0.0%
	2012	132	10.6%	17.4%	25.8%	29.6%	16.7%	0.0%	0.0%
	2013	149	10.7%	9.4%	26.2%	34.2%	19.5%	0.0%	0.0%
	2014	146	12.3%	15.8%	24.7%	26.7%	19.9%	0.0%	0.7%
	2015	135	14.8%	14.1%	26.7%	23.7%	20.7%	0.0%	0.0%
	2016	135	8.2%	14.8%	28.2%	27.4%	20.0%	1.5%	0.0%
	2017	85	5.9%	21.2%	38.8%	21.2%	12.9%	0.0%	0.0%
	2018	116	17.2%	12.1%	28.5%	25.9%	15.5%	0.9%	0.0%
	2019	110	20.0%	13.6%	20.0%	29.1%	16.4%	0.9%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9.7%	13.3%	27.6%	31.3%	18.2%	0.0%	0.0%
	여자	745	14.0%	14.9%	27.0%	26.2%	17.1%	0.8%	0.1%
연령대	20대	411	7.3%	16.3%	29.2%	29.9%	16.8%	0.5%	0.0%
	30대	286	15.0%	11.9%	32.2%	24.8%	16.1%	0.0%	0.0%
	40대	272	14.7%	14.3%	23.2%	28.7%	18.4%	0.4%	0.4%
	50대	185	15.7%	14.1%	24.3%	26.0%	18.9%	1.1%	0.0%
	60대	67	13.4%	9.0%	22.4%	35.8%	17.9%	1.5%	0.0%
	무응답	11	0.0%	27.3%	18.2%	27.3%	27.3%	0.0%	0.0%
	평양	17	0.0%	0.0%	17.7%	35.3%	47.1%	0.0%	0.0%
북한거주지	남포	7	0.0%	14.3%	14.3%	57.1%	14.3%	0.0%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0.0%	0.0%
	평안남도	20	5.0%	5.0%	40.0%	25.0%	25.0%	0.0%	0.0%
	평안북도	19	10.5%	21.1%	21.1%	15.8%	31.6%	0.0%	0.0%
	함경남도	66	7.6%	9.1%	18.2%	42.4%	22.7%	0.0%	0.0%
	함경북도	432	10.4%	13.7%	26.9%	29.2%	19.2%	0.5%	0.2%
	자강도	4	25.0%	25.0%	25.0%	25.0%	0.0%	0.0%	0.0%
	양강도	632	14.7%	15.7%	29.1%	26.1%	13.8%	0.6%	0.0%
	황해남도	10	0.0%	20.0%	20.0%	40.0%	20.0%	0.0%	0.0%
	황해북도	16	12.5%	6.3%	25.0%	31.3%	25.0%	0.0%	0.0%
	강원도	13	15.4%	7.7%	7.7%	23.1%	46.2%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7.1%	9.3%	26.4%	31.9%	25.3%	0.0%
후보당원		6	16.7%	33.3%	0.0%	50.0%	0.0%	0.0%	0.0%
비당원		1040	13.2%	15.0%	27.9%	27.0%	16.3%	0.6%	0.1%
무응답		11	9.1%	0.0%	0.0%	72.7%	18.2%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사례수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2.6%	12.2%	33.2%	22.9%	18.7%	0.5%	0.0%
	농민	54	16.7%	16.7%	31.5%	20.4%	14.8%	0.0%	0.0%
	사무원	91	4.4%	14.3%	23.1%	38.5%	19.8%	0.0%	0.0%
	피부양자	5	0.0%	0.0%	20.0%	20.0%	60.0%	0.0%	0.0%
	학생	43	4.7%	16.3%	23.3%	32.6%	23.3%	0.0%	0.0%
	군인	31	3.2%	6.5%	12.9%	41.9%	35.5%	0.0%	0.0%
	가정부인	125	12.8%	20.0%	26.4%	26.4%	12.8%	0.8%	0.8%
	무직 및 기타	81	12.4%	14.8%	28.4%	24.7%	19.8%	0.0%	0.0%
	무응답	4	0.0%	0.0%	50.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25.0%	0.0%	25.0%	0.0%	50.0%	0.0%	0.0%
공식소득	0원	622	14.8%	15.3%	26.4%	25.4%	17.2%	0.8%	0.2%
	천원 이하	74	13.5%	8.1%	25.7%	28.4%	24.3%	0.0%	0.0%
	5천원 이하	374	8.6%	13.1%	30.8%	31.8%	15.8%	0.0%	0.0%
	만원 이하	20	5.0%	20.0%	30.0%	25.0%	20.0%	0.0%	0.0%
	10만원 이하	45	6.7%	17.8%	24.4%	28.9%	22.2%	0.0%	0.0%
	50만원 이하	34	14.7%	20.6%	17.7%	29.4%	17.7%	0.0%	0.0%
	100만원 이하	10	0.0%	10.0%	30.0%	40.0%	10.0%	10.0%	0.0%
	100만원 초과	4	25.0%	0.0%	0.0%	75.0%	0.0%	0.0%	0.0%
	무응답	56	12.5%	12.5%	25.0%	30.4%	19.6%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비공식소득	0원	253	9.9%	19.0%	24.9%	28.5%	17.0%	0.8%	0.0%
	천원 이하	20	20.0%	10.0%	35.0%	20.0%	15.0%	0.0%	0.0%
	5천원 이하	19	21.1%	21.1%	21.1%	10.5%	21.1%	5.3%	0.0%
	만원 이하	12	8.3%	8.3%	33.3%	25.0%	25.0%	0.0%	0.0%
	10만원 이하	139	13.0%	12.2%	28.1%	23.7%	22.3%	0.7%	0.0%
	50만원 이하	373	10.5%	12.6%	26.3%	35.1%	15.3%	0.0%	0.3%
	100만원 이하	170	14.7%	13.5%	29.4%	25.9%	16.5%	0.0%	0.0%
	100만원 초과	193	14.5%	15.0%	30.6%	22.8%	16.6%	0.5%	0.0%
	무응답	53	13.2%	11.3%	20.8%	28.3%	24.5%	1.9%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정사경험	있다	858	13.2%	13.8%	27.5%	27.6%	17.4%	0.5%	0.1%
	없다	378	9.8%	15.6%	26.7%	29.9%	17.7%	0.3%	0.0%
	무응답	5	40.0%	0.0%	20.0%	0.0%	20.0%	20.0%	0.0%
남한친척	있다	710	13.9%	13.4%	26.9%	28.0%	17.2%	0.6%	0.0%
	없다	528	9.7%	15.5%	27.8%	28.6%	18.0%	0.2%	0.2%
	무응답	3	66.7%	0.0%	0.0%	0.0%	0.0%	33.3%	0.0%
혼인여부	미혼	420	8.8%	15.5%	28.8%	28.8%	17.9%	0.2%	0.0%
	결혼	476	12.0%	13.5%	26.5%	29.4%	18.1%	0.4%	0.2%
	사별/별거/이혼	109	11.0%	15.6%	33.0%	23.9%	16.5%	0.0%	0.0%
	무응답	9	44.4%	0.0%	11.1%	11.1%	22.2%	11.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경제시스템 지지도(nk12)

문)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경제시스템 지지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전체		1241	8.30% (103)	7.09% (88)	13.62% (169)	33.44% (415)	37.31% (463)	0.16% (2)	0.08% (1)	
탈북연도	2010	104	9.6%	12.5%	9.6%	33.7%	32.7%	1.9%	0.0%	
	2011	128	11.7%	10.2%	17.2%	29.7%	31.3%	0.0%	0.0%	
	2012	132	6.1%	6.1%	15.9%	35.6%	36.4%	0.0%	0.0%	
	2013	149	8.1%	6.0%	10.7%	34.2%	40.9%	0.0%	0.0%	
	2014	146	4.1%	6.9%	10.3%	22.6%	56.2%	0.0%	0.0%	
	2015	135	8.2%	5.2%	11.9%	39.3%	35.6%	0.0%	0.0%	
	2016	135	10.4%	5.9%	11.1%	31.1%	41.5%	0.0%	0.0%	
	2017	85	12.9%	4.7%	23.5%	27.1%	31.8%	0.0%	0.0%	
	2018	116	7.8%	5.2%	13.8%	42.2%	31.0%	0.0%	0.0%	
	2019	110	6.4%	9.1%	16.3%	39.1%	28.2%	0.0%	0.9%	
2020	1	0.0%	0.0%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8.5%	8.1%	12.9%	29.2%	41.3%	0.0%	0.0%	
	여자	745	8.2%	6.4%	14.1%	36.2%	34.6%	0.3%	0.1%	
연령대	20대	411	11.2%	8.8%	17.5%	27.7%	34.6%	0.2%	0.0%	
	30대	286	6.6%	4.9%	14.0%	34.6%	39.5%	0.0%	0.4%	
	40대	272	5.2%	5.9%	9.9%	37.1%	41.5%	0.4%	0.0%	
	50대	185	9.2%	7.0%	8.7%	39.5%	35.7%	0.0%	0.0%	
	60대	67	7.5%	7.5%	17.9%	32.8%	34.3%	0.0%	0.0%	
	무응답	11	18.2%	18.2%	9.1%	27.3%	217.3%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9%	5.9%	11.8%	17.7%	58.8%	0.0%	0.0%	
	남포	7	14.3%	28.6%	0.0%	42.9%	14.3%	0.0%	0.0%	
	개성	3	33.3%	0.0%	0.0%	33.3%	33.3%	0.0%	0.0%	
	평안남도	20	5.0%	15.0%	10.0%	25.0%	45.0%	0.0%	0.0%	
	평안북도	19	10.5%	5.3%	15.8%	15.8%	52.6%	0.0%	0.0%	
	함경남도	66	6.1%	15.2%	15.2%	39.4%	24.2%	0.0%	0.0%	
	함경북도	432	8.3%	5.8%	14.4%	31.9%	39.4%	0.2%	0.0%	
	자강도	4	0.0%	0.0%	25.0%	75.0%	0.0%	0.0%	0.0%	
	양강도	632	7.9%	6.5%	13.5%	35.8%	36.1%	0.2%	0.2%	
	황해남도	10	20.0%	10.0%	0.0%	220.0%	50.0%	0.0%	0.0%	
	황해북도	16	18.8%	12.5%	18.8%	12.5%	37.5%	0.0%	0.0%	
	강원도	13	15.4%	7.7%	7.7%	23.1%	46.2%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0.0%	100.0%	0.0%	0.0%		

		경제시스템 지지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당원	당원	182	7.7%	6.6%	12.6%	36.3%	36.8%	0.0%	0.0%	
	후보당원	6	0.0%	0.0%	0.0%	50.0%	50.0%	0.0%	0.0%	
	비당원	1040	8.5%	7.2%	13.6%	32.9%	37.6%	0.2%	0.1%	
	무응답	11	9.1%	9.1%	27.3%	36.4%	18.2%	0.0%	0.0%	
직업	노동자	214	8.9%	3.3%	12.6%	32.7%	42.5%			
	농민	54	11.1%	16.7%	13.0%	33.3%	35.9%			
	사무원	91	7.7%	6.6%	12.1%	31.9%	41.8%			
	피부양자	5	20.0%	40.0%	0.0%	20.0%	20.0%			
	학생	43	0.0%	11.6%	9.3%	27.9%	51.2%			
	군인	31	19.4%	0.0%	16.1%	25.8%	38.7%			
	가정부인	125	4.8%	3.2%	14.4%	33.6%	44.0%			
	무직 및 기타	81	11.1%	6.2%	9.9%	25.9%	46.9%			
	무응답	4	0.0%	0.0%	25.0%	0.0%	75.0%			
	응답오류	4	0.0%	0.0%	25.0%	25.0%	50.0%			
공식 소득	0원	622	8.8%	6.3%	14.3%	34.4%	36.2%	0.0%	0.0%	
	천원 이하	74	6.8%	10.8%	17.6%	28.4%	36.5%	0.0%	0.0%	
	5천원 이하	374	7.2%	6.2%	10.2%	34.2%	42.3%	0.0%	0.0%	
	만원 이하	20	0.0%	0.0%	15.0%	30.0%	55.0%	0.0%	0.0%	
	10만원 이하	45	13.3%	8.9%	22.2%	33.3%	20.0%	2.2%	0.0%	
	50만원 이하	34	17.7%	14.7%	17.7%	23.5%	26.5%	0.0%	0.0%	
	100만원 이하	10	10.0%	10.0%	10.0%	40.0%	20.0%	1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0.0%	25.0%	75.0%	0.0%	0.0%	
	무응답	56	5.4%	14.3%	16.1%	32.1%	30.4%	0.0%	1.8%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11.9%	11.9%	15.0%	30.4%	30.8%	0.0%	0.0%	
	천원 이하	20	10.0%	0.0%	10.0%	55.0%	25.0%	0.0%	0.0%	
	5천원 이하	19	15.8%	15.8%	10.5%	15.8%	42.1%	0.0%	0.0%	
	만원 이하	12	25.0%	8.3%	41.7%	16.7%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7.9%	7.2%	14.4%	39.6%	30.9%	0.0%	0.0%	
	50만원 이하	373	6.2%	6.4%	12.9%	35.9%	38.6%	0.0%	0.0%	
	100만원 이하	170	5.9%	2.9%	11.8%	34.7%	44.7%	0.0%	0.0%	
	100만원 초과	193	7.8%	4.2%	10.9%	28.0%	49.2%	0.0%	0.0%	
	무응답	53	11.2%	9.4%	20.8%	30.2%	22.6%	3.8%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7.2%	4.9%	12.9%	33.6%	41.1%	0.1%	0.1%	
	없다	378	10.9%	12.2%	15.3%	33.1%	28.6%	0.0%	0.0%	
	무응답	5	0.0%	0.0%	0.0%	40.0%	40.0%	2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7.8%	5.9%	13.0%	35.4%	37.9%	0.1%	0.0%	
	없다	528	9.1%	8.7%	14.6%	31.1%	36.4%	0.0%	0.2%	
	무응답	3	0.0%	0.0%	0.0%	0.0%	66.7%	33.3%	0.0%	
혼인 여부	미혼	420	11.0%	7.9%	13.8%	29.8%	37.4%	0.2%		
	결혼	476	7.4%	7.1%	14.1%	32.6%	38.9%	0.0%		
	사별/별거/이혼	109	4.6%	3.7%	8.3%	36.7%	46.8%	0.0%		
	무응답	9	11.1%	11.1%	11.1%	11.1%	44.4%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비판행위 정도(nk05)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빼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 방문(%)					
		사례수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26.27% (326)	39.56% (491)	33.92% (421)	0.24% (3)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24.0%	38.5%	36.5%	1.0%	
	2011	128	21.9%	47.7%	30.5%	0.0%	
	2012	132	27.3%	36.4%	36.4%	0.0%	
	2013	149	21.5%	41.6%	36.2%	0.7%	
	2014	146	37.7%	37.7%	24.7%	0.0%	
	2015	135	24.4%	43.7%	31.9%	0.0%	
	2016	135	31.9%	37.8%	30.4%	0.0%	
	2017	85	20.0%	43.5%	36.5%	0.0%	
	2018	116	30.2%	36.2%	32.8%	0.9%	
	2019	110	20.0%	31.8%	48.2%	0.0%	
2020	1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36.5%	39.7%	23.4%	0.4%	
	여자	745	19.5%	39.5%	40.9%	0.1%	
연령대	20대	411	23.4%	41.9%	34.8%	0.0%	
	30대	286	28.7%	45.1%	25.9%	0.4%	
	40대	272	28.3%	39.0%	32.4%	0.4%	
	50대	185	29.2%	30.8%	39.5%	0.5%	
	60대	67	20.9%	31.3%	47.8%	0.0%	
	무응답	11	18.2%	27.3%	54.6%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47.1%	41.2%	11.8%	0.0%	
	남포	7	71.4%	14.3%	14.3%	0.0%	
	개성	3	0.0%	66.7%	33.3%	0.0%	
	평안남도	20	50.0%	30.0%	20.0%	0.0%	
	평안북도	19	42.1%	52.6%	5.3%	0.0%	
	함경남도	66	36.4%	39.4%	24.2%	0.0%	
	함경북도	432	23.8%	41.0%	34.7%	0.5%	
	자강도	4	0.0%	25.0%	75.0%	0.0%	
	양강도	632	24.2%	39.9%	35.8%	0.2%	
	황해남도	10	50.0%	10.0%	40.0%	0.0%	
	황해북도	16	31.3%	18.8%	50.0%	0.0%	
	강원도	13	30.8%	30.8%	38.5%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41.2%	34.1%	24.7%	0.0%	
	후보당원	6	50.0%	16.7%	16.7%	16.7%	
	비당원	1040	23.7%	40.6%	35.6%	0.2%	
	무응답	11	9.1%	54.6%	36.4%	0.0%	

		다른 지역 방문(%)					
		사례수	자주 가보았다	가끔 가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3.8%	43.0%	33.2%	0.0%	
	농민	54	9.3%	33.3%	57.4%	0.0%	
	사무원	91	37.4%	44.0%	18.7%	0.0%	
	피부양자	5	20.0%	20.0%	60.0%	0.0%	
	학생	43	34.9%	44.2%	20.9%	0.0%	
	군인	31	58.1%	35.5%	6.5%	0.0%	
	가정부인	125	20.0%	43.2%	36.8%	0.0%	
	무직 및 기타	81	33.3%	35.8%	30.9%	0.0%	
	무응답	4	75.0%	25.0%	0.0%	0.0%	
	응답오류	4	25.0%	0.0%	50.0%	25.0%	
공식 소득	0원	622	23.3%	38.6%	37.8%	0.3%	
	천원 이하	74	28.4%	44.6%	27.0%	0.0%	
	5천원 이하	374	33.2%	40.9%	25.9%	0.0%	
	만원 이하	20	40.0%	20.0%	40.0%	0.0%	
	10만원 이하	45	22.2%	42.2%	35.6%	0.0%	
	50만원 이하	34	23.5%	44.1%	32.4%	0.0%	
	100만원 이하	10	20.0%	50.0%	20.0%	10.0%	
	100만원 초과	4	25.0%	75.0%	0.0%	0.0%	
	무응답	56	10.7%	33.9%	55.4%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19.0%	37.9%	43.1%	0.0%
천원 이하		20	20.0%	55.0%	25.0%	0.0%	
5천원 이하		19	21.1%	42.1%	36.8%	0.0%	
만원 이하		12	16.7%	50.0%	33.3%	0.0%	
10만원 이하		139	20.9%	33.1%	46.0%	0.0%	
50만원 이하		373	25.5%	43.4%	30.8%	0.3%	
100만원 이하		170	34.7%	42.9%	21.8%	0.6%	
100만원 초과		193	39.9%	36.3%	23.8%	0.0%	
무응답		53	15.1%	28.3%	54.7%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1.4%	39.5%	28.9%	0.2%	
	없다	378	15.1%	39.7%	45.2%	0.0%	
	무응답	5	0.0%	40.0%	4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25.2%	39.4%	35.1%	0.3%	
	없다	528	27.8%	40.0%	32.2%	0.0%	
	무응답	3	0.0%	0.0%	66.7%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25.5%	42.4%	32.1%	0.0%	
	결혼	476	27.1%	38.7%	34.0%	0.2%	
	사별/별거/이혼	109	28.4%	45.9%	25.7%	0.0%	
	무응답	9	11.1%	22.2%	55.6%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nk14)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과 개인 우선도(%)						
		사례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7.17% (89)	7.82% (97)	78.40% (973)	6.45% (80)	0.16% (2)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4.8%	10.6%	77.9%	4.8%	1.9%	
	2011	128	7.0%	13.3%	73.4%	6.3%	0.0%	
	2012	132	6.8%	5.3%	84.0%	3.8%	0.0%	
	2013	149	8.7%	8.7%	77.9%	4.7%	0.0%	
	2014	146	5.5%	5.5%	80.1%	8.9%	0.0%	
	2015	135	9.6%	8.2%	77.8%	4.4%	0.0%	
	2016	135	8.9%	6.7%	75.6%	8.9%	0.0%	
	2017	85	5.9%	4.7%	81.2%	8.2%	0.0%	
	2018	116	9.5%	8.6%	74.1%	7.8%	0.0%	
	2019	110	3.6%	6.4%	82.7%	7.3%	0.0%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9.3%	7.5%	76.8%	6.5%	0.0%	
	여자	745	5.8%	8.1%	79.5%	6.4%	0.3%	
연령대	20대	411	7.8%	8.3%	79.1%	4.9%	0.0%	
	30대	286	4.9%	7.7%	80.1%	7.0%	0.4%	
	40대	272	6.3%	6.6%	80.5%	6.3%	0.4%	
	50대	185	10.3%	5.4%	76.2%	8.1%	0.0%	
	60대	67	9.0%	17.9%	64.2%	9.0%	0.0%	
	무응답	11	9.1%	0.0%	90.9%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23.5%	11.8%	58.8%	5.9%	0.0%	
	남포	7	0.0%	14.3%	85.7%	0.0%	0.0%	
	개성	3	0.0%	0.0%	33.3%	66.7%	0.0%	
	평안남도	20	5.0%	5.0%	85.0%	5.0%	0.0%	
	평안북도	19	5.3%	0.0%	89.5%	5.3%	0.0%	
	함경남도	66	9.1%	7.6%	75.8%	7.6%	0.0%	
	함경북도	432	5.6%	9.7%	78.0%	6.5%	0.2%	
	자강도	4	0.0%	0.0%	100.0%	0.0%	0.0%	
	양강도	632	7.4%	6.7%	79.6%	6.2%	0.2%	
	황해남도	10	20.0%	0.0%	60.0%	20.0%	0.0%	
	황해북도	16	0.0%	18.8%	75.0%	6.3%	0.0%	
	강원도	13	23.1%	7.7%	69.2%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82	11.5%	7.7%	72.0%	8.8%	0.0%	
	후보당원	6	0.0%	0.0%	100.0%	0.0%	0.0%	
	비당원	1040	6.5%	7.9%	79.3%	6.1%	0.2%	
	무응답	11	0.0%	9.1%	81.8%	9.1%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사례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5.6%	7.5%	81.8%	5.1%		
	농민	54	9.3%	9.3%	77.8%	3.7%		
	사무원	91	5.5%	6.6%	79.1%	8.8%		
	피부양자	5	40.0%	20.0%	40.0%	0.0%		
	학생	43	14.0%	0.0%	76.7%	9.3%		
	군인	31	19.4%	19.4%	58.1%	3.2%		
	가정부인	125	5.6%	5.6%	79.2%	9.6%		
	무직 및 기타	81	8.6%	3.7%	80.3%	7.4%		
	무응답	4	0.0%	25.0%	75.0%	0.0%		
	응답오류	4	25.0%	0.0%	50.0%	25.0%		
공식 소득	0원	622	7.1%	7.2%	78.5%	7.2%	0.0%	
	천원 이하	74	10.8%	12.2%	70.3%	6.8%	0.0%	
	5천원 이하	374	6.2%	6.2%	82.6%	5.1%	0.0%	
	만원 이하	20	20.0%	5.0%	70.0%	5.0%	0.0%	
	10만원 이하	45	4.4%	17.8%	71.1%	6.7%	0.0%	
	50만원 이하	34	11.8%	8.8%	76.5%	2.9%	0.0%	
	100만원 이하	10	10.0%	0.0%	70.0%	10.0%	10.0%	
	100만원 초과	4	0.0%	0.0%	100.0%	0.0%	0.0%	
	무응답	56	5.4%	14.3%	71.4%	7.1%	1.8%	
	무응답	56	5.4%	14.3%	71.4%	7.1%	1.8%	
비공식 소득	0원	253	12.3%	8.7%	74.3%	4.7%	0.0%	
	천원 이하	20	10.0%	0.0%	90.0%	0.0%	0.0%	
	5천원 이하	19	0.0%	15.8%	68.4%	15.8%	0.0%	
	만원 이하	12	8.3%	16.7%	66.7%	8.3%	0.0%	
	10만원 이하	139	6.5%	10.1%	74.1%	9.4%	0.0%	
	50만원 이하	373	4.3%	7.8%	81.8%	6.2%	0.0%	
	100만원 이하	170	8.2%	5.9%	80.6%	5.3%	0.0%	
	100만원 초과	193	5.7%	3.6%	82.4%	8.3%	0.0%	
	무응답	53	7.6%	17.0%	66.0%	5.7%	3.8%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5.4%	6.8%	80.9%	6.9%	0.1%	
	없다	378	11.4%	10.3%	72.8%	5.6%	0.0%	
	무응답	5	0.0%	0.0%	8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7.3%	6.2%	80.4%	5.9%	0.1%	
	없다	528	7.0%	10.0%	75.8%	7.2%	0.0%	
	무응답	3	0.0%	0.0%	66.7%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8.3%	8.8%	78.1%	4.8%	0.0%	
	결혼	476	6.1%	8.2%	79.6%	5.9%	0.2%	
	사별/별거/이혼	109	8.3%	3.7%	74.3%	13.8%	0.0%	
	무응답	9	0.0%	0.0%	88.9%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고난의 행군 변화(nk15)

문)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200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행군 변화(%)							
		사례수	훨씬 더 높아졌다	조금 더 높아졌다	조금 더 나빠졌다	훨씬 더 나빠졌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64	22.53% (82)	37.36% (136)	14.29% (52)	14.29% (52)	0.55% (2)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18.3%	31.7%	11.5%	36.5%	1.9%		
	2011	128	23.4%	37.5%	15.6%	23.4%	0.0%		
	2012	132	25.0%	41.7%	15.2%	18.2%	0.0%		
성별	남자	150	28.0%	40.7%	12.7%	18.0%	0.7%		
	여자	214	18.7%	35.1%	15.4%	30.4%	0.5%		
연령대	20대	117	32.5%	37.6%	12.8%	16.2%	0.9%		
	30대	81	17.3%	46.9%	11.1%	24.7%	0.0%		
	40대	85	24.7%	32.9%	15.3%	25.9%	1.2%		
	50대	48	8.3%	41.7%	12.5%	37.3%	0.0%		
	60대	30	13.3%	13.3%	30.0%	43.3%	0.0%		
	무응답	3	33.3%	66.7%	0.0%	0.0%	0.0%		
	평양	1	100.0%	0.0%	0.0%	0.0%	0.0%		
북한거주지	남포	1	0.0%	0.0%	0.0%	100.0%	0.0%		
	개성	0							
	평안남도	7	14.3%	14.3%	42.9%	28.6%	0.0%		
	평안북도	7	14.3%	42.9%	14.3%	28.6%	0.0%		
	함경남도	28	28.6%	46.4%	3.6%	21.4%	0.0%		
	함경북도	171	25.7%	38.0%	12.3%	22.8%	1.2%		
	자강도	0							
	양강도	137	18.3%	26.5%	16.1%	29.2%	0.0%		
	황해남도	3	0.0%	0.0%	33.3%	66.7%	0.0%		
	황해북도	5	20.0%	20.0%	60.0%	0.0%	0.0%		
	강원도	3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47	19.2%	38.3%	19.2%	23.4%	0.0%	
		후보당원	1	0.0%	0.0%	100.0%	0.0%	0.0%	
비당원		310	22.9%	37.4%	12.2%	25.8%	0.7%		
무응답		4	25.0%	25.0%	25.0%	25.0%	0.0%		

		고난의 행군 변화(%)						
		사례수	훨씬 더 높아졌다	조금 더 높아졌다	조금 더 나빠졌다	훨씬 더 나빠졌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농민							
	사무원							
	피부양자							
	학생							
직업	군인							
	가정부인							
	무직 및 기타							
공식 소득	무응답							
	응답오류							
	0원	127	20.5%	36.2%	15.8%	27.6%	0.0%	
	천원 이하	19	21.1%	31.6%	10.5%	36.8%	0.0%	
	5천원 이하	132	27.3%	37.1%	16.7%	18.9%	0.0%	
	만원 이하	11	27.3%	45.5%	0.0%	27.3%	0.0%	
	10만원 이하	15	13.3%	53.3%	13.3%	20.0%	0.0%	
	50만원 이하	11	36.4%	45.5%	18.2%	0.0%	0.0%	
	100만원 이하	3	0.0%	33.3%	0.0%	33.3%	33.3%	
	100만원 초과	0						
비공식 소득	무응답	46	15.2%	34.8%	8.7%	39.1%	2.2%	
	0원	71	16.9%	32.4%	22.5%	28.2%	0.0%	
	천원 이하	9	22.2%	22.2%	22.2%	33.3%	0.0%	
	5천원 이하	9	0.0%	22.2%	0.0%	77.8%	0.0%	
	만원 이하	7	28.6%	14.3%	14.3%	42.9%	0.0%	
	10만원 이하	52	13.5%	40.4%	21.2%	25.0%	0.0%	
	50만원 이하	114	24.6%	41.2%	13.2%	21.1%	0.0%	
	100만원 이하	26	30.8%	34.6%	7.7%	26.9%	0.0%	
	100만원 초과	32	40.6%	43.8%	6.3%	9.4%	0.0%	
	무응답	43	20.9%	39.5%	7.0%	27.9%	4.7%	
정사 경험	있다	258	24.0%	37.6%	13.2%	25.2%	0.0%	
	없다	101	19.8%	37.6%	17.8%	23.8%	1.0%	
	무응답	5	0.0%	20.0%	0.0%	60.0%	20.0%	
남한 친척	있다	175	25.7%	38.3%	13.7%	22.3%	0.0%	
	없다	186	19.9%	37.1%	15.1%	27.4%	0.5%	
	무응답	3	0.0%	0.0%	0.0%	66.7%	33.3%	
혼인 여부	미혼	162	25.3%	37.0%	14.2%	22.8%	0.6%	
	결혼	171	21.6%	36.8%	15.8%	25.7%	0.0%	
	사별/별거/이혼	24	12.5%	50.0%	8.3%	29.2%	0.0%	
	무응답	6	0.0%	16.7%	0.0%	66.7%	16.7%	

외부소식 접촉 경로(nk17)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외부소식 접촉 경로(%)							
		사례수	로동신문	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 한 다른 나 라의 매체 (방송통신, 배라 등)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28	9.48% (69)	7.01% (51)	51.24% (373)	10.3% (75)	20.19% (147)	0.14% (1)	1.65% (12)
탈북 연도	2014	146	4.1%	6.2%	48.0%	10.3%	29.5%	0.7%	1.4%
	2015	135	11.1%	5.2%	48.9%	14.1%	20.7%	0.0%	0.0%
	2016	135	12.6%	5.9%	48.2%	8.9%	24.4%	0.0%	0.0%
	2017	85	11.8%	4.7%	48.2%	14.1%	17.7%	0.0%	3.5%
	2018	116	9.5%	10.3%	58.6%	7.8%	9.5%	0.0%	4.3%
	2019	110	9.1%	10.0%	57.3%	7.3%	14.6%	0.0%	1.8%
	2020	1	0.0%	0.0%	0.0%	0.0%	0.0%	100.0%	0.0%
성별	남자	296	11.2%	5.1%	42.6%	7.4%	31.1%	0.3%	2.4%
	여자	432	8.3%	8.3%	57.2%	12.3%	12.7%	0.0%	1.2%
연령대	20대	249	8.0%	10.8%	49.8%	11.2%	18.1%	0.0%	2.0%
	30대	177	9.0%	4.0%	50.9%	7.9%	27.7%	0.0%	0.6%
	40대	148	10.1%	1.4%	52.0%	14.2%	21.6%	0.0%	0.7%
	50대	118	13.6%	8.5%	54.2%	6.8%	13.6%	0.9%	2.5%
	60대	22	9.1%	0.0%	59.1%	13.6%	9.1%	0.0%	9.1%
	무응답	5	0.0%	40.0%	40.0%	0.0%	2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3	7.7%	0.0%	46.2%	15.4%	15.4%	0.0%
남포		4	25.0%	0.0%	50.0%	25.0%	0.0%	0.0%	0.0%
개성		3	0.0%	33.3%	33.3%	0.0%	33.3%	0.0%	0.0%
평안남도		9	0.0%	0.0%	55.6%	11.1%	22.2%	0.0%	11.1%
평안북도		12	0.0%	0.0%	58.3%	0.0%	33.3%	0.0%	8.3%
함경남도		29	6.9%	10.3%	41.4%	13.8%	27.6%	0.0%	0.0%
함경북도		208	6.7%	6.7%	51.9%	9.1%	24.5%	0.0%	1.0%
자강도		3	0.0%	0.0%	33.3%	33.3%	33.3%	0.0%	0.0%
양강도		423	10.9%	7.3%	51.8%	11.1%	17.3%	0.2%	1.4%
황해남도		6	0.0%	0.0%	66.7%	0.0%	33.3%	0.0%	0.0%
황해북도		9	11.1%	22.2%	55.6%	0.0%	11.1%	0.0%	0.0%
강원도		8	37.5%	0.0%	37.5%	0.0%	25.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15	13.9%	5.2%	42.6%	7.8%	27.8%	0.9%	1.7%
	후보당원	4	0.0%	0.0%	25.0%	50.0%	25.0%	0.0%	0.0%
	비당원	603	8.6%	7.5%	52.7%	10.6%	18.9%	0.0%	1.7%
	무응답	6	16.7%	0.0%	83.3%	0.0%	0.0%	0.0%	0.0%

		외부소식 접촉 경로(%)							
		사례수	로동신문	방송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강연, 학습	남한을 포함 한 다른 나 라의 매체 (방송통신, 배라 등)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66	9.6%	6.6%	47.0%	6.0%	29.5%	0.0%	1.2%
	농민	41	12.2%	0.0%	56.1%	24.4%	7.3%	0.0%	0.0%
	사무원	70	10.0%	1.4%	47.1%	12.9%	25.7%	0.0%	2.9%
	피부양자	2	0.0%	50.0%	0.0%	50.0%	0.0%	0.0%	0.0%
	학생	32	0.0%	12.5%	43.8%	12.5%	31.3%	0.0%	0.0%
	군인	24	8.3%	8.3%	33.3%	25.0%	20.8%	4.2%	0.0%
	가정부인	100	9.0%	2.0%	55.0%	16.0%	17.0%	0.0%	1.0%
	무직 및 기타	63	12.7%	9.5%	52.4%	3.2%	22.2%	0.0%	0.0%
	무응답	4	0.0%	25.0%	0.0%	0.0%	75.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404	9.7%	8.2%	51.0%	12.1%	17.8%	0.0%	1.2%
	천원 이하	42	9.5%	4.8%	52.4%	16.7%	16.7%	0.0%	0.0%
	5천원 이하	203	8.4%	5.4%	48.8%	5.4%	29.6%	0.5%	2.0%
	만원 이하	7	14.3%	0.0%	71.4%	0.0%	14.3%	0.0%	0.0%
	10만원 이하	27	11.1%	7.4%	37.0%	22.2%	14.4%	0.0%	7.4%
	50만원 이하	23	17.4%	8.7%	56.5%	4.4%	8.7%	0.0%	4.4%
	100만원 이하	7	14.3%	0.0%	85.7%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3	0.0%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10	0.0%	10.0%	70.0%	10.0%	1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149	11.4%	12.1%	47.7%	12.8%	12.8%	0.7%	2.7%
	천원 이하	7	14.3%	0.0%	57.1%	14.3%	14.3%	0.0%	0.0%
	5천원 이하	8	0.0%	0.0%	25.0%	37.5%	37.5%	0.0%	0.0%
	만원 이하	3	33.3%	0.0%	66.7%	0.0%	0.0%	0.0%	0.0%
	10만원 이하	61	8.2%	6.6%	52.5%	16.4%	14.8%	0.0%	1.6%
	50만원 이하	216	11.6%	6.5%	49.1%	11.1%	20.8%	0.0%	0.9%
	100만원 이하	127	8.7%	3.9%	51.2%	10.2%	22.8%	0.0%	3.2%
	100만원 초과	146	6.2%	6.2%	56.2%	3.4%	27.4%	0.0%	0.7%
	무응답	8	0.0%	12.5%	75.0%	0.0%	12.5%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496	7.7%	5.0%	54.2%	8.5%	22.8%	0.2%	1.6%
	없다	232	13.4%	11.2%	44.8%	14.2%	14.7%	0.0%	1.7%
남한 친척	있다	432	8.8%	8.8%	52.6%	10.9%	17.1%	0.0%	1.9%
	없다	296	10.5%	4.4%	49.3%	9.5%	24.7%	0.3%	1.4%
혼인 여부	미혼	212	6.6%	8.5%	48.1%	12.3%	23.6%	0.0%	0.9%
	결혼	223	12.1%	3.6%	47.5%	11.7%	23.8%	0.5%	0.9%
	사별/별거/이혼	64	9.4%	3.1%	51.6%	9.4%	25.0%	0.0%	1.6%
	무응답	3	33.3%	0.0%	66.7%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언론신뢰도(nk18)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언론신뢰도(%)						
		사례수	대부분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582	29.21% (170)	35.4% (206)	28.69% (167)	6.53% (38)	0.00% (0)	0.17% (1)
탈북 연도	2015	135	31.1%	31.1%	27.4%	10.4%		0.0%
	2016	135	27.4%	39.3%	25.9%	7.4%		0.0%
	2017	85	35.3%	29.4%	31.8%	3.5%		0.0%
	2018	116	24.1%	34.5%	37.1%	4.3%		0.0%
	2019	110	30.0%	41.8%	21.8%	5.5%		0.9%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239	26.8%	41.4%	25.9%	5.4%		0.4%
	여자	343	30.9%	31.2%	30.6%	7.3%		0.0%
연령대	20대	205	32.7%	27.3%	29.8%	10.2%		0.0%
	30대	132	23.5%	46.2%	25.8%	4.6%		0.0%
	40대	111	27.9%	30.6%	34.2%	7.2%		0.0%
	50대	102	29.4%	42.2%	24.5%	2.9%		1.0%
	60대	19	26.3%	42.1%	31.6%	0.0%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0	20.0%	40.0%	30.0%	10.0%		0.0%
	남포	3	66.7%	33.3%	0.0%	0.0%		0.0%
	개성	3	33.3%	33.3%	33.3%	0.0%		0.0%
	평안남도	6	50.0%	33.3%	0.0%	16.7%		0.0%
	평안북도	9	33.3%	22.2%	44.4%	0.0%		0.0%
	함경남도	24	50.0%	29.2%	16.7%	4.2%		0.0%
	함경북도	144	27.1%	33.3%	34.0%	5.6%		0.0%
	자강도	3	0.0%	66.7%	33.3%	0.0%		0.0%
	양강도	363	28.4%	36.4%	27.6%	7.4%		0.3%
	황해남도	5	20.0%	20.0%	60.0%	0.0%		0.0%
	황해북도	5	20.0%	40.0%	40.0%	0.0%		0.0%
	강원도	6	50.0%	50.0%	0.0%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89	31.5%	47.2%	18.0%	2.3%	
후보당원		3	0.0%	100.0%	0.0%	0.0%		0.0%
비당원		485	28.3%	33.2%	31.1%	7.4%		0.0%
무응답		5	100.0%	0.0%	0.0%	0.0%		0.0%

		언론신뢰도(%)						
		사례수	대부분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일부만 사실이 라고 생각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 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19	27.7%	33.6%	29.4%	9.2%		
	농민	33	42.4%	27.3%	27.3%	3.0%		
	사무원	46	28.3%	43.5%	28.3%	0.0%		
	피부양자	2	50.0%	0.0%	0.0%	50.0%		
	학생	23	21.7%	21.7%	43.5%	13.0%		
	군인	18	44.4%	38.9%	11.1%	5.6%		
	가정부인	65	35.4%	30.8%	24.6%	9.2%		
	무직 및 기타	48	27.1%	35.4%	27.1%	10.4%		
	무응답	2	0.0%	50.0%	5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원	324	28.4%	34.6%	29.9%	7.1%		0.0%
	천원 이하	35	31.4%	34.3%	31.4%	2.9%		0.0%
	5천원 이하	151	25.2%	42.4%	27.8%	4.0%		0.7%
	만원 이하	6	33.3%	16.7%	50.0%	0.0%		0.0%
	10만원 이하	23	47.8%	30.4%	13.0%	8.7%		0.0%
	50만원 이하	23	43.5%	17.4%	26.1%	13.0%		0.0%
	100만원 이하	6	16.7%	0.0%	50.0%	33.3%		0.0%
	100만원 초과	2	0.0%	100.0%	0.0%	0.0%		0.0%
비공식 소득	무응답	10	50.0%	20.0%	20.0%	10.0%		0.0%
	0원	125	36.8%	27.2%	24.8%	11.2%		0.0%
	천원 이하	7	14.3%	28.6%	42.9%	14.3%		0.0%
	5천원 이하	8	50.0%	12.5%	25.0%	12.5%		0.0%
	만원 이하	3	33.3%	66.7%	0.0%	0.0%		0.0%
	10만원 이하	52	30.8%	30.8%	30.8%	7.7%		0.0%
	50만원 이하	173	25.4%	3.9%	30.1%	4.1%		0.6%
	100만원 이하	91	28.6%	38.5%	28.6%	4.4%		0.0%
	100만원 초과	112	22.3%	39.3%	32.1%	6.3%		0.0%
	무응답	8	50.0%	37.5%	12.5%	0.0%		0.0%
	장사 경험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있다		384	25.8%	37.2%	30.0%	6.8%		0.3%
없다		198	35.9%	31.8%	26.3%	6.1%		0.0%
남한 친척	있다	347	27.1%	36.0%	28.8%	7.8%		0.3%
	없다	235	32.3%	34.5%	28.5%	4.7%		0.0%
혼인 여부	미혼	155	31.6%	27.1%	32.3%	9.0%		
	결혼	161	29.2%	39.8%	23.6%	7.5%		
	사별/별거/이혼	38	31.6%	36.8%	26.3%	5.3%		
	무응답	3	66.7%	0.0%	33.3%	0.0%		

주변국 친밀감(fp01)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시는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주변국 친밀감(%)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1.23% (14)	0.79%(9)	18.93% (215)	72.89% (828)	5.19% (59)	0.26% (3)	0.70% (8)
탈북 연도	2011	127	1.6%	0.8%	23.6%	69.3%	3.2%	1.6%	0.0%
	2012	132	1.5%	0.0%	12.9%	81.8%	2.3%	0.0%	1.5%
	2013	149	1.3%	0.0%	16.1%	79.2%	2.7%	0.0%	0.7%
	2014	146	2.1%	0.7%	22.6%	71.9%	1.4%	0.7%	0.7%
	2015	135	0.0%	0.7%	15.6%	77.0%	6.7%	0.0%	0.0%
	2016	135	0.0%	0.0%	22.6%	71.1%	5.9%	0.0%	0.0%
	2017	85	2.4%	4.7%	14.1%	68.2%	10.6%	0.0%	0.0%
	2018	116	0.9%	0.9%	19.8%	69.0%	6.9%	0.0%	2.6%
	2019	110	1.8%	0.9%	21.8%	63.6%	10.9%	0.0%	0.9%
	2020	1	0.0%	0.0%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1.7%	1.5%	18.9%	70.2%	6.1%	0.2%	1.3%
	여자	676	0.9%	0.3%	18.9%	74.7%	4.6%	0.3%	0.3%
연령대	20대	380	1.6%	0.5%	13.2%	74.0%	9.5%	0.8%	0.5%
	30대	256	1.2%	0.8%	23.1%	70.3%	4.3%	0.0%	0.4%
	40대	256	0.8%	0.4%	22.7%	74.6%	1.6%	0.0%	0.0%
	50대	170	0.0%	1.2%	19.4%	74.7%	2.4%	0.0%	2.4%
	60대	54	5.6%	1.9%	24.1%	64.8%	1.9%	0.0%	1.9%
	무응답	11	0.0%	0.0%	0.0%	90.9%	9.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9%	0.0%	17.7%	58.8%	17.7%	0.0%	0.0%
	남포	7	0.0%	0.0%	0.0%	100.0%	0.0%	0.0%	0.0%
	개성	3	0.0%	33.3%	0.0%	66.7%	0.0%	0.0%	0.0%
	평안남도	15	0.0%	0.0%	13.3%	86.7%	0.0%	0.0%	0.0%
	평안북도	19	10.5%	5.3%	31.6%	42.1%	10.5%	0.0%	0.0%
	함경남도	62	0.0%	0.0%	16.1%	74.2%	8.1%	0.0%	1.6%
	함경북도	377	0.8%	0.8%	20.7%	74.5%	2.4%	0.3%	0.5%
	자강도	4	25.0%	0.0%	25.0%	500.0%	0.0%	0.0%	0.0%
	양강도	592	0.8%	0.7%	18.2%	72.8%	6.3%	0.3%	0.8%
	황해남도	10	0.0%	0.0%	40.0%	60.0%	0.0%	0.0%	0.0%
	황해북도	15	13.3%	0.0%	13.3%	60.0%	13.3%	0.0%	0.0%
	강원도	13	0.0%	0.0%	7.7%	84.6%	7.7%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72	2.3%	2.3%	16.3%	74.4%	2.9%	0.0%
후보당원		5	20.0%	0.0%	20.0%	60.0%	0.0%	0.0%	0.0%
비당원		950	1.0%	0.5%	19.5%	72.8%	5.5%	0.2%	0.5%
		무응답	7	0.0%	0.0%	14.3%	57.1%	28.6%	0.0%

		주변국 친밀감(%)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4%	0.5%	20.6%	7056.0%	6.1%	0.0%	0.9%
	농민	54	1.9%	3.7%	13.0%	75.9%	5.6%	0.0%	0.0%
	사무원	91	1.1%	1.1%	16.5%	78.0%	2.2%	1.1%	0.0%
	피부양자	5	0.0%	0.0%	0.0%	80.0%	20.0%	0.0%	0.0%
	학생	43	4.7%	0.0%	7.0%	74.4%	14.0%	0.0%	0.0%
	군인	31	0.0%	0.0%	9.7%	87.1%	3.2%	0.0%	0.0%
	가정부인	125	0.0%	0.0%	22.4%	75.2%	2.4%	0.0%	0.0%
	무직 및 기타	81	0.0%	2.5%	21.0%	70.4%	6.2%	0.0%	0.0%
	무응답	4	0.0%	0.0%	75.0%	25.0%	0.0%	0.0%	0.0%
	응답오류	4	0.0%	0.0%	25.0%	75.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595	1.0%	0.7%	19.3%	72.8%	5.4%	0.2%	0.7%
	천원 이하	67	4.5%	1.5%	14.9%	70.2%	7.5%	1.5%	0.0%
	5천원 이하	337	1.2%	0.9%	18.7%	73.9%	4.2%	0.3%	0.9%
	만원 이하	18	0.0%	0.0%	22.2%	77.8%	0.0%	0.0%	0.0%
	10만원 이하	39	2.6%	0.0%	10.3%	82.1%	5.1%	0.0%	0.0%
	50만원 이하	32	0.0%	3.1%	15.6%	75.0%	6.3%	0.0%	0.0%
	100만원 이하	9	0.0%	0.0%	33.3%	44.4%	22.2%	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50.0%	50.0%	0.0%	0.0%	0.0%
	무응답	33	0.0%	0.0%	24.2%	69.7%	3.0%	0.0%	3.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0.9%	1.3%	13.6%	73.6%	9.8%	0.4%	0.4%
	천원 이하	14	0.0%	0.0%	35.7%	57.1%	7.1%	0.0%	0.0%
	5천원 이하	12	8.3%	0.0%	16.7%	75.0%	0.0%	0.0%	0.0%
	만원 이하	10	0.0%	0.0%	10.0%	90.0%	0.0%	0.0%	0.0%
	10만원 이하	121	0.8%	1.7%	14.9%	78.5%	3.3%	0.0%	0.8%
	50만원 이하	354	0.9%	0.6%	19.8%	74.0%	3.1%	0.3%	1.4%
	100만원 이하	164	0.6%	0.6%	22.0%	71.3%	4.9%	0.0%	0.6%
	100만원 초과	187	2.1%	0.5%	22.5%	69.0%	5.4%	0.5%	0.0%
	무응답	30	6.7%	0.0%	20.0%	70.0%	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86	1.0%	0.5%	21.4%	72.0%	4.1%	0.3%	0.8%
	없다	349	1.7%	1.4%	13.2%	75.1%	7.7%	0.3%	0.6%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669	0.9%	0.8%	21.8%	70.1%	5.4%	0.2%	0.9%
	없다	467	1.7%	0.9%	14.8%	76.9%	4.9%	0.4%	0.4%
혼인 여부	미혼	365	1.9%	0.8%	13.4%	76.2%	7.4%	0.3%	0.0%
	결혼	432	0.9%	0.9%	22.5%	72.5%	2.1%	0.5%	0.7%
	사별/별거/이혼	109	0.0%	0.0%	20.2%	75.2%	3.7%	0.0%	0.9%
	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평화 위협 국가(fp02)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북한에, ~2019)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위협 국가(%)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5	74.10% (841)	6.26% (71)	2.56% (29)	14.71% (167)	0.35% (4)	0.79% (9)	1.23% (14)
탈북 연도	2011	126	63.5%	3.2%	7.9%	21.4%	0.0%	4.0%	0.0%
	2012	132	72.0%	6.8%	1.5%	19.7%	0.0%	0.0%	0.0%
	2013	149	71.8%	9.4%	2.0%	14.1%	0.0%	0.0%	2.7%
	2014	146	64.4%	12.3%	1.4%	19.2%	0.7%	0.0%	2.1%
	2015	135	83.7%	3.7%	3.0%	8.2%	1.5%	0.0%	0.0%
	2016	135	76.3%	5.2%	1.5%	14.8%	0.0%	2.2%	0.0%
	2017	85	81.2%	0.0%	2.4%	12.9%	0.0%	0.0%	3.5%
	2018	116	77.6%	5.2%	2.6%	13.8%	0.0%	0.0%	0.9%
	2019	110	80.9%	7.3%	0.9%	6.4%	0.9%	0.9%	2.7%
	2020	1	100.0%	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69.8%	6.5%	2.0%	19.4%	0.4%	0.9%	1.1%
	여자	675	77.0%	6.1%	3.0%	11.6%	0.3%	0.7%	1.3%
연령대	20대	380	79.0%	4.7%	3.2%	10.3%	0.8%	1.1%	1.1%
	30대	256	71.5%	7.0%	1.2%	18.8%	0.4%	0.4%	0.8%
	40대	256	67.2%	8.6%	2.3%	19.5%	0.0%	1.2%	1.2%
	50대	169	79.3%	4.7%	2.4%	11.8%	0.0%	0.0%	1.8%
	60대	54	70.4%	7.4%	5.6%	13.0%	0.0%	1.9%	1.9%
	무응답	11	54.6%	9.1%	9.1%	27.3%	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7	70.6%	5.9%	0.0%	23.5%	0.0%	0.0%	0.0%
	남포	7	71.4%	14.3%	0.0%	14.3%	0.0%	0.0%	0.0%
	개성	3	66.7%	0.0%	0.0%	33.3%	0.0%	0.0%	0.0%
	평안남도	15	66.7%	13.3%	0.0%	20.0%	0.0%	0.0%	0.0%
	평안북도	19	52.6%	21.1%	0.0%	21.1%	0.0%	0.0%	0.0%
	함경남도	62	82.3%	3.2%	4.8%	8.1%	0.0%	1.6%	5.3%
	함경북도	377	74.5%	5.6%	2.7%	15.1%	0.3%	1.1%	0.0%
	자강도	4	50.0%	50.0%	0.0%	0.0%	0.0%	0.0%	0.8%
	양강도	591	75.0%	5.6%	2.4%	14.6%	0.5%	0.5%	0.0%
	황해남도	10	30.0%	30.0%	10.0%	20.0%	0.0%	10.0%	1.5%
	황해북도	15	80.0%	6.7%	0.0%	13.3%	0.0%	0.0%	0.0%
	강원도	13	69.2%	7.7%	7.7%	7.7%	0.0%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72	72.1%	7.6%	1.2%	18.0%	0.0%	0.6%
후보당원		5	80.0%	0.0%	0.0%	0.0%	0.0%	0.0%	20.0%
비당원		949	74.2%	6.1%	2.9%	14.3%	0.4%	0.8%	1.3%
무응답		7	100.0%	0.0%	0.0%	0.0%	0.0%	0.0%	0.0%

		평화 위협 국가(%)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78.0%	6.1%	0.9%	13.1%	0.5%	0.9%	0.5%
	농민	54	85.2%	5.6%	1.9%	5.6%	0.0%	0.0%	1.9%
	사무원	91	70.3%	7.7%	0.0%	19.8%	0.0%	0.0%	2.2%
	피부양자	5	80.0%	0.0%	20.0%	0.0%	0.0%	0.0%	0.0%
	학생	43	60.5%	7.0%	0.7%	25.6%	0.0%	0.0%	2.3%
	군인	31	80.7%	9.7%	3.2%	3.2%	0.0%	0.0%	3.2%
	가정부인	125	76.8%	5.6%	0.8%	14.4%	0.0%	0.8%	1.6%
	무직 및 기타	81	69.1%	9.9%	4.9%	12.4%	2.5%	0.0%	1.2%
	무응답	4	25.0%	0.0%	25.0%	50.0%	0.0%	0.0%	0.0%
	응답오류	4	75.0%	0.0%	0.0%	0.0%	0.0%	0.0%	25.0%
공식 소득	0원	595	75.5%	6.7%	2.4%	13.1%	0.7%	0.8%	0.8%
	천원 이하	67	67.2%	11.9%	1.5%	14.9%	0.0%	0.0%	4.5%
	5천원 이하	337	73.9%	5.0%	1.2%	18.4%	0.0%	0.6%	0.9%
	만원 이하	18	66.7%	11.1%	11.1%	11.1%	0.0%	0.0%	0.0%
	10만원 이하	39	82.1%	2.6%	10.3%	0.0%	0.0%	2.6%	2.6%
	50만원 이하	31	67.7%	3.2%	3.2%	22.6%	0.0%	0.0%	3.2%
	100만원 이하	9	66.7%	0.0%	11.1%	11.1%	0.0%	11.1%	0.0%
	100만원 초과	4	75.0%	0.0%	0.0%	25.0%	0.0%	0.0%	0.0%
	무응답	33	72.7%	3.0%	6.1%	18.2%	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76.6%	6.8%	4.3%	9.8%	0.9%	0.0%
천원 이하		14	64.3%	14.3%	0.0%	21.4%	0.0%	0.0%	0.0%
5천원 이하		12	75.0%	0.0%	0.0%	16.7%	0.0%	0.0%	8.3%
만원 이하		9	88.9%	0.0%	0.0%	11.1%	0.0%	0.0%	0.0%
10만원 이하		121	77.7%	5.8%	2.5%	10.7%	0.0%	2.5%	0.8%
50만원 이하		354	74.0%	4.8%	2.3%	16.7%	0.3%	0.9%	1.1%
100만원 이하		164	72.0%	9.8%	1.8%	13.4%	0.0%	0.6%	2.4%
100만원 초과		187	70.6%	7.0%	1.6%	19.3%	0.5%	1.1%	0.0%
무응답		30	70.0%	0.0%	6.7%	23.3%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85	73.0%	6.8%	2.4%	15.5%	0.3%	1.0%	1.0%
	없다	349	76.8%	5.2%	2.9%	12.6%	0.6%	0.3%	1.7%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668	77.1%	6.1%	2.3%	12.4%	0.3%	0.3%	1.5%
	없다	467	69.8%	6.4%	3.0%	18.0%	0.4%	1.5%	0.9%
혼인 여부	미혼	364	75.6%	5.2%	2.8%	13.2%	0.8%	1.1%	1.4%
	결혼	432	72.0%	5.8%	3.2%	16.9%	0.0%	0.9%	1.2%
	사별/별거/이혼	109	66.1%	11.9%	0.9%	21.1%	0.0%	0.0%	0.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fp03_a)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11.00% (125)	12.59% (143)	27.38% (311)	48.15% (547)	0.79% (9)	0.09% (1)
탈북 연도	2011	127	16.5%	15.0%	21.3%	46.5%	0.8%	0.0%
	2012	132	7.6%	12.1%	31.8%	48.5%	0.0%	0.0%
	2013	149	11.4%	9.4%	30.9%	47.0%	1.3%	0.0%
	2014	146	13.7%	19.2%	24.7%	41.8%	0.7%	0.0%
	2015	135	9.6%	8.2%	27.4%	54.8%	0.0%	0.0%
	2016	135	10.4%	14.1%	20.0%	55.6%	0.0%	0.0%
	2017	85	8.2%	16.5%	25.9%	49.4%	0.0%	0.0%
	2018	116	9.5%	10.3%	33.6%	44.0%	2.6%	0.0%
	2019	110	10.9%	8.2%	31.8%	46.4%	1.8%	0.9%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12.4%	11.5%	28.7%	47.2%	0.0%	0.2%
	여자	676	10.1%	13.3%	26.5%	48.8%	1.3%	0.0%
연령대	20대	380	9.5%	11.3%	29.0%	49.7%	0.3%	0.3%
	30대	256	12.1%	17.6%	28.1%	41.4%	0.8%	0.0%
	40대	256	9.0%	12.1%	25.8%	52.7%	0.4%	0.0%
	50대	170	13.5%	11.2%	24.1%	49.4%	1.8%	0.0%
	60대	54	20.4%	3.7%	22.2%	50.0%	3.7%	0.0%
	무응답	11	9.1%	18.2%	45.5%	27.3%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9%	11.8%	29.4%	52.9%	0.0%	0.0%
	남포	7	14.3%	14.3%	14.3%	57.1%	0.0%	0.0%
	개성	3	0.0%	0.0%	33.3%	66.7%	0.0%	0.0%
	평안남도	15	6.7%	0.0%	53.3%	40.0%	0.0%	0.0%
	평안북도	19	10.5%	21.1%	26.3%	42.1%	0.0%	0.0%
	함경남도	62	12.9%	14.5%	16.1%	56.5%	0.0%	0.0%
	함경북도	377	11.1%	13.3%	26.8%	48.3%	0.5%	0.0%
	자강도	4	0.0%	50.0%	0.0%	25.0%	0.0%	25.0%
	양강도	592	11.3%	11.7%	29.1%	47.0%	1.0%	0.0%
	황해남도	10	0.0%	30.0%	40.0%	30.0%	0.0%	0.0%
	황해북도	15	13.3%	6.7%	6.7%	66.7%	6.7%	0.0%
	강원도	13	7.7%	15.4%	23.1%	53.9%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72	12.8%	13.4%	21.5%	52.3%	0.0%	0.0%
	후보당원	5	20.0%	20.0%	0.0%	60.0%	0.0%	0.0%
	비당원	950	10.6%	12.3%	28.6%	47.5%	0.8%	0.1%
	무응답	7	14.3%	14.3%	28.6%	42.9%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13.6%	11.7%	26.6%	48.1%	0.0%	
	농민	54	7.4%	7.4%	35.2%	46.3%	3.7%	
	사무원	91	8.8%	11.0%	22.0%	58.2%	0.0%	
	피부양자	5	0.0%	0.0%	0.0%	100.0%	0.0%	
	학생	43	11.6%	18.6%	32.6%	37.2%	0.0%	
	군인	31	6.5%	16.1%	29.0%	48.4%	0.0%	
	가정부인	125	9.6%	15.2%	24.0%	51.2%	0.0%	
	무직 및 기타	81	12.4%	16.1%	22.2%	49.4%	0.0%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응답오류	4	25.0%	0.0%	25.0%	25.0%	25.0%	
공식 소득	0원	595	9.1%	12.3%	29.2%	48.1%	1.2%	0.2%
	천원 이하	67	9.0%	17.9%	17.9%	53.7%	1.5%	0.0%
	5천원 이하	337	13.1%	12.2%	27.0%	47.5%	0.3%	0.0%
	만원 이하	18	22.2%	5.6%	11.1%	61.1%	0.0%	0.0%
	10만원 이하	39	10.3%	12.8%	30.8%	46.2%	0.0%	0.0%
	50만원 이하	32	18.8%	6.3%	25.0%	50.0%	0.0%	0.0%
	100만원 이하	9	11.1%	44.4%	0.0%	44.4%	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33	15.2%	15.2%	36.4%	33.3%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7.2%	9.8%	34.0%	48.1%	0.9%
천원 이하		14	21.4%	21.4%	21.4%	35.7%	0.0%	0.0%
5천원 이하		12	8.3%	8.3%	33.3%	50.0%	0.0%	0.0%
만원 이하		9	30.0%	10.0%	40.0%	20.0%	0.0%	0.0%
10만원 이하		121	12.4%	15.7%	22.3%	49.6%	0.0%	0.0%
50만원 이하		354	10.5%	12.7%	24.9%	50.6%	1.4%	0.0%
100만원 이하		164	10.4%	14.0%	29.9%	45.7%	0.0%	0.0%
100만원 초과		187	12.8%	13.4%	24.6%	48.1%	1.1%	0.0%
무응답		30	23.3%	3.3%	26.7%	43.3%	0.0%	3.3%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86	12.0%	13.7%	24.9%	48.6%	0.8%	0.0%
	없다	349	8.9%	10.0%	33.0%	47.0%	0.9%	0.3%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669	10.0%	12.9%	29.5%	46.6%	0.9%	0.2%
	없다	467	12.4%	12.2%	24.4%	50.3%	0.6%	0.0%
혼인 여부	미혼	365	11.2%	14.8%	28.0%	45.8%	0.3%	
	결혼	432	10.0%	13.9%	25.0%	50.5%	0.7%	
	사별/별거/이혼	109	16.5%	6.4%	24.8%	52.3%	0.0%	
	무응답	4	0.0%	0.0%	25.0%	75.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중국의 통일희망(fp03_b)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4.49% (51)	11.71% (133)	35.74% (406)	47.54% (540)	0.53% (6)	0.00% (0)
탈북 연도	2011	127	3.2%	11.8%	40.2%	44.9%	0.0%	
	2012	132	2.3%	14.4%	34.1%	48.5%	0.8%	
	2013	149	6.0%	8.7%	37.6%	47.0%	0.7%	
	2014	146	4.8%	9.6%	37.0%	48.6%	0.0%	
	2015	135	3.7%	13.3%	40.7%	42.2%	0.0%	
	2016	135	4.4%	10.4%	31.9%	53.3%	0.0%	
	2017	85	8.2%	10.6%	31.8%	49.4%	0.0%	
	2018	116	4.3%	14.7%	37.1%	42.2%	1.7%	
	2019	110	4.6%	12.7%	28.2%	52.7%	1.8%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60	3.7%	7.2%	32.6%	56.3%	0.2%	
	여자	676	5.0%	14.8%	37.9%	41.6%	0.7%	
연령대	20대	380	3.2%	12.4%	39.5%	45.0%	0.0%	
	30대	256	4.7%	9.8%	35.9%	49.6%	0.0%	
	40대	256	3.9%	11.7%	34.0%	49.6%	0.8%	
	50대	170	7.1%	11.2%	28.8%	50.6%	2.4%	
	60대	54	9.3%	14.8%	35.2%	40.7%	0.0%	
	무응답	11	0.0%	18.2%	45.5%	36.4%	0.0%	
	평양	17	5.9%	11.8%	11.8%	70.6%	0.0%	
북한 거주지	남포	7	0.0%	14.3%	57.1%	28.6%	0.0%	
	개성	3	0.0%	33.3%	33.3%	33.3%	0.0%	
	평안남도	15	0.0%	13.3%	26.7%	60.0%	0.0%	
	평안북도	19	0.0%	5.3%	31.6%	63.2%	0.0%	
	함경남도	62	4.8%	21.0%	30.7%	40.3%	3.2%	
	함경북도	377	2.9%	11.1%	36.9%	49.1%	0.0%	
	자강도	4	0.0%	0.0%	25.0%	75.0%	0.0%	
	양강도	592	5.1%	11.7%	37.5%	45.1%	0.7%	
	황해남도	10	20.0%	10.0%	10.0%	60.0%	0.0%	
	황해북도	15	0.0%	6.7%	33.3%	60.0%	0.0%	
	강원도	13	23.1%	0.0%	15.4%	61.5%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당원	172	4.7%	8.7%	26.2%	59.9%	0.6%	
	후보당원	5	0.0%	0.0%	20.0%	80.0%	0.0%	
	비당원	950	4.5%	12.2%	37.5%	45.3%	0.5%	
	무응답	7	14.3%	57.1%	28.6%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6.1%	7.9%	34.1%	51.9%	0.0%	
	농민	54	3.7%	20.4%	42.6%	33.3%	0.0%	
	사무원	91	4.4%	11.0%	33.0%	51.7%	0.0%	
	피부양자	5	20.0%	0.0%	20.0%	60.0%	0.0%	
	학생	43	0.0%	9.3%	25.6%	65.1%	0.0%	
	군인	31	0.0%	6.5%	41.9%	51.6%	0.0%	
	가정부인	125	8.0%	12.0%	38.4%	40.8%	0.8%	
	무직 및 기타	81	3.7%	11.1%	43.2%	42.0%	0.0%	
	무응답	4	25.0%	0.0%	25.0%	50.0%	0.0%	
	응답오류	4	0.0%	0.0%	25.0%	75.0%	0.0%	
공식 소득	0원	595	5.4%	12.8%	35.6%	45.6%	0.7%	
	천원 이하	67	3.0%	10.5%	34.3%	52.2%	0.0%	
	5천원 이하	337	3.0%	8.3%	35.0%	53.7%	0.0%	
	만원 이하	18	0.0%	0.0%	27.8%	66.7%	5.6%	
	10만원 이하	39	10.3%	23.1%	33.3%	33.3%	0.0%	
	50만원 이하	32	3.1%	18.8%	34.4%	43.8%	0.0%	
	100만원 이하	9	0.0%	22.2%	44.4%	33.3%	0.0%	
	100만원 초과	4	0.0%	0.0%	50.0%	50.0%	0.0%	
	무응답	33	6.1%	15.2%	54.6%	24.2%	0.0%	
	응답오류	3	0.0%	0.0%	0.0%	10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3.0%	15.3%	35.3%	46.4%	0.0%	
	천원 이하	14	14.3%	0.0%	21.4%	64.3%	0.0%	
	5천원 이하	12	0.0%	8.3%	16.7%	75.0%	0.0%	
	만원 이하	10	30.0%	10.0%	40.0%	20.0%	0.0%	
	10만원 이하	121	7.4%	14.9%	32.2%	44.6%	0.8%	
	50만원 이하	354	3.7%	13.0%	34.5%	48.3%	0.6%	
	100만원 이하	164	3.1%	9.2%	43.9%	43.3%	0.6%	
	100만원 초과	187	4.8%	6.4%	33.7%	54.0%	1.1%	
	무응답	30	6.7%	13.3%	46.7%	33.3%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있다	786	5.0%	10.1%	35.5%	48.9%	0.6%	
	없다	349	3.4%	15.5%	36.4%	44.4%	0.3%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남한친척	있다	669	4.6%	12.0%	38.0%	44.5%	0.9%	
	없다	467	4.3%	11.4%	32.6%	51.8%	0.0%	
혼인 여부	미혼	365	4.4%	10.7%	37.8%	47.1%	0.0%	
	결혼	432	4.9%	11.1%	35.4%	48.4%	0.2%	
	사별/별거/이혼	109	3.7%	12.8%	36.7%	45.9%	0.9%	
	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일본의 통일희망(fp03_c)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2.64% (30)	5.99% (68)	34.51% (392)	55.46% (630)	1.32% (15)	0.09% (1)
탈북 연도	2011	127	3.2%	7.1%	29.9%	57.5%	2.4%	0.0%
	2012	132	0.8%	6.1%	38.6%	53.8%	0.8%	0.0%
	2013	149	2.0%	4.7%	37.6%	53.7%	1.3%	0.7%
	2014	146	4.1%	4.1%	38.4%	52.7%	0.7%	0.0%
	2015	135	2.2%	8.2%	34.8%	54.8%	0.0%	0.0%
	2016	135	4.4%	5.9%	31.9%	56.3%	1.5%	0.0%
	2017	85	3.5%	10.6%	28.2%	57.7%	0.0%	0.0%
	2018	116	0.9%	4.3%	35.3%	57.8%	1.7%	0.0%
	2019	110	2.7%	4.6%	31.8%	57.3%	3.6%	0.0%
	2020	1	0.0%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2.6%	6.7%	30.4%	59.1%	0.9%	0.2%
	여자	676	2.7%	5.5%	37.3%	53.0%	1.6%	0.0%
연령대	20대	380	2.6%	3.4%	40.5%	52.4%	1.1%	0.0%
	30대	256	2.0%	9.0%	32.4%	55.1%	1.2%	0.4%
	40대	256	1.6%	5.1%	34.0%	58.6%	0.8%	0.0%
	50대	170	5.3%	6.5%	27.1%	58.8%	2.4%	0.0%
	60대	54	3.7%	9.3%	25.9%	57.4%	3.7%	0.0%
	무응답	11	0.0%	9.1%	45.5%	45.5%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9%	0.0%	35.3%	58.8%	0.0%	0.0%
	남포	7	0.0%	0.0%	28.6%	71.4%	0.0%	0.0%
	개성	3	0.0%	0.0%	33.3%	66.7%	0.0%	0.0%
	평안남도	15	0.0%	6.7%	26.7%	66.7%	0.0%	0.0%
	평안북도	19	0.0%	15.8%	31.6%	52.6%	0.0%	0.0%
	함경남도	62	3.2%	6.5%	27.4%	61.3%	1.6%	0.0%
	함경북도	377	2.1%	6.6%	36.6%	53.1%	1.6%	0.0%
	자강도	4	0.0%	0.0%	25.0%	75.0%	0.0%	0.0%
	양강도	592	3.0%	5.7%	34.8%	54.9%	1.4%	0.2%
	황해남도	10	0.0%	10.0%	40.0%	50.0%	0.0%	0.0%
	황해북도	15	0.0%	0.0%	13.3%	86.7%	0.0%	0.0%
	강원도	13	7.7%	0.0%	38.5%	53.9%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72	3.5%	6.4%	29.7%	59.3%	1.2%	0.0%
	후보당원	5	20.0%	0.0%	0.0%	80.0%	0.0%	0.0%
	비당원	950	2.4%	5.9%	35.5%	54.8%	1.3%	0.1%
	무응답	7	0.0%	14.3%	57.1%	28.6%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4.2%	4.7%	36.0%	55.1%	0.0%	0.0%
	농민	54	1.9%	5.6%	44.4%	44.4%	3.7%	0.0%
	사무원	91	2.2%	8.8%	30.8%	58.2%	0.0%	0.0%
	피부양자	5	20.0%	0.0%	20.0%	60.0%	0.0%	0.0%
	학생	43	0.0%	4.7%	39.5%	55.8%	0.0%	0.0%
	군인	31	3.2%	9.7%	35.5%	51.6%	0.0%	0.0%
	가정부인	125	4.0%	7.2%	31.2%	56.8%	0.8%	0.0%
	무직 및 기타	81	2.5%	7.4%	32.1%	56.8%	1.2%	0.0%
	무응답	4	0.0%	0.0%	75.0%	25.0%	0.0%	0.0%
	응답오류	4	0.0%	0.0%	25.0%	25.0%	25.0%	25.0%
공식 소득	0원	595	3.0%	5.2%	34.1%	55.8%	1.7%	0.2%
	천원 이하	67	0.0%	4.5%	31.3%	61.2%	3.0%	0.0%
	5천원 이하	337	2.7%	6.5%	35.6%	54.9%	0.3%	0.0%
	만원 이하	18	0.0%	5.6%	27.8%	61.1%	5.6%	0.0%
	10만원 이하	39	0.0%	10.3%	33.3%	56.4%	0.0%	0.0%
	50만원 이하	32	0.0%	12.5%	31.3%	56.3%	0.0%	0.0%
	100만원 이하	9	0.0%	11.1%	44.4%	44.4%	0.0%	0.0%
	100만원 초과	4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33	9.1%	6.1%	48.5%	36.4%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0.4%	4.3%	37.0%	56.6%	1.7%
천원 이하		14	7.1%	7.1%	28.6%	57.1%	0.0%	0.0%
5천원 이하		12	0.0%	25.0%	16.7%	58.3%	0.0%	0.0%
만원 이하		10	10.0%	20.0%	30.0%	40.0%	0.0%	0.0%
10만원 이하		121	7.4%	5.0%	33.1%	54.6%	0.0%	0.0%
50만원 이하		354	2.8%	6.8%	33.6%	55.7%	1.1%	0.0%
100만원 이하		164	2.4%	5.5%	36.0%	54.9%	0.6%	0.6%
100만원 초과		187	2.1%	5.9%	32.6%	57.2%	2.1%	0.0%
무응답		30	0.0%	3.3%	43.3%	46.7%	6.7%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장사경험	있다	786	2.7%	6.2%	34.2%	55.5%	1.3%	0.1%
	없다	349	2.6%	5.4%	35.2%	55.3%	1.4%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남한친척	있다	669	2.1%	6.0%	36.6%	53.2%	1.9%	0.2%
	없다	467	3.4%	6.0%	31.5%	58.7%	0.4%	0.0%
혼인 여부	미혼	365	2.7%	6.9%	37.3%	52.3%	0.8%	0.0%
	결혼	432	2.3%	5.8%	33.6%	56.9%	1.2%	0.2%
	사별/별거/이혼	109	5.5%	7.3%	31.2%	55.1%	0.9%	0.0%
	무응답	4	0.0%	0.0%	25.0%	75.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fp03_d)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5.28% (60)	24.03% (273)	37.50% (426)	31.43% (357)	1.76% (20)	0.00% (0)
탈북 연도	2011	127	2.4%	29.1%	36.2%	29.1%	3.2%	
	2012	132	5.3%	28.8%	40.2%	24.2%	1.5%	
	2013	149	8.7%	20.8%	38.9%	29.5%	2.0%	
	2014	146	4.8%	21.2%	42.5%	29.5%	2.1%	
	2015	135	5.9%	28.9%	40.7%	24.4%	0.0%	
	2016	135	5.2%	18.5%	32.6%	43.7%	0.0%	
	2017	85	5.9%	34.1%	29.4%	30.6%	0.0%	
	2018	116	2.6%	19.0%	39.7%	35.3%	3.5%	
	2019	110	6.4%	18.2%	33.6%	38.2%	3.6%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4.1%	19.1%	37.4%	38.5%	0.9%	
	여자	676	6.1%	27.4%	37.6%	26.6%	2.4%	
연령대	20대	380	5.5%	25.3%	40.3%	28.2%	0.8%	
	30대	256	4.7%	23.8%	38.7%	30.5%	2.3%	
	40대	256	3.9%	22.3%	37.9%	34.8%	1.2%	
	50대	170	8.2%	20.6%	30.0%	37.7%	3.5%	
	60대	54	5.6%	33.3%	29.6%	27.8%	3.7%	
	무응답	11	0.0%	9.1%	81.8%	9.1%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11.8%	17.7%	35.3%	35.3%	0.0%	
	남포	7	0.0%	57.1%	28.6%	14.3%	0.0%	
	개성	3	0.0%	66.7%	0.0%	33.3%	0.0%	
	평안남도	15	0.0%	40.0%	40.0%	20.0%	0.0%	
	평안북도	19	10.5%	15.8%	36.8%	36.8%	0.0%	
	함경남도	62	6.5%	33.9%	35.5%	22.6%	1.6%	
	함경북도	377	4.5%	23.3%	40.1%	30.2%	1.9%	
	자강도	4	0.0%	0.0%	25.0%	75.0%	0.0%	
	양강도	592	5.1%	23.5%	36.5%	33.1%	1.9%	
	황해남도	10	0.0%	20.0%	60.0%	20.0%	0.0%	
	황해북도	15	6.7%	26.7%	33.3%	26.7%	6.7%	
	강원도	13	23.1%	7.7%	30.8%	38.5%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172	4.7%	21.5%	32.6%	40.1%	1.2%	
	후보당원	5	0.0%	0.0%	20.0%	80.0%	0.0%	
	비당원	950	5.4%	24.7%	38.4%	29.7%	1.8%	
	무응답	7	14.3%	14.3%	57.1%	14.3%	0.0%	

		일본의 통일희망(%)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4.7%	21.5%	40.2%	33.6%	0.0%	
	농민	54	3.7%	31.5%	37.0%	24.1%	3.7%	
	사무원	91	5.5%	24.2%	33.0%	37.4%	0.0%	
	피부양자	5	20.0%	0.0%	20.0%	60.0%	0.0%	
	학생	43	7.0%	20.9%	46.5%	25.6%	0.0%	
	군인	31	6.5%	16.1%	41.9%	35.5%	0.0%	
	가정부인	125	8.8%	31.2%	30.4%	28.0%	1.6%	
	무직 및 기타	81	7.4%	21.0%	40.7%	30.9%	0.0%	
	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응답오류	4	0.0%	0.0%	25.0%	25.0%	50.0%	
공식 소득	0원	595	6.7%	25.6%	36.8%	29.1%	1.9%	
	천원 이하	67	6.0%	19.4%	40.3%	31.3%	3.0%	
	5천원 이하	337	3.6%	21.4%	37.4%	37.1%	0.6%	
	만원 이하	18	0.0%	16.7%	22.2%	50.0%	11.1%	
	10만원 이하	39	2.6%	30.8%	38.5%	25.6%	2.6%	
	50만원 이하	32	3.1%	28.1%	34.4%	34.4%	0.0%	
	100만원 이하	9	0.0%	33.3%	33.3%	33.3%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25.0%	25.0%	0.0%	
	무응답	33	6.1%	21.2%	60.6%	9.1%	3.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비공식 소득	0원	235	4.3%	24.3%	41.3%	28.5%	1.7%	
	천원 이하	14	14.3%	7.1%	35.7%	42.9%	0.0%	
	5천원 이하	12	0.0%	25.0%	25.0%	50.0%	0.0%	
	만원 이하	10	20.0%	40.0%	30.0%	10.0%	0.0%	
	10만원 이하	121	9.1%	24.0%	34.7%	30.6%	1.7%	
	50만원 이하	354	4.5%	24.9%	35.6%	33.3%	1.7%	
	100만원 이하	164	4.9%	24.4%	42.7%	26.8%	1.2%	
	100만원 초과	187	4.3%	22.5%	33.7%	37.4%	2.1%	
	무응답	30	6.7%	26.7%	43.3%	16.7%	6.7%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장사경험	있다	786	5.7%	23.5%	36.6%	32.3%	1.8%	
	없다	349	4.3%	25.2%	39.5%	29.2%	1.7%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남한친척	있다	669	6.3%	22.4%	39.3%	29.6%	2.4%	
	없다	467	3.9%	26.3%	34.9%	34.1%	0.9%	
혼인 여부	미혼	365	4.7%	26.0%	40.8%	27.7%	0.8%	
	결혼	432	5.1%	25.2%	36.3%	31.9%	1.4%	
	사별/별거/이혼	109	10.1%	22.9%	33.9%	30.3%	2.8%	
	무응답	4	0.0%	50.0%	0.0%	5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주변국 협조 필요성(fp04)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국 협조 필요성(%)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259	47.88% (124)	22.78% (59)	19.31% (50)	9.65% (25)	0.39% (1)	0.00% (0)
탈북 연도	2011	127	40.9%	22.1%	22.1%	14.2%	0.8%	
	2012	132	54.6%	23.5%	16.7%	5.3%	0.0%	
성별	남자	114	47.4%	21.9%	21.1%	9.7%	0.0%	
	여자	145	48.3%	23.5%	17.9%	9.7%	0.7%	
연령대	20대	86	40.7%	25.6%	26.7%	5.8%	1.2%	
	30대	51	39.2%	25.5%	21.6%	13.7%	0.0%	
	40대	69	56.5%	23.2%	10.1%	10.1%	0.0%	
	50대	33	54.6%	18.2%	15.2%	12.1%	0.0%	
	60대	17	58.8%	5.9%	23.5%	11.8%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	100.0%	0.0%	0.0%	0.0%	0.0%	
	남포	1	0.0%	0.0%	0.0%	100.0%	0.0%	
	개성	0						
	평안남도	2	0.0%	100.0%	0.0%	0.0%	0.0%	
	평안북도	7	42.9%	0.0%	28.6%	28.6%	0.0%	
	함경남도	24	45.8%	33.3%	12.5%	4.2%	4.2%	
	함경북도	116	50.9%	24.1%	18.1%	6.9%	0.0%	
	자강도	0						
	양강도	97	46.4%	20.6%	20.6%	12.4%	0.0%	
	황해남도	3	66.7%	0.0%	33.3%	0.0%	0.0%	
	황해북도	4	50.0%	25.0%	25.0%	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37	56.8%	8.1%	16.2%	18.9%	0.0%
후보당원		0						
비당원		220	46.4%	25.5%	20.0%	7.7%	0.5%	
직업	노동자							
	농민							
	사무원							
	피부양자							
	학생							
	군인							
	가정부인							
	무직 및 기타							
	무응답							
응답오류								

		주변국 협조 필요성(%)						
		사례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공식 소득	0원	100	47.0%	28.0%	17.0%	8.0%	0.0%	
	천원 이하	12	33.3%	33.3%	16.7%	16.7%	0.0%	
	5천원 이하	95	50.5%	16.8%	22.1%	10.5%	0.0%	
	만원 이하	9	55.6%	11.1%	22.2%	11.1%	0.0%	
	10만원 이하	9	44.4%	33.3%	11.1%	11.1%	0.0%	
	50만원 이하	9	44.4%	22.2%	22.2%	11.1%	0.0%	
	100만원 이하	2	0.0%	50.0%	50.0%	0.0%	0.0%	
	100만원 초과	0						
무응답	23	52.2%	17.4%	17.4%	8.7%	4.4%		
비공식 소득	0원	53	56.6%	13.2%	22.6%	7.6%	0.0%	
	천원 이하	3	66.7%	33.3%	0.0%	0.0%	0.0%	
	5천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만원 이하	5	60.0%	20.0%	20.0%	0.0%	0.0%	
	10만원 이하	34	50.0%	23.5%	11.8%	14.7%	0.0%	
	50만원 이하	95	37.9%	30.5%	19.0%	12.6%	0.0%	
	100만원 이하	20	50.0%	25.0%	25.0%	0.0%	0.0%	
	100만원 초과	26	46.2%	19.2%	19.2%	11.5%	3.9%	
	무응답	20	65.0%	10.0%	20.0%	5.0%	0.0%	
장사 경험	있다	186	44.6%	26.9%	17.2%	10.8%	0.5%	
	없다	72	56.9%	11.1%	25.0%	6.9%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134	54.5%	21.6%	15.7%	8.2%	0.0%	
	없다	125	40.8%	24.0%	23.2%	11.2%	0.8%	
혼인 여부	미혼	107	43.9%	27.1%	22.4%	5.6%	0.9%	
	결혼	127	52.0%	18.9%	16.5%	12.6%	0.0%	
	사별/별거/이혼	24	45.8%	25.0%	20.8%	8.3%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협조 필요한 국가(fp04_a)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조 필요한 국가(%)							
		사례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877	42.3% (371)	18.36% (161)	6.73% (59)	0.23% (2)	30.22% (265)	0.11% (1)	2.05% (18)
탈북 연도	2013	149	51.0%	20.1%	3.4%	0.0%	22.2%	0.0%	3.4%
	2014	146	46.6%	16.4%	5.5%	0.0%	27.4%	0.0%	4.1%
	2015	135	43.0%	12.6%	11.1%	0.0%	32.6%	0.7%	0.0%
	2016	135	40.0%	14.1%	8.9%	0.0%	37.0%	0.0%	0.0%
	2017	85	41.2%	20.0%	7.1%	1.2%	30.6%	0.0%	0.0%
	2018	116	33.6%	26.7%	5.2%	0.0%	31.0%	0.0%	3.5%
	2019	110	36.4%	20.9%	6.4%	0.9%	32.7%	0.0%	2.7%
성별	남자	346	1.5%	43.6%	16.8%	6.9%	0.3%	30.9%	0.0%
	여자	531	2.5%	41.4%	19.4%	6.6%	0.2%	29.8%	0.2%
연령대	20대	294	39.5%	20.4%	10.9%	0.0%	28.6%	0.0%	0.7%
	30대	205	40.5%	16.6%	7.3%	1.0%	33.2%	0.0%	1.5%
	40대	187	41.7%	18.2%	1.6%	0.0%	35.8%	0.5%	2.1%
	50대	137	49.6%	14.6%	3.7%	0.0%	27.0%	0.0%	5.1%
	60대	37	56.8%	16.2%	5.4%	0.0%	16.2%	0.0%	5.4%
	무응답	8	37.5%	50.0%	0.0%	0.0%	12.5%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6	37.5%	12.5%	12.5%	0.0%	37.5%	0.0%	0.0%
	남포	6	16.7%	0.0%	0.0%	0.0%	66.7%	0.0%	16.7%
	개성	3	66.7%	33.3%	0.0%	0.0%	0.0%	0.0%	0.0%
	평안남도	133	53.9%	23.1%	15.4%	0.0%	7.7%	0.0%	0.0%
	평안북도	12	41.7%	16.7%	0.0%	0.0%	41.7%	0.0%	0.0%
	함경남도	38	42.1%	23.7%	2.6%	0.0%	31.6%	0.0%	0.0%
	함경북도	261	45.2%	14.6%	5.8%	0.0%	31.4%	0.4%	2.7%
	자강도	4	0.0%	25.0%	0.0%	0.0%	75.0%	0.0%	0.0%
	양강도	495	40.6%	20.2%	7.3%	0.4%	29.9%	0.0%	1.6%
	황해남도	7	28.6%	28.6%	0.0%	0.0%	28.6%	0.0%	14.3%
	황해북도	11	45.5%	27.3%	9.1%	0.0%	9.1%	0.0%	9.1%
	강원도	10	70.0%	0.0%	20.0%	0.0%	1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35	38.5%	17.8%	8.2%	0.0%	3.3%	0.7%
후보당원		5	20.0%	20.0%	0.0%	0.0%	40.0%	0.0%	20.0%
비당원		730	43.3%	18.4%	6.4%	0.3%	29.6%	0.0%	2.1%
무응답		7	28.6%	28.6%	14.3%	0.0%	28.6%	0.0%	0.0%

		협조 필요한 국가(%)							
		사례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45.8%	14.0%	7.0%	0.5%	31.3%	0.0%	1.4%
	농민	54	50.0%	9.3%	7.4%	0.0%	31.5%	0.0%	1.9%
	사무원	91	49.5%	17.6%	4.4%	0.0%	26.4%	1.1%	1.1%
	피부양자	5	40.0%	0.0%	20.0%	0.0%	40.0%	0.0%	0.0%
	학생	43	44.2%	37.2%	7.0%	0.0%	11.6%	0.0%	0.0%
	군인	31	35.5%	19.4%	12.9%	0.0%	29.0%	0.0%	3.2%
	가정부인	125	39.2%	17.6%	6.4%	0.0%	33.6%	0.0%	3.2%
	무직 및 기타	81	44.4%	14.8%	7.4%	0.0%	32.1%	0.0%	1.2%
	무응답	4	50.0%	0.0%	25.0%	0.0%	25.0%	0.0%	0.0%
	응답오류	4	50.0%	25.0%	0.0%	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495	41.8%	20.0%	7.1%	0.2%	28.7%	0.0%	2.2%
	천원 이하	55	32.7%	21.8%	7.3%	0.0%	34.6%	0.0%	3.6%
	5천원 이하	242	43.8%	16.5%	4.1%	0.4%	33.9%	0.4%	0.8%
	만원 이하	9	55.6%	0.0%	0.0%	0.0%	33.3%	0.0%	11.1%
	10만원 이하	30	46.7%	13.3%	6.7%	0.0%	30.0%	0.0%	3.3%
	50만원 이하	23	47.8%	13.0%	21.7%	0.0%	17.4%	0.0%	0.0%
	100만원 이하	7	42.9%	14.3%	14.3%	0.0%	28.6%	0.0%	0.0%
	100만원 초과	4	50.0%	0.0%	50.0%	0.0%	0.0%	0.0%	0.0%
	무응답	10	50.0%	20.0%	0.0%	0.0%	30.0%	0.0%	0.0%
	응답오류	10	50.0%	20.0%	0.0%	0.0%	3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182	37.9%	22.5%	12.6%	0.0%	24.7%	0.0%	2.2%
	천원 이하	11	36.4%	45.5%	0.0%	0.0%	18.2%	0.0%	0.0%
	5천원 이하	10	20.0%	20.0%	0.0%	0.0%	60.0%	0.0%	0.0%
	만원 이하	5	60.0%	0.0%	0.0%	0.0%	40.0%	0.0%	0.0%
	10만원 이하	87	43.7%	24.1%	2.3%	0.0%	26.4%	1.2%	2.3%
	50만원 이하	259	45.2%	15.4%	5.4%	0.4%	31.3%	0.0%	2.3%
	100만원 이하	144	43.8%	15.3%	4.9%	0.7%	33.3%	0.0%	2.1%
	100만원 초과	161	41.6%	18.0%	8.1%	0.0%	30.4%	0.0%	1.9%
	무응답	10	60.0%	10.0%	0.0%	0.0%	3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600	43.0%	17.8%	6.2%	0.3%	30.3%	0.0%	2.3%
	없다	277	40.8%	19.5%	7.9%	0.0%	30.0%	0.4%	1.4%
남한 친척	있다	535	40.6%	19.3%	7.3%	0.2%	30.1%	0.2%	2.4%
	없다	342	45.0%	17.0%	5.9%	0.3%	30.4%	0.0%	1.5%
혼인 여부	미혼	258	44.6%	21.7%	7.4%	0.4%	25.6%	0.0%	0.4%
	결혼	305	46.2%	12.1%	6.2%	0.0%	32.5%	0.3%	2.6%
	사별/별거/이혼	85	38.8%	16.5%	9.4%	0.0%	32.9%	0.0%	2.4%
	무응답	3	33.3%	33.3%	0.0%	0.0%	3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북중협력(fp05)

문)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중협력(%)							
		사례수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편이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295	29.83(88)	24.75(73)	23.05(68)	9.83(29)	12.2(36)	0.34(1)	0.00(0)
탈북연도	2013	149	33.6%	22.8%	23.5%	8.1%	12.1%	0.0%	
	2014	146	26.0%	26.7%	22.6%	11.6%	12.3%	0.7%	
성별	남자	107	31.8%	23.4%	21.5%	14.0%	8.4%	0.9%	
	여자	188	28.7%	25.5%	23.9%	7.5%	14.4%	0.0%	
연령대	20대	89	33.7%	25.8%	23.6%	6.7%	10.1%	0.0%	
	30대	73	26.0%	27.4%	17.8%	13.7%	13.7%	1.4%	
	40대	76	32.9%	21.1%	18.4%	11.8%	15.4%	0.0%	
	50대	35	25.7%	14.3%	48.6%	11.4%	0.0%	0.0%	
	60대	18	22.2%	33.3%	16.7%	0.0%	27.8%	0.0%	
	무응답	4	25.0%	75.0%	0.0%	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6	50.0%	0.0%	33.3%	16.7%	0.0%	0.0%	
	남포	3	33.3%	0.0%	66.7%	0.0%	0.0%	0.0%	
	개성	0							
	평안남도	7	0.0%	28.6%	42.9%	14.3%	0.0%	14.3%	
	평안북도	3	0.0%	0.0%	0.0%	100.0%	0.0%	0.0%	
	함경남도	14	35.7%	21.4%	42.9%	0.0%	0.0%	0.0%	
	함경북도	117	29.1%	29.9%	16.2%	6.8%	18.0%	0.0%	
	자강도	1	0.0%	0.0%	100.0%	0.0%	0.0%	0.0%	
	양강도	132	30.3%	25.0%	25.8%	9.1%	9.9%	0.0%	
	황해남도	2	50.0%	0.0%	0.0%	50.0%	0.0%	0.0%	
	황해북도	6	66.7%	0.0%	16.7%	16.7%	0.0%	0.0%	
	강원도	4	0.0%	0.0%	0.0%	50.0%	50.0%	0.0%	
	당원	당원	46	39.1%	21.7%	19.6%	8.7%	10.9%	0.0%
후보당원		2	0.0%	50.0%	50.0%	0.0%	0.0%	0.0%	
비당원		245	28.2%	24.9%	23.7%	10.2%	12.7%	0.4%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0.0%	

		북중협력(%)							
		사례수	매우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편이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95	34.7%	22.1%	14.7%	10.5%	16.8%	1.1%	
	농민	21	23.8%	38.1%	23.8%	4.8%	9.5%	0.0%	
	사무원	45	20.0%	31.1%	22.2%	15.6%	11.1%	0.0%	
	피부양자	3	33.3%	0.0%	33.3%	0.0%	33.3%	0.0%	
	학생	20	35.0%	20.0%	25.0%	20.0%	0.0%	0.0%	
	군인	13	30.8%	30.8%	30.8%	0.0%	7.7%	0.0%	
직업	가정부인	60	26.7%	20.0%	30.0%	6.7%	16.7%	0.0%	
	무직 및 기타	33	33.3%	27.3%	30.3%	6.1%	3.0%	0.0%	
	무응답	2	50.0%	0.0%	0.0%	50.0%	0.0%	0.0%	
공식소득	응답오류	3	33.3%	33.3%	33.3%	0.0%	0.0%	0.0%	
	0원	171	31.6%	21.1%	23.4%	8.8%	14.6%	0.6%	
	천원 이하	20	25.0%	30.0%	30.0%	10.0%	5.0%	0.0%	
	5천원 이하	91	28.6%	29.7%	19.8%	12.1%	9.9%	0.0%	
	만원 이하	3	33.3%	33.3%	0.0%	33.3%	0.0%	0.0%	
	10만원 이하	7	28.6%	28.6%	42.9%	0.0%	0.0%	0.0%	
	50만원 이하	0							
	100만원 이하	1	0.0%	0.0%	0.0%	0.0%	100.0%	0.0%	
	100만원 초과	2	0.0%	50.0%	50.0%	0.0%	0.0%	0.0%	
	비공식소득	0원	57	26.3%	33.3%	22.8%	5.3%	12.3%	0.0%
천원 이하		4	50.0%	0.0%	25.0%	0.0%	25.0%	0.0%	
5천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0.0%	
만원 이하		2	50.0%	0.0%	0.0%	0.0%	50.0%	0.0%	
10만원 이하		35	34.3%	25.7%	25.7%	5.7%	8.6%	0.0%	
50만원 이하		86	33.7%	30.2%	17.4%	10.5%	7.0%	1.2%	
100만원 이하		53	28.3%	15.1%	24.5%	9.4%	22.6%	0.0%	
100만원 초과		49	18.4%	22.5%	30.6%	18.4%	10.2%	0.0%	
무응답		2	50.0%	0.0%	0.0%	0.0%	50.0%	0.0%	
장사경험	있다	216	29.2%	22.7%	23.2%	11.6%	13.0%	0.5%	
	없다	79	31.7%	30.4%	22.8%	5.1%	10.1%	0.0%	
남한친척	있다	188	28.2%	23.4%	25.0%	9.6%	13.8%	0.0%	
	없다	107	32.7%	27.1%	19.6%	10.3%	9.4%	0.9%	
혼인여부	미혼	103	29.1%	29.1%	24.3%	9.7%	7.8%	0.0%	
	결혼	144	31.9%	20.1%	24.3%	11.8%	11.8%	0.0%	
	사별/별거/이혼	47	25.5%	29.8%	17.0%	4.3%	21.3%	2.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발전에 필요한 국가(fp06)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에 필요한 국가(%)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전체		582	8.42% (49)	0.69% (4)	48.45% (282)	39.18% (228)	2.75% (16)	0.00% (0)	0.52% (3)	
탈북 연도	2015	135	4.4%	0.0%	44.4%	47.4%	3.7%		0.0%	
	2016	135	5.9%	2.2%	54.8%	34.1%	3.0%		0.0%	
	2017	85	4.7%	0.0%	49.4%	44.7%	1.2%		0.0%	
	2018	116	12.9%	0.9%	44.0%	38.8%	2.6%		0.9%	
	2019	110	14.6%	0.0%	50.0%	30.9%	2.7%		1.8%	
	2020	1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성별	남자	239	7.5%	1.7%	49.8%	37.7%	3.4%		0.0%	
	여자	343	9.0%	0.0%	47.5%	10.2%	2.3%		0.9%	
연령대	20대	205	8.3%	0.5%	49.3%	37.6%	4.4%		0.0%	
	30대	132	10.6%	0.8%	44.7%	43.2%	0.8%		0.0%	
	40대	111	9.9%	0.9%	50.5%	36.9%	1.8%		0.0%	
	50대	102	6.9%	1.0%	42.2%	43.1%	3.9%		2.9%	
	60대	19	0.0%	0.0%	68.4%	31.6%	0.0%		0.0%	
	무응답	4	0.0%	0.0%	75.0%	25.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0	0.0%	0.0%	50.0%	50.0%	0.0%		0.0%
		남포	3	33.3%	0.0%	33.3%	33.3%	0.0%		0.0%
개성		3	33.3%	0.0%	33.3%	33.3%	0.0%		0.0%	
평안남도		6	0.0%	0.0%	16.7%	66.7%	16.7%		0.0%	
평안북도		9	0.0%	0.0%	55.6%	44.4%	0.0%		0.0%	
함경남도		24	12.5%	4.2%	33.3%	45.8%	4.2%		0.0%	
함경북도		144	8.3%	1.4%	48.6%	38.9%	2.8%		0.0%	
자강도		3	33.3%	0.0%	66.7%	0.0%	0.0%		0.0%	
양강도		363	7.7%	0.0%	50.4%	39.1%	1.9%		0.8%	
황해남도		5	20.0%	0.0%	60.0%	20.0%	0.0%		0.0%	
황해북도		5	0.0%	0.0%	40.0%	20.0%	40.0%		0.0%	
강원도		6	33.3%	16.7%	16.7%	16.7%	16.7%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89	9.0%	2.3%	48.3%	39.3%	1.1%		0.0%
		후보당원	3	33.3%	0.0%	33.3%	33.3%	0.0%		0.0%
	비당원	485	8.3%	0.4%	48.0%	39.6%	3.1%		0.6%	
	무응답	5	0.0%	0.0%	100.0%	0.0%	0.0%		0.0%	

		발전에 필요한 국가(%)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무응답	
직업	노동자	119	7.6%	0.0%	50.4%	39.5%	2.5%		
	농민	33	6.1%	0.0%	30.3%	54.6%	9.1%		
	사무원	46	6.5%	4.4%	50.0%	37.0%	2.2%		
	피부양자	2	0.0%	0.0%	0.0%	100.0%	0.0%		
	학생	23	0.0%	0.0%	47.8%	43.5%	8.7%		
	군인	18	5.6%	5.6%	50.0%	38.9%	0.0%		
	가정부인	65	1.5%	0.0%	52.3%	46.2%	0.0%		
	무직 및 기타	48	4.2%	0.0%	58.3%	35.4%	2.1%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0.0%		
공식 소득	0원	324	8.6%	0.0%	47.5%	40.4%	2.8%		0.6%
	천원 이하	35	14.3%	0.0%	37.1%	40.0%	8.6%		0.0%
	5천원 이하	151	7.3%	2.7%	54.3%	34.4%	1.3%		0.0%
	만원 이하	6	16.7%	0.0%	16.7%	66.7%	0.0%		0.0%
	10만원 이하	23	8.7%	0.0%	26.1%	65.2%	0.0%		0.0%
	50만원 이하	23	8.7%	0.0%	73.9%	17.4%	0.0%		0.0%
	100만원 이하	6	0.0%	0.0%	33.3%	50.0%	16.7%		0.0%
	100만원 초과	2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10	0.0%	0.0%	60.0%	30.0%	0.0%		10.0%
	비공식 소득	0원	125	9.6%	0.0%	51.2%	33.6%	4.8%	
천원 이하		7	14.3%	0.0%	28.6%	57.1%	0.0%		0.0%
5천원 이하		8	12.5%	0.0%	37.5%	50.0%	0.0%		0.0%
만원 이하		3	0.0%	0.0%	66.7%	33.3%	0.0%		0.0%
10만원 이하		52	9.6%	3.9%	50.0%	32.7%	3.9%		0.0%
50만원 이하		173	10.4%	0.0%	43.9%	43.9%	1.2%		0.6%
100만원 이하		91	5.5%	1.1%	51.7%	37.4%	4.4%		0.0%
100만원 초과		112	6.3%	0.9%	50.0%	40.2%	1.8%		0.9%
무응답		8	0.0%	0.0%	62.5%	37.5%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384	7.8%	0.5%	49.5%	39.6%	2.1%		0.5%
	없다	198	9.6%	1.0%	46.5%	38.4%	4.0%		0.5%
남한 친척	있다	347	8.7%	0.6%	47.0%	40.1%	2.9%		0.9%
	없다	235	8.1%	0.9%	50.6%	37.9%	2.6%		0.0%
혼인 여부	미혼	155	7.1%	0.0%	45.2%	43.9%	3.9%		
	결혼	161	3.1%	1.2%	54.7%	39.1%	1.9%		
	사별/별거/이혼	38	5.3%	2.6%	47.4%	42.1%	2.6%		
	무응답	3	0.0%	0.0%	66.7%	33.3%	0.0%		

남한주민 친근감(skd01)

문)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2017~) 남한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남한주민 친근감(%)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240	38.47% (477)	51.45% (638)	9.35% (116)	0.56% (7)	0.16% (2)	0.00% (0)
탈북 연도	2010	104	43.3%	47.1%	8.7%	0.0%	1.0%	
	2011	128	35.9%	53.9%	9.4%	0.8%	0.0%	
	2012	132	42.4%	44.7%	12.9%	0.0%	0.0%	
	2013	149	33.6%	57.1%	9.4%	0.0%	0.0%	
	2014	145	39.3%	52.4%	7.6%	0.7%	0.0%	
	2015	135	43.0%	47.4%	8.2%	1.5%	0.0%	
	2016	135	38.5%	54.1%	5.9%	1.5%	0.0%	
	2017	85	36.5%	54.1%	8.2%	0.0%	1.2%	
	2018	116	33.6%	54.3%	12.1%	0.0%	0.0%	
	2019	110	39.1%	48.2%	11.8%	0.9%	0.0%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33.5%	54.6%	10.9%	1.0%	0.0%	
	여자	744	41.8%	49.3%	8.3%	0.3%	0.3%	
연령대	20대	410	30.5%	56.6%	12.4%	0.2%	0.2%	
	30대	286	34.3%	55.6%	8.7%	1.4%	0.0%	
	40대	272	44.1%	49.3%	6.3%	0.0%	0.4%	
	50대	185	48.7%	43.8%	7.6%	0.0%	0.0%	
	60대	67	58.2%	29.9%	10.5%	1.5%	0.0%	
	무응답	11	18.2%	72.7%	0.0%	9.1%	0.0%	
북한 거주지	평양	16	50.0%	37.5%	12.5%	0.0%	0.0%	
	남포	7	71.4%	28.6%	0.0%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20	20.0%	60.0%	20.0%	0.0%	0.0%	
	평안북도	19	47.4%	36.8%	15.8%	0.0%	0.0%	
	함경남도	66	42.4%	47.0%	10.6%	0.0%	0.0%	
	함경북도	432	36.6%	55.8%	6.9%	0.5%	0.2%	
	자강도	4	25.0%	75.0%	0.0%	0.0%	0.0%	
	양강도	632	38.6%	49.7%	10.8%	0.8%	0.2%	
	황해남도	10	10.0%	90.0%	0.0%	0.0%	0.0%	
	황해북도	16	62.5%	25.0%	12.5%	0.0%	0.0%	
	강원도	13	46.2%	53.9%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38.5%	50.6%	9.9%	1.1%	0.0%	
	후보당원	6	0.0%	83.3%	16.7%	0.0%	0.0%	
	비당원	1039	38.8%	51.2%	9.3%	0.5%	0.2%	
	무응답	11	36.4%	63.6%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36.9%	53.3%	8.9%	0.9%	0.0%	
	농민	54	44.4%	46.3%	7.4%	1.9%	0.0%	
	사무원	90	35.6%	54.4%	8.9%	1.1%	0.0%	
	피부양자	5	20.0%	80.0%	0.0%	0.0%	0.0%	
	학생	43	23.3%	65.1%	11.6%	0.0%	0.0%	
	군인	31	35.5%	54.8%	9.7%	0.0%	0.0%	
	가정부인	125	45.6%	48.8%	4.0%	0.8%	0.8%	
	무직 및 기타	81	39.5%	50.6%	9.9%	0.0%	0.0%	
	무응답	4	50.0%	5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40.5%	50.0%	8.7%	0.6%	0.2%	
	천원 이하	74	40.5%	47.3%	12.2%	0.0%	0.0%	
	5천원 이하	373	34.1%	56.3%	9.4%	0.3%	0.0%	
	만원 이하	20	60.0%	35.0%	5.0%	0.0%	0.0%	
	10만원 이하	45	35.6%	51.1%	11.1%	2.2%	0.0%	
	50만원 이하	34	38.2%	52.9%	8.8%	0.0%	0.0%	
	100만원 이하	10	30.0%	50.0%	10.0%	0.0%	10.0%	
	100만원 초과	4	0.0%	75.0%	25.0%	0.0%	0.0%	
	무응답	56	42.9%	42.9%	12.5%	1.8%	0.0%	
	비공식 소득	0원	252	40.5%	48.4%	10.7%	0.0%	0.4%
천원 이하		20	35.0%	50.0%	15.0%	0.0%	0.0%	
5천원 이하		19	52.6%	47.4%	0.0%	0.0%	0.0%	
만원 이하		12	41.7%	50.0%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40.3%	43.9%	14.4%	1.4%	0.0%	
50만원 이하		373	38.9%	52.6%	8.0%	0.5%	0.0%	
100만원 이하		170	32.9%	57.7%	9.4%	0.0%	0.0%	
100만원 초과		193	34.7%	57.5%	6.7%	1.0%	0.0%	
무응답		53	49.1%	37.7%	9.4%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38.8%	51.9%	8.6%	0.6%	0.1%	
	없다	377	37.4%	50.9%	11.1%	0.5%	0.0%	
	무응답	5	60.0%	2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09	39.9%	49.8%	9.6%	0.6%	0.1%	
	없다	528	36.4%	54.0%	9.1%	0.6%	0.0%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19	35.1%	53.9%	10.5%	0.5%	0.0%	
	결혼	476	41.4%	48.3%	9.2%	0.8%	0.2%	
	사별/별거/이혼	109	42.2%	56.0%	1.8%	0.0%	0.0%	
	무응답	9	66.7%	22.2%	0.0%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sk02)

문)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주민 포용성(%)						
		사례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0	38.47% (477)	51.45% (638)	9.35% (116)	0.56% (7)	0.16% (2)	0.00% (0)
탈북연도	2010	104	26.9%	48.1%	23.1%	1.0%	1.0%	
	2011	128	21.1%	49.2%	27.3%	1.6%	0.8%	
	2012	132	24.2%	55.3%	19.7%	0.8%	0.0%	
	2013	149	24.2%	52.4%	21.5%	2.0%	0.0%	
	2014	146	20.6%	52.1%	27.4%	0.0%	0.0%	
	2015	135	31.1%	44.4%	23.0%	1.5%	0.0%	
	2016	135	25.9%	53.3%	20.0%	0.7%	0.0%	
	2017	85	27.1%	44.7%	27.1%	0.0%	1.2%	
	2018	116	22.4%	56.0%	19.8%	1.7%	0.0%	
	2019	110	22.7%	48.2%	28.2%	0.9%	0.0%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496	20.2%	52.8%	25.8%	1.2%	0.0%	
	여자	745	27.4%	49.3%	22.0%	0.9%	0.4%	
연령대	20대	411	15.8%	51.3%	30.9%	1.5%	0.5%	
	30대	286	21.0%	55.2%	23.1%	0.7%	0.0%	
	40대	272	30.5%	52.6%	15.4%	1.1%	0.4%	
	50대	185	30.3%	47.0%	22.2%	0.5%	0.0%	
	60대	67	53.7%	26.9%	17.9%	1.5%	0.0%	
	무응답	11	9.1%	81.8%	9.1%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35.3%	35.3%	29.4%	0.0%	0.0%	
	남포	7	28.6%	71.4%	0.0%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20	10.0%	65.0%	25.0%	0.0%	0.0%	
	평안북도	19	26.3%	47.4%	21.1%	5.3%	0.0%	
	함경남도	66	33.3%	37.9%	27.3%	1.5%	0.0%	
	함경북도	432	23.2%	52.1%	23.6%	0.9%	0.2%	
	자강도	4	0.0%	50.0%	50.0%	0.0%	0.0%	
	양강도	632	24.7%	51.0%	23.1%	1.0%	0.3%	
	황해남도	10	20.0%	60.0%	20.0%	0.0%	0.0%	
	황해북도	16	18.8%	31.3%	43.8%	6.3%	0.0%	
	강원도	13	23.1%	69.2%	7.7%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25.3%	48.9%	24.7%	1.1%	0.0%	
	후보당원	6	0.0%	33.3%	66.7%	0.0%	0.0%	
	비당원	1040	24.5%	50.8%	23.4%	1.1%	0.3%	
	무응답	11	27.3%	72.7%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사례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26.6%	50.0%	22.9%	0.5%	0.0%	
	농민	54	27.8%	46.3%	22.2%	3.7%	0.0%	
	사무원	91	18.7%	51.7%	29.7%	0.0%	0.0%	
	피부양자	5	20.0%	40.0%	40.0%	0.0%	0.0%	
	학생	43	9.3%	58.1%	30.2%	2.3%	0.0%	
	군인	31	29.0%	38.7%	32.3%	0.0%	0.0%	
	가정부인	125	28.8%	52.0%	18.4%	0.0%	0.8%	
	무직 및 기타	81	30.9%	46.9%	19.8%	2.5%	0.0%	
	무응답	4	25.0%	50.0%	25.0%	0.0%	0.0%	
	응답오류	4	25.0%	50.0%	25.0%	0.0%	0.0%	
공식 소득	0원	622	25.1%	50.8%	23.0%	0.8%	0.3%	
	천원 이하	74	27.0%	50.0%	21.6%	1.4%	0.0%	
	5천원 이하	374	21.1%	53.5%	23.8%	1.6%	0.0%	
	만원 이하	20	50.0%	30.0%	20.0%	0.0%	0.0%	
	10만원 이하	45	24.4%	37.8%	37.8%	0.0%	0.0%	
	50만원 이하	34	20.6%	61.8%	17.7%	0.0%	0.0%	
	100만원 이하	10	10.0%	80.0%	0.0%	0.0%	10.0%	
	100만원 초과	4	0.0%	25.0%	75.0%	0.0%	0.0%	
	무응답	56	35.7%	39.3%	23.2%	1.8%	0.0%	
	0원	253	21.7%	47.8%	27.3%	2.8%	0.4%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20	40.0%	20.0%	40.0%	0.0%	0.0%	
	5천원 이하	19	63.2%	31.6%	5.3%	0.0%	0.0%	
	만원 이하	12	16.7%	75.0%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29.5%	48.2%	20.9%	0.7%	0.7%	
	50만원 이하	373	23.9%	54.2%	21.5%	0.5%	0.0%	
	100만원 이하	170	19.4%	52.4%	27.1%	1.2%	0.0%	
	100만원 초과	193	23.3%	53.4%	23.3%	0.0%	0.0%	
	무응답	53	34.0%	37.7%	24.5%	1.9%	1.9%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24.0%	52.9%	22.1%	0.7%	0.2%
없다		378	25.1%	46.0%	27.0%	1.9%	0.0%	
무응답		5	60.0%	20.0%	0.0%	0.0%	20.0%	
남한 친척	있다	710	24.9%	50.1%	23.8%	1.0%	0.1%	
	없다	528	23.7%	51.7%	23.3%	1.1%	0.2%	
	무응답	3	66.7%	0.0%	0.0%	0.0%	33.3%	
혼인 여부	미혼	420	20.7%	51.0%	26.4%	1.7%	0.2%	
	결혼	476	26.3%	49.6%	23.3%	0.6%	0.2%	
	사별/별거/이혼	109	34.9%	51.4%	13.8%	0.0%	0.0%	
	무응답	9	33.3%	33.3%	22.2%	0.0%	11.1%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국민외식(skd03)

문)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외식(%)					
		사례수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241	68.25% (847)	25.22% (313)	6.29% (78)	0.16%(2)	0.08%(1)
탈북 연도	2010	104	74.0%	21.2%	4.8%	0.0%	0.0%
	2011	128	64.1%	30.5%	4.7%	0.8%	0.0%
	2012	132	64.4%	31.1%	4.6%	0.0%	0.0%
	2013	149	67.8%	26.2%	6.0%	0.0%	0.0%
	2014	146	68.5%	26.7%	4.8%	0.0%	0.0%
	2015	135	67.4%	24.4%	8.2%	0.0%	0.0%
	2016	135	73.3%	20.0%	6.7%	0.0%	0.0%
	2017	85	71.8%	21.2%	5.9%	1.2%	0.0%
	2018	116	67.2%	25.9%	6.0%	0.0%	0.9%
	2019	110	66.4%	22.7%	10.9%	0.0%	0.0%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496	65.5%	26.4%	7.9%	0.0%	0.2%
	여자	745	70.1%	24.4%	5.2%	0.3%	0.0%
연령대	20대	411	66.9%	27.0%	5.8%	0.2%	0.0%
	30대	286	67.8%	25.5%	6.6%	0.0%	0.0%
	40대	272	66.9%	25.7%	7.4%	0.0%	0.0%
	50대	185	72.4%	20.5%	6.5%	0.0%	0.5%
	60대	67	76.1%	19.4%	3.0%	1.5%	0.0%
	무응답	11	45.5%	45.5%	9.1%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17	52.9%	23.5%	23.5%	0.0%	0.0%
	남포	7	57.1%	28.6%	14.3%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평안남도	20	70.0%	30.0%	0.0%	0.0%	0.0%
	평안북도	19	57.9%	36.8%	5.3%	0.0%	0.0%
	함경남도	66	60.6%	28.8%	10.6%	0.0%	0.0%
	함경북도	432	66.4%	27.1%	6.5%	0.0%	0.0%
	자강도	4	50.0%	25.0%	25.0%	0.0%	0.0%
	양강도	632	71.7%	22.8%	5.1%	0.3%	0.2%
	황해남도	10	40.0%	30.0%	30.0%	0.0%	0.0%
	황해북도	16	56.3%	37.5%	6.3%	0.0%	0.0%
	강원도	13	76.9%	23.1%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82	67.0%	25.3%	7.1%	0.0%	0.6%
	후보당원	6	66.7%	33.3%	0.0%	0.0%	0.0%
	비당원	1040	68.4%	25.2%	6.3%	0.2%	0.0%
	무응답	11	72.7%	27.3%	0.0%	0.0%	0.0%

		국민외식(%)					
		사례수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68.2%	26.6%	5.1%	0.0%	
	농민	54	75.9%	24.1%	0.0%	0.0%	
	사무원	91	75.8%	15.4%	8.8%	0.0%	
	피부양자	5	60.0%	40.0%	0.0%	0.0%	
	학생	43	55.8%	41.9%	2.3%	0.0%	
	군인	31	58.1%	25.8%	16.1%	0.0%	
	가정부인	125	73.6%	21.6%	4.0%	0.8%	
	무직 및 기타	81	67.9%	21.0%	11.1%	0.0%	
	무응답	4	75.0%	0.0%	25.0%	0.0%	
응답오류	4	50.0%	25.0%	25.0%	0.0%		
공식 소득	0원	622	68.0%	25.4%	6.4%	0.2%	0.0%
	천원 이하	74	68.9%	28.4%	2.7%	0.0%	0.0%
	5천원 이하	374	66.6%	27.0%	6.2%	0.0%	0.3%
	만원 이하	20	75.0%	15.0%	5.0%	5.0%	0.0%
	10만원 이하	45	73.3%	22.2%	4.4%	0.0%	0.0%
	50만원 이하	34	67.7%	20.6%	11.8%	0.0%	0.0%
	100만원 이하	10	80.0%	20.0%	0.0%	0.0%	0.0%
	100만원 초과	4	75.0%	25.0%	0.0%	0.0%	0.0%
	무응답	56	73.2%	17.9%	8.9%	0.0%	0.0%
비공식 소득	0원	253	64.8%	28.5%	6.3%	0.4%	0.0%
	천원 이하	20	70.0%	25.0%	5.0%	0.0%	0.0%
	5천원 이하	19	89.5%	10.5%	0.0%	0.0%	0.0%
	만원 이하	12	75.0%	16.7%	8.3%	0.0%	0.0%
	10만원 이하	139	73.4%	20.9%	5.8%	0.0%	0.0%
	50만원 이하	373	68.9%	23.9%	7.0%	0.3%	0.0%
	100만원 이하	170	64.7%	30.6%	4.7%	0.0%	0.0%
	100만원 초과	193	68.9%	24.4%	6.2%	0.0%	0.5%
	무응답	53	71.7%	20.8%	7.6%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858	68.4%	24.9%	6.3%	0.2%	0.1%
	없다	378	67.7%	25.9%	6.4%	0.0%	0.0%
	무응답	5	80.0%	2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710	71.0%	23.8%	4.9%	0.1%	0.1%
	없다	528	64.4%	27.3%	8.1%	0.2%	0.0%
혼인 여부	미혼	420	65.7%	27.9%	6.4%	0.0%	
	결혼	476	71.4%	22.7%	5.7%	0.2%	
	사별/별거/이혼	109	70.6%	26.6%	1.8%	0.9%	
	무응답	9	44.4%	3.3%	22.2%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남한생활 만족도(skd04)

문)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남한생활 만족도(%)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전체		1136	40.76(463)	37.59(427)	18.31(208)	2.82(32)	0.44(5)	0.09(1)	0.00(0)	
탈북연도	2011	127	38.6%	33.9%	25.2%	2.4%	0.0%	0.0%		
	2012	132	43.9%	34.9%	18.2%	2.3%	0.8%	0.0%		
	2013	149	38.9%	41.6%	15.4%	2.0%	2.0%	0.0%		
	2014	146	41.8%	37.7%	16.4%	4.1%	0.0%	0.0%		
	2015	135	48.2%	27.4%	22.2%	2.2%	0.0%	0.0%		
	2016	135	42.2%	38.5%	14.1%	4.4%	0.7%	0.0%		
	2017	85	32.9%	44.7%	17.7%	3.5%	0.0%	1.2%		
	2018	116	31.9%	47.4%	19.0%	1.7%	0.0%	0.0%		
	2019	110	45.5%	34.6%	17.3%	2.7%	0.0%	0.0%		
	2020	1	0.0%	10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39.4%	39.4%	18.3%	2.6%	0.4%	0.0%		
	여자	676	41.7%	36.4%	18.3%	3.0%	0.4%	0.2%		
연령대	20대	380	32.1%	41.1%	22.1%	3.4%	1.1%	0.3%		
	30대	256	40.2%	37.5%	19.5%	2.7%	0.0%	0.0%		
	40대	256	45.7%	36.3%	15.6%	2.3%	0.0%	0.0%		
	50대	170	46.5%	33.5%	16.5%	2.9%	0.6%	0.0%		
	60대	54	68.5%	24.1%	5.6%	1.9%	0.0%	0.0%		
	무응답	11	9.1%	72.7%	18.2%	0.0%	0.0%	0.0%		
	평양	17	47.1%	52.9%	0.0%	0.0%	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7	28.6%	71.4%	0.0%	0.0%	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0.0%		
	평안남도	15	20.0%	53.3%	20.0%	6.7%	0.0%	0.0%		
	평안북도	19	36.8%	47.4%	5.3%	10.5%	0.0%	0.0%		
	함경남도	62	46.8%	30.7%	19.4%	3.2%	0.0%	0.0%		
	함경북도	377	37.9%	39.5%	18.8%	3.2%	0.5%	0.0%		
	자강도	4	0.0%	25.0%	50.0%	25.0%	0.0%	0.0%		
	양강도	592	42.2%	36.0%	18.9%	2.2%	0.5%	0.2%		
	황해남도	10	30.0%	40.0%	30.0%	0.0%	0.0%	0.0%		
	황해북도	15	46.7%	33.3%	13.3%	6.7%	0.0%	0.0%		
	강원도	13	61.5%	23.1%	15.4%	0.0%	0.0%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72	43.0%	38.4%	16.9%	1.7%	0.0%	0.0%	
		후보당원	5	20.0%	40.0%	0.0%	20.0%	20.0%	0.0%	
비당원		950	40.4%	37.6%	18.6%	2.8%	0.4%	0.1%		
무응답		7	42.9%	28.6%	14.3%	14.3%	0.0%	0.0%		

		남한생활 만족도(%)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직업	노동자	214	40.2%	37.4%	19.6%	2.3%	0.5%	0.0%	
	농민	54	46.3%	33.3%	20.4%	0.0%	0.0%	0.0%	
	사무원	91	41.8%	39.6%	12.1%	5.5%	1.1%	0.0%	
	피부양자	5	80.0%	20.0%	0.0%	0.0%	0.0%	0.0%	
	학생	43	27.9%	48.8%	23.3%	0.0%	0.0%	0.0%	
	군인	31	25.8%	51.6%	16.1%	3.2%	3.2%	0.0%	
	가정부인	125	44.0%	40.0%	10.4%	4.8%	0.0%	0.8%	
	무직 및 기타	81	45.7%	27.2%	22.2%	3.7%	1.2%	0.0%	
	무응답	4	50.0%	0.0%	25.0%	25.0%	0.0%	0.0%	
	응답오류	4	50.0%	25.0%	25.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595	42.4%	36.0%	18.7%	2.7%	0.2%	0.2%	
	천원 이하	67	40.3%	47.8%	10.5%	0.0%	1.5%	0.0%	
	5천원 이하	337	38.6%	37.4%	19.3%	4.2%	0.6%	0.0%	
	만원 이하	18	44.4%	50.0%	5.6%	0.0%	0.0%	0.0%	
	10만원 이하	39	41.0%	33.3%	25.6%	0.0%	0.0%	0.0%	
	50만원 이하	32	28.1%	62.5%	9.4%	0.0%	0.0%	0.0%	
	100만원 이하	9	33.3%	44.4%	22.2%	0.0%	0.0%	0.0%	
	100만원 초과	4	0.0%	50.0%	0.0%	25.0%	25.0%	0.0%	
	무응답	33	51.5%	18.2%	27.3%	3.0%	0.0%	0.0%	
	응답오류	235	38.7%	37.9%	19.2%	3.0%	0.9%	0.4%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14	50.0%	42.9%	0.0%	7.1%	0.0%	0.0%	
	5천원 이하	12	58.3%	41.7%	0.0%	0.0%	0.0%	0.0%	
	만원 이하	10	50.0%	30.0%	20.0%	0.0%	0.0%	0.0%	
	10만원 이하	121	48.8%	29.8%	19.0%	2.5%	0.0%	0.0%	
	50만원 이하	354	40.4%	42.7%	15.3%	1.7%	0.0%	0.0%	
	100만원 이하	164	38.4%	32.9%	23.8%	4.9%	0.0%	0.0%	
	100만원 초과	187	36.9%	37.4%	20.3%	3.7%	1.6%	0.0%	
	무응답	30	53.3%	23.3%	23.3%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86	41.5%	37.4%	17.7%	2.9%	0.4%	0.1%
없다		349	39.0%	38.1%	19.8%	2.6%	0.6%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669	43.5%	37.7%	16.1%	2.4%	0.2%	0.2%	
	없다	467	36.8%	37.5%	21.4%	3.4%	0.9%	0.0%	
혼인 여부	미혼	365	37.8%	38.9%	20.8%	1.9%	0.6%	0.0%	
	결혼	432	43.3%	33.6%	18.1%	4.2%	0.7%	0.2%	
	사별/별거/이혼	109	45.9%	40.4%	11.9%	1.8%	0.0%	0.0%	
	무응답	4	0.0%	75.0%	25.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sk05)

문)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1136	56.69% (644)	31.07% (353)	9.51% (108)	1.85% (21)	0.79% (9)	0.00% (0)	0.09% (1)	
탈북 연도	2011	127	43.3%	42.5%	11.0%	3.2%	0.0%		0.0%	
	2012	132	55.3%	31.8%	11.4%	0.8%	0.8%		0.0%	
	2013	149	56.4%	30.9%	8.7%	2.0%	1.3%		0.7%	
	2014	146	65.8%	23.3%	8.9%	1.4%	0.7%		0.0%	
	2015	135	68.9%	23.7%	5.9%	0.7%	0.7%		0.0%	
	2016	135	57.8%	32.6%	7.4%	2.2%	0.0%		0.0%	
	2017	85	56.5%	32.9%	7.1%	2.4%	1.2%		0.0%	
	2018	116	49.1%	35.3%	13.8%	0.9%	0.9%		0.0%	
	2019	110	53.6%	29.1%	11.8%	3.6%	1.8%		0.0%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460	52.2%	31.3%	12.4%	2.2%	2.0%		0.0%	
	여자	676	59.8%	30.9%	7.5%	1.6%	0.0%		0.2%	
연령대	20대	380	55.5%	30.5%	10.3%	2.1%	1.3%		0.3%	
	30대	256	53.9%	33.2%	10.6%	1.2%	1.2%		0.0%	
	40대	256	59.8%	30.1%	8.2%	1.6%	0.4%		0.0%	
	50대	170	55.9%	32.4%	9.4%	2.4%	0.0%		0.0%	
	60대	54	70.4%	24.1%	3.7%	1.9%	0.0%		0.0%	
	무응답	11	54.6%	18.2%	18.2%	9.1%	0.0%		0.0%	
	평양	17	41.2%	47.1%	11.8%	0.0%	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7	71.4%	28.6%	0.0%	0.0%	0.0%		0.0%	
	개성	3	0.0%	100.0%	0.0%	0.0%	0.0%		0.0%	
	평안남도	15	46.7%	40.0%	6.7%	0.0%	6.7%		0.0%	
	평안북도	19	36.8%	52.6%	10.5%	0.0%	0.0%		0.0%	
	함경남도	62	54.8%	29.0%	14.5%	1.6%	0.0%		0.0%	
	함경북도	377	55.7%	32.6%	8.8%	2.7%	0.3%		0.0%	
	자강도	4	75.0%	0.0%	25.0%	0.0%	0.0%		0.0%	
	양강도	592	59.3%	28.9%	9.1%	1.4%	1.2%		0.2%	
	황해남도	10	40.0%	30.0%	30.0%	0.0%	0.0%		0.0%	
	황해북도	15	46.7%	33.3%	6.7%	13.3%	0.0%		0.0%	
	강원도	13	61.5%	23.1%	15.4%	0.0%	0.0%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172	52.3%	32.0%	12.8%	1.7%	1.2%		0.0%
		후보당원	5	60.0%	0.0%	20.0%	20.0%	0.0%		0.0%
비당원		950	57.7%	31.1%	8.7%	1.7%	0.7%		0.1%	
무응답		7	42.9%	14.3%	28.6%	14.3%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14	62.2%	27.6%	6.5%	2.3%	1.4%		0.0%
	농민	54	55.6%	24.1%	18.5%	1.9%	0.0%		0.0%
	사무원	91	59.3%	30.8%	6.6%	2.2%	1.1%		0.0%
	피부양자	5	80.0%	20.0%	0.0%	0.0%	0.0%		0.0%
	학생	43	46.5%	39.5%	14.0%	0.0%	0.0%		0.0%
	군인	31	71.0%	16.1%	6.5%	3.2%	3.2%		0.0%
	가정부인	125	64.0%	29.6%	4.8%	0.8%	0.0%		0.8%
	무직 및 기타	81	65.4%	27.2%	6.2%	1.2%	0.0%		0.0%
	무응답	4	75.0%	0.0%	25.0%	0.0%	0.0%		0.0%
	응답오류	4	25.0%	50.0%	25.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595	59.2%	29.1%	9.1%	2.2%	0.3%		0.2%
	천원 이하	67	52.2%	44.8%	3.0%	0.0%	0.0%		0.0%
	5천원 이하	337	53.4%	33.8%	10.4%	1.5%	0.9%		0.0%
	만원 이하	18	44.4%	33.3%	16.7%	0.0%	5.6%		0.0%
	10만원 이하	39	56.4%	20.5%	18.0%	2.6%	2.6%		0.0%
	50만원 이하	32	56.3%	34.3%	6.3%	3.1%	0.0%		0.0%
	100만원 이하	9	66.7%	2.2%	11.1%	0.0%	0.0%		0.0%
	100만원 초과	4	25.0%	25.0%	50.0%	0.0%	0.0%		0.0%
	무응답	33	66.7%	21.2%	6.1%	3.0%	3.0%		0.0%
	0원	235	56.2%	30.6%	11.1%	2.1%	0.0%		0.0%
비공식 소득	천원 이하	14	71.4%	7.1%	21.4%	0.0%	0.0%		0.0%
	5천원 이하	12	91.7%	8.3%	0.0%	0.0%	0.0%		0.0%
	만원 이하	10	60.0%	30.0%	10.0%	0.0%	0.0%		0.0%
	10만원 이하	121	54.6%	32.2%	9.1%	2.5%	0.8%		0.8%
	50만원 이하	354	57.1%	33.6%	7.1%	1.4%	0.9%		0.0%
	100만원 이하	164	56.7%	32.9%	7.3%	1.2%	1.8%		0.0%
	100만원 초과	187	53.5%	27.8%	15.0%	2.7%	1.1%		0.0%
	무응답	30	56.7%	33.3%	6.7%	3.3%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786	56.2%	32.1%	9.2%	1.7%	0.8%	
없다		349	57.6%	28.9%	10.3%	2.3%	0.9%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남한 친척	있다	669	58.2%	31.2%	7.6%	2.2%	0.6%		0.2%
	없다	467	54.6%	30.8%	12.2%	1.3%	1.1%		0.0%
혼인 여부	미혼	365	56.2%	32.3%	9.0%	1.9%	0.6%		0.0%
	사별/별거/이혼	432	58.6%	29.6%	9.5%	1.4%	0.9%		0.0%
	사별/별거/이혼	109	60.6%	30.3%	5.5%	2.8%	0.0%		0.9%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취업형태(skd07)

문)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취업형태(%)									
		사례수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797	14.18% (113)	4.52% (36)	6.78% (54)	0.38 (3)	1.25 (10)	11.67% (93)	58.97% (470)	2.26% (18)	0.00% (0)
탈북도	2010	104	22.1%	3.9%	10.6%	1.0%	2.9%	2.9%	46.2%	10.6%	
	2011	128	31.3%	1.6%	4.7%	0.0%	2.3%	7.8%	47.7%	4.7%	
	2012	132	9.1%	3.8%	9.1%	0.0%	0.8%	22.0%	55.3%	0.0%	
	2013	149	9.4%	6.7%	4.7%	0.0%	0.7%	14.1%	63.8%	0.7%	
	2014	146	3.4%	2.7%	6.9%	0.7%	1.4%	15.1%	69.9%	0.0%	
	2015	135	14.1%	8.2%	5.9%	0.7%	0.0%	5.9%	65.2%	0.0%	
	2016	3	0.0%	0.0%	0.0%	0.0%	0.0%	0.0%	100.0%	0.0%	
성별	남자	310	15.8%	5.8%	8.4%	0.3%	1.6%	15.8%	49.7%	2.6%	
	여자	487	13.1%	3.7%	5.8%	0.4%	1.0%	9.0%	64.9%	2.1%	
연령대	20대	258	10.5%	7.0%	3.1%	1.2%	0.4%	0.3%	67.4%	1.2%	
	30대	186	16.1%	2.2%	11.8%	0.0%	2.2%	15.6%	49.5%	2.7%	
	40대	195	15.9%	5.1%	6.2%	0.0%	2.1%	12.8%	55.9%	2.1%	
	50대	99	20.2%	2.0%	10.1%	0.0%	1.0%	13.1%	50.5%	3.0%	
	60대	52	9.6%	3.9%	3.9%	0.0%	0.0%	3.9%	73.1%	5.8%	
	무응답	7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7	0.0%	0.0%	0.0%	0.0%	0.0%	0.0%	100.0%	0.0%	
북한거주지	평양	12	8.3%	8.3%	0.0%	0.0%	0.0%	0.0%	83.3%	0.0%	
	남포	6	33.3%	0.0%	0.0%	0.0%	0.0%	0.0%	66.7%	0.0%	
	개성	0									
	평안남도	16	18.8%	0.0%	0.0%	6.3%	0.0%	18.8%	56.3%	0.0%	
	평안북도	11	18.2%	9.1%	18.2%	0.0%	0.0%	27.3%	27.3%	0.0%	
	함경남도	46	10.9%	0.0%	10.9%	0.0%	2.2%	10.9%	65.2%	0.0%	
	함경북도	346	15.3%	5.2%	6.9%	0.0%	1.7%	11.0%	56.9%	2.9%	
	자강도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양강도	332	13.3%	4.5%	6.9%	0.6%	0.9%	11.1%	60.2%	2.4%	
	황해남도	5	40.0%	0.0%	0.0%	0.0%	0.0%	20.0%	40.0%	0.0%	
	황해북도	11	0.0%	0.0%	0.0%	0.0%	0.0%	45.5%	54.6%	0.0%	
	강원도	10	10.0%	10.0%	0.0%	0.0%	0.0%	0.0%	80.0%	0.0%	
	응답오류	1	0.0%	0.0%	0.0%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119	15.1%	5.0%	6.7%	0.0%	1.7%	18.5%	49.6%	3.4%
후보당원		3	0.0%	0.0%	0.0%	33.3%	0.0%	0.0%	66.7%	0.0%	
비당원		667	13.8%	4.5%	6.8%	0.3%	1.2%	10.6%	60.7%	2.1%	
무응답		6	16.7%	0.0%	16.7%	0.0%	0.0%	0.0%	66.7%	0.0%	
무응답		6	16.7%	0.0%	16.7%	0.0%	0.0%	0.0%	66.7%	0.0%	

		취업형태(%)									
		사례수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동인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131	6.9%	6.9%	5.3%	0.8%	0.0%	15.3%	64.9%	0.0%	
	농민	35	11.4%	11.4%	83.6%	0.0%	0.0%	14.3%	51.4%	2.9%	
	사무원	67	11.9%	3.0%	7.5%	0.0%	0.0%	14.9%	62.7%	0.0%	
	피부양자	4	50.0%	0.0%	0.0%	0.0%	0.0%	0.0%	50.0%	0.0%	
	학생	26	3.9%	11.5%	3.9%	3.9%	0.0%	3.9%	73.1%	0.0%	
	군인	23	21.7%	4.4%	4.4%	0.0%	4.4%	17.4%	47.8%	0.0%	
	가정부인	87	4.6%	4.6%	6.9%	0.0%	1.2%	8.1%	74.7%	0.0%	
	무직 및 기타	55	7.3%	3.6%	3.6%	0.0%	1.8%	7.3%	76.4%	0.0%	
	무응답	2	0.0%	0.0%	0.0%	0.0%	0.0%	0.0%	100.0%	0.0%	
	응답오류	3	33.3%	0.0%	0.0%	0.0%	0.0%	0.0%	66.7%	0.0%	
공식소득	0원	378	10.1%	5.3%	5.8%	0.3%	0.5%	11.1%	65.6%	1.3%	
	천원 이하	46	8.7%	4.4%	8.7%	0.0%	0.0%	4.4%	71.7%	2.2%	
	5천원 이하	260	16.5%	3.5%	6.5%	0.4%	2.7%	16.5%	53.1%	0.8%	
	만원 이하	18	44.4%	0.0%	5.6%	0.0%	0.0%	22.2%	22.2%	5.6%	
	10만원 이하	27	7.4%	11.1%	3.7%	3.7%	0.0%	3.7%	70.4%	0.0%	
	50만원 이하	14	14.3%	7.1%	7.1%	0.0%	0.0%	0.0%	71.4%	0.0%	
	100만원 이하	6	16.7%	0.0%	16.7%	0.0%	0.0%	16.7%	50.0%	0.0%	
	100만원 초과	2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응답	46	32.6%	2.2%	15.2%	0.0%	2.2%	0.0%	28.3%	19.6%	
	무응답	46	32.6%	2.2%	15.2%	0.0%	2.2%	0.0%	28.3%	19.6%	
비공식소득	0원	160	11.9%	5.0%	7.5%	0.6%	1.9%	8.1%	63.1%	1.9%	
	천원 이하	15	13.3%	13.3%	6.7%	0.0%	0.0%	6.7%	60.0%	0.0%	
	5천원 이하	12	25.0%	0.0%	25.0%	0.0%	0.0%	0.0%	50.0%	0.0%	
	만원 이하	10	10.0%	10.0%	10.0%	0.0%	0.0%	20.0%	50.0%	0.0%	
	10만원 이하	98	15.3%	3.1%	4.1%	0.0%	2.0%	11.2%	61.2%	3.1%	
	50만원 이하	237	15.6%	3.4%	6.8%	0.4%	0.4%	15.6%	56.1%	1.7%	
	100만원 이하	112	8.9%	7.1%	3.6%	0.9%	0.9%	8.9%	69.6%	0.0%	
	100만원 초과	102	14.7%	3.9%	8.8%	0.0%	1.0%	16.7%	54.9%	0.0%	
	무응답	45	20.0%	4.4%	8.9%	0.0%	4.4%	4.4%	40.0%	17.8%	
	무응답	45	20.0%	4.4%	8.9%	0.0%	4.4%	4.4%	40.0%	17.8%	
장사경험	있다	569	14.6%	4.4%	7.2%	0.4%	1.2%	12.5%	57.8%	1.9%	
	없다	223	12.6%	4.9%	5.4%	0.5%	1.4%	9.9%	62.3%	3.1%	
	무응답	5	40.0%	0.0%	20.0%	0.0%	0.0%	0.0%	40.0%	0.0%	
남한친척	있다	447	11.9%	5.2%	6.9%	0.5%	1.3%	12.3%	60.4%	1.6%	
	없다	347	16.7%	3.8%	6.3%	0.3%	1.2%	11.0%	57.6%	3.2%	
	무응답	3	66.7%	0.0%	33.3%	0.0%	0.0%	0.0%	0.0%	0.0%	
혼인여부	미혼	323	12.4%	7.7%	4.6%	0.9%	0.6%	8.4%	63.5%	1.9%	
	사별/별거/이혼	86	11.6%	1.2%	5.8%	0.0%	2.3%	14.0%	62.8%	2.3%	
	무응답	6	66.7%	0.0%	16.7%	0.0%	0.0%	0.0%	16.7%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수준(skd08a)

문)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임금수준(%)						
		사례수	0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658	60.18% (396)	6.23% (41)	6.69% (44)	13.22% (87)	13.53% (89)	0.15% (1)
탈북연도	2010	103	12.6%	16.5%	10.7%	17.5%	42.7%	0.0%
	2011	128	28.9%	10.2%	11.7%	15.6%	33.6%	0.0%
	2012	132	79.6%	3.0%	3.8%	12.9%	0.0%	0.8%
	2013	149	77.9%	2.7%	4.7%	13.4%	1.3%	0.0%
	2014	146	85.6%	2.1%	4.1%	8.2%	0.0%	0.0%
성별	남자	257	58.4%	7.0%	5.8%	16.3%	12.5%	0.0%
	여자	401	61.4%	5.7%	7.2%	11.2%	14.2%	0.3%
연령대	20대	206	63.6%	7.3%	6.3%	9.2%	13.6%	0.0%
	30대	154	54.6%	8.4%	5.2%	18.2%	13.6%	0.0%
	40대	160	63.8%	3.1%	6.3%	15.0%	11.9%	0.0%
	50대	83	53.0%	0.6%	4.8%	18.1%	13.3%	1.2%
	60대	48	58.3%	0.0%	18.8%	2.1%	20.8%	0.0%
	무응답	7	100.0%	0.0%	0.0%	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7	100.0%	0.0%	0.0%	0.0%	0.0%
	남포	4	75.0%	0.0%	0.0%	25.0%	0.0%	0.0%
	개성	0						
	평안남도	14	57.1%	14.3%	14.3%	7.1%	7.1%	0.0%
	평안북도	10	60.0%	0.0%	0.0%	30.0%	0.0%	10.0%
	함경남도	42	52.4%	9.5%	7.1%	16.7%	14.3%	0.0%
	함경북도	287	56.1%	5.9%	7.7%	13.2%	17.1%	0.0%
	자강도	1	100.0%	0.0%	0.0%	0.0%	0.0%	0.0%
	양강도	269	63.6%	6.7%	6.0%	12.6%	11.2%	0.0%
	황해남도	5	60.0%	0.0%	0.0%	40.0%	0.0%	0.0%
	황해북도	11	81.8%	0.0%	0.0%	0.0%	18.2%	0.0%
	강원도	7	57.1%	0.0%	14.3%	14.3%	14.3%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93	62.4%	4.3%	2.2%	17.2%	14.0%	0.0%
	후보당원	3	66.7%	33.3%	0.0%	0.0%	0.0%	0.0%
	비당원	554	60.1%	6.3%	7.4%	12.6%	13.4%	0.2%
	무응답	6	50.0%	16.7%	0.0%	16.7%	16.7%	0.0%

		임금수준(%)						
		사례수	0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95	81.1%	3.2%	5.3%	10.5%	0.0%	
	농민	21	71.4%	9.5%	4.8%	9.5%	4.8%	
	사무원	45	82.2%	0.0%	4.4%	13.3%	0.0%	
	피부양자	3	33.3%	0.0%	33.3%	33.3%	0.0%	
	학생	20	85.0%	0.0%	5.0%	10.0%	0.0%	
	군인	13	69.2%	0.0%	7.7%	23.1%	0.0%	
	가정부인	60	88.3%	3.3%	1.7%	6.7%	0.0%	
	무직 및 기타	33	84.9%	0.0%	3.0%	12.1%	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298	70.8%	4.0%	6.0%	12.4%	6.7%	0.0%
	천원 이하	39	53.9%	7.7%	7.7%	12.8%	18.0%	0.0%
	5천원 이하	223	60.5%	6.7%	6.3%	13.5%	12.6%	0.5%
	만원 이하	14	42.9%	7.1%	7.1%	28.6%	14.3%	0.0%
	10만원 이하	22	54.6%	13.6%	9.1%	9.1%	13.6%	0.0%
	50만원 이하	11	36.4%	9.1%	9.1%	27.3%	18.2%	0.0%
	100만원 이하	3	100.0%	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46	4.4%	13.0%	10.9%	13.0%	58.7%	0.0%
비공식 소득	0원	128	69.5%	5.5%	7.0%	12.5%	5.5%	0.0%
	천원 이하	13	38.5%	0.0%	153.4%	23.1%	23.1%	0.0%
	5천원 이하	11	27.3%	0.0%	18.2%	27.3%	27.3%	0.0%
	만원 이하	9	66.7%	0.0%	11.1%	11.1%	11.1%	0.0%
	10만원 이하	87	56.3%	6.9%	9.2%	8.1%	19.5%	0.0%
	50만원 이하	200	61.0%	7.0%	5.5%	14.5%	11.5%	0.5%
	100만원 이하	79	73.4%	6.3%	3.8%	11.4%	5.1%	0.0%
	100만원 초과	81	64.2%	6.2%	2.5%	17.3%	9.9%	0.0%
	무응답	44	15.9%	9.1%	13.6%	9.1%	52.3%	0.0%
장사 경험	있다	474	58.9%	6.8%	6.8%	14.1%	13.3%	0.2%
	없다	180	64.4%	5.0%	6.7%	11.1%	12.8%	0.0%
	무응답	4	25.0%	0.0%	0.0%	0.0%	0.0%	75.0%
남한 친척	있다	363	65.6%	5.0%	6.6%	11.3%	11.3%	0.3%
	없다	293	53.9%	7.9%	6.8%	15.7%	15.7%	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0.0%
혼인 여부	미혼	265	54.7%	7.9%	7.9%	12.1%	17.4%	0.0%
	결혼	315	62.9%	6.0%	5.7%	14.0%	11.1%	0.3%
	사별/별거/이혼	71	73.2%	0.0%	7.0%	12.7%	7.0%	0.0%
	무응답	5	0.0%	20.0%	0.0%	40.0%	4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문화적 차이(sk10_a)

문)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문화적 차이(%)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전체		444	25.90% (115)	52.70% (234)	15.99% (71)	4.73 (21)	0.68% (3)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31.8%	46.2%	18.2%	3.8%	0.0%	
	2017	85	28.2%	54.1%	12.9%	4.7%	0.0%	
	2018	116	18.1%	62.1%	14.7%	3.5%	1.7%	
	2019	110	25.5%	50.0%	16.4%	7.3%	0.9%	
	2020	1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186	29.0%	47.3%	16.1%	7.5%	0.0%	
	여자	258	23.6%	56.6%	15.9%	2.7%	1.2%	
연령대	20대	153	25.5%	48.4%	19.6%	6.5%	0.0%	
	30대	100	20.0%	60.0%	15.0%	5.0%	0.0%	
	40대	77	35.1%	50.7%	13.0%	1.3%	0.0%	
	50대	86	27.9%	52.3%	11.6%	4.7%	3.5%	
	60대	15	33.3%	53.3%	6.7%	6.7%	0.0%	
	무응답	4	0.0%	50.0%	5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20.0%	0.0%	60.0%	20.0%	0.0%
	남포	1	100.0%	0.0%	0.0%	0.0%	0.0%	
	개성	3	0.0%	100.0%	0.0%	0.0%	0.0%	
	평안남도	4	25.0%	50.0%	25.0%	0.0%	0.0%	
	평안북도	8	25.0%	50.0%	25.0%	0.0%	0.0%	
	함경남도	20	45.0%	35.0%	15.0%	0.0%	5.0%	
	함경북도	86	30.2%	52.3%	12.8%	4.7%	0.0%	
	자강도	3	33.3%	33.3%	0.0%	33.3%	0.0%	
	양강도	300	24.0%	54.7%	16.0%	4.7%	0.7%	
	황해남도	5	0.0%	60.0%	40.0%	0.0%	0.0%	
	황해북도	5	40.0%	20.0%	40.0%	0.0%	0.0%	
	강원도	3	0.0%	33.3%	33.3%	33.3%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63	23.8%	54.0%	14.3%	7.9%	0.0%	
	후보당원	3	66.7%	0.0%	0.0%	33.3%	0.0%	
	비당원	373	26.3%	52.3%	16.6%	4.0%	0.8%	
	무응답	5	0.0%	100.0%	0.0%	0.0%	0.0%	

		문화적 차이(%)						응답오류, 중복응답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직업	노동자	83	39.8%	41.0%	14.5%	4.8%		
	농민	19	10.5%	68.4%	21.1%	0.0%		
	사무원	24	16.7%	54.2%	25.0%	4.2%		
	피부양자	1	0.0%	100.0%	0.0%	0.0%		
	학생	17	5.9%	58.8%	29.4%	5.9%		
	군인	8	50.0%	25.0%	12.5%	12.5%		
	가정부인	38	31.6%	55.3%	10.5%	2.6%		
	무직 및 기타	26	38.5%	42.3%	15.4%	3.9%		
	무응답	2	50.0%	50.0%	0.0%	0.0%		
공식 소득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0원	244	25.0%	53.7%	15.6%	4.9%	0.8%	
	천원 이하	28	32.1%	42.9%	21.4%	3.6%	0.0%	
	5천원 이하	114	28.1%	51.8%	15.8%	3.5%	0.9%	
	만원 이하	2	50.0%	50.0%	0.0%	0.0%	0.0%	
	10만원 이하	18	22.2%	55.6%	16.7%	5.6%	0.0%	
	50만원 이하	20	25.0%	50.0%	20.0%	5.0%	0.0%	
	100만원 이하	4	25.0%	75.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10.0%	60.0%	20.0%	1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19.4%	55.9%	17.2%	6.5%	1.1%	
	천원 이하	5	40.0%	40.0%	20.0%	0.0%	0.0%	
	5천원 이하	7	28.6%	42.9%	0.0%	28.6%	0.0%	
	만원 이하	2	0.0%	100.0%	0.0%	0.0%	0.0%	
	10만원 이하	41	36.6%	39.0%	17.1%	7.3%	0.0%	
	50만원 이하	136	21.3%	57.4%	18.4%	2.2%	0.7%	
	100만원 이하	58	32.8%	51.7%	12.1%	3.5%	0.0%	
	100만원 초과	91	30.8%	48.4%	14.3%	5.5%	1.1%	
	무응답	8	12.5%	62.5%	25.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30.1%	49.1%	14.9%	5.2%	0.7%	
	없다	155	18.1%	59.4%	18.1%	3.9%	0.7%	
남한 친척	있다	263	26.2%	52.1%	15.6%	4.9%	1.1%	
	없다	181	25.4%	53.6%	16.6%	4.4%	0.0%	
혼인 여부	미혼	97	30.9%	42.3%	19.6%	7.2%		
	결혼	96	29.2%	57.3%	12.5%	1.0%		
	사별/별거/이혼	23	30.4%	43.5%	21.7%	4.4%		
	무응답	3	66.7%	33.3%	0.0%	0.0%		

경제적 문제(skd10_c)

문)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경제적 문제(%)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24.32% (108)	42.12% (187)	23.87% (106)	8.33 (37)	1.35% (6)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22.7%	41.7%	25.0%	10.6%	0.0%		
	2017	85	23.5%	38.8%	27.1%	9.4%	1.2%		
	2018	116	27.6%	47.4%	19.0%	4.3%	1.7%		
	2019	110	23.6%	39.1%	25.5%	9.1%	2.7%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21.0%	45.2%	23.7%	10.2%	0.0%		
	여자	258	26.7%	39.9%	24.0%	7.0%	2.3%		
연령대	20대	153	25.5%	42.5%	24.2%	7.8%	0.0%		
	30대	100	22.0%	45.0%	25.0%	7.0%	1.0%		
	40대	77	22.1%	39.0%	29.9%	9.1%	0.0%		
	50대	86	26.7%	44.2%	12.8%	10.5%	5.8%		
	60대	15	40.0%	26.7%	33.3%	0.0%	0.0%		
	무응답	4	25.0%	25.0%	25.0%	25.0%	0.0%		
	평양	5	0.0%	20.0%	40.0%	40.0%	0.0%		
북한 거주지	남포	1	0.0%	0.0%	100.0%	0.0%	0.0%		
	개성	3	33.3%	66.7%	0.0%	0.0%	0.0%		
	평안남도	4	25.0%	25.0%	50.0%	0.0%	0.0%		
	평안북도	8	50.0%	37.5%	12.5%	0.0%	0.0%		
	함경남도	20	30.0%	30.0%	20.0%	15.0%	5.0%		
	함경북도	86	22.1%	45.4%	25.6%	7.0%	0.0%		
	자강도	3	66.7%	33.3%	0.0%	0.0%	0.0%		
	양강도	300	23.7%	43.3%	23.0%	8.3%	1.7%		
	황해남도	5	0.0%	60.0%	40.0%	0.0%	0.0%		
	황해북도	5	40.0%	20.0%	40.0%	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3	14.3%	49.2%	23.8%	12.7%	0.0%	
		후보당원	3	66.7%	33.3%	0.0%	0.0%	0.0%	
비당원		373	25.7%	40.8%	24.1%	7.8%	1.6%		
무응답		5	20.0%	60.0%	20.0%	0.0%	0.0%		

		경제적 문제(%)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21.7%	43.4%	21.7%	13.3%	0.0%	
	농민	19	10.5%	57.9%	31.6%	0.0%	0.0%	
	사무원	24	25.0%	25.0%	41.7%	8.3%	0.0%	
	피부양자	1	0.0%	0.0%	0.0%	100.0%	0.0%	
	학생	17	23.5%	58.8%	17.7%	0.0%	0.0%	
	군인	8	12.5%	62.5%	12.5%	12.4%	0.0%	
	가정부인	38	26.3%	34.2%	26.3%	10.5%	2.6%	
	무직 및 기타	26	30.8%	26.9%	30.8%	11.5%	0.0%	
	무응답	2	50.0%	0.0%	5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244	27.1%	38.9%	24.6%	8.2%	1.2%	
	천원 이하	28	21.4%	67.9%	7.1%	3.6%	0.0%	
	5천원 이하	114	15.8%	45.6%	28.1%	8.8%	1.8%	
	만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10만원 이하	18	38.9%	33.3%	16.7%	11.1%	0.0%	
	50만원 이하	20	30.0%	35.0%	25.0%	10.0%	0.0%	
	100만원 이하	4	25.0%	75.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10.0%	40.0%	30.0%	2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22.6%	45.2%	21.5%	9.7%	1.1%	
	천원 이하	5	20.0%	40.0%	40.0%	0.0%	0.0%	
	5천원 이하	7	14.3%	14.3%	28.6%	42.9%	0.0%	
	만원 이하	2	0.0%	50.0%	50.0%	0.0%	0.0%	
	10만원 이하	41	17.1%	39.0%	26.8%	17.1%	0.0%	
	50만원 이하	136	24.3%	42.7%	26.5%	5.2%	1.5%	
	100만원 이하	58	31.0%	43.1%	19.0%	3.5%	3.5%	
	100만원 초과	91	26.4%	40.7%	22.0%	9.9%	1.1%	
	무응답	8	37.5%	37.5%	25.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23.9%	41.2%	24.6%	8.7%	1.7%	
	없다	155	25.3%	43.9%	22.6%	7.7%	0.7%	
남한 친척	있다	263	24.0%	42.6%	22.4%	8.8%	2.3%	
	없다	181	24.9%	41.4%	26.0%	7.7%	0.0%	
혼인 여부	미혼	97	20.6%	40.2%	26.8%	12.4%	0.0%	
	결혼	96	28.1%	37.5%	27.1%	6.3%	1.0%	
	사별/별거/이혼	23	8.7%	52.2%	21.7%	17.4%	0.0%	
	무응답	3	66.7%	33.3%	0.0%	0.0%	0.0%	

인간관계(sk10_d)

문)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인간관계(%)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8.56% (38)	27.25% (121)	45.50% (202)	17.34 (77)	1.35% (6)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7.4%	27.3%	50.0%	15.2%	0.0%	
	2017	85	7.1%	24.7%	47.1%	21.2%	0.0%	
	2018	116	9.5%	25.0%	48.3%	14.7%	2.6%	
	2019	110	10.0%	30.9%	36.4%	20.0%	2.7%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8.6%	29.0%	46.2%	15.6%	0.5%	
	여자	258	8.5%	26.0%	45.0%	18.6%	1.9%	
연령대	20대	153	8.5%	30.1%	46.4%	15.0%	0.0%	
	30대	100	8.0%	24.0%	47.0%	20.0%	1.0%	
	40대	77	5.2%	28.6%	46.8%	19.5%	0.0%	
	50대	86	11.6%	30.2%	36.1%	16.3%	5.8%	
	60대	15	20.0%	13.3%	53.3%	13.3%	0.0%	
	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북한거주지	평양	5	0.0%	0.0%	40.0%	60.0%	0.0%
	남포	1	0.0%	100.0%	0.0%	0.0%	0.0%	
	개성	3	0.0%	100.0%	0.0%	0.0%	0.0%	
	평안남도	4	25.0%	25.0%	25.0%	25.0%	0.0%	
	평안북도	8	0.0%	75.0%	12.5%	12.5%	0.0%	
	함경남도	20	10.0%	10.0%	55.0%	20.0%	5.0%	
	함경북도	86	8.1%	25.6%	48.8%	16.3%	1.2%	
	자강도	3	33.3%	66.7%	0.0%	0.0%	0.0%	
	양강도	300	8.0%	27.3%	46.7%	16.7%	1.3%	
	황해남도	5	0.0%	40.0%	60.0%	0.0%	0.0%	
	황해북도	5	20.0%	0.0%	20.0%	6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당원	당원	63	9.5%	20.6%	47.6%	22.2%	0.0%	
	후보당원	3	0.0%	33.3%	33.3%	0.0%	33.3%	
	비당원	373	8.6%	27.6%	45.6%	16.9%	1.3%	
	무응답	5	0.0%	80.0%	20.0%	0.0%	0.0%	

		인간관계(%)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7.2%	25.3%	48.2%	19.3%		
	농민	19	5.3%	15.8%	73.7%	5.3%		
	사무원	24	4.2%	20.8%	58.3%	16.7%		
	피부양자	1	0.0%	0.0%	0.0%	100.0%		
	학생	17	5.9%	47.1%	35.3%	11.8%		
	군인	8	12.5%	0.0%	50.0%	37.5%		
	가정부인	38	2.6%	26.3%	50.0%	21.1%		
	무직 및 기타	26	15.4%	38.5%	34.6%	11.5%		
	무응답	2	50.0%	0.0%	5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공식 소득	0원	244	9.0%	26.2%	45.5%	18.0%	1.2%	
	천원 이하	28	14.3%	32.1%	39.3%	14.3%	0.0%	
	5천원 이하	114	3.5%	25.4%	50.9%	18.4%	1.8%	
	만원 이하	2	0.0%	0.0%	100.0%	0.0%	0.0%	
	10만원 이하	18	22.2%	33.3%	33.3%	11.1%	0.0%	
	50만원 이하	20	5.0%	35.0%	50.0%	10.0%	0.0%	
	100만원 이하	4	0.0%	25.0%	50.0%	25.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20.0%	40.0%	20.0%	2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5.4%	26.9%	47.3%	19.4%	1.1%
천원 이하		5	0.0%	40.0%	60.0%	0.0%	0.0%	
5천원 이하		7	0.0%	14.3%	57.1%	28.6%	0.0%	
만원 이하		2	0.0%	50.0%	50.0%	0.0%	0.0%	
10만원 이하		41	12.2%	31.7%	39.0%	17.1%	0.0%	
50만원 이하		136	8.8%	21.3%	51.5%	16.2%	2.2%	
100만원 이하		58	12.1%	34.5%	37.9%	13.8%	1.7%	
100만원 초과		91	7.7%	27.5%	44.0%	19.8%	1.1%	
무응답		8	25.0%	50.0%	12.5%	12.5%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9.0%	27.3%	42.6%	19.4%	1.7%	
	없다	155	7.7%	27.1%	51.0%	13.6%	0.7%	
남한 친척	있다	263	8.4%	26.6%	45.6%	17.1%	2.3%	
	없다	181	8.8%	28.2%	45.3%	17.7%	0.0%	
혼인 여부	미혼	97	9.3%	26.8%	50.5%	13.4%		
	결혼	96	7.3%	22.9%	52.1%	17.7%		
	사별/별거/이혼	23	0.0%	34.8%	30.4%	34.8%		
	무응답	3	0.0%	33.3%	66.7%	0.0%		

사회적 편견(sk10_e)

문)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사회적 편견(%)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11.49% (51)	38.29% (170)	38.06% (169)	11.04 (49)	1.13% (5)	0.00% (0)
탈북연도	2016	132	14.4%	34.9%	41.7%	9.1%	0.0%	
	2017	85	7.1%	44.7%	35.3%	12.9%	0.0%	
	2018	116	8.6%	40.5%	37.9%	11.2%	1.7%	
	2019	110	14.6%	34.6%	36.4%	11.8%	2.7%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13.4%	36.6%	38.7%	11.3%	0.0%	
	여자	258	10.1%	39.5%	37.6%	10.9%	1.9%	
연령대	20대	153	14.4%	34.0%	41.2%	10.5%	0.0%	
	30대	100	12.0%	38.0%	36.0%	13.0%	1.0%	
	40대	77	6.5%	40.3%	45.5%	7.8%	0.0%	
	50대	86	11.6%	44.2%	25.6%	14.0%	4.7%	
	60대	15	6.7%	46.7%	46.7%	0.0%	0.0%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0.0%	40.0%	40.0%	20.0%	0.0%
	남포	1	0.0%	0.0%	0.0%	100.0%	0.0%	
	개성	3	66.7%	33.3%	0.0%	0.0%	0.0%	
	평안남도	4	25.0%	50.0%	25.0%	0.0%	0.0%	
	평안북도	8	25.0%	62.5%	12.5%	0.0%	0.0%	
	함경남도	20	5.0%	45.0%	20.0%	25.0%	5.0%	
	함경북도	86	10.5%	44.2%	32.6%	12.8%	0.0%	
	자강도	3	66.7%	0.0%	0.0%	33.3%	0.0%	
	양강도	300	11.0%	36.7%	41.7%	9.3%	1.3%	
	황해남도	5	0.0%	20.0%	60.0%	20.0%	0.0%	
	황해북도	5	20.0%	20.0%	60.0%	0.0%	0.0%	
	강원도	3	0.0%	33.3%	33.3%	33.3%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당원	당원	63	7.9%	38.1%	39.7%	14.3%	0.0%	
	후보당원	3	33.3%	33.3%	0.0%	33.3%	0.0%	
	비당원	373	12.1%	38.1%	38.1%	10.5%	1.3%	
	무응답	5	0.0%	60.0%	40.0%	0.0%	0.0%	

		사회적 편견(%)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10.8%	38.6%	41.0%	9.6%		
	농민	19	5.3%	52.6%	31.6%	10.5%		
	사무원	24	8.3%	41.7%	50.0%	0.0%		
	피부양자	1	0.0%	0.0%	0.0%	100.0%		
	학생	17	0.0%	29.4%	58.8%	11.8%		
	군인	8	12.5%	25.0%	37.5%	25.0%		
	가정부인	38	13.2%	39.5%	34.2%	13.2%		
	무직 및 기타	26	23.1%	38.5%	26.9%	11.5%		
	무응답	2	50.0%	0.0%	50.0%	0.0%		
	응답오류	1	0.0%	0.0%	100.0%	0.0%		
공식소득	0원	244	13.1%	39.3%	40.0%	10.0%	0.8%	
	천원 이하	28	14.3%	42.9%	33.6%	13.1%	0.0%	
	5천원 이하	114	7.0%	38.6%	35.7%	7.1%	1.8%	
	만원 이하	2	50.0%	0.0%	43.0%	9.7%	0.0%	
	10만원 이하	18	11.1%	44.4%	50.0%	0.0%	0.0%	
	50만원 이하	20	10.0%	15.0%	33.3%	11.1%	0.0%	
	100만원 이하	4	0.0%	25.0%	75.0%	5.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0.0%	50.0%	40.0%	10.0%	0.0%	
	비공식소득	0원	93	9.7%	33.3%	44.1%	11.8%	1.1%
	천원 이하	5	40.0%	20.0%	40.0%	0.0%	0.0%	
	5천원 이하	7	0.0%	28.6%	57.1%	14.3%	0.0%	
	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10만원 이하	41	4.9%	39.0%	36.6%	19.5%	0.0%	
	50만원 이하	136	12.5%	34.6%	41.9%	9.6%	1.5%	
	100만원 이하	58	17.2%	39.7%	36.2%	5.2%	1.7%	
	100만원 초과	91	11.0%	49.5%	25.3%	13.2%	1.1%	
	무응답	8	12.5%	37.5%	5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0.0%	
장사경험	있다	289	13.2%	39.5%	33.6%	12.5%	1.4%	
	없다	155	8.4%	36.1%	46.5%	8.4%	0.7%	
남한 친척	있다	263	11.4%	39.9%	35.7%	11.0%	1.9%	
	없다	181	11.6%	35.9%	41.4%	11.1%	0.0%	
혼인 여부	미혼	97	14.4%	33.0%	40.2%	12.4%		
	결혼	96	9.4%	43.8%	38.5%	8.3%		
	사별/별거/이혼	23	8.7%	39.1%	39.1%	13.0%		
	무응답	3	0.0%	33.3%	66.7%	0.0%		

심리적 외로움(sk10_f)

문)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심리적 외로움(%)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444	23.65% (105)	34.68% (154)	23.65% (105)	17.12 (76)	0.90% (4)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30.3%	31.8%	20.5%	17.4%	0.0%	
	2017	85	20.0%	31.8%	29.4%	18.8%	0.0%	
	2018	116	17.2%	41.4%	25.0%	14.7%	1.7%	
	2019	110	25.5%	32.7%	21.8%	18.2%	1.8%	
	2020	1	0.0%	100.0%	0.0%	0.0%	0.0%	
성별	남자	186	25.3%	31.7%	21.5%	21.5%	0.0%	
	여자	258	22.5%	36.8%	25.2%	14.0%	1.6%	
연령대	20대	153	22.9%	39.9%	20.9%	16.3%	0.0%	
	30대	100	32.0%	29.0%	22.0%	16.0%	1.0%	
	40대	77	20.8%	31.2%	26.0%	22.1%	0.0%	
	50대	86	24.4%	34.9%	23.3%	14.0%	3.5%	
	60대	15	6.7%	53.3%	26.7%	13.3%	0.0%	
	무응답	4	0.0%	25.0%	75.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5	20.0%	20.0%	0.0%	60.0%	0.0%
	남포	1	0.0%	100.0%	0.0%	0.0%	0.0%	
	개성	3	66.7%	0.0%	33.3%	0.0%	0.0%	
	평안남도	4	25.0%	0.0%	75.0%	0.0%	0.0%	
	평안북도	8	37.5%	50.0%	0.0%	12.5%	0.0%	
	함경남도	20	15.0%	20.0%	25.0%	35.0%	5.0%	
	함경북도	86	23.3%	40.7%	20.9%	15.1%	0.0%	
	자강도	3	66.7%	0.0%	0.0%	33.3%	0.0%	
	양강도	300	23.7%	34.7%	25.0%	15.7%	1.0%	
	황해남도	5	0.0%	60.0%	0.0%	40.0%	0.0%	
	황해북도	5	20.0%	20.0%	40.0%	20.0%	0.0%	
	강원도	3	33.3%	0.0%	33.3%	33.3%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63	15.9%	34.9%	28.6%	20.6%	0.0%	
	후보당원	3	33.3%	33.3%	0.0%	33.3%	0.0%	
	비당원	373	25.2%	34.1%	23.1%	16.6%	1.1%	
	무응답	5	0.0%	80.0%	20.0%	0.0%	0.0%	

		심리적 외로움(%)						
		사례수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25.3%	32.5%	20.5%	21.7%		
	농민	19	26.3%	36.8%	31.6%	5.3%		
	사무원	24	25.0%	29.2%	25.0%	20.8%		
	피부양자	1	0.0%	0.0%	0.0%	100.0%		
	학생	17	17.7%	29.4%	35.3%	17.7%		
	군인	8	37.5%	0.0%	25.0%	37.5%		
	가정부인	38	18.4%	36.8%	31.6%	13.2%		
	무직 및 기타	26	42.3%	30.8%	15.4%	11.5%		
	무응답	2	50.0%	0.0%	50.0%	0.0%		
	응답오류	1	0.0%	100.0%	0.0%	0.0%		
공식 소득	0원	244	23.4%	37.7%	21.3%	16.8%	0.8%	
	천원 이하	28	28.6%	21.4%	35.7%	14.3%	0.0%	
	5천원 이하	114	21.1%	32.5%	24.6%	20.2%	1.8%	
	만원 이하	2	0.0%	0.0%	100.0%	0.0%	0.0%	
	10만원 이하	18	27.8%	38.9%	16.7%	16.7%	0.0%	
	50만원 이하	20	35.0%	25.0%	30.0%	10.0%	0.0%	
	100만원 이하	4	25.0%	75.0%	0.0%	0.0%	0.0%	
	100만원 초과	2	50.0%	50.0%	0.0%	0.0%	0.0%	
	무응답	10	20.0%	20.0%	40.0%	20.0%	0.0%	
	비공식 소득	0원	93	19.4%	36.6%	24.7%	18.3%	1.1%
	천원 이하	5	40.0%	40.0%	20.0%	0.0%	0.0%	
	5천원 이하	7	14.3%	28.6%	42.9%	14.3%	0.0%	
	만원 이하	2	0.0%	50.0%	50.0%	0.0%	0.0%	
	10만원 이하	41	9.8%	39.0%	26.8%	24.4%	0.0%	
	50만원 이하	136	29.4%	30.2%	23.5%	15.4%	1.5%	
	100만원 이하	58	20.6%	37.9%	24.1%	17.2%	0.0%	
	100만원 초과	91	25.3%	38.5%	18.7%	16.5%	1.1%	
	무응답	8	62.5%	0.0%	25.0%	12.5%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장사 경험	있다	289	24.9%	33.9%	22.5%	17.7%	1.0%	
	없다	155	21.3%	36.1%	25.8%	16.1%	0.7%	
남한 친척	있다	263	18.6%	36.1%	25.1%	18.6%	1.5%	
	없다	181	30.9%	32.6%	21.6%	14.9%	0.0%	
혼인 여부	미혼	97	26.8%	29.9%	24.7%	18.6%		
	결혼	96	25.0%	32.3%	25.0%	17.7%		
	사별/별거/이혼	23	26.1%	39.1%	21.7%	13.0%		
	무응답	3	33.3%	0.0%	33.3%	33.3%		

남한 적응에 지원(skd11_a)

문)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사례수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12	23.08% (72)	30.77% (96)	17.31% (54)	26.28(82)	2.24%(7)	0.32%(1)	
탈북 연도	2017	85	20.0%	31.8%	21.2%	23.5%	3.5%	0.0%	
	2018	116	24.1%	27.6%	19.8%	27.6%	0.9%	0.9%	
	2019	110	24.6%	33.6%	11.8%	26.4%	2.7%	2.7%	
	2020	1	0.0%	0.0%	0.0%	100.0%	0.0%	0.0%	
성별	남자	116	22.4%	32.8%	14.7%	30.2%	0.0%	0.0%	
	여자	196	23.5%	29.6%	18.9%	24.0%	3.6%	0.5%	
연령대	20대	106	24.5%	34.9%	9.4%	31.1%	0.0%	0.0%	
	30대	61	21.3%	24.6%	16.4%	36.1%	1.6%	0.0%	
	40대	50	18.0%	20.0%	34.0%	22.0%	6.0%	0.0%	
	50대	69	30.4%	36.2%	15.9%	11.6%	4.4%	1.5%	
	60대	13	7.7%	30.8%	30.8%	30.8%	0.0%	0.0%	
	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0.0%	
	북한거주지	평양	3	33.3%	0.0%	0.0%	66.7%	0.0%	0.0%
		남포	0						
개성		2	50.0%	50.0%	0.0%	0.0%	0.0%	0.0%	
평안남도		4	0.0%	25.0%	25.0%	50.0%	0.0%	0.0%	
평안북도		7	28.6%	14.3%	14.3%	28.6%	14.3%	0.0%	
함경남도		14	21.4%	21.4%	21.4%	28.6%	7.1%	0.0%	
함경북도		53	17.0%	39.6%	15.1%	28.3%	0.0%	0.0%	
자강도		3	33.3%	33.3%	0.0%	33.3%	0.0%	0.0%	
양강도		216	24.1%	31.0%	17.1%	25.0%	2.3%	0.5%	
황해남도		1	100.0%	0.0%	0.0%	0.0%	0.0%	0.0%	
황해북도		5	40.0%	20.0%	20.0%	20.0%	0.0%	0.0%	
강원도		3	0.0%	0.0%	66.7%	33.3%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당원		당원	39	10.3%	33.3%	23.1%	33.3%	0.0%	0.0%
	후보당원	2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67	24.7%	30.3%	16.9%	25.1%	2.6%	0.4%	
	무응답	4	50.0%	0.0%	0.0%	5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사례수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8	21.4%	32.1%	25.0%	17.9%	3.6%	
	농민	10	20.0%	30.0%	20.0%	30.0%	0.0%	
	사무원	6	0.0%	16.7%	16.7%	66.7%	0.0%	
	피부양자	0						
	학생	12	0.0%	58.3%	16.7%	25.0%	0.0%	
직업	군인	3	33.3%	33.3%	0.0%	33.3%	0.0%	
	가정부인	19	26.3%	26.3%	31.6%	10.5%	5.3%	
	무직 및 기타	9	33.3%	33.3%	0.0%	22.2%	11.1%	
공식소득	0원	182	23.1%	32.4%	18.7%	23.1%	2.8%	0.0%
	천원 이하	20	20.0%	15.0%	10.0%	55.0%	0.0%	0.0%
	5천원 이하	60	20.0%	33.3%	16.7%	30.0%	0.0%	0.0%
	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0.0%
	10만원 이하	16	18.8%	31.3%	18.8%	25.0%	0.0%	6.3%
	50만원 이하	17	35.3%	35.3%	11.8%	17.7%	0.0%	0.0%
	100만원 이하	2	50.0%	0.0%	50.0%	0.0%	0.0%	0.0%
	100만원 초과	1	0.0%	0.0%	0.0%	100.0%	0.0%	0.0%
	무응답	10	20.0%	30.0%	10.0%	20.0%	20.0%	0.0%
	비공식소득	0원	75	21.3%	34.7%	16.0%	25.3%	1.3%
천원 이하		4	75.0%	0.0%	25.0%	0.0%	0.0%	0.0%
5천원 이하		3	33.3%	0.0%	33.3%	33.3%	0.0%	0.0%
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0.0%
10만원 이하		30	16.7%	36.7%	13.3%	30.0%	3.3%	0.0%
50만원 이하		91	27.5%	24.2%	19.8%	26.4%	2.2%	0.0%
100만원 이하		40	22.5%	30.0%	12.5%	35.0%	0.0%	0.0%
100만원 초과		56	19.6%	37.5%	19.6%	23.2%	0.0%	0.0%
무응답		8	25.0%	25.0%	12.5%	12.5%	25.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0.0%	100.0%	0.0%
장사 경험	있다	197	25.9%	27.4%	19.3%	24.4%	3.1%	0.0%
	없다	115	18.3%	36.5%	13.9%	29.6%	0.9%	0.9%
남한 친척	있다	195	25.6%	28.7%	16.9%	26.2%	2.1%	0.5%
	없다	117	18.8%	34.2%	18.0%	26.5%	2.6%	0.0%
혼인 여부	미혼	44	15.9%	31.8%	18.2%	34.1%	0.0%	
	결혼	36	25.0%	27.8%	25.0%	13.9%	8.3%	
	사별/별거/이혼	5	20.0%	60.0%	20.0%	0.0%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기대와 현실(sk12)

문)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기대와 현실(%)						
		사례수	매우 가깝다	다소 가깝다	별로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219	31.96% (70)	47.95% (105)	11.42% (25)	8.68 (19)	0.00% (0)	0.00% (0)
탈북 연도	2016	132	33.3%	47.0%	8.3%	11.4%		
	2017	85	30.6%	49.4%	16.5%	3.5%		
	2018	2	0.0%	50.0%	0.0%	50.0%		
성별	남자	108	27.8%	52.8%	9.3%	10.2%		
	여자	111	36.0%	43.2%	13.5%	7.2%		
연령대	20대	82	40.2%	36.6%	17.1%	6.1%		
	30대	57	24.6%	57.9%	7.0%	10.5%		
	40대	38	18.4%	60.5%	5.3%	15.8%		
	50대	36	44.4%	41.7%	8.3%	5.6%		
	60대	2	0.0%	10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4	25.0%	75.0%	0.0%	0.0%		
	남포	1	0.0%	100.0%	0.0%	0.0%		
	개성	2	0.0%	50.0%	50.0%	0.0%		
	평안남도	2	0.0%	50.0%	0.0%	50.0%		
	평안북도	6	16.7%	83.3%	50.0%	0.0%		
	함경남도	10	20.0%	60.0%	10.0%	10.0%		
	함경북도	53	34.0%	49.1%	9.4%	7.6%		
	자강도	0						
	양강도	136	34.6%	43.4%	13.2%	8.8%		
	황해남도	5	20.0%	60.0%	0.0%	20.0%		
	황해북도	0						
	강원도	0						
	당원	당원	36	27.8%	58.3%	2.8%	11.1%	
후보당원		1	100.0%	0.0%	0.0%	0.0%		
비당원		180	32.2%	46.7%	12.8%	8.3%		
무응답		2	50.0%	0.0%	50.0%	0.0%		

		기대와 현실(%)						
		사례수	매우 가깝다	다소 가깝다	별로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83	33.7%	44.6%	9.6%	12.1%		
	농민	19	36.8%	42.1%	10.5%	10.5%		
	사무원	24	20.8%	54.2%	20.8%	4.2%		
	피부양자	1	100.0%	0.0%	0.0%	0.0%		
	학생	17	11.8%	35.3%	47.1%	5.9%		
	군인	8	12.5%	62.5%	12.5%	12.5%		
	가정부인	38	31.6%	55.3%	2.6%	10.5%		
	무직 및 기타	26	42.3%	57.7%	0.0%	0.0%		
직업	무응답	2	100.0%	0.0%	0.0%	0.0%		
	응답오류	1	100.0%	0.0%	0.0%	0.0%		
공식 소득	0원	107	32.7%	43.9%	13.1%	10.3%		
	천원 이하	16	37.5%	50.0%	12.5%	0.0%		
	5천원 이하	72	26.4%	56.9%	5.6%	11.1%		
	만원 이하	0						
	10만원 이하	11	36.4%	36.4%	27.3%	0.0%		
	50만원 이하	8	25.0%	62.5%	12.5%	0.0%		
	100만원 이하	3	100.0%	0.0%	0.0%	0.0%		
	100만원 초과	1	100.0%	0.0%	0.0%	0.0%		
	무응답	1	0.0%	0.0%	100.0%	0.0%		
비공식 소득	0원	36	27.8%	47.2%	16.7%	8.3%		
	천원 이하	1	100.0%	0.0%	0.0%	0.0%		
	5천원 이하	5	80.0%	20.0%	0.0%	0.0%		
	만원 이하	1	100.0%	0.0%	0.0%	0.0%		
	10만원 이하	25	36.0%	44.0%	12.0%	8.0%		
	50만원 이하	72	30.6%	50.0%	9.7%	9.7%		
	100만원 이하	30	26.7%	50.0%	13.3%	10.0%		
	100만원 초과	48	31.3%	50.0%	10.4%	8.3%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100.0%	0.0%	0.0%		
	정사 경험	있다	145	36.6%	43.5%	11.0%	9.0%	
없다	74	23.0%	56.8%	12.2%	8.1%			
남한 친척	있다	112	34.8%	43.8%	10.7%	10.7%		
	없다	107	29.0%	52.3%	12.2%	6.5%		
혼인 여부	미혼	97	29.9%	44.3%	16.5%	9.3%		
	결혼	96	37.5%	49.0%	6.3%	7.3%		
	사별/별거/이혼	23	21.7%	52.2%	13.0%	13.0%		
	무응답	3	0.0%	100.0%	0.0%	0.0%		

탈북 후회(sk13)

문)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탈북 후회(%)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12	2.24% (7)	16.35% (51)	27.88% (87)	53.21(166)	0.00%(0)	0.32%(1)	
탈북 연도	2017	85	1.2%	17.7%	35.3%	45.9%		0.0%	
	2018	116	4.3%	16.4%	25.0%	54.3%		0.0%	
	2019	110	0.9%	15.5%	25.5%	57.3%		0.9%	
	2020	1	0.0%	0.0%	0.0%	100.0%		0.0%	
성별	남자	116	1.7%	21.6%	24.1%	52.6%		0.0%	
	여자	196	2.6%	13.3%	30.1%	53.6%		0.5%	
연령대	20대	106	2.8%	17.9%	40.6%	38.7%		0.0%	
	30대	61	0.0%	23.0%	29.5%	45.9%		1.6%	
	40대	50	2.0%	10.0%	16.0%	72.0%		0.0%	
	50대	69	2.9%	14.5%	20.3%	62.3%		0.0%	
	60대	13	7.7%	7.7%	0.0%	84.6%		0.0%	
	무응답	4	0.0%	25.0%	75.0%	0.0%		0.0%	
	평양	3	0.0%	0.0%	33.3%	66.7%		0.0%	
북한 거주지	남포	0							
	개성	2	0.0%	0.0%	0.0%	100.0%		0.0%	
	평안남도	4	0.0%	0.0%	25.0%	75.0%		0.0%	
	평안북도	7	0.0%	42.9%	57.1%	0.0%		0.0%	
	함경남도	14	14.3%	7.1%	28.6%	50.0%		0.0%	
	함경북도	53	3.8%	17.0%	26.4%	52.8%		0.0%	
	자강도	3	0.0%	0.0%	0.0%	66.7%		33.3%	
	양강도	216	1.4%	16.2%	29.2%	53.2%		0.0%	
	황해남도	1	0.0%	0.0%	0.0%	100.0%		0.0%	
	황해북도	5	0.0%	40.0%	0.0%	60.0%		0.0%	
	강원도	3	0.0%	33.3%	0.0%	66.7%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당원	당원	39	0.0%	15.4%	18.0%	66.7%		0.0%
		후보당원	2	50.0%	0.0%	0.0%	50.0%		0.0%
비당원		267	2.3%	16.9%	30.0%	50.6%		0.4%	
무응답		4	0.0%	0.0%	0.0%	100.0%		0.0%	

		탈북 후회(%)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8	0.0%	25.0%	35.7%	39.3%		
	농민	10	0.0%	20.0%	20.0%	60.0%		
	사무원	6	0.0%	20.0%	20.0%	33.3%		
	피부양자	0						
	학생	12	0.0%	16.7%	50.0%	33.3%		
	군인	3	0.0%	25.0%	50.0%	25.0%		
	가정부인	19	5.3%	5.3%	31.6%	33.3%		
공식 소득	무직 및 기타	9	0.0%	11.1%	22.2%	66.7%		
	0원	182	2.2%	17.6%	29.7%	50.0%		0.6%
	천원 이하	20	0.0%	10.0%	30.0%	60.0%		0.0%
	5천원 이하	60	3.3%	16.7%	23.3%	56.7%		0.0%
	만원 이하	2	0.0%	0.0%	0.0%	100.0%		0.0%
	10만원 이하	16	6.3%	18.8%	43.8%	31.3%		0.0%
	50만원 이하	17	0.0%	5.9%	23.5%	70.6%		0.0%
	100만원 이하	2	0.0%	0.0%	0.0%	100.0%		0.0%
	100만원 초과	1	0.0%	0.0%	100.0%	0.0%		0.0%
	무응답	10	0.0%	30.0%	0.0%	70.0%		0.0%
비공식 소득	0원	75	4.0%	17.3%	28.0%	50.7%		0.0%
	천원 이하	4	0.0%	50.0%	0.0%	25.0%		25.0%
	5천원 이하	3	0.0%	0.0%	0.0%	100.0%		0.0%
	만원 이하	2	0.0%	0.0%	50.0%	50.0%		0.0%
	10만원 이하	30	0.0%	16.7%	36.7%	46.7%		0.0%
	50만원 이하	91	3.3%	8.8%	25.3%	62.6%		0.0%
	100만원 이하	40	2.5%	25.0%	30.0%	42.5%		0.0%
	100만원 초과	56	0.0%	17.9%	30.4%	51.8%		0.0%
	무응답	8	0.0%	25.0%	12.5%	62.5%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197	1.5%	16.8%	25.9%	55.3%		0.5%
	없다	115	3.5%	15.7%	31.3%	49.6%		0.0%
남한 친척	있다	195	3.1%	13.9%	25.1%	58.0%		0.0%
	없다	117	0.9%	20.5%	32.5%	45.3%		0.9%
혼인 여부	미혼	44	0.0%	20.5%	36.4%	43.2%		
	결혼	36	2.8%	16.7%	33.3%	47.2%		
	사별/별거/이혼	5	0.0%	20.0%	40.0%	40.0%		
	무응답	2	0.0%	0.0%	0.0%	100.0%		

탈북 결심 이유(sk14)

문)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탈북 결심 이유(%)							
		사례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전체		312	30.13% (94)	15.71% (49)	20.19% (63)	17.95 (56)	11.54 (36)	0.00% (0)	4.49% (14)
탈북 연도	2017	85	31.8%	25.9%	12.9%	23.5%	4.7%		1.2%
	2018	116	37.1%	8.6%	19.8%	15.5%	12.9%		6.0%
	2019	110	20.9%	15.5%	26.4%	16.4%	15.5%		5.5%
	2020	1	100.0%	0.0%	0.0%	0.0%	0.0%		0.0%
성별	남자	116	42.2%	10.3%	23.3%	16.4%	5.2%		2.6%
	여자	196	23.0%	18.9%	18.4%	18.9%	15.3%		5.6%
연령대	20대	106	17.9%	16.0%	24.5%	33.0%	7.6%		0.9%
	30대	61	31.2%	23.0%	16.4%	11.5%	11.5%		6.6%
	40대	50	38.0%	14.0%	8.0%	8.0%	24.0%		8.0%
	50대	69	42.0%	13.0%	18.8%	7.3%	13.0%		5.8%
	60대	13	38.5%	0.0%	38.5%	15.4%	0.0%		7.7%
	무응답	4	0.0%	0.0%	50.0%	50.0%	0.0%		0.0%
북한 거주지	평양	3	33.3%	0.0%	0.0%	66.7%	0.0%		0.0%
	남포	0							
	개성	2	50.0%	50.0%	0.0%	0.0%	0.0%		0.0%
	평안남도	4	0.0%	25.0%	25.0%	25.0%	25.0%		0.0%
	평안북도	7	42.9%	0.0%	14.3%	28.6%	0.0%		14.3%
	함경남도	14	50.0%	14.3%	14.3%	7.1%	14.3%		0.0%
	함경북도	53	37.7%	11.3%	13.2%	22.6%	13.2%		1.9%
	자강도	3	0.0%	0.0%	0.0%	33.3%	33.3%		33.3%
	양강도	216	27.3%	17.6%	22.7%	16.2%	11.1%		5.1%
	황해남도	1	0.0%	100.0%	0.0%	0.0%	0.0%		0.0%
	황해북도	5	20.0%	0.0%	40.0%	40.0%	0.0%		0.0%
	강원도	3	33.3%	0.0%	33.3%	0.0%	33.3%		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당원	당원	39	51.3%	10.3%	18.0%	5.1%	7.7%	
후보당원		2	50.0%	0.0%	0.0%	0.0%	50.0%		0.0%
비당원		267	27.0%	16.1%	21.0%	19.9%	12.0%		4.1%
무응답		4	25.0%	50.0%	0.0%	25.0%	0.0%		0.0%

		탈북 결심 이유(%)							
		사례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경제적 어려움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무응답	응답오류, 중복응답
직업	노동자	28	32.1%	25.0%	14.3%	21.4%	7.1%		0.0%
	농민	10	60.0%	10.0%	0.0%	30.0%	0.0%		0.0%
	사무원	6	33.3%	33.3%	0.0%	33.3%	0.0%		0.0%
	피부양자	0							0.0%
	학생	12	33.3%	8.3%	25.0%	33.3%	0.0%		0.0%
	군인	3	0.0%	66.7%	0.0%	33.3%	0.0%		5.3%
	가정부인	19	10.5%	42.1%	21.1%	5.3%	15.8%		0.0%
무직 및 기타	9	44.4%	11.1%	11.1%	33.3%	0.0%		0.0%	
공식 소득	0원	182	26.4%	14.8%	24.2%	18.7%	11.5%		4.4%
	천원 이하	20	55.0%	10.0%	10.0%	15.0%	10.0%		0.0%
	5천원 이하	60	33.3%	10.0%	15.0%	16.7%	18.3%		6.7%
	만원 이하	2	100.0%	0.0%	0.0%	0.0%	0.0%		0.0%
	10만원 이하	16	31.3%	31.3%	12.5%	18.8%	6.3%		0.0%
	50만원 이하	17	23.5%	29.4%	17.7%	29.4%	0.0%		0.0%
	100만원 이하	2	50.0%	50.0%	0.0%	0.0%	0.0%		0.0%
	100만원 초과	1	0.0%	0.0%	100.0%	0.0%	0.0%		0.0%
	무응답	10	30.0%	30.0%	10.0%	10.0%	0.0%		20.0%
	비공식 소득	0원	75	21.3%	14.7%	21.3%	29.3%	10.7%	
천원 이하	4	0.0%	0.0%	50.0%	0.0%	0.0%		50.0%	
5천원 이하	3	66.7%	33.3%	0.0%	0.0%	0.0%		0.0%	
만원 이하	2	0.0%	50.0%	0.0%	0.0%	50.0%		0.0%	
10만원 이하	30	33.3%	20.0%	13.3%	20.0%	10.0%		3.3%	
50만원 이하	91	30.8%	19.8%	19.8%	12.1%	12.1%		5.5%	
100만원 이하	40	25.0%	15.0%	25.0%	17.5%	12.5%		5.0%	
100만원 초과	56	48.2%	3.6%	19.6%	12.5%	14.3%		1.8%	
무응답	8	12.5%	37.5%	12.5%	25.0%	0.0%		12.5%	
응답오류, 중복응답	1	0.0%	0.0%	0.0%	100.0%	0.0%		0.0%	
장사 경험	있다	197	34.5%	14.7%	17.8%	13.2%	13.2%		6.6%
	없다	115	22.6%	17.4%	24.4%	26.1%	8.7%		0.9%
남한 친척	있다	195	28.2%	9.7%	31.3%	13.9%	11.8%		5.1%
	없다	117	33.3%	25.6%	1.7%	24.8%	11.1%		3.4%
혼인 여부	미혼	44	22.7%	22.7%	13.6%	36.4%	4.6%		0.0%
	결혼	36	38.9%	27.8%	16.7%	11.1%	2.8%		2.8%
	사별/별거/이혼	5	60.0%	20.0%	0.0%	0.0%	20.0%		0.0%
무응답	2	0.0%	50.0%	0.0%	0.0%	50.0%		0.0%	

대남 인식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 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v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 4.19 혁명	1	2	3	4
㉡ 5.18 광주항쟁	1	2	3	4
㉢ 88서울올림픽	1	2	3	4
㉣ 2002 월드컵	1	2	3	4
㉤ 세월호 사건	1	2	3	4
㉥ 개성공업지구 운영	1	2	3	4
㉦ 촛불집회	1	2	3	4
㉧ 1997 IMF 외환위기	1	2	3	4
㉨ K-POP (케이팝)	1	2	3	4

1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4-1. (13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하셨습니까?

- ①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
- ②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
- ③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
- ④ 외국에 나갔을 때 접했다.

14-2.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4-3.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호감도가 매우 증가하였다.
- ② 호감도가 약간 증가하였다.
- ③ 호감도에 변화가 없었다.
- ④ 호감도가 약간 감소하였다.
- ⑤ 호감도가 매우 감소하였다.

15.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v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사회복지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 (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8.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부정도 긍정도 아님	약간 부정	매우 부정
㉠ 남한의 대북지원	1	2	3	4	5
㉡ 남한의 대북 경제 투자	1	2	3	4	5
㉢ 개성공업 지구	1	2	3	4	5

북한실태 변화

2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 ② 20%
- ③ 30%
- ④ 40%
- ⑤ 50%
- ⑥ 60%
- ⑦ 70%
- ⑧ 80%
- ⑨ 90% 이상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 ~ 10년
- ③ 10 ~ 15년 ④ 15 ~ 20년
- ⑤ 20 ~ 30년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 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미만 ② 30 ~ 50% ③ 50 ~ 70%
- ④ 70 ~ 90% ⑤ 90% 이상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②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 ③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습니까?

- ① 로동신문
- ② 방송
- ③ 주변사람 (친척, 이웃, 친구 등)
- ④ 강연, 학습
- ⑤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매체 (방송·통신, 삐라 등)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

(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37.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돈벌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귀하는 과거 10년에 비해 북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상승했다
- ② 약간 상승했다
- ③ 그대로다/변화가 없다
- ④ 약간 하락했다
- ⑤ 크게 하락했다

38. 귀하는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 소식을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나와 상관없다고 느꼈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4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 ② 미국
- ③ 러시아
-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4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⑤ 러시아

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v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남한사회 적응실태

44.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5.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6.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 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 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

47.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8.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 느꼈다	다소 어려움 느꼈다	별로 어려움 않았다	전혀 어려움 않았다
㉠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차이	1	2	3	4
㉡ 질병 등 건강의 문제	1	2	3	4
㉢ 취업 등 경제적 문제	1	2	3	4
㉣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1	2	3	4
㉤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1	2	3	4
㉥ 타향살이에서 오는 심리적 외로움	1	2	3	4

49.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정부 외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NGO 등 민간단체의 지원
- ②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
- ③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
- ④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

51. 귀하는 탈북 후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2. 귀하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정치적 탄압
- ② 경제적 어려움
- ③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
- ④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
- ⑤ 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부여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② 남포 ③ 개성
- ④ 평안남도 ⑤ 평안북도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⑧ 자강도 ⑨ 양강도
- ⑩ 황해남도 ⑪ 황해북도 ⑫ 강원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④ 인민학교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사무원
-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⑤ 학생
- ⑥ 군인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월)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_____ 월)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결혼한 적 없다
-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 ③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 ④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Q16.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Q17.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 원)

Q18.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57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발행일 2022. 05.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김병연
저 자 김병로, 김학재, 송원준, 조동준, 최은영, 이정철
조사원 김경민, 김덕우, 노현종, 박형준, 신은영, 이정옥,
이혜선, 오은경, 조용신, 최경희, 최은정, 한승대
연구보조 김민지
주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로 173, 교육협력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화 031-5176-2332~3
팩스 031-624-4751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저자: 김병로, 김학재, 송원준, 조동준, 최은영, 이정철, 김민지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 연구 ; 57)
권말부록: 집계표, 설문지
ISBN 979-11-978812-2-0 (93340) :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